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2025

- 주최: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유엔NGO협의체
 원광대학교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 주관: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조직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  종교연합후원재단  글로벌대학사업단
WONKWANG UNIVERSITY

주최



제6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ICCGC-CoNGO 2025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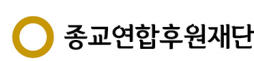
글로벌 사회와 생명평화 리더십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해방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2025년 8월 15일 - 18일

후원



이 책은 2025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와 유엔NGO협의체(CoNGO), 원광대학교에서 공동 주최한 ‘2025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또는 세계시민 평화회의)’에서 참여한 주요 연사들의 에세이를 정리하여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가 발간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2025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전화: (02) 6960 8918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 (우편번호: 06904)

홈페이지: <http://won.or.kr>



2025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2025

차례 | Table of Contents

4	행사개요
5	행사일정
14	컨셉노트

여는마당

21	개회사_ 리베라토 바우티스타(CoNGO 대표, ICCGC-CoNGO 공동의장)
25	환영사_ 박성태(원광대학교 총장)
28	축사_ 정현율(익산시장)
31	축사_ 임현묵(UNESCO APCEIU 원장)
35	축사_ 김새려(UNHCR 한국대표부 대표)

평화메세지

39	종교_ 나상호(원불교 교정원장)
43	학계_ 조르윗 지라짓(스리나카린위롯 대학교 총장)

기조연설

53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
73	캐트린 포에팅(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몬트레이베이 교수)

세션 1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정의, 생명, 그리고 평화

91	게리 롱스(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대표)
101	스기노 교이치(입정교성회 학림 총장)
109	프라파폰 로이시리후르(스리나카린위롯 대학교 부총장)
117	강남순(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세션 2 상처 받은 세상을 위한 치유: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향한 길

127	준세이 테라사와(일본산 모범사 승려)
135	마츠이 캐시(세이센대학교 초빙교수)
144	크리스티 창(사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대만지부 대표)

세션 3 글로벌 거버넌스와 SDG에서의 종교와 영성의 역할

161	존 그레이젤(前 메릴대학교 바하이 평화 석좌교수, 원불교 미국총부)
177	율리우스-케이 카토(캐나다 웨스턴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190	강인근(MAGGA 예수회 연구센터 소장)

세션 4 차세대 역량 강화: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 리더십

203	미셸 니코파르잠(버몬트대학교 박사과정)
212	오타 아키(동경대학교 박사과정)
220	이에무라 나가요시(게이오대학교 석사과정)
227	홍예진(포콜라레 청년회원)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법회

234	설법_ 왕산 성도종(원불교 종법사)
238	영성메세지_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

세션 5 내러티브의 힘 : 이야기를 바꾸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다

250	마크 운노(오레곤대학교 교수)
261	캐롤린 메딘(조지아대학교 교수)
269	송상진(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275	이지수(원광대학교 연구교수)

세계시민 정상회의

280	국제단체_ 정우탁(GPE 한국대표, 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285	종교_ 박도연(유엔 종교NGO위원회 공동의장, 컬럼비아대학교 불교협회 지도사)
291	학계_ 레오 르페뷔르(조지타운대학교 교수, ICCGC-CoNGO 공동의장)
297	FBO_ 로베르토 카탈라노(소피아대학교 교수, 前 로마 포콜라레운동 종교간대화센터 공동 소장)
304	청년_ 나타리 섬 유에 청(프린스턴대학교 박사과정, 前 COP25 홍콩 대표)

차례 | Table of Contents

4	Event Overview
8	Program Agenda
15	Concept Note

Opening Session

19	Opening Remarks: Rev. Dr. Liberato Bautista (President, CoNGO)
23	Welcome Speech: Dr. Sungtae Park (President, Wonkwang University)
26	Congratulatory Address Dr. Heonyul Chung (Mayor, Iksan)
29	Congratulatory Address Dr. Hyunmook Lim (Director, UNESCO APCEIU)
33	Congratulatory Address Ms. Saeryo Kim (Representative, UNHCR Korea)

Peace Message

38	Religious Community_ Rev. Sangho Na (President, Won Buddhism)
40	Academia_ Dr. Cholvit Jearajit (President, Srinakharinwirot University)

Keynote Speech

46	Rev. Msgr. Indunil J. Kodithuwakku K. (Secretary, Dicastery for Interreligious Dialogue)
59	Dr. Kathryn Poethig (Professo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Monterey Bay)

Session 1 “Transformative Leadership for a Just and Peaceful Future”

86	Mr. Garry Jacobs (President and CEO,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95	Rev. Kyoichi Sugino (President, Gakurin Seminary)
106	Dr. Prapaporn Rojsiriruch (Vice President, Srinakharinwirot University)
112	Dr. Namsoon Kang (Professor, Brite Divinity School-Texas Christian University)

Session 2 “Healing a Wounded World: Paths to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122	Rev. Junsei Terasawa (Monk-Peacemaker and Teacher in Eurasia, Order Nipponzan Myōhōji)
130	Dr. Kathy Matsui (Visiting Professor, Seisen University)
140	Dr. Christie Yu-Ling Chang (President, Sakyadhita Taiwan)

Session 3 “The Rol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Global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48	Dr. John Grayzel (Former Holder of the Baha’i Peace Chair-UMD, Won Dharma Center USA)
171	Dr. Julius-Kei Kato (Professor, King’s College-Western University)
183	Rev. Dr. Ingun Kang, S.J. (Director of MAGGA Jesuit Research Center)

Session 4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Youth Leadership for Peace and Sustainability”

198	Ms. Michelle Nikfarjam (Ph.D. Candidate, University of Vermont)
208	Ms. Aki Ota (Ph.D. Student, University of Tokyo)
216	Mr. Nagayoshi Iemura (Postgraduate, Keio University)
223	Ms. Yejin Hong (Member, Focolare Movement)

Interfaith Prayer for Peace

232	Dharma Discourse_ Ven. Wangsan Dojong Seong (Head Dharma Master of Won Buddhism)
235	Spiritual Message_ Rev. Msgr. Indunil J. Kodithuwakku K. (Secretary, Dicastery for Interreligious Dialogue)

Session 5 “The Power of Narrative: Changing Stories, Shaping a Hopeful Future”

242	Rev. Dr. Mark Unno (Professor, University of Oregon)
257	Dr. Carolyn Medine (Professor, University of Georgia)
264	Rev. Dr. Grace Song (Professor, 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273	Dr. Jisue Lee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Global Citizens Summit “Global Citizens First: Leading with Values, Acting for Humanity”

278	IGOs_ Dr. Utak Chung (Former Director, UNESCO APCEIU)
282	Religion_ Rev. Doyeon Park (Co-Chair, Committee of Religious NGOs at the United Nations)
287	Academia_ Rev. Dr. Leo Lefebure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294	FBOs_ Dr. Roberto Catalano (Former Co-Director, Focolare Movement’s Center for Interreligious Dialogue in Rome)
299	Youth_ Ms. Natalie Sum Yue Chung (Ph.D Candidate, Princeton University)

행사개요 | Event Overview

행사명	[국문] 제6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영문] ICCGC-CoNGO 2025 ※ 유엔NGO협의체(CoNGO):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NGO단체들이 중심이 된 협의체로 유엔에 등록된 약 600개 단체를 대표하며, 유엔NGO협의체는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음
포맷	하이브리드
일정	2025년 8월 15일(금) ~ 8월 18일(월)
장소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 온라인 참여자는 Zoom Webinar(ID: 954 223 2571)로 참여할 수 있음
주제	(국문)“글로벌 사회와 생명평화 리더십: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해방” (영문)“Global Society and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 : Healing and Liberation in a Divided World and Wounded Earth”
주최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원광대학교, 유엔NGO협의체(CoNGO)
주관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ICCGC) 조직위원회 원광대학교 워킹그룹(국제교류처, 종교문제연구소, 마음인문학연구소, 도덕교육원 WON-MIND센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종교연합 후원재단, 원음방송, 원불교 신문사, 한울안신문사, 월간원광
언어	한·영 동시통역
참여	300명(해외 100명, 국내 100명, 온라인 100명)
협력단체	유엔종교NGO위원회(CRNGO), 원불교UN사무소,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미국 불교, 기독교연구학회(SBCS),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FBY), 포콜라레 운동, 세계불교여성협회 샤카디타, 국제종교자유연맹(IARF) 일본챕터, 연합감리교 교회와사회부(GBCS), 평화종교인 평화봉사단(만남중창단), (사)평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터키문화원 외

행사일정 | Program Agenda

▷ 8월 15일(금): 1일차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14:00-18:00	등 록	행사등록 접수(14:00-18:00)
	캠 퍼 스 투 어	<p>한방 치유 프로그램(16:00-17:00)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 통합의료혁신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 이정환(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 진료: 이도은(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과장)) <p>원광대학교 박물관 투어(17:00-18: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이혜진(원광대학교 부교수) 도슨트 투어: 이미령(원광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18:00-19:00	휴 식	휴식 및 네트워킹
19:00-20:30	리 셉 션	<p>리셉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영사: 박성태(원광대학교 총장, ICCGC-CoNGO 대회장) 네트워킹 스피치: 최은상(원불교 종교연합후원재단 이사장) 황진수(원광대학교 부총장) 레오 르페뷔르(조지타운대학교 교수, ICCGC-CoNGO 공동의장)

▷ 8월 16일(토): 2일차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06:00-07:00	아침명상	아침명상 (진행) 조성훈(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07:30-08:3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09:30	행사등록	행사등록
09:30-11:10	오프닝 세션	<p>개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닝 영상 평화를 위한 기도 및 묵념: 송상진(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개회사 리베라토 바우티스타(CoNGO 대표, ICCGC-CoNGO 공동의장) 환영사 박성태(원광대학교 총장) 축 사: 정헌율(익산시장) 임현목(UNESCO APCEIU 원장) 김새려(UHCHR 한국대표부 대표) 평화메세지(종교): 나상호(원불교 교정원장) 평화메세지(학계): 조르윗 지라깃(스리나카린위 대학교 총장) 기조연설: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 기조연설2: 캐트린 포에팅(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몬트레이베이 교수) 단체사진
11:10-11:30	휴 식	휴식 및 네트워킹
11:30-12:45	세션 1	<p>[세션 1]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정의, 생명, 그리고 평화 (좌장) 정우탁(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한국대표) (패널) 게리 콕스(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대표) 스기노 교이치(입정교성회 학림 총장) 프라파폰 로이시리후르(스리나카린위 대학교 부총장) 강남순(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p>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12:45-14: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4:00-15:00	세션 2	[세션 2] 상처 받은 세상을 위한 치유: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향한 길 (좌장) 레오 르페뷔르(조지타운대학교 교수, ICCGC-CoNGO 공동의장) (패널) 준세이 테라사와(일본산 요법사 승려) 마츠이 캐시(세이센대학교 초빙교수) 크리스티 창사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대만지부 대표)
15:00-15:15	휴식	휴식 및 네트워킹
15:15-16:15	세션 3	[세션 3] 글로벌 거버넌스와 SDG에서의 종교와 영성의 역할 (좌장) 로베르토 카탈라노(이탈리아 소피아대학교 교수) (패널) 존 그레이젤(메릴대학교 바하이 평화 석좌교수, 원불교 미국총부) 울리우스-케이 카토(캐나다 웨스턴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강인근(MAGGA 예수회 연구센터 소장)
16:15-16:30	휴식	휴식 및 네트워킹
16:30-18:00	세션 4	[세션 4] 차세대 역량 강화: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 리더십 (좌장) 카산 바수(그린호프재단 대표) (패널) 미셸 니크파르잠(버몬트대학교 박사과정) 오타 아키(동경대학교 박사과정) 이에무라 나가요시(게이오대학교 석사과정) 홍예진(포콜라레 청년회원) 김지승(원광대학교 학생)
18:00-19:3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30-21:00	문화교류 프로그램	[문화교류 프로그램] 그룹 A: 저녁 명상과 염불 (연사) 조성훈(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정우석(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 그룹 B: 시네마 토크 <Unification> (연사) 마츠이 캐시(세이센대학교 초빙교수) 그룹 C: 원광대학교 K-Mind 프로그램 (진료) 강형원(원광대학교 통합의료혁신센터장)

▷ 8월 17일(일): 3일차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06:00-07:00	아침명상	아침명상 (진행) 조성훈(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07:30-08:3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10:30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법회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법회 ▪ 식전 공연: Y싱어즈(영산선학대학교 합창단) ▪ 보편 기도: 불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원불교 ▪ 영성메세지: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구 칸카남라게(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 ▪ 설법: 왕산 성도종(원불교 종법사) ▪ 평화를 위한 공연: 종교인 평화봉사단(만남중창단)
10:30-11:30		원불교 소개 및 총부 투어
11:30-13:00	점심	점심식사
13:00-14:15	세션 5	[세션 5] 내러티브의 힘: 이야기를 바꾸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다 (좌장) 쿠니히코 테라사와(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패널) 마크 운노(오레곤대학교 교수) 캐롤린 메딘(조지아대학교 교수) 송상진(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지수(원광대학교 연구교수)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14:15-14:30	휴식	휴식 및 네트워킹
14:30-15:45	워크숍	<p>[생명평화 워크숍]</p> <p>[분과1]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세계평화를 위한 심전계발" (협력 프로그램) (좌장) 최수진(WFBY 부회장, 원광대학교 특임교수) (패널) 박도연(유엔 종교NGO위원회 공동의장) 허석(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조교수) 타파콘 캄네르드시리(탐마삿 대학교 조교수) 조성훈(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p> <p>[분과2] 유엔난민기구, "난민과 평화" (연사) 김새려(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p> <p>[분과3] 종교인 평화봉사단 만남중창단, "종교와 평화" (연사) 김진(개신교, 종교인 평화봉사단) 성진(불교, 종교인 평화봉사단) 하성용(천주교, 종교인 평화봉사단) 박세웅(원불교, 종교인 평화봉사단,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부교수)</p> <p>[분과4] 유엔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 & 종교자유종교연맹 일본 센터 "한일 청년교류 리뷰" (연사) 하시모토 케이치(종교자유연맹 일본지부 상임위원) 김태우(유엔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 사무차장)</p>
15:45-16:00	휴식	휴식 및 네트워킹
16:00-18:00	세계시민 정상회의	<p>[세계시민 정상회의]</p> <p>(좌장) 박광수(원광대학교 명예교수)</p> <p>(패널) [국제단체] 정우탁(GPE 한국대표, 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종교] 박도연(유엔 종교NGO위원회 공동의장, 컬럼비아대학교 불교협회 지도사) [학계] 레오 르페뷔르(조지타운대학교 교수, ICCGC-CoNGO 공동의장) [FBO] 로베르토 카탈라노(소피아대학교 교수, 로마 포콜라레운동 종교간대화센터 공동 소장) [청년] 나타리 섬유에 청(프린스턴대학교 박사과정, 前 COP25 홍콩 대표)</p> <p>(플로어 토론)</p>
18:00-18:30	클로징 세션	<p>클로징 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로징 코멘트: 전병훈(원광대학교 글로컬 부총장) 사영인(세계종교평화회의 공동회장, ICCGC-CONGO 공동의장) 남궁문(원광대학교 교수, ICCGC-CONGO 공동의장) 크리스티나 리(포콜라레운동 종교간대화 자문위원) 준세이 테라사와(일본산 묘법사 승려) 존 그레이젤(메릴대학교 바하이 평화 석좌교수, 원불교 미국총부) 이단논 타이아리(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사무국장) 지라유 깨우파나오(前대국청년불교협회 사무국장)
19:00-20:30	리셉션	<p>리셉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영사: 박성태(원광대학교 총장, ICCGC-CONGO 대회장) 만찬사: 김성곤(평화 이사장, 아시아종교평화회의 명예회장)

▷ 8월 18일(월): 4일차(옵션 프로그램)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06:00-07:00	아침명상	아침명상 (진행) 조성훈(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07:30-08:3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19:00	문화체험 프로그램	<p>문화체험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코스: 익산 4대 종교 종교문화체험(원불교총부, 나바위성당, 두동교회, 심곡사, 미륵사지) B 코스: 전주 한옥마을

행사일정 | Program Agenda

▷ Day 1: 15 August 2025

TIME SCHEDULE	CONTENTS
14:00-18:00	Arrival and Registration
	Global Citizen Camp for Respect for Life (Collaborative Program) This program is in which students from Korea and Japan come together to learn the value of respecting life and to cultivate their capacities as global citizens Orientation: Rev. Dr. Sungjun Yeum (Associate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Dr. Miran Youm (Assistant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Mr. Taewoo Kim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SDG Lecture on Life and Peace: Dr. Shinichi Yamazaki (Associate Professor, J. F. Oberlin University) SDG Group Seminar: Dr. Keunmo Park (Lecture, Seijo University) Climate Action Lecture: Ms. Natalie Sum Yue Chung (Ph.D Candidate, Princeton University)
16:00-17:00	Korean Medicine Healing Experience Program Wonkwang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 Integrative Medicine Innovation Center will offer Korean Medicine Healing treatment Facilitator: Dr. Junghan Lee (Director, Wonkwang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Dr. Doeun Lee (Chief,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Wonkwang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09:30-18:00	Wonkwang University Museum Tour The museum houses approximately 20,000 artifacts from various periods and fields, including archaeology, art, folk life, and shamanism, spanning from Iksan's prehistoric era to modern times Orientation: Dr. Hyejin Lee (Associate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Docent Tour: Ms. Miryeong Lee (Curator, Wonkwang University Museum)
19:00-20:30	Welcome Reception Welcoming Remarks: Dr. Sungtae Park (President, Wonkwang University & President, ICCGC-CoNGO) Networking Speech: Mr. Eunsang Choi (Chairman, Won Buddhism UR Foundation) Dr. Jinsoo Hwang (Vice President, Wonkwang University) Rev. Dr. Leo Lefebure (Co-Chair, ICCGC-CoNGO)

▷ Day 2: 16 August 2025

TIME SCHEDULE	CONTENTS
06:00-07:00	Morning Meditation Won Buddhism Style Meditation: Gentle Sitting & Movement Practice Guided by Rev. Dr. Seonghun Jo (HK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07:30-08:30	Breakfast
09:00-09:30	Registration
09:30-11:10	Opening Session Emcee: Rev. Dr. Grace Song (Professor, 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Moment of Silence Opening Video Opening Remarks: Rev. Dr. Liberato Bautista (President, CoNGO) Welcome Speech: Dr. Sungtae Park (President, Wonkwang University) Congratulatory Address Dr. Heonyul Chung (Mayor, Iksan) Dr. Hyunmook Lim (Director, UNESCO APCEIU) Ms. Saeryo Kim (Representative, UNHCR Korea) Peace Message from Religious Community Rev. Sangho Na (President, Won Buddhism) Peace Message from Academia Dr. Cholvit Jearajit (President, Srinakharinwirot University) Keynote Speech I Rev. Msgr. Indunil J. Kodithuwakku K. (Secretary, Dicastery for Interreligious Dialogue) Keynote Speech II Dr. Kathryn Poethig (Professo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Monterey Bay) Group Photos

TIME SCHEDULE	CONTENTS
11:10-11:30	Networking Coffee & Tea
11:30-12:45	<p>Panel Session 1 Topic: "Transformative Leadership for a Just and Peaceful Future" Exploring ethical leadership models that prioritize justice, compassion, and sustainability in a divided world Moderator: Dr. Utak Chung (Senior Advisor,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Panelists: Mr. Garry Jacobs (President and CEO,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PRev. Kyoichi Sugino (President, Gakurin Seminary) Dr. Prapaporn Rojsiriruch (Vice President, Srinakharinwirot University) Dr. Namsoon Kang (Professor, Brite Divinity School-Texas Christian University)</p>
12:45-14:00	Lunch
14:00-15:00	<p>Panel Session 2 Topic: "Healing a Wounded World: Paths to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Addressing systemic injustices, ecological crises, and strategies for fostering resilience and liberation Moderator: Rev. Dr. Leo Lefebure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Panelists: Rev. Junsei Terasawa (Monk-Peacemaker and Teacher in Eurasia, Order Nipponzan Myōhōji) Dr. Kathy Matsui (Visiting Professor, Seisen University) Dr. Christie Yu-Ling Chang (President, Sakyadhita Taiwan)</p>
15:00-15:15	Networking Coffee & Tea
15:15-16:15	<p>Panel Session 3 Topic: "The Rol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Global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igating how faith-based and civic organizations can contribute to shaping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Moderator: Dr. Roberto Catalano (Professor, Sophia University Institute, Italy) Panelists: Dr. John Grayzel (Former Holder of the Baha'i Peace Chair-UMD, Won Dharma Center USA) Dr. Julius-Kei Kato (Professor, King's College-Western University) Rev. Dr. Ingun Kang, S.J. (Director of MAGGA Jesuit Research Center)</p>
16:15-16:30	Networking Coffee & Tea
16:30-18:00	<p>Panel Session 4 Topic: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Youth Leadership for Peace and Sustainability" Highlighting the role of young leaders in driving transformative change and ensuring a just and sustainable future Moderator: Ms. Kehkashan Basu, M.S.M. (President, Green Hope Foundation) Panelists: Ms. Michelle Nikfarjam (Ph.D. Candidate, University of Vermont) Ms. Aki Ota (Ph.D. Student, University of Tokyo) Mr. Nagayoshi Iemura (Postgraduate, Keio University) Ms. Yejin Hong (Member, Focolare Movement) Ms. Jiseung Kim (Student, Wonkwang University)</p>
18:00-19:30	Dinner
19:30-21:00	<p>Cultural Exchange & Networking A cultural Exchange and Networking program will be offered in the evening. This program may include opportunities to share knowledge and perspective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rcultural dialogue Group A: Evening Meditation and Chanting Rev. Dr. Seonghun Jo (HK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Fr. Samuel Woo-Suk Jeong (CBCK Member, Committee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 Interreligious Dialogue) Group B: Cinema Talks "Unification" (Collaborative Program) Dr. Kathy Matsui (Professor, Visiting Seisen University) Group C: Wonkwang University K-Mind Program M&L (Mindfulness & Loving beingness) Experience Session Dr. Hyungwon Kang (Director, Integrative Medicine Innovation Center, Wonkwang University)</p>

▷ Day 3: 17 August 2025

TIME SCHEDULE	CONTENTS
06:00-07:00	Morning Meditation Won Buddhism Style Meditation: Gentle Sitting & Movement Practice Guided by Rev. Dr. Seonghun Jo (HK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07:30-08:30	Breakfast
09:00-10:30	Interfaith Prayer for Peace A religious gathering that involves people of different faiths to come together in prayer, worship, and reflection on the importance of peace and unity Opening Performance: Y Singers (Youngsan University Choir) Opening Prayer Interfaith Prayer Service Buddhism, Christianity, Hinduism, Islam, Won Buddhism Spiritual Message Rev. Msgr. Indunil J. Kodithuwakku K. (Secretary, Dicastery for Interreligious Dialogue) Dharma Discourse Ven. Wangsan Dojong Seong (Head Dharma Master of Won Buddhism) Peace Performance: Mannam Quartet Closing Prayer
10:30-11:30	Won Buddhism Headquarters Tour
11:30-13:00	Lunch
13:00-14:15	Panel Session 5 Topic: "The Power of Narrative: Changing Stories, Shaping a Hopeful Future" Exploring how storytelling, media, and collective memory can inspire healing, justice, and social transformation Moderator: Dr. Kunihiko Terasawa (Associate Professor, Wartburg College) Panelists: Rev. Dr. Mark Unno (Professor, University of Oregon) Dr. Carolyn Medine (Professor, University of Georgia) PRev. Dr. Grace Song (Professor, 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Dr. Jisue Lee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14:15-14:30	Networking Coffee & Tea
14:30-15:45	Life and Peace Workshop Division 1: "Mind Cultivation for Global Peace" (Collaborative Program) Moderator: Rev. Sujin Choi (Vice President,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Panelists: Rev. Doyeon Park (Co-Chair, Committee of Religious NGOs at the United Nations) Rev. Dr. Seok Heo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Dr. Thapakorn Kamnerdsiri (Assist Professor, Thammasat University) Rev. Dr. Seonghun Jo (HK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Division 2: "Refugees and Peace" Lecture: Ms. Saeryo Kim (Representative, UNHCR Korea) Division 3: "Religion and Peace" Lectures: Rev. Jin Kim (Protestant, National Coalition of Peace Corps.) Ven. Sungjin (Buddhist, National Coalition of Peace Corps.) Fr. Ha Sung-Yong (Catholic, National Coalition of Peace Corps.) Rev. Sewoong Park (Won Buddhist, National Coalition of Peace Corps.) Division 4: "Review of Japan-Korea Youth Exchange" (KOCUN-IDP & IARF Japan Chapter) Rev. Keiichi Hashimoto (Standing Committee Member, IARF Japan Chapter) Mr. Taewoo Kim (Deputy Secretary General, KOCUN-IDP)
15:45-16:00	Networking Coffee & Tea

TIME SCHEDULE	CONTENTS
16:00-18:00	<p>Global Citizens Summit Topic: "Global Citizens First: Leading with Values, Acting for Humanity"</p> <p>This session will provide a reflection on this year's event and explore our shared efforts to foster a global civil society. Panelists will also offer insight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nference Moderator: Dr. Kwangsoo Park (Emeritus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Panelists: [IGOs] Dr. Utak Chung (Former Director, UNESCO APCEIU) [Religion] Rev. Doyeon Park (Co-Chair, Committee of Religious NGOs at the United Nations) [Academia] Rev. Dr. Leo Lefebure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FBOs] Dr. Roberto Catalano (Former Co-Director, Focolare Movement's Center for [FBOs] Interreligious Dialogue in Rome) [Youth] Ms. Natalie Sum Yue Chung (Ph.D Candidate, Princeton University)</p>
18:00-18:30	<p>Closing Session Dr. Byunghun Jeon (Vice President, Wonkwang University) Rev. Youngin Sa (Co-Chair, Religions for Peace & Co-Chair, ICCGC-CoNGO) Dr. Moon Namgung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 Co-Chair, ICCGC-CoNGO) Ms. Christina Lee (Inter-religious Dialogue Advisor, Focolare Movement) Rev. Junsei Terasawa (Monk-Peacemaker and Teacher in Eurasia, Order Nipponzan Myōhōji) Dr. John Grayzel (Former Holder of the Baha'i Peace Chair-UMD, Won Dharma Center USA) Mr. Idanont Thaiarry (Secretary General,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Mr. Jirayu Kaewphanao (Secretary General, Former Young Buddhist Association of Thailand)</p>
19:00-20:30	<p>Reception Welcoming Remarks: Dr. Sungtae Park (President, Wonkwang University & President, ICCGC-CoNGO)) Banquet Speech: Dr. Sunggon Kim (Chairman, Corps. PEACE & Honorary President, ACRP)</p>

▷ Day 4: 18 August 2025

TIME SCHEDULE	CONTENTS
06:00-07:00	<p>Morning Meditation Won Buddhism Style Meditation: Gentle Sitting & Movement Practice Guided by Rev. Dr. Seonghun Jo (HK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p>
07:30-08:30	<p>Breakfast</p>
09:00-19:00	<p>Cultural Tour Program A full-day optional cultural tour offering participants the chance to explore local heritage and traditions - A Course: Historical and Sacred Sites Tour in Iksan - B Course: Hanok Village Tour in Jeonju (Hanok: Korean Traditional House during the Chosun Dynasty)</p>

컨셉노트

Concept Note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2025 ICCGC-CoNGO 글로벌 컨퍼런스는 2025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의 지도자들, 신앙 기반 단체, 학자, 시민사회 활동가,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긴급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평화, 연대, 지속가능성에 뿌리를 둔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분열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전 세계적인 연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갈등, 경제적 불평등, 생태적 위기, 이념적 양극화는 인류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치유, 정의, 그리고 집단적 실천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연대와 윤리적 리더십,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동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존재의 존엄성과 지구의 안녕을 지키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치유와 온전함을 위한 부름

인류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분열을 해소하려면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 종교 간 협력, 공동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온전함을 회복하는 과정은 공동체 간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며,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날의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생명평화 리더십(Leadership for Life and Peace)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동력입니다. 이 리더십은 연민, 정의, 포용, 생태적 책임이라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권력이나 지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용기와 깊은 경청, 집단적 실천을 요구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 ICCGC-CoNGO 글로벌 컨퍼런스는 이러한 리더십을 함양하는 장이 되어, 참가자들이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에서 치유, 해방,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One Heart, One Mind - A World of Grace

The 2025 ICCGC-CONGO Global Conference, scheduled for August 15-18, 2025, at Wonkwang University, Iksan, South Korea, will convene global leaders, faith-based organizations, scholars, civil society actors, and policymakers to address urgent global challenges and envision a future rooted in peace, solidarity, and sustainability.

In an era marked by deep divisions—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the call for global solidarity has never been more urgent. Conflicts, economic inequalities, ecological crises, and ideological polarization threaten the very fabric of our shared humanity. At the same time, we witness a growing movement for healing, justice, and collective action. This conference will serve as a dynamic platform to explore pathways for unity, ethical leadership, and sustainable solutions that uphold the dignity of all beings and the well-being of our planet.

A Call for Healing and Wholeness

Humanity stands at a crossroads. The choices we make today will shape the future for generations to come. Bridging divides—whether political, cultural, economic, or environmental—demands not only dialogue but also transformative leadership, interfaith collaboration, and shared responsibility. The process of nurturing wholeness involves deepening connections between communities, addressing historical wounds, and restoring harmony in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In the face of today's global crisis,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 is essential for meaningful transformation. Rooted in compassion, justice, inclusion, and ecological responsibility, this leadership transcends titles and power. It calls for moral courage, deep listening, and collective action to build a world where all life can flourish. The 2025 ICCGC-CONGO Global Conference will cultivate this kind of leadership, equipping participants to be agents of healing, liberation, and systemic change in a divided world and wounded Earth.

Key Focus Areas

The conference will feature keynote speeches, panel discussions, and workshops, centering on the following themes:

- Ethical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for Peace—Examining leadership models that prioritize justice, compassion, and sustainability.
- Interfaith and Intercultural Dialogue—Strengthening collaboration across faith traditions and cultural perspectives to address shared challenges.
- Environmental Stewardship and Sustainability—Promoting responsible policies and practices to protect the planet and future generations.

- Healing and Liberation-Addressing systemic injustices and fostering resilience in marginalized communities.
- Empowering Youth and Future Generations-Highlighting the role of young leaders in shaping a just and sustainable world.

Bridging Local and Global Efforts

The 2025 ICCGC-CONGO Conference builds upon the success of previous gatherings in New York (2024) and Seoul (2023), continuing the commitment to fostering interfaith and civil society engagement for a more just and peaceful world.

Bringing the conference to Iksan, Korea, highlights the critical role of multilateral partnerships and inclusive governance in shaping a sustainable and harmonious global future.

A Collective Vision for the Future

We invite faith leaders, scholars, activists, policymakers, and global citizens to join this critical conversation. By fostering bridges of understanding and nurturing wholeness, we can work together toward a future where peace, justice, and sustainability are not just aspirations but tangible realities. Together, we can transform divisions into solidarity, despair into hope, and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for collective healing and renewal.

오픈링 Opening

Opening Remarks

Rev. Dr. Liberato Bautista
President, CoNGO

It's great to see you on screen.

You were asking—I'm joining you from New Jersey, which I call home for now.

Excellency, their Eminences, Generables, esteemed religious co-chairs of the fund, distinguished government and civic leaders, panelists, civil society colleagues, friends, ladies and gentlemen—good morning.

Here, it's evening my time.

I'm honored to deliver these remarks.

I wish I could join you in person like in past conferences.

I miss our Korean hosts and colleagues worldwide—so many I've had the pleasure of meeting, hearing, and exchanging ideas with, forming lasting friendships.

Please accept a warm virtual handshake and a friendship with love as we come together to celebrate our special bond.

As we gather today—onsite at the physical campus of Wonkwang University and online—I can truly feel the energy from our previous collaborative conference held in New York just before the 23rd United Nations Summit of the Future.

Once again, we are coming together with warm hearts under the supportive umbrella of the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and the CoNGO, the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I'm pleased to see how, year after year, we have increased our collaborative co-hosts, co-organizers, partners, sponsors, and participants from around the world.

Cooperation and dialogue are essential and interconnected—especially in an era of increasing fragmentation.

We are at a critical time.

The fabric of the global community is being put to the test.

The global consensus declaration that came out of our conference in New York last year reminds us of a profound truth.

Our world is facing increasingly interconnected and complex challenges—from climate change and pandemics to economic instability, heightened wars, geopolitical tensions, rising nationalism, and unilateral actions that weaken global governance and hinder collective efforts.

Ignoring this is not an option.

We must confront these fracturing trends, geopolitical divisions, and economic hardships that create fragmentation.

This moment demands our effort to rebuild a trusted and inclusive model.

As highlighted in the “Human Summit of the Future”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Putting the Future Back Together” and its annex—these breaches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ree movement, declining trust in democratic systems, and increasing inequality mark this era.

In such an environment, multilateral alliances and shared legal frameworks are strained.

Nations adopt inward-facing policies and prioritize their own borders.

Such severe challenges weaken cooperative structures, erode respectful dialogue, and complicate consensus in times that demand collective multilateral effort.

Through dialogue, cooperation, and shared responsibility, we can create synergies that transcend borders and make us stronger and more resilient.

Our future depends on strengthening and advancing multilateralism.

“Interreligious multilateralism,” if I may call it that, is a vital part and co-constitution of this broader framework.

Reflecting on historic injustices such as enslavement, colonialism, racism, and sexism—which continue to impact us today—these issues require urgent and intentional examination.

Guided by compassion, justice, and respect—and with awareness of how we are all connected in confronting these injustices—faith and fellowship can concretely build bridges and promote understanding.

Our continuing conferences, instructive and associative as they are, clearly outline what we must focus on and accomplish as a community of practice.

We are called to ensure that this conference serves as a dynamic platform to explore practical unity for ethical leadership and sustainable solutions—to uphold the dignity of all beings and the well-being of our planet.

Let us join, as Jesus called us to do, in a growing movement of healing and justice through collective action and global solidarity.

Let us unite our efforts to develop transnational consciousness, enabling friendships across borders, organizing, and creating global citizens who can lead systemic change in a divided world—a world that is so complicated yet so full of potential.

When we look at the world today, fear has become widespread, overshadowing the shrinking supply of hope.

But no, we cannot let this surge of fear grow.

Nor can we allow the shortage of hope to worsen.

With renewed purpose and resolve, let us create a future where hope triumphs over fear, cooperation replaces division, and humanity steers its destiny on this precious planet.

Much needs to be done.

May this conference help us move forward together.

Have a great day, and thank you for your time.

개회사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CoNGO 대표, ICCGC-CoNGO 공동의장

화면을 통해서나마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저는 지금 제가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이곳 뉴저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공동의장님들,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여러분, 패널리스트와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신 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지난 회의들처럼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한국의 호스트분들과 전 세계의 동료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그간 많은 분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소중한 우정을 쌓았던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특별한 유대를 기념하며 여러분께 사랑을 담아 따뜻한 가상의 악수를 건넵니다.

오늘 원광대학교 교정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모인 여러분을 뵙고 있으니, 지난번 제23차 UN 미래정상회의 직전 뉴욕에서 열렸던 협력 컨퍼런스의 뜨거운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시민을 위한 종교 간 연합 회의(ICCGC)'와 UN 협의 지위 비정부기구 협의체인 'CoNGO'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 따뜻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공동 주최자, 파트너, 후원자, 그리고 참가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협력과 대화는 필수적이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편화가 심화되는 이 시대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근간이 엄중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뉴욕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세계 시민 합의 선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심오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세계는 기후 변화와 팬데믹, 경제적 불안정은 물론, 전쟁의 격화와 지정학적 긴장, 민족주의의 고조, 그리고 국제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고 공동의 노력을 저해하는 일방주의적 행태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복잡해지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균열을 야기하는 이러한 추세와 지정학적 분열, 그리고 파편화를 초래하는 경제적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모델을 재건하려는 의지입니다.

'인도적 미래 정상회의'와 그 부속 문서인 '미래의 재구성(Putting the Future Back Together)' 및 부록에서 강조되

있듯이,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 저하, 그리고 심화되는 불평등은 이 시대를 규정하는 뼈아픈 특징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자간 동맹과 공유된 법적 체계는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은 내향적인 정책을 채택하며 자국의 국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도전은 협력 구조를 약화시키고 존중받는 대화를 훼손하며, 집단적인 다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화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통해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욱 강인하며 회복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자주의를 얼마나 강화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감히 "종교 간 다자주의"라 부르고 싶은 이 개념은, 이러한 광범위한 틀 안에서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며 공동의 구성 요소입니다.

노예제, 식민주의, 인종차별, 성차별과 같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불의에 대해, 우리는 시급하고도 의도적인 성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비와 정의, 존중을 나침반 삼아, 그리고 이러한 불의에 맞서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신앙과 연대는 구체적인 가교를 놓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 연대의 장이 되는 우리의 컨퍼런스는 실천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번 회의가 윤리적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해법을 위한 실질적 단결을 모색하는 역동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존엄과 지구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집단적 행동과 글로벌 연대를 통해 치유와 정의를 향한 거대한 물결에 동참합시다. 초국가적 의식을 함양하고 국경을 넘는 우정을 쌓으며, 이토록 복잡하지만 잠재력으로 가득 찬 분열된 세계에서 체계적 변화를 이끌어갈 세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하나로 모읍시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만연하여 희망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 두려움의 파도가 더 커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희망의 결핍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의를 다져, 희망이 두려움을 이기고 협력이 분열을 대체하며, 인류가 이 소중한 지구에서 스스로 운명의 키를 잡고 나아가는 미래를 함께 만듭시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가 함께 전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Welcome Speech

Dr. Sungtae Park

President, Wonkwang University

Good morning.

I am Seong-Tae Park, President of Wonkwang University.

We are honored to convene the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and General Citizens (ICCGC) here at Wonkwang Universi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welcome to our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joined us from across the globe for this significant occasion.

Today, humanity faces deep-seated divisions and wounds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social inequality, and long-standing conflicts between religions and cultures. In this era, Global Leadership—rooted in the universal values of life and peace—has become an essential mission to resolve these challenges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our global community.

Since its foundation in 1946, Wonkwang University has nurtured talented leaders who cultivate both wisdom and virtue, practicing moral righteousness based on the spirit of Won Buddhism. Furthermore, having been selected as a 'Glocal University' in 2024 with the vision of becoming a 'Global Hub for Life Industries,' we are now accelerating our efforts to foster global talent and realize our mission as a 'Life-Nurturing University'.

Today, humanity faces deep-seated divisions and wounds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social inequality, and long-standing conflicts between religions and cultures. In this era, Global Leadership—rooted in the universal values of life and peace—has become an essential mission to resolve these challenges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our global community.

Since its foundation in 1946, Wonkwang University has nurtured talented leaders who cultivate both wisdom and virtue, practicing moral righteousness based on the spirit of Won Buddhism. Furthermore, having been selected as a 'Glocal University' in 2024 with the vision of becoming a 'Global Hub for Life Industries,' we are now accelerating our efforts to foster global talent and realize our mission as a 'Life-Nurturing University'.

The future vision of Wonkwang University, rooted in Won Buddhism's reverence for life and our founding spirit, perfectly aligns with the theme of the 6th ICCGC: 'Healing and Liberation for a Divided World and a Wounded Earth.'

I hope that the wisdom and devotion of everyone gathered here today will add profound depth to our collective journey toward life, peace, healing, and liberation. May this gathering serve as a precious foundation for our shared practice of these universal values.

Once again, I welcome each of you to the 6th ICCGC. I pray for your inner peace during your stay and for your safe travels on your journey home.

Thank you very much.

개회식 | Opening Session

환영사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제6차 종교연합세계시민회의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계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종교와 문화 간의 뿌리 깊은 갈등 속에서 분열과 상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십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해결과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래 원불교 정신에 바탕하여 지(知)와 덕(德)을 겸수하고 도의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비전으로 글로벌대학에 선정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생명보듬대학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과 개교 정신이 결부된 원광대학교의 미래상은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제6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주제와도 부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분들의 지혜와 정성이, 생명과 평화, 치유와 해방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에 깊이를 더하며, 그 실천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6차 종교연합세계시민회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하며, 머무시는 동안의 평안과 오가시는 길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Address

Dr. Heonyul Chung
Mayor, Iksan

Esteemed religious leaders, and fellow peace-lovers from around the world! It i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all. I am Heon-yul Chung, the Mayor of Iksan.

I am deeply honored to join such a distinguished group of leaders at the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and General Citizens (ICCGC).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traveled from afar with a shared yearning for global peace.

If we were to name the foremost value that humanity must pursue, it would undoubtedly be 'Peace.' While our society has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and material wealth, 'Peace' remains the very bedrock of this prosperity and the vital engine that allows nations and communities to coexist in harmony.

However, as history reminds us, the peace of humanity has been constantly threatened by conflicts and inequalities arising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the environment.

As we all know, looking back at human history, conflicts and inequalities in various fields—politics, economy, and the environment—have constantly threatened peace. I believe all of you gathered here share a deep concern regarding the disputes and confrontations that are currently causing great controversy both at home and abroad

In other words, cooperation, solidarity, and ethical leadership are more vital than ever. It is now urgent to find sustainable solutions to prevent this unstable reality from disrupting the daily lives of our citizens or causing adverse effects between nations

In this regard, this conference—themed 'Global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is incredibly timely. I expect it to serve as a precious starting point for finding a path of mutual prosperity to heal our global crises

This gathering is truly meaningful as it brings together global citizens from diverse traditions, cultures, and faiths. Just as true peace is found only when we acknowledge and respect our differences, I hope this

forum becomes a vibrant space for communication and unity.

In fact, Iksan is a truly special city where four major religions—Buddhism, Protestantism, Catholicism, and Won Buddhism—have peacefully coexisted for a very long time.

Through this conference, Iksan City will listen closely to each of your voices, reflecting deeply on the profound importance of peace. We are fully committed to walking alongside you as we all strive to be reborn as true global citizens

Once again,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organizers who have made this meaningful event possible. May the Grace and Peace of God, the Compassion of the Buddha, the Truth and Love of Won Buddhism, and the Bless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you always.

Thank you very much.

축사

정헌율
익산시장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오늘 사회 각 계층에 계신 분들과 「2025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류가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꼽는다면, 그건 다름 아닌 “평화”일 것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숭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번영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평화”이며 국가와 공동체가 서로 공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불평등이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해 왔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도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갈등 및 대립에 대해 잘 알고 또 많이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즉,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연대, 윤리적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으로서 이러한 불안정한 현실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간의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사회와 생명평화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으며, 전 지구적 위기를 봉합할 상생의 길을 찾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 신앙을 가진 세계 시민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듯이, 각자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우리 공동체를 위한 더 큰 생명평화의 미래를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해 온 특별한 도시입니다.

우리시도 이번 회의를 통해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모두가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거듭나는 길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 부처님의 자비, 원불교의 진리와 사랑,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Address

Dr. Hyunmook Lim
Director, UNESCO APCEIU

I am honored to join you at the 6th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First, let me convey my congratulations to the ICCGC Committee, organizers, and partners on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the conference.

APCEIU has been privileged to be a partner for the ICCGC over the years, and we are delighted to see the conference continuing this year and drawing increasing attention not just from faith communities but also from other stakeholders.

Several days ago, the US Trade Representative declared a new global economic order is emerging and it is the Trump Round replacing the WTO system. He criticized the existing trade system for sacrificing US industrial workers and their communities, and boasted that the Trump Round is already making astounding results to rebalance the US trade deficit and strengthen its industrial base.

People may have different views on these arguments, but I think there is one point that we can all agree on. The existing global economic order has indeed inflicted damage on certain industries and workers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over the last three decades. And the existing order has failed to address these damaged industries, workers, and communities, which has led to widespread frustration.

This widespread frustration has become a fertile ground for far-right extremism propagating aggressive nationalism, authoritarian rule, and hatred against immigrants and other minority groups.

Sadly, global citizenship and democratic citizenship are threatened and encroached by suspicion, distrust, and hatred that are fueled by extremist propaganda. But we know very well that democratic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are fundamental for our living together not only with other humans but also with other living beings.

What will happen if the current trend of diminishing global citizenship and democratic citizenship continues?

History teaches us that when global cooperation and democratic dialogue give way to aggressive nationalism and violent autocracy, we will very likely fall into the scourge of merciless brutality and dreadful destruction.

If we are not to be entrapped in this tragedy again, we must protect and strengthen our democratic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Everyone must do something in this regard, but faith communities have a special role as they exert a profound influence on people's values and attitudes.

So today's conference is critical. It is my hope that the conference will help us all share the meaning of global citizenship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inspire us all to take courage and further strengthen our efforts.

Congratulations again and best wishes for the conference.

개회식 I | Opening Session

축사

임현묵

UNESCO APCEIU 원장

제6차 종교연합세계시민회의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먼저,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ICCGC 위원회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모든 파트너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지난 수년간 ICCGC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해 온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회의가 개최되어, 종교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쁩니다.

며칠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라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등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기존 무역 체제가 미국의 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희생시켰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질서가 이미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명확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기존의 세계 경제 질서가 여러 국가의 특정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기존 질서는 이들의 고통과 공동체의 붕괴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고, 이는 결국 광범위한 불만과 소외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극우 극단주의가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퍼뜨리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세계 시민의식과 민주적 시민의식은 극단주의 선동이 부추기는 의심과 불신, 그리고 증오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적 시민의식과 세계 시민의식이야말로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민의식이 위축되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국제적 협력과 민주적 대화가 공격적 민족주의와 폭력적인 독재에 자리를 내줄 때, 우리는 무자비한 잔혹행위와 처참한 파괴라는 참화에 다시금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극의 굴레에 다시 갇히지 않으려면, 민주적·세계적 시민의식을 수호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모

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해야 하지만, 특히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현 상황에서 시민의식의 참된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Address

Mr. Saeyo Kim

Representative, UNHCR Korea

Distinguished religious leaders, and all those gathered here for this meaningful occasion,

I would like to begin by warmly congratulating you on the opening of the 2025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organized in conjunction with the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held under the theme “Global Society and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

The theme poses a profound question to all of us living in this era.

Today, we find ourselves in an increasingly divided world, facing the danger of becoming indifferent to one another’s suffering and numb to the pain of our planet.

It is precisely for this reason that the significance of this Conference is even greater. The very sight of people of different faiths and traditions gathering to speak of shared responsibility and the value of solidarity is, in itself, the first step toward healing and liberation.

For decades, UNHCR has been working to protect refugees and other forcibly displaced people, and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healing and liberation are not abstract ideals.

For those who have lost their homes, the most urgent need is not merely survival, but the restoration of dignity – the process of healing and the chance to live freely again. Throughout that journey, religion has always played an essential role.

Today, over 122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rced to flee their homes due to war, persecution, and the climate crisis. In the face of such staggering numbers, words may feel small – but the role of the faith community becomes all the clearer.

Since 2022, UNHCR has been engaging with Korea’s religious communities in a shared journey to explore the value of “living together.” As a result, in 2023, at the Global Refugee Forum in Geneva, eight major relig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tood together to make a joint pledge. This “Living Together” pledge was the first among more than three thousand pledges worldwide to be made jointly by multiple faiths

from a single country — a powerful declaration of solidarity.

Since then, these commitments have continued in tangible ways, including the Religious Youth Peace School, in which young faith leaders travel to refugee camps to learn directly from the experiences of displaced communities.

Through our journey with the faith community, what has resonated with us most is the realization that love can be spoken in many languages, yet hold the same meaning.

Though the expressions of faith may differ, the spirit of solidarity toward our neighbors does not change. Watching different teachings come together in a shared sense of responsibility has reaffirmed for us that religion remains a living language that makes coexistence possible in our time.

Refugees are not merely people in need of protection — they are our neighbors, with whom we must learn to live together. In answering the question of how we will coexist with them, the voice of the faith community remains profound and powerful.

UNHCR will continue to work alongside religious leaders to bring about small but meaningful changes. I sincerely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become a true space of healing and liberation — a place where we embrace one another's wounds and envision a better future together.

Once again, I congratulate you on the successful convening of the 2025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and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all who have worked to make this gathering possible.

Thank you.

개회식 | Opening Session

축사

김재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2025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해방’이라는 주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갈라진 세계 속에서, 서로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지구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이 회의가 가진 의미는 더욱 큼니다. 신념과 전통이 다른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 장면 자체가 바로 치유와 해방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수십 년간, 난민 포함 강제실향민을 보호하는 일을 해오며 ‘치유’와 ‘해방’이란 말이 결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님을 절감해왔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 즉, 치유받고 다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는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1억 2천만 명 이상이 전쟁과 박해, 기후위기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 앞에서는 어떤 말도 작아지지만, 종교계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집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22년 부터 대한민국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더불어 살아가기’의 가치를 찾는 여정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 2023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대한민국 8개 종교가 하나 되어 공동서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종교계의 ‘더불어 살아가기’ 공동서약은 전 세계 수천 건의 서약 중 최초로 한 국가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한 목소리로 낸 연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청년 종교인들이 난민촌을 직접 찾아가 배우는 ‘종교청년 평화학교’로까지 그 실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이 여정 속에서 저희가 느낀 가장 큰 울림은, 다른 언어로도 같은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신앙의 표현은 달라도, 이웃을 향한 연대의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가르침이 하나의 이해로 모이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종교가 여전히 이 시대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언어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은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웃입니다. 그 이웃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묻는 자리에서 종교계의 메시지는 여전히 깊고 강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함께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진정한 치유와 해방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25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메세지

**Peace Message from
Religious Community**

Peace Message from Religious Community

Rev. Sangho Na

President, Won Buddhism

Na Sang-ho, Director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Won Buddhism Representative, 2025 ICCGC-CoNGO Global Conference

To our distinguished world leaders, faith communities, scholars, civil society activists, and all those who yearn for peace: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and a heartfelt welcome to you all.

We are here today, amidst a world torn by discord, to join our hearts in a sacred quest for healing and peace.

At the heart of Won Buddhism lies the truth of Il-Won-Sang, the Sacred Circle, which teaches us that all life flows from a single, divine source. This sacred belief calls us to look beyond our differences, to honor the light within each other, and to walk together on the path of shared existence.

Our time poses a critical challenge to each of us:

Shall we opt for confrontation, or shall we embrace coexistence?

Shall we stay in the shadows of silence, or shall we stand firm for justice and the sanctity of life?

In our tradition, the word for Peace signifies a state that is flat, level, and mild. It represents an existence where there are no jagged edges or bias—only a smooth and compassionate equilibrium. This ideal of an equal world was named 'Jeonban-segye' by the Great Master Sotaesan, representing a realm of universal harmony and equality.

In Korean culture, the essence of peace is found in our humble daily objects. A traditional tray serves as a foundation of equality, supporting all without bias. Similarly, the Bojagi—the Korean wrapping cloth—symbolizes ultimate inclusion, accommodating any form or size within its folds.

It is my firm belief that the ICCGC will embody the spirit of the tray and the Bojagi, playing a vital role in expanding the foundations of peace by fostering equilibrium and inclusive harmony.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Global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 brings us both a profoun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 renewed sense of hope.

Let us rise as leaders committed to mercy, integrity, and stewardship of our planet. May this forum today be a catalyst for healing our broken world and a bridge that unifies a fragmented human family.

Together with all of you, Won Buddhism stands committed to the path of life and peace.

평화 메시지(종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존경하는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신앙 공동체, 학자, 시민사회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세계 속에서, 치유와 화합을 위한 여정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불교는 “일원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생명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존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와 생명의 편에 설 것인가?

‘평화’라는 한자는 ‘평평하고 온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고 따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평등한 세상을 ‘전반세계’라 부르셨습니다.

한국의 생활문화 속에는 평화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쟁반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받쳐주며,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탱합니다. 보자기는 그 모양이 어떠한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일구어가는 ICCGC가 바로 이 쟁반과 보자기처럼,

균형과 조화를 통해 평화의 본질을 확산해가는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책임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비와 정의, 생태적 책임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처 입은 지구를 치유하고, 분열된 인류를 하나로 잇는 플랫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원불교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겠습니다.

Peace Message from Religious Community

Dr. Cholvit Jearajit

President, Srinakharinwirot University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President for inviting my team and me to be here.

The topic of this conference, Global Society: Allegedly for Life and Peace, Healings and Laborers in the Woe and Wounded Earth, is deeply meaningful.

Actually, I have about ten minutes for my speech.

In that short time, I will share some thoughts on leadership and life based on my experience at my university, where I serve as president.

It is a profound honor to be here, to explore together how we can serve our society through leadership that begins with understanding life.

A true leader does not begin with policies or strategies.

Leadership begins with understanding life itself.

This is extremely important at my university.

Before you lead others, you must listen to their lives.

Leadership means understanding what people truly need — balancing between work and family, and striving for personal well-being.

Leaders must take time to nurture friendships and communities.

When we live a balanced life, we inspire future generations to live with harmony and purpose.

Leadership chooses peace over division in a divided world.

Leadership is tested not in moments of agreement, but in times of conflict.

Peace is not just the absence of war.

It is a daily choice.

It is the decision to see each other as human before seeing each other as different.

At my university, where I am president, we teach that miscommunication leads to war.

Dialogue builds peace.

We have conversations together.

When we refuse to make enemies and instead seek understanding, we practice relief that heals.

Even in moments of miscommunication, choosing connection over separation is where peace begins.

Leadership requires positivity and humility.

Every leader carries the stories of their pain, struggle, and hopes.

It is easy to feel overwhelmed.

That is why one essential quality is positivity.

Positivity is not blind optimism.

It is the belief that every challenge carries a lesson, and every lesson brings growth.

But alongside positivity, we must hold humanity.

Leadership is not about power — it is about serving.

To serve is to listen and to act with empathy.

Empathy is really important for everyone, and we must remain kind no matter how hard life becomes.

We must achieve thoughtful actions, not just words.

Peace cannot remain only in speeches — it must live in action.

Our university is an economic university in Bangkok.

We serve more than 7,000 teachers and non-staff members, and we have 30,000 students across all levels of education.

Our mission is not just to provide knowledge but to change behavior — teaching kindness, fairness, and compassion.

Leadership is what we do every day, not what we say on stage.

We are preparing for the next generation.

The leaders of tomorrow are sitting in our classrooms today.

From kindergarten to higher education, students must not only gain knowledge but also develop character.

If we want to heal and live in harmony, we must practice empathy, responsibility, and global citizenship.

Students are not only learning facts.

They are learning how to live and how to coexist.

Good communication with others is essential.

Secondly, they must set their goals.

They need to know the direction of their life, maintain work-life balance, think about their family, take care of themselves, exercise, and think about their society.

They must devote themselves to their communities and work together as a team.

That is what we call a balanced life.

The third point is very important – connect the dots and engage with everyone.
Talk to and cooperate with others.

Today, I came here to connect with all of you – the President, the Chairperson, everyone.
I keep connecting not only for my own mission but also for my students in Thailand and my colleagues,
so that they have a chance to be here.

Through positive thinking and positive spirit, I hope all of them will understand themselves in a positive way.

Number five – self-confidence is very important.
Our students must understand themselves and their knowledge in their academic fields – whether it is science, medicine, or social studies.
They must believe that they are the best in their area.
That is why self-confidence is so important.

Number six – humility.
When we are humble, we become charming and good connectors.

And the last one – trust.
We must be trustworthy and punctual.
A leader who keeps promises and values time is a true leader.
When we can be trusted, it guarantees that we can make a difference.

This is what I teach my students and nurture in their spirit.

Ladies and gentlemen, if every leader, every teacher, and every student lives with this spirit of servant leadership, we can heal not just our universities but our world.
Let us work together – our university, Suan Sunandha Rajabhat University, and Wonkwang University – Thailand and Korea, Asia and the world – to create a global society of life, peace, and healing.

I will close with one saying: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Let us go together for peace.
Thank you.

평화 메시지(학계)

조르윗 지라짓
스리나카린위롯대학교 총장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와 저희 팀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글로벌 사회와 생명평화 리더십: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해방” 참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주제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삶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생명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정책이나 전략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삶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저희 대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누군가를 이끌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즉 일과 가정의 균형과 개인의 안녕을 향한 갈망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우정을 쌓고 공동체를 보살피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몸소 보여줄 때, 미래 세대 또한 조화롭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세상 속에서 리더십은 대립 대신 평화를 선택합니다. 리더십의 진가는 모두가 동의하는 순간이 아니라, 갈등이 깊어지는 위기의 순간에 증명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서는 '소통의 부재가 곧 전쟁의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대화가 평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기보다 이해를 구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안식이 시작됩니다. 소통이 어긋나는 순간에도 단절보다 연결을 택하는 것, 그것이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리더십에는 긍정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든 리더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고통과 역경, 그리고 희망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태도는 리더에게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긍정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모든 시련에는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긍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애입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경청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누구에게나 절실합니다. 삶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라, 사려 깊은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평화는 연설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태국 방콕에 있는 경제 중심의 대학입니다. 7천여 명의 교직원과 3만 명의 학생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친절과 공정, 그리고 자비로운 태도를 함양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무대 위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일상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리더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큼이나 인성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와 조화를 원한다면, 공감과 책임감,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공존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가족을 살피고 운동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공동체에 헌신하고 팀으로서 협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이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총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사명뿐만 아니라, 태국의 제 학생들과 동료들이 이 소중한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정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자신감입니다. 학생들은 과학, 의학, 사회과학 등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스스로와 그 지식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해당 분야의 최고라는 믿음, 그것이 자신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며 훌륭한 소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시간의 가치를 아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신뢰를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모든 리더와 교사, 그리고 학생이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대학뿐 아니라 온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수안 순난다 라자밧 대학교(SSRU)와 원광대학교, 태국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가 손을 잡고 생명과 평화, 치유가 넘치는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평화를 향한 이 여정을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Opening Session

Keynote Speech I
**Global Society and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 Healing and
Liberation in a Divided World and Wounded Earth**

Rev. Msgr. Indunil J. Kodithuwakku K.
Secretary, Dicastery for Interreligious Dialogue

Introduction

Distinguished religious leaders, esteemed colleagues, ladies and gentlemen and dear friends,

Let me first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organizers for the kind invitation to speak at this important gathering. I also bring you the warm greetings and best wishes of the Vatican Dicastery for Interreligious Dialogue.

Dear friends, the very title of our gathering today – “Global Society and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 – already points to the solution we seek. It captures the deep longing of our time: to build a world where life is protected, peace is pursued, and leadership is exercised with wisdom, humility, and compassion.

The second part of our theme, “Healing and Liberation in a Divided World and Wounded Earth,” names the challenge. This theme resonates deeply with recent interreligious dialogues. The 7th Buddhist-Christian Colloquium, held in Bangkok in 2023, explored “Karuna and Agape in Dialogue for Healing a Wounded Humanity and the Earth.” More recently, the 8th Buddhist-Christian Colloquium, held in Phnom Penh in May 2025, reflected on “Buddhists and Christians Working Together for Peace through Reconciliation and Resilience.”

We live in a world marked by fractures – between peoples, between nations, between humanity and the earth. Artificial Intelligence brings remarkable possibilities for learning, healing, and global connection, yet its misuse can deepen social wounds, create new addictions, and widen divisions. True leadership must guide AI toward the common good, serving life, peace, and the healing of our world. These issues are not only external. They are rooted in deeper wounds: wounds of the human heart. Pope Benedict XVI rightly said: “The external deserts in the world are growing, because the internal deserts have become so vast.”¹ Pope Leo XIV, quoting St. Cyprian recently said: “You cannot call the God of all kindness your Father if you preserve a cruel and inhuman heart [...]”²

¹ Homily during Inaugural Mass, April 24, 2005

² Pope Leo XIV, Angelus, St. Peter’s Square, 27 July 2025.

In *Dilexit Nos* (The Human and Divine Love of the Heart of Jesus Christ), Pope Francis noted: “A society dominated by narcissism and self-centredness will increasingly become ‘heartless’” (n.17) and as a result “our world is losing its heart” (n.22). He further emphasised: “If we devalue the heart, we also devalue what it means to speak from the heart, to act with the heart, to cultivate and heal the heart” (*Dilexit Nos*, n.11)

Casting the blame on others does not resolve today’s heart-breaking and pathetic situations. We are called to transform hearts of stones into hearts of flesh. We can say, “then, that we have a heart, a heart that coexists with other hearts that help to make it a “Thou” (*Dilexit Nos*, n.12).

So how do we find the path forward realizing this vision? In my presentation today, I wish to reflect on three interconnected dimensions of this journey toward healing and liberation:

1. The paths of healing and liberation: the Buddha and Bodhisattva and Jesus as healers and liberators
2. Prophets, Sages and Reformers: Imagination and Liberative Power of Religion
3. Dialogue as a Pathway –Religious and Non-Religious

Part I: The Paths of Healing and Liberation

Since time is limited, I will focus only on Buddhist and Christian paths. According to Buddhism, the Buddha discovered and showed the Path to Liberation from suffering, Nirvana and invited his disciples to tread the path.³ The Buddha taught that when the mind is impure, our words and actions become impure.”⁴

The core of the Buddha’s teachings lies in the Four Noble Truths. They are:

- i). Dukkha (suffering, unsatisfactoriness or imperfection)
- ii). Samudaya, the rising or origin of dukkha
- iii). Nirodha, the cessation of dukkha
- iv). Magga, the path leading to the cessation of dukkha

The Magga, the path is referred to as the Noble Eightfold path which provides a guide to liberation from suffering (Nirvana) through ethical and mental discipline. The Eightfold Path consists of eight practices: right view, right intention, right speech, right action, right livelihood, right effort, right mindfulness, and right concentration.

Now let us come to the bodhisattva path. Bodhisattva has different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in various Buddhist traditions. The concept of Bodhisattva differs significantly between Theravada Buddhism and Mahayana Buddhism. According to Theravada Buddhism, Bodhisattva is someone on the long path to becoming a Buddha or a Buddha-to-be. Jataka tales numbering 547 narrate the earlier

3 “Now, what are the mind’s impurities? Cupidity –excessive desire –is an impurity of the mind: enmity, anger, rancour, hypocrisy, malice, jealousy, avarice, trickery, deceit, obduracy, haughtiness, pride, arrogance, inflation, indolence as an impurity of the mind, abandon it 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 Buddhist Cultural Centre, Dehiwala, Sri Lanka, 1996, p. 2.

4 *Ibid*, p. 106

births of the Buddha-to-be, in various social settings and diverse forms – animal or human.

According to Mahayana Buddhism, a Bodhisattva is someone who seeks enlightenment not only for oneself but for the liberation of all beings. One of the most respected and widely revered Bodhisattva in Mahayana Buddhism is the Bodhisattva Avalokitesvara or Bodhisattva of compassion. Avalokiteśvara Bodhisattva delays entering final nirvana to help all sentient beings achieve enlightenment. This Bodhisattva is often depicted with multiple arms and heads, symbolizing the ability to reach out to all who suffer. The statue of Avalokiteśvara, known in Chinese as Guān Yīn has one ear longer – symbolizing the Bodhisattva’s attentiveness to the cries and suffering of all beings; and one leg slightly extended – ready to move, to walk toward those who suffer. This posture – listening deeply and moving compassionately – reminds our common mission.

Santideva a Mahayana Buddhist monk, scholar and poet in his most famous work: *A Guide to Bodhisattva’s Way of Life* sheds light to our reflection today. Thus, it underscores the malady and the remedy. Why we suffer? “All the suffering in the world comes from wanting happiness for oneself. All the happiness in the world comes from wanting happiness for others”⁵ Then, how the Bodhisattva alleviate suffering: “May I be the doctor and the medicine. And may I be the nurse. For all sick beings in the world, until everyone is healed.”⁶

Jesus as a healer and liberator began his public ministry inviting people to conversion (metanoia).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Mark 1:14-15). Jesus’ invitation for change, is a call to turn from sin, turn toward love and live in the freedom of God’s reign. He said,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Luke 5:31-32). To the woman caught in adultery, he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from now on do not sin again” (John 8:11). This shows that Jesus’ call to transformation is rooted in mercy, not in condemnation. Jesus’ proclamation of the Kingdom of God (cf. Luke 4:16-21) is fundamentally liberative—releasing the poor, healing the broken, and confronting the structures of sin. The Gospels depict him healing bodies and restoring dignity (Mark 5:34), challenging unjust legalism (Matthew 23), and embracing the excluded (John 4).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Luke 10:25-37) vividly express Jesus as a healer and liberator – concrete actions of compassion, solidarity and justice.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goes as follows. A man is robbed, beaten, and left for dead. A priest and a Levite (assistant to priests) pass by without helping. A Samaritan – a social and religious outsider – stops, tends the man’s wounds, lifts him up, and brings him to an inn for healing and care.

The Samaritan is a symbol of Jesus himself: one who is moved with compassion and crosses boundaries to heal the wounded. The Samaritan’s actions reflect Jesus’ liberation from suffering: the man is not

5 Santideva, *A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8: 129.

6 *A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3:7.

abandoned to die, but restored to life and dignity. The parable ends with the words “Go and do likewise” (Luke 10:37). This is a call to follow Jesus’ liberating and healing way of compassion.

Part II: Prophets, Sages and Reformers: Imagination and the Liberative Power of Religion

Asia, the cradle of many of the world’s religions, is home to traditions that continue to nourish vast populations—offering spiritual depth, ethical guidance, and social cohesion. However, these same traditions have at times been co-opted or manipulated for political gain, social exclusion, and religious authoritarianism. This dual reality poses a challenge.

Prophets, sages and reformers across traditions rise not only to denounce injustice but to reinterpret religion in light of its most profound truths—compassion, justice, dignity, and ultimate meaning. In both Christianity and Buddhism, the prophetic voices and reformers often emerge from the margins and from suffering communities. They come alive wherever people suffer and hope, wherever truth must confront power, and where faith seeks relevance in concrete, human terms.

Modern Asian Buddhism has generated powerful liberative and socially engaged movements that reflect a grassroots application of Buddhist ethics and nonviolence to overcome poverty and alienation.

Ven. Mahā Ghosānanda (Cambodia), the “Gandhi of Cambodia,” led peace marches through post-genocide landscapes, practicing and preaching reconciliation through mindfulness and loving-kindness (*mettā*). He taught: “Wars of the heart always take longer to cool than the barrel of a gun...we must heal through love...and we must go slowly, step by step.”⁷ Ven. Maha Ghosananda stressed the importance of social engagement for healing and liberation. “We must find the courage to leave our temples and enter the temples of human experience, temples that are filled with suffering. If we listen to the Buddha, Christ, or Gandhi, we can do nothing else. The refugee camps, the prisons, the ghettos and the battlefields will then become our temples.”⁸

Thich Nhat Hanh (Vietnam and later USA and France), Father of Engaged Buddhism, emphasized that mindfulness, peace, and justice are not only personal practices but also social duties. He was very much involved in the peace movement in Vietnam. In 1966 he founded the Order of Interbeing. This Order is guided by fourteen precepts. The fourth precept is directly related to our theme: “Do not avoid contact with suffering or close your eyes before suffering. Do not lose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suffering in the life of the world. Find ways to be with those who are suffering, including personal contact, visits, images, and sounds. By such means, awaken yourself and others to the reality of suffering in the world.”⁹ His work bridged Buddhism and Christianity, and deeply influenced global interreligious dialogue.

In our time, Humanistic Buddhism offers a path of compassion and liberation for the global community.

7 Santidharmmo Bhikkhu, *Maha Ghosananda, The Buddha of the Battlefield*, S. R. Printing Co., Ltd, Thailand, p. 44

8 Maha Ghosananda, *Step by Step, Meditation on Wisdom and Compassion*, Parallax Press, Berkeley, CA, 1992, p. 63

9 Thich Nhat Hanh, *Interbeing: Fourteen Guidelines for Engaged Buddhism*, Berkeley Parallax Press, 1993, pgs. 17-20

The Biblical Prophets denounced the exploitation of the poor and empty worship. They demanded justice, mercy, and humility. Contextual Theologies as prophetic voices remind us that religion must liberate and heal, not dominate.

Minjung is the Korean word for the politically oppressed, economically exploited, culturally marginalized, the poor and the powerless. It started in the 1970s in resistance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Korea. Many people may wonder the relevance of Minjung theology today. Suh Kwang-Sun David answers to this as follows: “we hear the rumours that Korean Minjung Theology has died, as Korea has been industrialized and democratized since the time of Suh Dong and Ahn Byung-Mu and therefore Minjung Theology is merely a Korean Theology of the 1970s and 80s. But some of us young theologians are still hearing the Han-ridden cries (the suffering of the oppressed people), of the Korean Minjung - part-time workers, the ever-increasing jobless homeless sleeping in the subway stations, immigrant workers from South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from immigrant Korean-Chinese, war brides from Vietnam, as well as exiles from North Korea.” He further says “now in this Kairos (opportune) time of globalization, Minjung theology has to be resurrected to struggle for the reign of God, where the tears of Minjung and Han will be no more.”¹⁰

Dalit theology in India as a contextual theology emerged from the lived experience, struggles and aspirations of the Dalit against caste oppression. Dalit means ‘broken’, ‘crushed’ or ‘oppressed’. Dalit theology described Jesus as a Dalit -a lowly, rejected figure who suffered, resisted, and rose again. It proclaims God’s preferential option for the oppressed Dalits and seeks their liberation -social, spiritual, and political.

Tribal theologies are contextual theologies that arise from the lived experiences, cultures, spiritualities, and struggles of the indigenous or tribal communities. Tribal theologies seek to affirm tribal identity, change injustice, and reclaim dignity in the face of marginalization, colonization, and ecological destruction. They reframed Christian theology in tribal worldview -e.g., Jesus as a tribal elder, healer, or earth-keeper. They promote eco-theology, viewing care for creation as spiritual duty.

Ecological theologies seek to respond to the environmental crisis through the lens of Christian faith, cultural wisdom, and interreligious dialogue. Feminist theologies aim to critique oppression, affirm women’s dignity, reclaim agency, and reinterpret Scripture, tradition, and doctrine from women’s perspectiv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prophetic imagination of religion continues to resist the manipulation of faith for narrow ideological ends. Reformers and religious movements invite us to rediscover the true heart of religion—not domination, but healing, compassion, solidarity, and transformation. Religion must engage collaboratively in promoting shared human and spiritual values, while each tradition draws its motivation and inspiration from its own unique sources.

10 Suh Kwang-Sun David “Suh Nam-Dong and Minjung in the Globalizing World -A Belated Eulogy”, in *Minjung Theology Today: Contextual and Intercultural Perspectives*, Jin-Kwan Kwon and Volker Küster (eds.)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Germany, 2018, p. 27.

Part III: Dialogue as a Pathway –Religious and Non-Religious

Although modern society faces secularization and the privatization of religion, our world remains deeply religious and profoundly pluralistic. Vision of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and the vision of Buddha and Bodhisattvas – grounded on radical interconnectedness of all life – both point to the possibility of a new humanity and a new society. Even though they proposed two distinct paths, both tried to transform the human heart to heal the world. While the theological foundations and spiritual goals may differ, both traditions invite their followers to look beyond themselves, to enter into the pain of the world, and to respond with compassion.

Throughout the millennia, religions have given birth to prophetic, counter-cultural communities – beacons of hope that have challenged injustice, offered alternative ways of living, and embodied the deeper visions of their founders and sages. These communities continue to be symbols, witnesses, and servants of the new society their traditions envision – a society grounded in compassion, justice, and harmony.

In a divided world and a wounded earth, the task of healing and liberation cannot be carried out alone. It must be a common project – one that emerges from a shared commitment and a collective ethical consensus. This project must be open and inclusive. It must take the form of dialogue: not only among followers of different religions, but also with secular voices, with scientists, activists, and humanists – all those who care for life, dignity, and the future of our planet.

In this shared mission, we honour those who have given their lives to protect Mother Earth and to foster peace among followers of different religions—true martyrs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of the environment. Religious traditions, with their profound wisdom, sacred rituals, and moral teachings, have a vital role in awakening ecological awareness and guiding their communities toward a sustainable and morally responsible way of life.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Nostra Aetate*, the ground-breaking declaration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that invited Catholics to engage in deep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people of other religions. This call remains ever relevant. Next year, we will also celebrat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Assisi Prayer for Peace, another milestone in interreligious friendship and shared spiritual action. More recently, documents such as *Laudato Si* (On Care of Our Common Home), *Human Fraternity for World Peace and Living Together*, *Fratelli Tutti* (On Fraternity and Social Friendship) affirm that true peace and sustainability require a conversion of heart, a change in systems, and a global culture of care, compassion and justice.

At the local level, many initiatives are already underway—signs of a growing global awareness and commitment. The Common Project has begun, but it now calls for deeper engagement and broader expansion. What we need is a transformation across all spheres of life: economic, political, educational, familial, religious, cultural, and media. These realms must not function in isolation, but as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dimensions of our shared existence. Our gathering today is a living testimony that we

are not just speaking about change—we are walking the talk.

Conclusion:

In a divided world and a wounded earth, healing and liberation are not distant ideals—they are urgent calls. We have seen how the Buddha and Bodhisattvas and Jesus lead by crossing boundaries, healing wounds, and embodying compassion. Prophets and reformers remind us that religion, at its heart, is a healing and liberating force. And dialogue opens the way toward shared hope.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 begins with each of us—when we listen deeply, act justly, forgive freely, and build bridges across differences. Let us embrace technology with wisdom and compassion, so that even AI becomes a tool for life, peace, and liberation. May we have the courage to lead with compassion, and become co-creators of a world where all can live with dignity—and where the earth, too, may breathe in peace.

Thank you

기조연설1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 사회와 리더십: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의 치유와 해방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

서론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내외 귀빈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교황청 종교간대화의 따뜻한 인사와 축전의 뜻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임의 제목인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 사회와 리더십"은 우리가 찾고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이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생명이 존중받고, 평화가 실현되며, 지혜와 겸손, 그리고 자비로 리더십이 발휘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시대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두 번째 부분인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의 치유와 해방"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줍니다. 이 주제는 최근 진행된 종교 간 대화의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2023년 방콕에서 열린 제7차 불교-그리스도교 콜로키움에서는 "상처 입은 인류와 지구의 치유를 위한 대화: 카루나(자비)와 아가페(사랑)"를 탐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프놈펜에서 열린 제8차 콜로키움에서는 "화해와 회복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불교도와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과 국가 사이, 그리고 인류와 지구 사이에 깊은 균열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은 학습과 치유, 전 지구적 연결에 있어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오용될 경우 사회적 상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중독을 낳으며 분열을 가속화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인공지능이 공동선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수호하고 평화를 이루며 세상을 치유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인간 마음속의 더 깊은 상처에 닿아 있습니다.¹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세상의 외적 사막이 넓어지는 것은 우리 내면의 사막이 그만큼 광대해졌기 때문"이라고 지극히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²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딜렉시트 노스(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의 인간적이고 신

1 2005년 4월 24일 취임 미사 강론

2 교황 레오 14세, 삼종기도, 성 베드로 광장, 2025년 7월 27일.

성한 사랑)』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애와 자기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점점 더 ‘냉혹한’ 곳이 될 것이며”(17항), 그 결과 “우리 세상은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22항)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어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마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면,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며 마음을 가꾸고 치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무시하게 되는 것”(11항)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슴 아프고도 비참한 상황들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살아 숨 쉬는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과 공존하며, 나를 온전한 ‘너’로 만들어 주는 데 기여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딜렉시트 노스』, 12항).

그렇다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치유와 해방을 향한 이 여정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세 가지 차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치유와 해방의 길: 치유자이자 해방자로서의 부처, 보살, 예수
2. 예언자, 현자, 개혁가: 교가 지닌 상상력과 해방의 동력
3. 대화라는 경로: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만남

제1부: 치유와 해방의 길

시간 관계상 오늘은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불교에 따르면, 부처님께서서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즉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여 몸소 보여주셨으며,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을 권유하셨습니다.³ 부처님께서서는 마음이 오염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부정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고제(苦諦, Dukkha): 괴로움, 즉 삶의 불만족스러움과 불완전함의 진리
- ii) 집제(集諦, Samudaya):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근원에 대한 진리
- iii) 멸제(滅諦, Nirodha):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대한 진리
- iv) 도제(道諦, Magga):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수행의 길에 대한 진리

도제, 즉 수행의 길은 팔정도(八正道)로 불리며, 이는 윤리적·정신적 수양을 통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열반)으로 나아가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팔정도는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의 여덟 가지 실천 덕목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보살의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살은 불교 전통에 따라 그 의미와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상좌부 불교(Theravada)와 대승 불교(Mahayana) 사이에는 상당한 개념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좌부 불교에서 보살은 부처가 되기 위해 긴 여정을 걷는 존재, 즉 '미래의 부처'를 뜻합니다. 547편의 본생담은 이 미래의 부처가 동물이나 인간 등 다양한 모습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환생하며 수행했던 전생의 기록들을 들려줍니다.

반면 대승 불교에서 보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의 해방을 위해 정진하는 존재입니다. 대승 불교에서 가장 추앙받는 보살 중 하나가 바로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

3 같은 책, 106 쪽

4 같은 책, 106 쪽

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최종적인 열반을 뒤로 미룹니다. 흔히 여러 개의 팔과 머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게 손을 뻗으려는 무한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중국에서 '관음'이라 불리는 이 보살상은 종종 한쪽 귀가 길게 늘어진 모습인데, 이는 중생의 울부짖음과 고통에 온 마음으로 귀 기울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한쪽 다리를 살짝 내디딘 모습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깊이 경청하고 자비롭게 움직이는' 보살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공동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대승불교의 승려이자 학자, 시인이었던 산티데바(Santideva)는 그의 저명한 저서 『보살행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병과 그에 대한 치유책을 명확히 짚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오고, 세상의 모든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다.”⁵ 그렇다면 보살은 어떻게 그 고통을 덜어주는가? “세상의 모든 병든 중생이 다 치유될 때까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약이 되며, 정성 어린 간호사가 되게 하소서.”⁶

치유자이자 해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 1,15) 하시며 사람들을 회개(메타노이아)로 초대함으로써 공생할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에 대한 초대는 죄에서 돌아서서 사랑을 향하고, 하느님 통치의 자유 안에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루카 5,31-32)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요한 8,11)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변혁을 향한 부르심이 단죄가 아닌 자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선포(루카 4,16-21 참조)는 근본적으로 해방적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풀어주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치유하며, 죄의 구조에 맞서는 일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몸을 고치고 존엄성을 회복시키며(마르코 5,34), 불의한 율법주의에 도전하고(마태오 23장),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시는(요한 4장) 모습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카 10,25-37)는 치유자이자 해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민과 연대, 그리고 정의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강도를 만나 매를 맞고 죽어가는 이 곁을 사제와 레위인은 그냥 지나치지만, 사회적·종교적 소외자였던 사마리아인은 발길을 멈춥니다. 그는 상처를 돌보고 그를 일으켜 여관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핍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연민에 마음이 움직여 경계를 넘고 상처 입은 이를 치유하는 분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반영합니다. 버려졌던 이는 다시 생명과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비유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로운 해방과 치유의 길을 따르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제2부: 예언자, 현자, 그리고 개혁가들: 종교의 상상력과 해방의 동력

세계 주요 종교의 요람인 아시아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적 깊이와 윤리적 지침, 그리고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는 전통

5 보살의 삶의 길에 대한 안내서:3:7.

6 보살의 삶의 길에 대한 안내서:3:7.

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들은 때로 정치적 실익이나 사회적 배제, 그리고 종교적 권위주의를 위해 오용되거나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현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를 던져줍니다.

다양한 전통의 예언자와 현자, 개혁가들은 단순히 불의를 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비와 정의, 존엄성, 그리고 궁극적 의미라는 종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에 비추어 신앙을 재해석합니다. 그리스도교와 불교 모두에서 예언자적 목소리와 개혁가들은 대개 사회의 변방과 고통받는 공동체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들은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곳, 진리가 권력에 맞서야 하는 곳, 그리고 신앙이 구체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분투하는 현장에서 살아 숨 쉰다.

현대 아시아 불교는 빈곤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 윤리와 비폭력 정신을 풀뿌리 수준에서 실천하는 강력한 해방적·사회 참여적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캄보디아의 간디’라 불리는 마하 고사난다(Mahā Ghosānanda) 스님은 대량학살의 비극이 휩쓸고 간 황폐한 땅에서 평화 행진을 이끌며, 마음챙김과 자애를 통한 화해를 몸소 실천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전쟁을 식히는 데는 총구를 식히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치유해야 하며,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⁷ 마하 고사난다 스님은 치유와 해방을 위한 사회적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사찰 문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경험의 사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간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난민 수용소와 감옥, 빈민가와 전장(戰場)이 우리의 진정한 사원이 될 것입니다.”⁸

틱낫한(Thich Nhat Hanh) 스님(베트남, 이후 미국과 프랑스 활동)은 ‘참여 불교’의 아버지로서, 마음챙김과 평화, 그리고 정의가 개인적 수행을 넘어 사회적 의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베트남 평화 운동에 깊이 헌신하셨으며, 1966년에는 ‘접현종 (Order of Interbeing)’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교단은 14가지 마음챙김의 계율에 따라 운영되는데, 그중 네 번째 계율은 오늘 우리 컨퍼런스의 주제와 직결됩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고통 앞에서 눈을 감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고통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직접적인 만남과 방문, 혹은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라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실상에 깨어 있게 하십시오.”⁹ 그의 업적은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가교가 되었으며, 전 지구적 종교 간 대화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인간 중심 불교 역시 세계 공동체를 향한 자비와 해방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착취와 형식적인 예배를 준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자비, 그리고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예언자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황 신학은 종교의 본령이 지배가 아닌 ‘해방과 치유’에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민중’은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뜻하는 한국어입니다. 민중신학은 1970년대 한국의 군사 독재에 저항하며 태동했습니다. 오늘날 민중신학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서광선(David Kwang-sun Suh)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서남동과 안병무의 시대 이후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기에, 민중신학은 그저 70~80년대의 유물로 남았다

7 보살의 삶의 길에 대한 안내서:3:7.

8 보살의 삶의 길에 대한 안내서:3:7.

9 틱낫한, “상호존재: 참여불교를 위한 14가지 지침”, 버클리 패럴랙스 출판사, 1993, 17-20 쪽

는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신학자들은 여전히 민중의 서글픈 한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하철역에서 잠드는 노숙인, 남·동남아시아와 조선족 이주 노동자,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그는 이어 강조합니다. “세계화라는 이 카이로스에, 민중신학은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민중의 눈물과 ‘한’이 닦여지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¹⁰

인도의 달리트(Dalit) 신학은 카스트 제도의 억압에 맞선 이들의 삶과 투쟁, 열망에서 피어난 대표적인 상황 신학입니다. ‘달리트’는 ‘부서지고 짓밟힌 이들’을 뜻합니다. 이 신학은 예수를 고난받고 저항하며 부활한, 낮고 배척받는 ‘달리트’로 묘사합니다. 또한 억압받는 달리트를 향한 ‘신의 우선적 선택’을 선포하며, 그들의 사회적·영적·정치적 해방을 추구합니다.

부족 신학 역시 토착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영성, 투쟁의 기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소외와 식민주의, 생태적 파괴에 맞서 부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엄을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부족 특유의 세계관으로 재해석하여, 예수를 ‘부족의 원로’나 ‘치유자’, 혹은 ‘대지의 수호자’로 고백합니다. 또한 피조물에 대한 돌봄을 영적 의무로 여기는 생태 신학을 적극 장려합니다.

생태 신학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문화적 지혜, 그리고 종교 간 대화의 렌즈를 통해 환경 위기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여성 신학은 억압 구조를 비판하고 여성의 존엄과 주체성을 회복하며,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과 전통, 교리를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예언자적 상상력은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위해 신앙을 도구화하려는 시도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개혁가들과 종교 운동은 우리에게 종교의 참된 본질—지배가 아닌 치유와 자비, 연대와 변혁—을 재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각 종교 전통은 저마다의 고유한 원천에서 동기와 영감을 얻되, 인류 공통의 영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제3부: 대화라는 경로 – 종교와 세속 사회의 만남

현대 사회가 세속화와 종교의 사유화라는 거센 흐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여전히 깊이 종교적이며 심오하게 다원적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상호 연결성에 기반한 ‘예수와 하느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부처와 보살’의 비전은 모두 새로운 인류와 사회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두 갈래 길을 제시했으나, 두 전통 모두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신학적 토대와 영적 지향점은 다를지라도, 두 전통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자비로 응답하도록 초대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종교는 예언자적이고 반문화적인 공동체들을 탄생시켜 왔습니다. 이들은 불의에 맞서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며, 창시자와 현자들의 깊은 비전을 몸소 구현해 온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각 전통이 꿈꾸는 새로운 사회, 곧 자비와 정의, 조화가 뿌리 내린 사회의 상징이자 증인이며 봉사자로서 오늘날에도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서광선 데이비드, “세계화 시대의 서남동과 민중 신학 - 늦은 추도사”, “오늘날의 민중 신학: 맥락적 및 문화 간 관점”, 권진관, 폴커 퀴스터 편, 에반젤리제 페를라그산슈탈트, 라이프치히, 독일, 2018, 27쪽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치유하고 해방하는 과업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공동의 헌신과 집단적 윤리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모두의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대화'의 형태를 띠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서로 다른 종교인들 사이의 대화에 그치지 않고, 세속적인 목소리들—과학자, 활동가, 인본주의자 등 생명의 존엄과 지구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이들과의 대화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의 사명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 지구'를 수호하고 제종교 신앙인들 사이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생명까지 바친 분들, 즉 종교 간 대화와 환경을 위한 진정한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깊은 지혜와 성스러운 전례, 그리고 도덕적 가르침을 간직한 종교 전통은 생태적 각성을 일깨우고,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며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삶으로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해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타 종교인들과의 깊은 대화와 협력을 촉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의 획기적 선언, 「우리 시대(Nostra Aetate)」 반포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종교 간 우정과 영적 연대의 이정표인 '아시시 평화 기도 모임'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최근 발표된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간의 형제애」, 「모든 형제(Fratelli Tutti)」 등의 문헌들은 진정한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마음의 회개'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돌봄과 자비, 정의가 흐르는 지구촌 문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작된 수많은 실천은 세계적 각성과 헌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공동 과업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더 깊은 투신과 확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정치, 교육, 가정, 종교, 문화, 미디어를 망라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입니다. 이 영역들은 결코 고립된 채 작동해서는 안 되며, 우리 존재의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차원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은 우리가 변화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행일치의 자세로 직접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결론: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 위에서, 치유와 해방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부처와 보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계를 허물고 상처를 싸매며, 자비의 화신이 되어 앞장서셨는지 목격해 왔습니다. 예언자들과 개혁가들은 종교의 본질이 곧 치유와 해방의 동력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대화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희망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한 리더십은 바로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깊이 경청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조건 없이 용서하고, 서로의 차이를 잇는 다리를 놓을 때 비로소 그 리더십은 실현됩니다. 이제 지혜와 자비로 기술을 포용합시다. 그리하여 인공지능조차 생명과 평화, 그리고 해방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합시다. 우리 모두 자비로 세상을 이끌 용기를 가집시다. 모든 존재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 지구 또한 평화로이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일구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ynote Speech II
Global Society and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
Healing and Liberation in a Divided World and Wounded Earth

Dr. Kathryn Poethig

Professo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Monterey Bay

Greetings to all my colleagues and friends,

What are the arts of living on a damaged planet, asks anthropologist Anna Tsing (2017). How do we navigate our contemporary “conditions of fragility” (Connolly 2012a) as global citizens? This seems to be ICCGC’s central purpose –to cultivate global citizens who are critically alert, spiritually adept, and imaginatively resilient to address our current age.

What a remarkable group you are, gathered here to liberate and heal an inextricably entangled planet.

I am honored to be among those of you, who have acted as a mediator for Religions for Peace, walked into conflict zones as Nipponzan-Myōhōji, founded the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for Asian peacebuilders, sponsored Focalore interreligious dialogue, negotiate within the UN, and you who have educated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on global education, peacebuilding, theology, interfaith dialogue, development.

I will first turn to some troubles we might expect in the next ten years, and ask, how do global citizens “stay with the trouble” on this damaged earth?

SLIDES: Geopolitics in 2025

[Slide 2 Projections 2035]

I’ll refer primarily to the Atlantic Council and World Economic Forum who canvass their members annually.

[Slide 3: Democratic Depression in 2035]

We are in what I call the wrecking ball period of our so-called U.S. Empire.

The Atlantic Council’s US experts think our democratic recession will devolve into a depression by 2035, spurred on by the rise of authoritarianism and populism.

Women surveyed were bleaker about conflicts and US clout over the next decade, noting waning

rights for both LGBTQ and themselves.

[Slide 4: Current Risk Landscape]

What are our most pressing issues for the planet this year?

The top ranked current crisis - in orange: state based armed conflict, (Consider Ukraine-Russia and Israel-Palestine-Iran, Sudan, Myanmar) followed in green: extreme weather.

[Slide 5: Global Political Outlook: Multipolar world]

What do people say the global political order will be in 2035?

The light blue - least likely for a global order (8%), continuation of a US-led rules-based order

The dark blue - the overwhelming consensus that (64%) there will be a multipolar or fragmented political order.

Without a hegemonic power, multipolar world order will also bring more competition, conflicting norms, and inter-state conflict.

[Slide 6: Weakened multilateralism]

This chart gauges rise of regional organizations and weakening of multilateralism. It's confusing but illuminating.

1. Question: Which groups are capable of solving the challenges core to their mission in 2035?
2. LEGEND: Blue: more capable, Salmon: neutral, Yellow and gray: less capable.

LOWEST: UN ranked lowest - small blue, largest yellow and gray, follow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NEXT: Multilateral organizations - WTO, IMF, World Bank - with G7 similarly ranked.

This follows years of criticism, but Trump's dismantling USAID and defaulting on its 22% commitment of the UN budget, has prompted a humanitarian disaster. This year, 20 percent of UN staff were laid off across the world, agencies were merged.

TOP: Regional bloc ranked highest, and if combining both blues:

- BRICS (43.5%),
- EU (39.5%) and ASEAN (38.4%) almost even, and
- G20 (28.9%)

In the next ten years, these blocs will be buffeted by security-related crises: energy, climate change, migration, cyber security, information warfare that do not conform a traditional military responses.

Where will leadership arise?

[Slide 7: Asia -Pacific rise]

Economically, developing countries -- especially the Asia-Pacific -- will be the main drivers of the economy. Note here ASEAN countries, whose nations (though generally poorer than East Asia) are projected to be the most dynamic and fast growing regions of the world both economically and population.

[Slide 8: Largest risks faced by the world 2035]

In 2 years, most severe global risks are projected to be - information warfare (purple), climate change (green), and state-based armed conflict (blue), Recall this was this year's primary concern.

In ten years, 2035, everything is supplanted by green - a full-blown climate crisis, entangled with information warfare.

[Slide 9: By region]

If we look more at the regional projections. See three Asian blocks and climate crisis, then technology. In South Asia, Red is inequality.

Asia is the most natural disaster-prone region in the world, heating up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UN 2024). It is projected to experience unprecedented levels of dislocation and mass migration (Lowy Institute, 2025) which contradicts Asia as the economic engine in 2035.

[Slide 10: How will Humanitarian Aid respond?]

IARAN's The Future of Aid: INGOs in 2030 projects trends that are changing humanitarianism

1. More funding required as crises spike.
2. Donors: Until 2025, the bulk of funding from governments of Global North (88%). With non-traditional donors (private, military, non-Western, religious), a different set of priorities.
3. In a multi-polarity of the world, Western cultural dominance declines. Large NGOs aren't necessarily Western (BRAC in Bangladesh largest global NGO) or secular (World Vision is evangelical, Caritas is Catholic).
4. We already see a diversity of national and religious NGOs through Asia, but increasing visibility of of religious and local NGOs means a diversity of delivery, access to communities, varied norms, less adherence to Dunanist "humanitarian principles": humanity, impartiality, neutrality, and independence.

[Slide 11: Youth Activism]

Youth between 15 and 24 make up 34% of the global labor force in 2022, largest generation of young people in history.

Gen Z (1997-2012) brings digital forms of support and resistance, challenging to work with, work-life balance, want to be drivers of meaningful change.

In sum, by 2035, our global order will be unrecognizable. The world will fragment into rival spheres. The collapse of U.S. global hegemony, the expansion of China, the rise of AI-driven economies, and a democratic depression presage new forms of governance and political coalitions.

Climate change will prove beyond the shadow of doubt, that we are inextricably connected.

As religious global citizens we must consider a spirituality and critical framework for the troubles before us. I will focus on kinship and witness before closing by considering our emerging religious landscape.

[Slide 12: Global Justice and Global Citizenship: Kinship]

William Connolly affirms “that we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this planetary crisis unless we dissolve and reassemble old paradigms of humans as the only subjects in political life. (Connolly 2013a; 2013b).

For Connolly, we address current “conditions of fragility” through a paradigm where material, metaphysical, ecological, and historical forces converge.

I found this in Korea when I attended an interfaith protes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on the southern “tourist island.” On Jeju, I witnessed a collective, creative solidarity that inspired a new paradigm.

Our delegation, Peace for Life, was a global interfaith network founded by Filipino activists. The Jeju protest shared our vision of peoples’ movements struggling for justice, and mobilizing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spiritualities, and convictions to transform a world dominated by Empire.

And here was Empire: the Jeju Naval Base was a Korea-U.S. alliance which South Korean officials considered a “spearhead of the country’s defense” and the U.S. wanted as a port for nuclear submarines. To construct it, Samsung’s massive machines dredged the sea. But the construction began with the devastation of Gureombi, a sacred, kilometer-long porous volcanic shelf at the sea. Police guarded contract workers who dynamited the rock while the community watched behind razor wire. For centuries the Gangjeong villagers had revered Gureombi, protecting it, collecting crabs from the tide pools, holding ceremonies there (Martin 2017).

A Jeju citizen explained the sacred relationship between humans, Gureombi, and Halmangmul, the spring, “sitting in the Gureombi.”

Halmangmul is like a goddess and Guroembi is her temple. You don’t destroy the Parthenon to build a military base. Just because the Gureombi Rock is not human-made, the navy walked in and destroyed it. We are not simply protecting nature. We are protecting our goddess and her temple. (Pae 2014, 61)

Our group joined gray-garbed monks, Fr. Moon’s vigil Mass, and danced at the construction site in defiance of government restrictions. Many had been arrested for blocking access to the construction site. Activists introduced us to Halmangmul and a 1,000-year-old goddess tree, strung with white and pink prayer flags. They told us about the wind goddess Grandma Yeongdeun.

It was this interweaving of action and narrative – humans interposing their bodies between machines and the land and sea to resist military expansion, to save endangered creatures, protect villager livelihoods and sacred place – and the interpretation of Yeongdeun’s revenge, as when a typhoon took down an underwater column, that brought to mind Donna Haraway’s (2016) book, *Staying with the Trouble*.

For Haraway this “staying with” is to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ongoingness of the world.” Whether that world is post-Anthropocene, as Haraway imagines it, or at the southern tip of Jeju, both affirm a plurality of ontologies – creatures, landscapes, humans, goddesses – that must interact to share the planet. It is only, says Haraway, by “living and dying together on a damaged Earth [that we] learn how to build more livable futures.” Indigenous scholar Robin Kimmerer uses “all my relations,” to capture this interspecies relationship. Whether or not Save Jeju Now activists understand their interspecies solidarity as a kinship, they offer an anti-militarist interspecies solidarity that is worthy of their trouble.

Despite their valiant efforts, the first US submarine arrived at the Base in 2017. Save Jeju Now activists continue to “stay with the trouble.”

[Slide 13: Global Justice and Global Citizenship: Witness]

Solidarities are not facile; they are difficult to manage. As religiously identified scholar-activists, what are our responsibilities to a perceived injustice of religious neighbors or our own community? We are so entangled and internally polarized. As a white progressive American Presbyterian and lesbian, I oppose Christian anti-trans, homophobic, and misogynist claims about biblical gender norms, white supremacist’s nativist nationalism and Christian Zionist hallowed support for Israel. I confess, I cannot find a constructive response, I’m so enraged.

When I visited Bethlehem on the West Bank for a conference of liberation theologians (I was to talk on gender and militarism), I expected to be angry. I didn’t expect to love the people and the “holy land.” My encounter was unexpected and magical, and I recalled Beverly Harrison’s brilliant essay, “The Power of Anger and the Work of Love” (1985).

Our work of witness requires radical critical reflexivity as we walk with, and are “conscientized” by, colleagues and researchers in oppressed and colonized spaces (Maldonado-Torres, 2011)?

At we witness the flagrant destruction of Gaza and the West Bank, I want to highlight Palestinian feminist Shalhoub-Kevorkian who employs the power of anger in the work of love for her community. In her book, *Security Theology, Surveillance and the Politics of Fear* (2015) she unveils Israel’s deployment of settler-colonial theology to justify its control. To maintain “peace” on one side of the “separation wall,” Israel assures the debasement and insecurity of the Other.

Shalhoub-Kevorkian’s compass is “people’s narratives.” She details in the chapter, “Israel in my bedroom,” the suffocating level of control over Palestinian bodies—whom they marry, whether

those they marry can gain citizenship. Can you get an ID and which kind? Which hospital you can go when you are in labor? She examines the necropolitics of occupation, and how bodies of those dead under “uncertain circumstances” are handled.

This “epistemology of erasure” absents colonized peoples from their space. She has argued that sociocide, killing society through slow fragmentation, inevitably justifies genocide.

For her denunciation of Israel’s genocide in Gaza, Shalhoub-Kevorkian, who taught at the Faculty of Law at Hebrew University, was arrested in 2024. She resigned after continued harassment, though many lobbied on her behalf, and is now living in England.

Shalhoub-Kevorkian wrote with immense moral courage. So too Israeli and American Jews who have written, spoken, demonstrated, refused to be drafted. I acknowledge that as an American Protestant, the failure is ours – our nation funds the carnage and our churches are overall are too compromised. As Black queer James Baldwin has stated, “Not everything that is faced can be changed, but nothing can be changed until it is faced.”

SLIDES: Resisting religion, choosing spirit

The globe is religious, we are told. But “nones” – the religiously unaffiliated – rose to 24% of the world’s population between 2010–2020. In general, Christians were switching to “none.”

The Pew Research Center’s recent Asia surveys try to capture how the lack of religious affiliation (‘religion’ is a problematic term in Japan) and “traditional Asian forms of spirituality.” But are we also seeing an emerging worldview?¹

[Slide 14: One of the least religious regions in the world?]

“East Asia” is non-affiliated. One of the least religious regions in the world?

Note gray – HK, South Korea especially

Let’s skip Pew’s rationale for adding Hong Kong and Vietnam. Something else is also going on here.

[Slide 15: ‘East Asia’ Religious switching highest in the world]

Brown: Hong Kong, Korea, Taiwan top percentage of those who say they were raised in a religion different from the one they have now.

But this switching is to non-affiliation. More atheists?

[Slide 16: “Religion” unimportant, but worldview and practice strong]

Low percentage for religion importance, but high in belief in karma (HK, Taiwan, Vietnam). Spirit visits are higher than religious importance.

1 Traditionally, belief in God, attending religious services, consider religion to be very important in their lives and praying frequently.

Korea, highest in practices – meditation and prayer.

Younger adults – less interest in “religion” but higher than older adults on experience with spirits.

Formal religious affiliation is declining, yet personal and traditional spiritual practices remain integral to daily life.

[Slide 17: Southeast Asia: More “religious” consistency]

In mainland Southeast Asia – note that Sri Lanka is added -- more coherence between “religious” importance, traditional spiritual practices and worldview.

But note – Cambodia is lower on religious importance and belief in God/unseen beings, but high for karma, fate, and occult activity – spells and spirit attack.

Is Pew still missing what people mean by “religious”?

[Slide 18: 35 Country Spirituality Study]

In this “fuller picture of spirituality around the world” Pew canvassed 35 countries with world religions, but did not focus on NRMS, indigenous worldviews, or diaspora African religions.

1. Religious importance is strong in Global South: Bangladesh (97%) to Mexico (50%), diminishing with Europe and Americas, and Singapore, South Korea and Japan.
2. Overall, those surveyed were more certain (74%) about an en-spirited earth (animals, nature, objects) than life after death (64%) or the importance of religion (40%).
3. Younger adults are less likely to believe in God or consider religion important, but more likely to consider animals and nature en-spirited. Consistent with the trend in East Asia.

[Slide 19: Close up of lowest scores on religion]

4. Note lowest score on religion: Sweden, Hungary, Japan (7%) religion and their affirmation (60%) of spiritual energies

Pew’s new surveys reveal a trend of en-spirited worldviews whether or not respondents affirm religious membership. Is this “traditional Asian spirituality”? Or a new generational post secular worldview.

Some call this re-enchantment. Brisman (2023), for example, argues that climate activists say scientific information and data charts can’t address their despair or wonder. They long for “modern enchantment,” a “re-enchantment” from Weber’s disenchanted modernity. They seek an emotional ecology of rage, grief, and wonder. This enchantment expresses a reverence, relationality, and rootedness in the more-than-human natural world (Curry 2021). How would an “enchanted” world interpret climate catastrophe?

Conclusion

If ICCGC’s central purpose is to cultivate global citizens who are critically alert, spiritually adept and imaginatively resilient, how do we look ahead?

We will, I’m certain, learn much from each other. Global citizen action is foremost about networks that

help us stay with the trouble in our own worlds, and assist those elsewhere. No doubt your spiritual practice has helped you to be critically alert, refuse despair, nurture kinship across difficult divides, with all beings.

May we imagine resilient ways to live and die together on a damaged Earth, in order to build more livable futures. May we weave fragile solidarities among humans, non-humans, and the planet itself.

And, to bear witness for those who resist erasure everyday, who ask that we do not look away, I close with an excerpt of the poem, "Jerusalem," by Naomi Shihab Nye

Why are we so monumentally slow?
Soldiers stalk a pharmacy:
big guns, little pills.
If you tilt your head just slightly
it's ridiculous.

There's a place in my brain
where hate won't grow.
I touch its riddle: wind, and seeds.
Something pokes us as we sleep.

It's late but everything comes next.

References

- Atlantic Council's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The Global Foresight 2025 Survey: Full Results*. Washington, DC: Atlantic Council, February 12, 2025.
- Bennett, Jane. *The Enchantment of Modernity: Crossings, Energetics, and Eth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0.
- Brisman, Izabela. "The Search for Enchantment in Times of Climate Change: Religious or Spiritual Responses to Climate Crisis." *Dialog* 62, no. 4 (2023): 326-34. <https://doi.org/10.1111/dial.12836>.
- Carrette, Jeremy, and Hugh Miall, eds. *Religion, NGOs and the United Nations: Visible and Invisible Actors in Power*.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7.
- Cavazzoni, Francesca, Giulia Veronese, Mohammed A. Nofal, Cláudia Sousa, Kate Fincham, and Nadera Shalhoub-Kevorkian. "'Way Too White': Navigating Our Colonial Legacies through Critical Discussions on Positionality and Power Dynamics with Palestinian Feminist Scholars."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13, no. 1 (2025): 5-20. <https://doi.org/10.5964/jspp.15113>.
- Chakrabarty, Dipesh. *One Planet, Many Worlds: The Climate Parallax*. Waltham, MA: Brandeis University Press, 2023.
- Clarke, Matthew. *Development and Relig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11.
- Clarke, Gerard, and Michael Jennings. "Introduction." In *Development, Civil Society and Faith-Based Organizations: Bridging the Sacred and the Secular*, edited by Gerard Clarke and Michael Jennings, 1-17.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Clarke, Matthew, and Ian Parris. "Understanding Disasters: Managing and Accommodating Different Worldviews in Humanitarian Response."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ction* 4, no. 19 (2019). <https://doi.org/10.1186/s41018-019-0066-7>.
- Connolly, William E. *The Fragility of Things: Self-Organizing Processes, Neoliberal Fantasies, and Democratic Activ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3a.
- . "New Materialism and the Fragility of Thing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1, no. 3 (2013b): 399-412. <https://doi.org/10.1177/0305829813486849>.
- Curry, Patrick. 'The Enchantment of Nature and the Nature of Enchantment', in *Honoring Nature*, Lis McLoughlin, ed. Wendell: Human Error Publishing, 2021.
- Dayant, Alexandre, Roland Rajah, Hervé Lemahieu, Susannah Patton, and Dominic Meagher. *The Southeast Asia Aid Map: 2025 Key Findings Report*. Sydney: Lowy Institute, 2025.
- Evans, Jonathan, Kate Lesage, Will Miner, Kelsey Jo Starr, and Manolo Corichi. "Believing in Spirits and Life after Death Is Common around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May 6, 2025. Accessed August 11,

2025. <https://pewrsr.ch/3YuHunI>.

Evans, Jonathan, Alan Cooperman, Kelsey Jo Starr, Manolo Corichi, Will Miner, and Kate Lesage.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East Asian Societies." Pew Research Center, June 17, 2024. Accessed August 11, 2025. <https://www.pewresearch.org/?p=169727/>.

Evans, Jonathan, Alan Cooperman, Kelsey Jo Starr, Manolo Corichi, Will Miner, and Kate Lesage. "Buddhism, Islam and Religious Pluralism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12, 2023. Accessed August 11, 2025. <https://pewrsr.ch/3rdGSoX>.

Gwon, Gi. *The Island of World Peace: The Jeju Massacre and State Building in South Kore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23.

Haraway, Donna J.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6.

———. "Tentacular Thinking: Anthropocene, Capitalocene, Chthulucene." *E-flux Journal* 75 (2016): 1-17.

Harrison, Beverly Wildung. "The Power of Anger in the Work of Love." In *Making the Connections*, edited by Carol S. Robb, 3-21. Boston: Beacon Press, 1985.

Hackett, C, Stonawski, M., Tong, S, Kramer, S., Shi, A. and Fahmy, D. "How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 Changed from 2010 to 2020." By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June 9, 2025.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5/06/09/how-the-global-religious-landscape-changed-from-2010-to-2020/>.

Lehmann, Karsten. *Religious NGO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nstruction of "the Religious" and "the Secular"*. London: Routledge, 2016.

Lutz, Catherine. "Empire Is in the Details." *American Ethnologist* 33, no. 4 (2006): 593-611.

Maldonado-Torres, Nelson. "Thinking through the Decolonial Turn: Post-Continental Interventions in Theory, Philosophy, and Critique—An Introduction." *Transmodernity: Journal of Peripheral Cultural Production of the Luso-Hispanic World* 1, no. 2 (2011): 1-15. <https://doi.org/10.5070/T412011805>.

Martin, Seth. "Eulogy for Gureombi: A Reflection on the Ten Year Struggle against a Joint U.S. South Korea Naval Base on Jeju Island." *Earth Island Journal*, July 5, 2017. Earth Island Institute. Accessed August 11, 2025. https://earthisland.org/journal/index.php/articles/entry/eulogy_for_gureombi.

Pae, Kyeong-jae Choi. "Feminist Activism as Interfaith Dialogue: A Lesson from Gangjeong Village of Jeju Island, Korea." *Journal of Korean Religions* 5, no. 1 (2014): 55-69. <http://www.jstor.org/stable/23943335>.

Santos, Boaventura de Sousa. *Epistemologies of the South: Justice against Epistemicide*. London: Routledge, 2016.

Save Jeju Now. "Statement by the Peoples Forum of Peace for Life, Jeju: 'In Solidarity with Gangjeong Villagers Say No to the Jeju Naval Base!'" October 27, 2013. <https://savejejunow.org/statement-by-the-peoples-forum-of-peace-for-life-jeju/>.

---. "Navy Conducts Anti-North Exercise near New Jeju Base." Yonhap News, March 3, 2016. <https://savejejunow.org/navy-conducts-anti-north-exercise-near-new-jeju-base-yonhap-news/>.

Shalhoub-Kevorkian, Nadera. *Security Theology, Surveillance, and the Politics of Fe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Steger, Manfred B. "Globalization and Social Imaginaries: The Changing Ideological Landscape of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Critical Globalisation Studies* 1 (2009): 9-30.

Tsing, Anna Lowenhaupt, Nils Bubandt, Elaine Gan, and Heather Anne Swanson, eds. *Arts of Living on a Damaged Planet: Ghosts and Monsters of the Anthropocen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7.

UN News (April 23, 2024) <https://news.un.org/en/story/2024/04/1148886>

Wilson, Erin. "'Power Differences' and 'the Power of Difference': The Dominance of Secularism as Ontological Injustice." *Globalizations* 14, no. 7 (2017): 1076-93.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4*. Geneva: World Economic Forum, 2024.

Nkolo, G. J. (2025, July). *The Future of Aid in 15 years: Mutation or Metamorphosis?* ALIAP (African Lab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Prospective). <https://aliap.org/the-future-of-aid-in-15-years-mutation-or-metamorphosis>

Staying with the Trouble

Kathryn Poethig, Ph.D.

"Global Society and Leadership for Life and Peace: Healing and Liberation in a Divided World and Wounded Earth"

2025 ICCGC-CoNGO Global Conference
Wonkw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Slide 1

Projections 2035

Atlantic Council [The Global Foresight 2025 Survey](#)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5](#)

Slide 2

Projected "Democratic Depression" in 2035

Category	Percentage
The democratic recession worsening and becoming a democratic depression	46.5%
Stasis: the state of democracy will remain as it is today	36.9%
A democratic renaissance	16.6%

Slide 3

Global Risks Report 2025 Current Risk Landscape

Please select one risk that you believe is most likely to present a material crisis on a global scale in 2025.

Risk	Share of respondents (%)
State-based armed conflict	22%
Extreme weather events	14%
Geoeconomic confrontation	8%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7%
Societal polarization	6%
Economic downturn	5%
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	4%
Lack of economic opportunity (3% or compromised)	3%
Erosion of human rights and/or freedoms	2%
Inequality	2%

Slide 4

Global Risks Report 2025 Global political outlook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haracterizes the global political environment for cooperation on global risks in 10 years?

Characterization	Percentage
Realignment towards a new international order led by an alternative superpower	19%
Continuation or reinvigoration of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9%
Erosion of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8%
Multipolar or fragmented order in which middle and great powers contest, test, and enforce regional rules and norms	64%
Stagnation or bifurcated order shaped by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wo superpowers	64%

Slide 5

By the year 2035, how capable of solving challenges core to their mission do you expect the follow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be as compared to today?

Institution	Much more capable	Somewhat more capable	Neutral	Somewhat less capable	Much less capable
European Union	7.6%	31.9%	27.7%	24%	8.8%
BRICS	6.9%	36.6%	25.1%	23.7%	7.7%
Group of Seven (G7)	16.2%	30.6%	34.1%	16.1%	12.2%
Group of Twenty (G20)	11%	25.8%	33.4%	29.2%	8.5%
United Nations	3.1%	5.9%	16.1%	42.4%	32.5%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37.4%	37.4%	39.4%	16%	4.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6.7%	35.7%	32.4%	33.4%	7.2%
World Bank	18.9%	35.4%	35.4%	38.2%	7.7%
World Trade Organization	8.9%	28.7%	38.9%	38.2%	21.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6.3%	24.2%	38.2%	38.2%	28.8%

Slide 6

Southeast Asia is one of the most dynamic and fast-growing regions in the world, both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Country	Total GDP (USD)	Total Population
INDONESIA	\$1.4T	270M
THAILAND	\$515B	69M
SINGAPORE	\$60.9B	5.9M
PHILIPPINES	\$437.8B	113M
VIETNAM	\$120B	100M
MALAYSIA	\$400B	34M
MYANMAR	\$66.6B	55M
CAMBODIA	\$12.5B	17M
LAOS	\$11.8B	7.5M
BRUNEI	\$13.5B	4.7M
TIMOR-LESTE	\$2.1B	1.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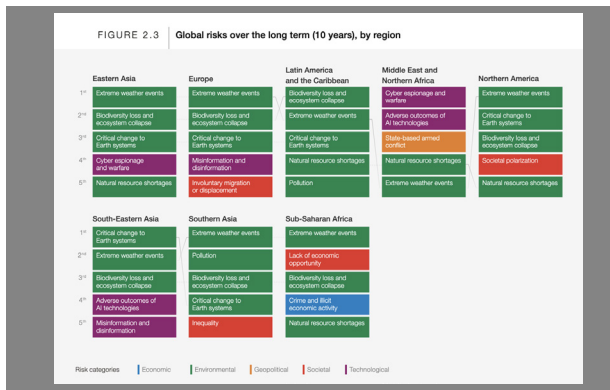
Slide 7

The Largest Risks Faced by the World

Experts' view on the most severe global risks over the next 2 and 10 years

Risk	2 years	10 years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High	High
Extreme weather events	High	High
State-based armed conflict	High	High
Societal polarization	High	High
Cyber espionage and warfare	High	High
Pollution	High	High
Inequality	High	High
Involuntary migration or displacement	High	High
Geoeconomic confrontation	High	High
Erosion of human rights/freedoms	High	High
Extreme weather events	High	High
Biodiversity loss and ecosystem collapse	High	High
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	High	High
Natural resource shortages	High	High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High	High
Adverse outcomes of AI technologies	High	High
Societal polarization	High	High
Cyber espionage and warfare	High	High
Pollution	High	High

Slide 8



Slide

How will Humanitarian Aid change?

Funding requirements will increase, driven mainly by increasing displacements, violent conflicts, and natural hazard crisis.

New donors are mostly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contributing \$2.4b in 2015. Funding from new donors is likely to continue increasing through 2030.

Slide

Youth Activism

Global South / North youth are numerous, connected, and critical of outdated institutions, skeptical of capitalism.

Their trends: hackathons, civic tech, grassroots activism, and digital resistance.

Their skills and innovative vision are critically needed. They understand connectivity.

Nikola, G. J. (2025, July). The Future of AI in 15 years: Mutation or Metamorphosis? AI4U African Lab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Prospective. <https://www.africanlab.org/ai4u-ai-in-15-years-mutation-or-metamorphosis/>

Slide 9

Global justice and global citizenship: Kinship

“...we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this planetary crisis unless we dissolve and reassemble old paradigms of humans as the only subjects in political life.”

William Connolly

Krieger-Eisenhower Professor of Political Theory, Johns Hopkins University

[Editorial] Don't wait for a hail to be issued by Jeju provincial government (March 2012). Hankyohse

Slide 10

Global justice and global citizenship: Witness

“My compass is people’s narratives...[after Gaza] you see that the punishment is not only of the living; the punishment is of the dead...”

Nadera Shalhoub-Kevorkian

Maaldek Street, (2024, March 9). Nadera Shalhoub-Kevorkian: The war on Palestinians, dead and alive (live audio podcast episode).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uF2MBs_Fw

Slide 11

Resisting religion, choosing spirit

Slide 12

One of the least religious regions in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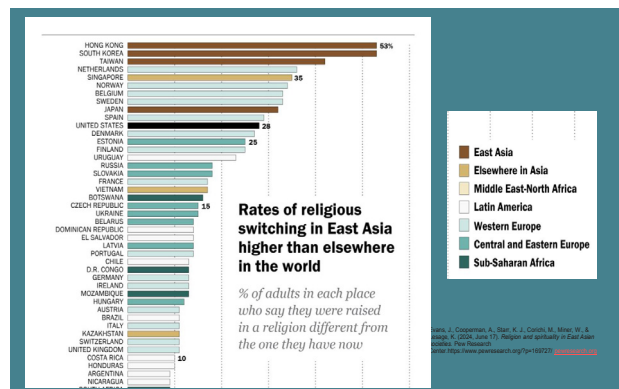
The most common religion in Hong Kong, South Korea and Vietnam is 'no religion'

% of adults in each place who currently identify as ...

	No religion	Buddhist	Christian	Daoist	Some other religion
Hong Kong	61%	14%	20%	1%	3%
South Korea	52%	14%	32%	0%	1%
Vietnam	48%	38%	10%	0%	3%
Japan	42%	46%	2%	0%	9%
Taiwan	27%	28%	7%	24%	12%

Evans, J., Cooperman, A., Shan, K. J., Condit, B., Miao, W., & Loebig, N. (2024, July 17).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East Asian societies: The Research Center for the Environment and Society. <https://www.researchcenterfortheenvironment.org/?p=189277>

Slide 13



Slide 14

Religion unimportant, but worldview and practice strong

% of adults in each place who say they ...

	Think karma exists	Have been visited by the spirit of an ancestor in a dream or some other form	Ever practice meditation	Pray daily	Consider religion very important in their lives
Hong Kong	76%	16%	22%	13%	11%
Japan	16	36	30	19	6
South Korea	48	40	59	21	16
Taiwan	87	36	34	16	11
Vietnam	75	42	16	20	26

Evans, J., Cooperman, A., Star, K. J., Corchi, M., Miner, W., & Lesage, K. (2024, June 17).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East Asian societie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91-189727/>

Slide 15

SEAsia: Correlated "Religious" importance, worldview, practice

Majorities across all surveyed countries believe in God or unseen be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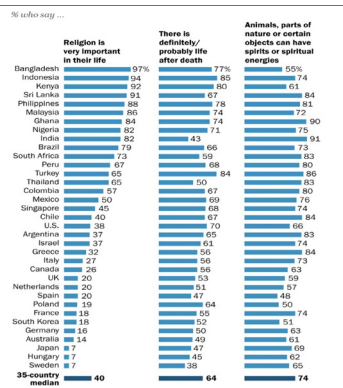
% in each country who say they ...

	Believe in God or unseen beings	Think karma exists	Think fate exists	Consider religion very important in their lives	Think spells, curses or other magic influence people's lives	Pray daily	Ever burn incense	Ever practice meditation	Feel protected or attacked by unseen powers at least a few times a year
Cambodia	78%	97%	90%	67%	78%	23%	96%	22%	43%
Indonesia	100	85	95	98	55	95	7	7	25
Malaysia	99	74	73	85	69	82	13	14	33
Singapore	87	73	70	36	55	43	44	26	33
Sri Lanka	90	88	85	92	54	76	92	62	33
Thailand	81	95	86	65	49	30	84	62	24

Evans, J., Cooperman, A., Star, K. J., Corchi, M., Miner, W., & Lesage, K. (2023, September 12). Buddhism, Islam and religious pluralism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ew Research Center.

Slide 16

35 country study on spirit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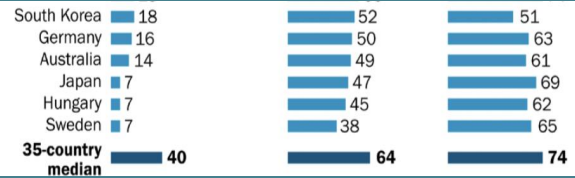
Evans, J., Lesage, K., Miner, W., Star, K. J., & Corchi, M. (2023, May 29). Believing in spirits and life after death is common around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91-189727/>

Slid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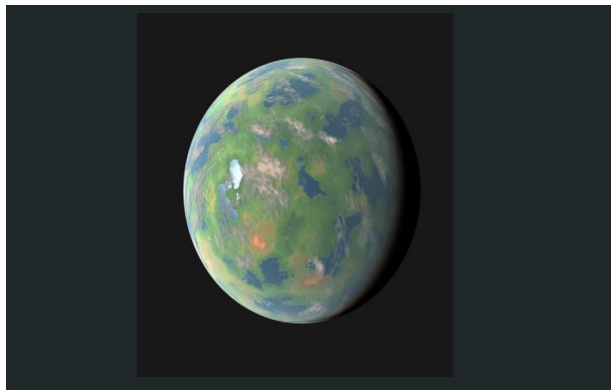
Religion very important in my life

Life after death

Animals, parts of nature, objects have spirits or spiritual energy



Slide 18



Slide 19

기조연설2
생명과 평화를 위한 지구촌 사회와 리더십: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에서의 치유와 해방

캐트린 포에팅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몬트레이베이 교수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인류학자 안나 칭(Anna Tsing, 2017)은 ****"상처 입은 행성에서 살아가는 기술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취약한 조건들"(Connolly, 2012a)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비판적으로 깨어 있으며, 영적으로 숙련되고, 현시대의 난제들에 맞서 상상력 풍부한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ICCGC가 지향하는 핵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엮히고설킨 이 행성을 해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참으로 경이로운 분들입니다.

'세계종교인평화회의'의 중재자로 활동하시고, 일본묘법사의 일원으로서 분쟁 지역에 발을 들이셨으며, 아시아 평화 구축가들을 위한 '평화분쟁연구센터(CPCS)'를 설립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포콜라레(Focolare) 종교 간 대화를 후원하고, 유엔에서 협상을 이끄시며,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세계 시민 교육, 평화 구축, 신학, 다종교 대화, 개발 등을 가르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몇 가지 난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이 상처 입은 지구 위에서 세계 시민들은 어떻게 트러블과 함께 머물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 2025년의 지정학

[슬라이드 2: 2035년 전망]

저는 주로 매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애틀랜틱 카운슬과 세계경제포럼의 자료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3: 2035년의 민주주의 침체]

우리는 이른바 '미국 제국'이 '렉킹 볼(Wrecking ball, 건물 파괴용 쇠파괴)'에 얻어맞고 있는 듯한 파괴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전문가들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득세로 인해, 현재의 '민주주의 침체'가 2035년경에는

'민주주의 대공황'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 내다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전문가들은 향후 10년의 분쟁 상황과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성소수자(LGBTQ)와 여성 모두의 권리가 퇴보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슬라이드 4: 현재의 위기 지형]

올해 우리 지구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순위가 높은 위기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국가 간 무력 충돌'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란 간의 갈등, 그리고 수단과 미얀마의 내전 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뒤를 잇는 위기는 녹색으로 표시된 '극한 기상(Extreme weather)' 현상입니다.

[슬라이드 5: 세계 정치의 미래 전망: 다극화 시대로의 전환]

전문가들은 2035년의 국제 정치 질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을까요?

연한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2035년의 세계 질서 중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은 단 8%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나리오인 셈이죠.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35년경에 세계가 '다극화되거나 조각조각 분열된 정치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압도적인 합의(64%)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배적인 패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는,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 상충하는 규범들이 부딪히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6: 약화된 다자주의]

이 차트는 지역 기구들이 득세하는 반면, 다자간 협력 체제인 다자주의는 어떻게 약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질문: 2035년에 자신들의 핵심 사명과 직결된 과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집단은 어디인가요?

범례: 파란색은 '능력이 더 뛰어남', 연주황색은 '중립', 노란색과 회색은 '능력이 더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최하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유엔(UN)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긍정적인 파란색은 아주 적고, 부정적인 노란색과 회색 비중이 가장 컸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뒤를 이어 매우 낮은 해결 역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낮은 순위: 그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집단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국제기구들이었습니다. 주요 7개국(G7) 모임 역시 이들과 비슷하게 낮은 해결 역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유엔 예산의 22%

를 차지하는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인도주의적 대재앙이 촉발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 전 세계 유엔 직원의 20%가 일자리를 잃었고, 여러 유엔 기구들이 통폐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지역 블록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두 파란색을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릭스(BRICS)가 43.5%로 가장 높고,

유럽연합(EU, 39.5%)과 아세안(ASEAN, 38.4%)이 거의 대등하며,

G20은 28.9%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들 지역 기구들은 에너지와 기후 변화, 이주 문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정보전과 같은 안보 위기들로 인해 거센 풍파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군사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들입니다.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

[슬라이드 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급부상]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현재 동아시아보다 소득 수준은 낮을지라도, 경제 성장 속도와 인구 증가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하고 활기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8: 2035년 세계가 직면할 가장 거대한 위험들]

앞으로 2년 동안 정보 전쟁, 기후 변화, 국가 간 전쟁이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올해 이미 깊게 우려했던 문제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035년에는 기후 위기가 세계 최고의 위협이 될 것이며, 이는 정보 조작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과 결합되어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슬라이드 9: 지역별]

지역별 전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아의 세 권역에서 기후 위기와 기술 문제가 두드러지며, 특히 남아시아에서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며, 온난화 속도 또한 세계 평균보다 빠릅니다 (UN 2024). 아시아는 전례 없는 수준의 사회적 혼란과 대규모 이주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로워(Low) 연구소, 2025), 이는 2035년에도 아시아가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상반됩니다.

[슬라이드 10: 인도주의적 지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IARAN의 '구호의 미래: 2030년 국제 비정부기구(INGOs)의 모습과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미래 트렌드에 대한 전망
위기가 급증함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부 주체: 2025년까지 자금의 대부분은 북반구 국가 정부(88%)에서 지원될 것입니다. 비전통적인 기부자(민간, 군사, 비서구권, 종교 단체)의 경우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세계가 다극화됨에 따라 서구 문화의 지배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NGO가 반드시 서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방글라데시의 BRAC는 세계 최대 NGO임). 또한 세속적일 필요도 없습니다(월드비전은 복음주의 단체이고, 카리타스는 가톨릭 단체임).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국가 및 종교 NGO를 볼 수 있지만, 종교 및 지역 NGO의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 활동 방식의 다양화, 지역사회 접근성의 변화, 규범의 다양화, 그리고 듀닝의 4대 원칙(인도주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덜 지키는 경향이 예상됩니다.

[슬라이드 11: 청년 활동주의]

2022년 기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층은 전 세계 노동력의 34%를 차지하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청년 세대입니다.

Z세대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세상을 바꾸려 하며, 워라밸과 업무의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는 다소 까다롭지만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요컨대, 2035년이 되면 세계 질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할 것입니다. 세계는 서로 경쟁하는 세력권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 패권 붕괴, 중국의 팽창, 인공지능 기반 경제의 부상, 그리고 민주주의의 침체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와 정치 연합을 예고합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명백히 증명할 것입니다.

종교적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 영성적 깊이와 냉철한 분석력을 갖춰야 하며, 모든 존재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Kinship)으로 이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증언하며 새로운 종교적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슬라이드 12: 세계 정의와 세계 시민의식: 친족관계]

윌리엄 코놀리는 “우리가 정치 생활에서 인간을 유일한 주체로 여기는 낡은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지 않는 한, 이 지구적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놀리 2013a; 2013b).

코놀리는 현재의 "취약한 상황"을 물질적, 형이상학적, 생태적, 역사적 힘이 수렴하는 패러다임을 통해 다룬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한국의 남쪽 관광 섬인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종교 간 연대 시위에 참여했을 때 이를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집단적이고 창의적인 연대를 목격했습니다.

저희 대표단인 '생명을 위한 평화'는 필리핀 활동가들이 설립한 세계적인 종교 간 네트워크입니다. 제주 시위는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 운동, 그리고 제국주의에 지배당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종교, 영성,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하려는 저희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상징이었으며, 한국 관리들은 이곳을 "국가 방위의 최전선"으로 여겼고, 미국은 핵잠수함 기지로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지 건설을 위해 삼성은 거대한 장비로 바다를 준설했지만 건설은 해안에 위치한 신성한 화산암 지대인 구름비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길이 1km에 달하는 이 바위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은 계약업자들이 폭파 작업을 하는 동안 경비를 썼고, 마을 주민들은 철조망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정 마을 사람들은 수 세기 동안 구름비 바위를 숭배하며 보호해 왔고, 조수 웅덩이에서 게를 잡고 그곳에서 제례를 지내왔습니다(Martin 2017).

제주도의 한 시민은 "구름비 바위에 앉아" 인간과 구름비, 그리고 할망물 사이의 신성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할망물은 여신과 같고 구름비는 그녀의 신전이다. 군사 기지를 짓기 위해 파르테논 신전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구름비 바위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군이 함부로 들어가 파괴했다. 우리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신과 그녀의 신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Pae 2014, 61)

우리 일행은 스님들, 문정현 신부님의 미사팀과 합류하여, 정부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춤을 추며 평화롭게 저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는 삼엄한 현장 속에서도, 활동가들은 저자에게 할망물과 천년 된 신목, 영등할망 같은 제주만의 깊은 생태 영성을 소개하며 자신들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군사적 확장에 저항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생계와 신성한 장소를 지키기 위해 기계와 육지, 바다 사이에 몸을 던지는 행동과 서사의 결합, 그리고 태풍이 수중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영단이 복수를 해석하는 방식은 도나 해러웨이(2016)의 저서 『트러블과 함께 머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해러웨이에게 있어 이러한 "함께 머무른다"는 것은 "세상의 지속성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러웨이가 상상하는 탈인류세 시대든, 제주도 최남단이든, 두 곳 모두 생명체, 풍경, 인간, 여신 등 다양한 존재들이 지구를 공유하며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러웨이는 "상처 입은 지구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더 살기 좋은 미래를 건설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주민 학자 로빈 키머러(Robin Kimmerer)는 이러한 종간 관계를 "나의 모든 관계"라는 표현으로 포착합니다. '지금 제주를 구하자'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종간 연대를 친족 관계로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보여주는 반군사주의적 종간 연대는 그들의 노력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용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미국 잠수함은 2017년에야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를 구하자' 활동가들은 여전히 "트러블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3: 세계 정의와 세계 시민의식: 증언]

연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학자이자 활동가로서, 종교적 이웃이나 우리 공동체에 대한 불의에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내부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백인 진보주의자이자 미국 장로교 신자이며 레즈비언으로서, 성경적 성 규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트랜스젠더,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적 주장,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배타적 민족주의, 그리고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의 신성시되는 이스라엘 지지에 반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나 분노하여 건설적인 대응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신학자 회의 참석차 서안 지구의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저는 젠더와 군국주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느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성지"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 경험은 예상치 못한 마법과 같았고, 베벌리 해리슨의 훌륭한 에세이, "분노의 힘과 사랑의 실천"(1985)이 떠올랐습니다.

억압받고 식민화된 공간에서 동료 및 연구자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에 의해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증언 활동은 근본적인 비판적 성찰을 요구합니다(Maldonado-Torres, 2011).

가자와 서안 지구의 무자비한 파괴를 목격하는 지금, 저는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 샬후브-케보르키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분노의 힘을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실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저서 『안보 신학, 감시 그리고 공포의 정치』(2015)에서 그녀는 이스라엘이 식민주의적 신학을 이용하여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을 폭로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리 장벽" 한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샬후브-케보르키안의 나침반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내 침실 속의 이스라엘"이라는 장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에 가해지는 숨 막힐 듯한 통제, 즉 누구와 결혼할지, 배우자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 출산 시 어느 병원에 갈 수 있는지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실태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점령의 죽음의 정치학,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비난한 샬후브-케보르키안은 히브리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2024년 체포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괴롭힘 끝에 사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샬후브-케보르키안은 엄청난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쓰고, 말하고, 시위하고, 징집을 거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개신교 신자로서 저는 이 실패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나라는 이 학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너무나 타협적입니다. 흑인 쿼어 작가 제임스 볼드윈이 말했듯이, "직면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직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 종교에 저항하고 영성 선택하기

세상은 종교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 즉 '무종교인'의 비율은 세계 인구의 24%로 증가했습니다. 대체로 기독교인들이 '무종교인'으로 전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퓨(Pew) 리서치 센터의 최근 아시아 조사에서는 종교적 소속의 부재(일본에서는 '종교'라는 용어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와 '전통적인 아시아식 영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¹

[슬라이드 14: 세계에서 종교성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

"동아시아"는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종교성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라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 특히 홍콩과 한국

¹ 전통적으로, 그들은 신에 대한 믿음, 종교 예배 참석, 삶에서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잦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퓨 연구소가 홍콩과 베트남을 포함시킨 이유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15: '동아시아'의 종교 전환율 세계 최고]

브라운: 홍콩, 한국, 대만은 현재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에서 자랐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무종교로의 전환입니다. 무신론자가 더 많아진 걸까요?

[슬라이드 16: “종교”는 중요하지 않지만, 세계관과 실천은 강하다]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업보에 대한 믿음은 높음(홍콩, 대만, 베트남). 영적 체험은 종교적 중요성보다 높음.

한국은 명상과 기도 등 영적 실천이 가장 강함.

젊은 세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은 낮지만, 영적 체험은 기성세대보다 높음.

공식적인 종교 단체 가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개인적이고 전통적인 영적 수행은 여전히 일상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슬라이드 17: 동남아시아: 더 높은 “종교적” 일관성]

동남아시아 본토(스리랑카 포함)에서는 “종교적” 중요성, 전통적인 영적 관습, 세계관 간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종교적 중요성과 신/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은 낮지만, 카르마, 운명, 주술, 영적 공력과 같은 오컬트 활동에 대한 믿음은 높습니다.

퓨 연구소는 여전히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슬라이드 18: 35개국 영성 연구]

퓨 리서치 센터는 “전 세계 영성에 대한 더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 종교가 있는 35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비종교적 종교(NRMS), 토착 세계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종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중요성은 방글라데시(97%)에서 멕시코(50%)에 이르는 남반구 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유럽과 아메리카, 싱가포르, 한국, 일본으로 갈수록 약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사후 세계(64%)나 종교의 중요성(40%)보다 지구(동물, 자연,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더 확신했습니다(74%).

젊은 세대는 신을 믿거나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만, 동물과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더 강합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추세와 일치합니다.

[슬라이드 19: 종교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들의 클로즈업]

종교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 스웨덴, 헝가리, 일본(7%). 이들 국가의 종교관과 영적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60%)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퓨 연구소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종교적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영적인 세계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아시아 영성"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대의 탈세속적 세계관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를 재마법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브리스만(2023)은 기후 운동가들이 과학적 정보와 데이터 차트로 자신들의 절망이나 경이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베버의 탈마법화된 근대성에서 벗어난 "재마법화", 즉 "현대적 마법"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분노, 슬픔, 경이로움으로 이루어진 감정적 생태계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마법은 인간을 초월하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경이심, 관계성, 그리고 뿌리내림을 표현합니다(커리 2021). "마법화된" 세계는 기후 재앙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결론

ICCGC의 핵심 목적이 비판적 의식을 갖고, 영적으로 능숙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회복력을 지닌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행동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행은 분명 여러분이 비판적 의식을 갖고, 절망을 거부하며, 어려운 간극을 넘어 모든 존재와 유대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지구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회복력 있는 방법을 상상하여 더 살기 좋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기 바랍니다.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지구 자체 사이에 연약하지만 끈질긴 연대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지위집에 저항하고,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나오미 시합 나이(Naomi Shihab Nye)의 시 "예루살렘"의 일부를 인용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느릴까?

군인들이 약국을 배회한다.

큰 총, 작은 알약들.

고개를 살짝만 기울여도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내 머릿속엔

증오가 자라지 않는 곳이 있다.

나는 그 수수께끼를 만진다. 바람과 씨앗들.

잠자는 동안 무언가가 우리를 찌른다.

늦었지만 모든 건 곧 다가온다.

참고문헌

애틀랜틱 카운슬 (Atlantic Council) 산하의 스킵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 “글로벌 미래예측 2025 조사: 전체 결과”. 워싱턴 D.C.: 애틀랜틱 카운슬, 2025. 2. 12.

제인 베넷(Bennett, Jane). “현대성의 매혹: 교차점, 에너지, 그리고 윤리”. 프린스턴,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 2001.

---. *활기찬 물질: 사물의 정치생태학*. 더럼,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대학교 출판부, 2010..

이자벨라 브리스만(Brisman, Izabela). “기후변화 시대의 마법에 대한 탐구: 기후 위기에 대한 종교적 또는 영적 대응.” *Dialog* 62, no. 4 (2023): 326-34. <https://doi.org/10.1111/dial.12836>.

제레미 캐럿(Jeremy Carrette)과 휴 미얼(Hugh Miall) 편. “종교, NGO, 그리고 유엔: 권력 안의 가시적·비가시적 행위자들”. 런던: 블룸스버리 아카데미, 2017.

프란체스카 카바초니(Cavazzoni, Francesca), 줄리아 베로네세(Giulia Veronese), 모하메드 A. 노팔(Mohammed A. Nofal), 클라우드 소우사, 케이트 핀첨, 나데라 샬후브-케보르키안. “너무 백인 중심적: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 학자들과의 위치성 및 권력 역학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식민주의 유산을 탐색하기.” *사회정치심리학 저널* 13 권 1호(2025): 5-20. <https://doi.org/10.5964/jspp.15113>.

디페시 차크라바르티(Chakrabarty, Dipesh). “하나의 행성, 여러 세계”: 기후 시차. 월섬, 매사추세츠: 브랜다이스 대학교 출판부, 2023.

매슈 클라크(Matthew Clarke). “개발과 종교(Development and Religion)”. 첼트넘, UK: 에드워드 엘가, 2011.

제라드 클라크(Gerard Clarke)와 마이클 제닝스(Michael Jennings). “개발, 시민사회, 그리고 신앙 기반 조직: 성스러움과 세속적 가치의 연결”의 서론, 제라드 클라크와 마이클 제닝스, 1-17. 뉴욕: 팔그레이브 맥밀런, 2008.

매슈 클라크(Matthew Clarke)와 이언 패리스(Ian Parris). “재난 이해: 인도적 대응에서 다양한 세계관 관리 및 수용.” *국제 인도적 활동 저널* 4권, 19호(2019). <https://doi.org/10.1186/s41018-019-0066-7>.

윌리엄 코널리(Connolly, William E). “사물의 취약성: 자기조직화 과정, 신자유주의적 환상, 그리고 민주적 행동주의. 더럼”,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대학교 출판부, 2013a.

---. “새로운 유물론과 사물의 취약성.” *밀레니엄: 국제 연구 저널* 41권, 3호(2013b): 399-412. <https://doi.org/10.1177/0305829813486849>.

패트릭 커리(Curry, Patrick). ‘자연의 마법과 마법의 본질(The Enchantment of Nature and the Nature of Enchantment)’, *자연을 경외하며(Honoring Nature)*, Lis McLoughlin 편. 웬델: 휴먼 에러 출판사, 2021.

알렉상드르 다양(Alexandre Dayant), 롤랑 라자(Roland Rajah), 에르베 르마히외(Hervé Lemahieu), 수재나 패튼(Susannah Patton) 및 도미니크 미거 (Dominic Meagher). “동남아시아 원조 지도: 2025 주요 결과 보고서”. 시드니: 로위 연구소, 2025.

조나단 에반스(Jonathan Evans), 케이트 르사주(Kate Lesage), 윌 마이너(Will Miner), 켈시 조 스타(Kelsey Jo Starr) 및 마놀로 코리치(Manolo Corichi). “영혼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 흔하다.” *퓨 리서치 센*

터, 2025. 5. 6., 2025년 8월 11일 접속. <https://pewrsr.ch/3YuHunI>.

조나단 에반스(Jonathan Evans), 앨런 쿠퍼먼(Alan Cooperman), 켈시 조 스타(Kelsey Jo Starr), 마놀로 코리치(Manolo Corichi), 윌 마이너(Will Miner) 및 케이트 레세이지(Kate Lesage). "동아시아 사회의 종교와 영성." 퓨 리서치 센터, 2024. 6. 17., 2025년 8월 11일 접속. <https://www.pewresearch.org/?p=169727/>.

조나단 에반스(Jonathan Evans), 앨런 쿠퍼먼(Alan Cooperman), 켈시 조 스타(Kelsey Jo Starr), 마놀로 코리치(Manolo Corichi), 윌 마이너(Will Miner) 및 케이트 레세이지(Kate Lesage)..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불교, 이슬람교 및 종교 다원주의." 퓨 리서치 센터, 2023. 9. 12., 2025년 8월 11일 접속. <https://pewrsr.ch/3rdGSoX>.

권기(Gwon, Gi).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 학살과 한국의 국가 건설": 메릴랜드주 래넘: 로먼 앤 리틀필드, 2023.

도나 해러웨이(Haraway, Donna J). *트러블과 함께 머물기: 크툴루세 시대의 친족 만들기*. 더럼,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교 출판부, 2016.

---. "촉수적 사고: 인류세, 자본세, 크툴루세". *E-flux Journal* 75 (2016): 1-17.

베벌리 윌딩 해리슨(Harrison, Beverly Wildung). "사랑의 일에 있어서 분노의 힘." 캐롤 S. 롱 편, 3-21. 보스턴: 비컨 프레스, 1985.

콘래드 해킷(Hackett, C), 마르친 스톨나프스키(Stonawski, M), 스카일러 통(Tong, S), 스테파니 크레이머(Kramer, S.), 안나 시(Shi, A) 및 다리야 파미(Fahmy, D).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종교 지형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워싱턴 D.C.: 퓨 리서치 센터, 2025. 6. 9.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5/06/09/how-the-global-religious-landscape-changed-from-2010-to-2020/>.

카스텐 레만(Lehmann, Karsten). "국제관계에서 종교 NGO의 역할":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성. 런던: 라우틀리지, 2016.

캐서린 러츠(Lutz, Catherine). "제국은 디테일에 있다." *미국 인류학자* 33권 4호(2006): 593-611.

넬슨 말도나도-토레스(Maldonado-Torres, Nelson). "탈식민주의적 전환에 대한 사유: 이론, 철학, 비평에 대한 탈대륙적 개입-서론." *트랜스모더니티: 루소-히스패닉 세계의 주변부 문화 생산 저널* 1권 2호 (2011): 1-15. <https://doi.org/10.5070/T412011805>.

세스 마틴(Martin, Seth). "구름비에 대한 추모사: 제주도 미·한 합동 해군기지 건설에 맞선 10년간의 투쟁에 대한 고찰." *지구섬 저널*, 2017. 7. 5. 지구섬연구소. 2025년 8월 11일 접속. https://earthisland.org/journal/index.php/articles/entry/eulogy_for_gureombi.

최경재(Pae, Kyeong-jae Choi). "종교 간 대화로서의 페미니스트 활동: 한국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얻은 교훈." *한국 종교학회지* 5권 1호 (2014): 55-69. <http://www.jstor.org/stable/23943335>.

보아벤투라 드 소우사 산투스(Santos, Boaventura de Sousa). "남반구의 인식론": 인식론 말살에 맞서는 정의. 런던: 라우틀리지, 2016.

강정 마을 주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2013. 10. 27. <https://savejejunow.org/statement-by-the-peoples-forum-of-peace-for-life-jeju/>.

---. "해군, 신제주기지 인근에서 대북 훈련 실시." *연합뉴스*, 2016. 3. <https://savejejunow.org/navy->

conducts-anti-north-exercise-near-new-jeju-base-yonhap-news/.

나데라 샬후브-케보르키안(Shalhoub-Kevorkian, Nadera). “안보 신학, 감시, 그리고 공포의 정치”.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2015.

"21세기의 풍경." 비판적 세계화 연구 저널 1 (2009): 9-30.

안나 칭(Tsing, Anna Lowenhaupt), 닐스 부반트(Nils Bubandt), 일레인 간(Elaine Gan) 및 헤더 안 스완슨(Heather Anne Swanson) 편. “손상된 지구에서 살아가는 예술: 인류세의 유령과 괴물들”.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대학교 출판부, 2017.

유엔 뉴스 (2024. 4. 23.) <https://news.un.org/en/story/2024/04/1148886>

에린 윌슨(Wilson, Erin). “‘권력 차이’와 ‘차이의 힘’: 존재론적 불의로서의 세속주의의 지배.” 세계화 14, 7호 (2017): 1076-93.

세계경제포럼. 2024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 제네바: 세계경제포럼, 2024.

기데온 J. 은콜로(Nkolo, G. J). (2025. 7.). “15년 후 원조의 미래: 돌연변이인가 변태인가?” 아프리카 국제관계 및 전망 연구소(ALIAP: African Lab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Prospective). <https://aliap.org/the-future-of-aid-in-15-years-mutation-or-metamorphosis>

[세션 1]
Session 1

Panel Session 1 | Transformative Leadership for a Just and Peaceful Future

The Leadership We Need in This Time of Global Turbulence

Garry Jacobs

President

President, World Academy of Art & Science

Introduction

Never before has humanity had such a pressing need for enlightened and effective leadership. One of the most striking deficiencies of our time is the absence of leadership that is visionary, inclusive, and equipped to address the rapidly evolving complexity of global challenges. Effective leadership today demands a deep understanding of interrelated global systems, universal values, and transformative strategies aligned with humanity's long-term evolution.

The quality of leadership is shaped by the information available, the social and political theories in vogue, the values guiding decisions,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within which action is taken, and the aspiration and strength of will to pursue paths that foster sustainable global advancement. But its ultimate results will depend on the level of preparedness, awakening and aspiration of the population that is lead. Therefore an effective leader must be one whose call resonates with the people and evokes a whole-hearted response.

1. The Accelerating Pace of Global Change

At the heart of our predicament lies the unprecedented speed of change. Technological innovation, societal transform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geopolitical shifts are occurring at a pace far beyond the adaptive capacity of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This rapid acceleration has outpaced education, policy, and public understanding, resulting in mounting stress and disorientatio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especially in AI, biotech, and digital media—has transformed economies and social life more quickly than governance systems can adapt. Education systems still teach outdated knowledge, while decision-makers rely on frameworks no longer suited to the complexity and velocity of the current world. This disjunction is a major contributor to today's global turbulence.

2. A Globalized and Hybrid Social Culture

Humanity now lives in an unprecedented state of global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intermingling. Instantaneous communication, global migration, and international commerce have brought societies into continuous and intensive interaction. The result is an emerging hybrid global culture rich in diversity

but also rife with tension. Cultural convergence and identity assertion occur simultaneously, sometimes giving rise to confusion, conflict, and polarization.

The global scale and immediacy of interaction amplify every local conflict, economic shock, or social crisis into a global concern. Leadership must thus be capable of responding not only to national interests but also to the complex dynamics of a deeply interconnected world.

3. The Complexity of Global Challenges

We face a constellation of global threats that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rising authoritarianism, militarization, weapon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nancial instability, persistent poverty, growing inequality, pandemics, biodiversity loss, and climate change. Each is daunting on its own; together, they form a global polycrisis that current systems are ill-equipped to manage.

These challenges require more than piecemeal responses. They demand systemic, inclusive, and future-oriented strategies. Yet today's leadership remains fragmented, reactive, and constrained by short-term interests and nationalistic paradigms.

4. The Turbulent Roots of Crisis

Headlines focus on symptoms—conflicts, economic shocks, disinformation, climate disasters—but fail to address the substratum of social turbulence from which they arise. Rising tensions, ideological polarization, nationalism, and extremism are all fueled by the growing gap between current realities and the outdated assumptions that guide our responses.

Leadership has failed to grasp or communicate the deeper structural transformations underway.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root causes, global efforts to address surface-level problems will continue to flounder.

5. The Promise and Challenge of Universal Values

The post-Cold War period saw unprecedented global progress in articulating shared human value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rked historic moments of global consensus. The adoption of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y 193 nations in 2015 signaled a universal aspiration to build a better world.

However, a 2025 review shows only about 17% of SDG targets are on track. This shortfall reflects not just the scale of the challenge, but the lack of adequate knowledge, institutional capability, funding, and political will to realize such an ambitious agenda.

6. Resistance to Change and Backlash

Since 2015, powerful counterforces have risen to resist rapid social transformation. Around the world, populist and authoritarian movements, fossil fuel lobbies, and vested financial interests have mobilized to obstruct progress.

We are witnessing a resurgence of nationalism, erosion of democratic norms, and a retreat from multilateralism. There is growing mistrust in science and public institutions. The forces resisting transformation have exploited digital platforms to spread misinformation and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global cooperation.

This backlash reflects not just elite resistance but also widespread public anxiety. Many feel disempowered and left behind. Leadership must understand these fears while not capitulating to regressive forces.

7. The Crisis of Leadership Itself

Leadership today is shaped more by political expediency than moral clarity. Many leaders serve narrow interests—economic elites, political parties, military-industrial complexes—and lack the vision or courage to champion universal well-being.

Instead of bridging divides, leaders increasingly polarize. Instead of speaking truth to power, they echo it. The result is a widening gulf between institutions and the people they claim to serve, exacerbating distrust and alienation.

8. The Leadership the Future Demands

The leadership we need must possess the vision to recognize the transformative nature of this historical moment and the wisdom to align action with the direction of social evolution. Such leadership must:

- Be grounded in universal values and scientific knowledge;
- Transcend zero-sum national interests and work for global cooperation;
- Reconcile conflicting priorities through dialogue, inclusion, and shared purpose;
- Empower those left behind and restore dignity to the disenfranchised.

Leadership must be rooted in courage, imagination, and empathy. It must unite rather than divide, inspire rather than control.

9. Changing the Mindset

A new leadership paradigm begins with a change in thinking. Fear-based narratives and identity politics feed insecurity and short-termism. Future leadership must cultivate a new global ethos: one that affirms human dignity, interdependence, and shared responsibility.

People are confused and fearful. They need vision, reassurance, and meaningful engagement. Leaders must appeal not just to interests but to aspirations. They must tell a compelling story of the future worth striving for.

10. Human Security for All

Traditional concepts of national security have failed to protect people from modern threats. Real security lies in ensuring the well-being of every human being: access to food, clean water, health care, education, jobs, justice, and a livable planet.

Agenda 2030 has largely been promoted from the top down. But real transformation requires bottom-up mobilization. The 17 SDGs must be made personally relevant to billions of people. Only then can we build the momentum for change.

11. Common Security: A New Paradigm

We must move from a competitive, militarized conception of security to a cooperative, inclusive one. “Common security” means no one is secure until all are secure. It demands demilitarization, diplomacy, and investment in peace.

History shows that military build-up by one side fuels insecurity in others. We need disarmament agreements, trust-building measure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with real authority.

12. Transforming Economics for Sustainability

GDP growth is celebrated while forests disappear, inequality grows, and ecosystems collapse. We need a new economics that values what truly matters: well-being, equ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Leadership must demand indicators that reflect long-term human and planetary health, not just short-term profits. Economics must be redefined as a tool for provisioning human needs within ecological limits.

13. Challenging Power and Restoring Democracy

Leadership must confront the undue influence of money in politics. Campaign finance reform,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institutional transparency are essential to restore public trust.

True democracy requires that all voices be heard, not just those of the wealthy and powerful. Oligarchic and plutocratic systems must give way to participatory governance.

Conclusion: A Call to Generational Leadership

The world is in the midst of an unprecedented transition. It is being shaped by unconscious forces pursuing contradictory goals. The leadership we need must consciously steer these forces toward the common good.

This task cannot fall to a single individual. Leadership must become an ecosystem of institutions, movements, and citizens aligned by shared values and vision. Great leaders arise when their societies are ready for them.

Lincoln, Gandhi, King, Mandela, and Gorbachev led revolutions not alone, but with the support of people whose aspirations they gave voice to.

When Gorbachev launched glasnost and perestroika in the 1980s, he was asked how this differed from Dubček's Prague Spring in 1968. He answered, "The difference is 19 years." In those two decades, a new generation arose ready to realize the ideals earlier crushed.

Today's youth must neither accept nor resign themselves to a broken world. They must demand and embody the leadership the world needs. By awakening hope and activating public will, they can create the foundation for leaders who rise to meet the moment.

세션 1 |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정의, 생명, 그리고 평화

세계적 격동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게리 제이콥스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AAS) 대표

서문

인류 역사상 현명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이 이토록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뼈아픈 결함 중 하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포용적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과제들의 복잡성을 해결할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결된 글로벌 시스템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인류의 장기적 진화 방향에 부합하는 변혁적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질은 가용한 정보, 당대를 풍미하는 사회·정치 이론,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는 가치관, 행동의 토대가 되는 제도적 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세계 발전을 향한 열망과 강력한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궁극적인 성패는 그 리더십이 이끄는 대중의 준비 상태와 각성, 그리고 열망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란, 대중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그들의 진심 어린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1. 가속화되는 세계 변화의 속도

우리가 직면한 난국의 핵심에는 전례 없는 변화의 속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사회적 변혁, 환경 파괴, 그리고 지정학적 격변은 개인과 기관, 정부의 적응 역량을 훨씬 초월하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가속화는 교육과 정책, 그리고 대중의 이해 수준을 앞질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스트레스와 방향 상실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일어난 기술 혁명은 기존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적응하기도 전에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낙후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들은 오늘날 세계의 복잡성과 속도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괴리는 오늘날 전 지구적 격동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2. 세계화된 하이브리드 사회 문화

인류는 이제 전례 없는 수준의 세계적 상호의존성과 문화적 혼종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소통, 전 지구적 이주, 그리고 국제 교역은 각 사회를 지속적으로 강렬한 상호작용의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성이 풍부하면서도 동시에 긴장이 팽배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세계 문화가 출현했습니다. 문화적 융합과 자기 정체성의 강조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때로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양극화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의 세계적 규모와 즉각성은 개별 지역의 갈등이나 경제적 충격, 사회적 위기를 즉각 전 지구적인 사안으로 증폭시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리더십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 깊이 연결된 세계의 복잡한 역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글로벌 과제의 복잡성

우리는 현재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얽혀 있는 일련의 글로벌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권위주의의 부상, 군사화, 인공지능의 무기화, 금융 불안정, 고착화된 빈곤, 심화되는 불평등, 팬데믹,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각각의 현안은 그 자체로도 해결하기 벅찬 과제들이지만, 이들이 결합하여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글로벌 다중 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단순히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리더십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사후 반응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위기의 요동치는 근원

뉴스의 헤드라인은 갈등, 경제적 충격, 허위 정보, 기후 재앙과 같은 '증상'에만 주목할 뿐, 정작 이러한 현상들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격동의 기저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긴장과 이념적 양극화, 민족주의, 그리고 극단주의는 모두 현재의 실상과 우리의 대응을 지배하는 구시대적 전제 사이의 커지는 간극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더십은 지금 진행 중인 심층적인 구조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대중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5. 보편적 가치의 약속과 과제

냉전 종식 이후,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정립하고 명문화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세계적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전 지구적 합의를 이룬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193개국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것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인류의 보편적 열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행 검토 결과, SDG 세부 목표 중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은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 미비는 단순히 과제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토록 야심찬 의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제도적 역량, 자원,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6. 변화에 대한 저항과 반발

2015년 이후, 급격한 사회 변혁에 저항하는 강력한 반동 세력이 부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및 권위주의 운동, 화석 연료 로비스트, 그리고 금융 기득권 세력들이 변화의 진보를 가로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결집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주의의 재부상과 민주주의 규범의 침식, 그리고 다자주의로부터의 후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공공 제도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혁에 저항하는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교묘히 이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국제적 협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단순히 엘리트 계층의 저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기저에는 광범위하게 퍼진 대중의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권한을 상실하고, 시대의 흐름에서 낙오되었다는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리더십은 이러한 대중의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퇴행적인 세력의 논리에 영합하거나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7. 리더십 자체의 위기

오늘날의 리더십은 도덕적 명료함보다는 정략적 편의주의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리더가 경제 엘리트, 특정 정당, 군산복합체 같은 협소한 이해관계에 봉사할 뿐, 인류 전체의 보편적 안녕을 수호할 비전도 용기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리더들이 앞장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기보다 그저 권력의 논리를 대변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 결과, 공공 제도와 그 제도가 봉사해야 할 시민들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불신과 소외를 견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8. 미래가 요구하는 리더십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지금 이 역사적 순간의 전환적 성격을 꿰뚫어 보는 비전과, 사회 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리더십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편적 가치와 과학적 지식에 확고한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 제로섬 방식의 자국 이익 추구를 초월하여 전 지구적 협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 대화와 포용, 그리고 공동의 목적의식을 통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 소외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리더십은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공감에 근거해야 합니다. 분열보다는 통합을 지향하고, 통제보다는 영감을 불어넣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9. 사고방식의 전환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은 사유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공포를 자극하는 서사와 정체성 정치는 불안과 단기주의(short-termism)를 먹고 자랍니다. 미래의 리더십은 인간의 존엄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긍정하는 새로운 글로벌 시대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 대중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비전과 심리적 안도감, 그리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입니다. 리더는 단순히 물질적 이익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열망을 자극해야 합니다. 리더십이란 우리 모두가 함께 정진할 가치가 있는,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서사를 들려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10.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전통적인 국가 안보 개념은 현대의 다각적인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모든 개별 인간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즉 식량, 깨끗한 물, 보건 의료, 교육, 양질의 일자리, 사법 정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간 '2030 의제'는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혁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역동적인 걸림이 필수적입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전 세계 수십억 인구 개개인의 삶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화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 공동 안보: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는 경쟁적이고 군사화된 안보관에서 벗어나,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안보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공동 안보'란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비 축소와 외교적 노력, 그리고 평화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역사는 어느 한쪽의 군비 확장이 타국의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인 군축 협정과 신뢰 구축 조치, 그리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춘 다자간 국제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2.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숲이 사라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생태계가 붕괴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GDP 성장만이 찬양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즉, 인간의 안녕과 형평성,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경제학은 이제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13. 권력에 대한 도전과 민주주의의 회복

리더십은 정치 영역에 작용하는 금권의 부당한 영향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자금 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제도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부유한 권력층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실현됩니다. 소수 권력자가 독점하는 과도 정치와 돈이 지배하는 금권 정치 체제는 이제 시민 중심의 참여형 거버넌스에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결론: 세대적 리더십을 위한 호소

세계는 지금 전례 없는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쫓는 맹목적인 힘들이 지금의 세계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이러한 힘들을 공동선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의식적으로 이끌고 조타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과업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공유된 가치와 비전 아래 결속된 제도, 운동, 그리고 시민들이 어우러진 생태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오직 사회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등장합니다.

링컨, 간디, 킹, 만델라,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홀로 혁명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중의 열망에 목소리를 부여했고, 그 대중의 지지를 동력 삼아 전진했습니다.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단행했을 때, 1968년 두브체크의 '프라하의 봄'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19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과거에 짓밟혔던 이상을 실천할 준비가 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난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무너진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십을 당당히 요구하고, 스스로 그 리더십을 체화해야 합니다. 희망을 깨우고 대중의 의지를 결집할 때, 비로소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Panel Session 1 | Transformative Leadership for a Just and Peaceful Future

From Fragmentation to Flourishing: Reclaiming Virtue Ethics and Spiritual-Moral Leadership

Rev. Kyoichi Sugino
President, Gakurin Seminary

Opening Reflections on Place and Legacy

This work was first presented in Iksan, a city deeply rooted in Korea's spiritual and democratic heritage. As the ancient capital of Baekje, Iksan played a pivotal role in transmitting Buddhism to Japan. The spiritual seeds sown here over a millennium ago continue to inspire cross-cultural cooperation today. The city's historical resonance—both spiritual and civic—frames the core of this paper: that virtue ethics is not only a personal path, but a shared endeavor across cultures and generations.

Abstract

Amid the challenges of a fragmented world, a renewed ethics of virtue offers a path not only for personal moral formation but also for shared spiritual responsibility and relational leadership. This paper explores how cross-cultural traditions of virtue ethics—ranging from Aristotle to Confucianism, Buddhism, and contemporary thinkers—can inform spiritually grounded leadership in pluralistic societies. Drawing on examples from interreligious peacebuilding and the educational practices of Gakurin Seminary, the essay introduces the concept of a "spiritual-moral infrastructure" — a web of virtues embedded in individuals, relationships, and institutions — as a foundation for cultivating trust, compassion, and sustainable cooperation across religious and cultural divides.

1. Rethinking Virtue Ethics in a Time of Ethical Transition

At the heart of virtue ethics lies a fundamental question: not simply "What should we do?" but "Who should we become?" In a time when external rules and ideologies often fail to inspire trust, this inward and relational question points us toward a deeper moral awakening. Ethical leadership today must be rooted not in compliance or charisma, but in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discernment, and shared responsibility.

We live in a world marked by moral fragmentation, institutional distrust, and algorithm-driven polarization. Yet, this is not merely a time of crisis. It is also a period rich with ethical possibility. In the cracks of disillusionment, new forms of solidarity are quietly emerging—through compassion, care, and

moral imagination. Virtue ethics, rooted in personal formation and relational practice, offers a deeply resonant framework for this emerging horizon.

Classical Western thought, such as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defined virtue (*aretē*) as a habit of character aligned with reason and directed toward *eudaimonia* (human flourishing). In contrast to rule-based ethics, it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through practice, community, and practical wisdom (*phronēsis*).ⁱ

Asian traditions enrich this vision. Confucianism emphasizes *ren* (benevolence), *yi* (righteousness), and *li* (propriety) as virtues cultivated through human relationships and social harmony.ⁱⁱ Taoism highlights *de* (virtue) as alignment with the natural order through humility and non-domination. In Buddhism, the Six Paramitas—generosity, ethical discipline, patience, effort, meditation, and wisdom—form the path of the *Bodhisattva*, whose practice is directed toward the liberation of all beings.

Modern moral philosophers such as Alasdair MacIntyre and Martha Nussbaum have called for a return to virtue ethics as a response to moral relativism and institutional inertia. MacIntyre famously argued that we have lost the shared moral language necessary for coherent ethical debate. This is a condition he called 'moral disorder'—a breakdown of ethical grammar in public discourse. In an age where algorithms and market logic shape public opinion, we must reassert the language of character and community. This absence also opens a space: an invitation to rebuild an ethics that is not imposed from above, but cultivated from within.ⁱⁱⁱ

Building on MacIntyre, Nancy Snow conceptualizes virtue as a form of social intelligence that operates relationally and contextually.^{iv} Julia Annas, meanwhile, views virtues as developed through intelligent, skill-like habituation.^v Heather Battaly's work expands the field by analyzing virtue epistemology and the role of character in knowledge practices, offering further integration of cognitive and moral domains.^{vi} Their contributions demonstrate that virtue is not a fixed attribute but a dynamic process—one that must be cultivated through community, education, and reflection.

2. Embodied Virtue and Institutional Practice

To respond meaningfully to today's overlapping crises—conflict, polarization, nationalism, and institutional distrust—we must understand that virtue ethics does not remain confined to individual morality. Rather, it unfolds in layers: shaping character, guiding relationships, and informing institutional cultures.

The following framework outlines this multi-layered approach to virtue as a practical and transformative ethical path:

i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Terence Irwin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1999).

ii Confucius, *The Analects*, trans. Edward Slingerland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2003).

iii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3rd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iv Nancy Snow, *Virtue as Social Intelligence: An Empirically Grounded Theory* (New York: Routledge, 2009).

v Annas, Julia. *Intelligent Virtu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vi Heather Battaly, *Virtue* (Cambridge: Polity, 2015).

Layers of Virtue - A Three-Tier Model of Virtue Ethics for Social Transformation:
A Framework for Ethical Response in a Fragmented World

Layer	Description	Contemporary Challenge Addressed	Core Virtues
1. Inward Formation (The Personal Layer)	The inner cultivation of character through reflection, mindfulness, and moral intention.	Moral fatigue, fear, cynicism	Humility, patience, integrity, compassion
2. Relational Practice (The Interpersonal Layer)	Practicing virtue in daily life—through listening, dialogue, service, and accompaniment.	Social division, polarization, exclusion	Empathy, trustworthiness, hospitality, discernment
3. Cultural & Institutional Embodiment (The Societal & Institutional Layer)	Embedding virtues into collective memory, institutional practices, and public leadership.	Nationalism, systemic distrust, historical trauma, exclusionary ideologies	Responsibility, solidarity, ethical courage, inclusion

These layers are not sequential steps, but interconnected dimensions of moral formation and social healing. When practiced together, they create the ethical foundation for trust, cooperation, and sustainable peace.

This layered framework provides not only conceptual clarity, but also practical orientation. Let us now explore how these layers manifest through historical and contemporary expressions of spiritual-moral leadership.

In the 3rd century BCE, King Ashoka of India underwent a profound moral transformation after witnessing the immense suffering caused by the Kalinga War. This inner awakening was not confined to remorse or reflection—it became the foundation of a new governance ethic, rooted in Buddhist virtues such as non-violence (ahimsa), compassion (karuṇā), patience (kṣānti), and moral restraint (dama).

What followed was not merely personal repentance, but a bold reimagining of statecraft. Ashoka institutionalized these virtues in what we might now call an early moral infrastructure of peace: he renounced military conquest, promoted religious tolerance, dispatched peace emissaries across Asia, protected animals and forests, and published edicts inscribed in stone to encourage ethical conduct among his people. These edicts did not threaten punishment; they appealed to the inner conscience and relational responsibility of citizens.

Ashoka’s legacy shows that virtue ethics can shape more than individual lives—it can guide law, policy, and public morality. His vision was not imposed by force, but nurtured through moral invitation and public trust.

3. Institutionalizing Virtue through Interreligious Solidarity

While Ashoka's moral transformation and governance offer a historical foundation for virtue-based leadership, contemporary interreligious cooperation provides a living model of how virtue can be institutionalized across communities and borders.

The following case reflects how compassion,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rooted in diverse religious traditions—have enabled moral healing in the aftermath of war and displacement.

In postwar Iraq, amid a landscape torn by violence and trauma, a remarkable example of virtue-based interreligious cooperation unfolded. Religious leaders from Iraq—Sunni, Shia, and Christian—joined hands with counterparts from Korea and Japan, to care for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wounded by war.

At the heart of this collaboration were not doctrines, but shared virtues—compassion (*karuṇā*), moral responsibility, humility, and the courage to act across lines of history and belief. Through coordinated medical missions and trauma healing programs, *Religions for Peace* Japan and the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KCRP) facilitated partnerships between faith communit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training Iraqi doctors and supporting children's treatment. What made this possible was the spiritual-moral infrastructure fostered over decades: institutions like KCRP and RfP Japan had already embedded habits of cooperation, dialogue, and ethical responsiveness into the DNA of their networks. These institutionalized virtues—cultivated through joint projects, retreats, and crisis responses—allowed for a swift, humble, and unified action. This story shows that virtue ethics is not only a personal path, but a relational, institutional, and generational practice—a living tradition of moral imagination in the face of suffering.^{vii}

Pope Francis captures this well in the publication *Ethics in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live virtuously is to discover the joy of offering oneself for the sake of others.”^{viii} These are not merely responses to crisis but expressions of a deeper ethics of sacred responsibility that transcends transactional logic. In my own chapter in *Ethics in Action*, I wrote: “From personal awakening to societal healing to global transformation, virtue offers the ethical foundation for authentic leadership and peaceful coexistence.”^{ix} This is not naïve idealism; it is a grounded moral vision for rebuilding fractured societies.

Across more than 90 countries, *Religions for Peace* has institutionalized such moral-spiritual infrastructure through interreligious councils that mediate conflict, coordinate humanitarian aid, and

vii These initiatives in Sri Lanka, Iraq, Korea, and Japan are based on the author's personal involvement during his 23-year tenure at the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Religions for Peace*. He wa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work of affiliated interreligious councils in over 90 countries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conflict transformation, peacebuilding, and reconciliation efforts globally. *Religions for Peace*. <https://rfp.org/about-us/>.

viii Pope Francis. “Foreword.” In *Ethics in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ited by Jeffrey Sachs et al., xi-xi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2.

ix Kyoichi Sugino, *Buddhism and the Common Good in Ethics in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2, pp. 111-120

foster sustained cooperation across lines of faith. Whether protecting minorities in Sri Lanka, healing postwar trauma in Iraq, or convening dialogue in divided societies, these acts embody a virtue ethics in action. They show that when virtue becomes institutionalized through shared memory and sustained commitment, it forms a *spiritual-moral infrastructure* capable of transforming distrust into trust, fragmentation into solidarity.

4. Educating for Ethical Leadership: The Gakurin Model

At Gakurin Seminary (<https://gakurin.or.jp>) in Tokyo, we aim to cultivate transformative leaders grounded in virtue and spiritual engagement. Our educational model integrates intellectual formation (*chisei*), emotional sensitivity (*kansei*), and moral character (*hinsei*). This triad reflects the path of the Bodhisattva, whose virtues are cultivated not for personal liberation alone, but for the well-being of all.

Gakurin's pedagogy is rooted in the integration of wisdom traditions and practical leadership. Students engage not only with classical Buddhist texts and modern ethical theory, but also with lived interfaith experiences. Our curriculum includes seminars on peacebuil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alogue with leaders of diverse faiths, and fieldwork in communities. They also participate in interreligious initiatives such as youth exchange programs and dialogue with Muslim, Christian, Jewish, Hindu and other communities.

Through this experiential formation, students come to understand that leadership is not about command or charisma, but about presence, listening, and accompaniment. They engage in seasonal Buddhist practices, community-based social engagement, and even agricultural training to deepen humility and connection to life's interdependence. Their training is enriched by real-world engagement with interreligious dialogue and grassroots peacebuilding in cooperation with networks such as *Religions for Peace*.

Virtue, at its core, is a habitual orientation to values—not a singular act of goodness, but a sustained commitment to becoming the kind of person who acts with compassion, courage, and discernment. This orientation is not developed in isolation; it is formed in community, over time, through education, ritual, and relational engagement. It asks not only “*What should we do?*” but more fundamentally, “*Who should we become?*”

This question lies at the heart of Gakurin Seminary's educational vision. Our approach is not limited to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but is rooted in holistic moral formation—the integration of intellect, emotion, and character. Students are not merely trained to lead, but are invited to cultivate virtues that sustain ethical leadership: humility in the face of complexity, patience amid disagreement, and integrity in service.

Moral and spiritual formation is not a supplemental activity—it is foundational. By cultivating the habits of humility, discernment, and courage, our graduates are prepared to navigate the moral complexities of our time.

5. Toward a Shared Moral Horizon

In this age of profound uncertainty, our task is not merely to resist fragmentation, but to cultivate the moral conditions for human and communal flourishing. This calls for more than institutional reform—it requires a moral and spiritual renaissance, a reweaving of the shared ethical fabric that binds us together.

Virtue ethics, understood not as a rigid code but as a dynamic and layered practice, offers a compelling response to the crises of our time. It shapes personal character, strengthens relationships, and anchors the ethical foundations of institutions. In a world marked by polarization, moral fatigue, and eroding trust, the path of virtue offers a way forward—toward resilience, repair, and renewed solidarity.

From Ashoka's vision of compassionate governance to interreligious cooperation in regions scarred by war and displacement, we witness how virtue can be embodied and institutionalized, even in contexts of suffering and reconciliation. These lived experiences remind us that compassion, responsibility, and moral courage are not lofty abstractions, but transferable human capacities—cultivated through practice and passed on across generations.

The Gakurin model brings this vision to life. By nurturing the holistic formation of spiritual-moral leaders—through reflective study, interfaith engagement, and grounded community practice—it prepares individuals to navigate ethical complexity with humility, clarity, and courage.

Virtue, then, is not an abstract ideal. It begins within, extends through relationships, and reshapes the moral architecture of our communities and institutions. Its cultivation—in ourselves, in others, and in our systems—lays the foundation for ethical leadership and lasting peace.

Let us commit to this sacred work—together, in trust, with courage, and in service of a flourishing future for generations to come.

세션 1 |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정의, 생명, 그리고 평화

파편화에서 번영으로 : 덕 윤리의 재정립과 영적·도덕적 리더십

스기노 교이치
목사
가쿠린 신학교 총장

장소와 유산에 대한 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정신적·민주적 유산이 깊이 뿌리내린 도시, 익산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백제의 고도(古都)였던 익산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천 년 전 이곳에서 싹튼 정신적 씨앗은 오늘날에도 문화 간 협력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이 지닌 정신적·시민적 역사성은 이 논문의 핵심 관점, 즉 '덕 윤리는 개인의 수양을 넘어 문화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동의 과업'이라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초록

파편화된 세계가 직면한 도전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덕 윤리는 개인의 도덕적 형성을 위한 길일뿐만 아니라 공동의 영적 책임과 관계적 리더십을 향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본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유교, 불교, 그리고 현대 사상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다양한 덕 윤리 전통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영성에 기반한 리더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특히 종교 간 평화 구축 사례와 가쿠린(Gakurin) 신학교의 교육 실천을 바탕으로 '영적·도덕적 인프라'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는 개인과 관계, 그리고 제도 속에 내재된 덕의 연결망을 의미하며, 종교적·문화적 차이를 넘어 신뢰와 자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일구는 근간이 됩니다.

1. 윤리적 전환기, 덕 윤리를 다시 생각하다

덕 윤리의 중심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규범이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내면적·관계적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도덕적 각성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날의 윤리적 리더십은 단순한 규칙 준수나 개인적 카리스마가 아니라, 인격의 함양과 분별력, 그리고 공동의 책임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파편화와 제도적 불신, 그리고 알고리즘이 가속화하는 양극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위기의 시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이 태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환멸의 틈새에서 자비와 돌봄, 그리고 도덕적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양과 관계적 실천에 바탕을 둔 덕 윤리는, 이러한 시대적 지평을 여는 매우 시의적절한 틀을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같은 서구 고전 철학은 덕(Aretè)을 '이성에 부합하며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인간적 번영)를 지향하는 성품의 습관'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규칙 중심의 윤리와는 대조적으로, 실천과 공동체, 그리고 프로네시스(Phronēsis, 실천적 지혜)를 통한 도덕적 인격 형성을 강조합니다.¹

¹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테렌스 어윈 역 (인디애나폴리스: 해킷 출판사, 1999).

아시아의 전통은 이러한 비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유교는 인(仁)·의(義)·예(禮)를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화 속에서 길러지는 덕목으로 강조하며, 도교는 겸손과 무집착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덕(德)을 중시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육바라밀이 보살의 길을 형성하며, 이 수행은 모든 중생의 해탈을 향해 있습니다.

앨리스데어 매킨타이어와 마사 너스바움 같은 현대 철학자들은 도덕적 상대주의와 제도적 타성에 맞서 '덕 윤리'로의 회귀를 주창해 왔습니다. 매킨타이어는 우리가 일관된 윤리적 담론에 필요한 '공유된 도덕 언어'를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공론장에서 윤리적 문법이 해체된 상태인 '도덕적 무질서'라고 명명했습니다. 알고리즘과 시장 논리가 여론을 장악한 시대에, 우리는 인격과 공동체의 언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결핍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싹트는 윤리를 재건하라는 초대와도 같습니다.ⁱⁱ

매킨타이어(MacIntyre)의 이론을 계승하여, 낸시 스노우(Nancy Snow)는 덕을 관계적이고 맥락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지능'의 일종으로 개념화합니다.ⁱⁱⁱ 한편, 줄리아 애너스(Julia Annas)는 덕이란 이성적이고 기술적인 습관화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iv} 헤더 배탈리(Heather Battaly)의 연구는 덕성 인식론과 지식 탐구 과정에서의 인격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지평을 넓혔으며, 나아가 인지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의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v 이들의 공헌은 덕이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육, 그리고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2. 체현된 덕과 제도적 실천

오늘날 갈등과 양극화, 민족주의와 제도적 불신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 유의미하게 대응하려면, 덕 윤리가 개인의 도덕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덕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관계의 지침이 되며, 나아가 제도의 문화를 구축하는 다층적 차원에서 발현됩니다.

다음의 프레임워크는 실천적이고 변혁적인 윤리로서 '덕'에 접근하는 다층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덕의 층위 - 사회 변혁을 위한 3단계의 덕 윤리 모델:
분열된 세계 속에서 윤리적 응답을 위한 프레임워크**

층위	설명	직면한 도전	핵심 덕목
1. 내적 형성 (개인적 층위)	성찰과 마음챙김, 도덕적 지향을 통한 내면적 인격 도야.	도덕적 무력감, 두려움, 냉소주의	겸손, 인내, 정직, 자비
2. 관계적 실천 (대인관계적 층위)	경청과 대화, 봉사과 동반을 통한 일상 속에서의 덕의 실천.	사회적 균열, 양극화, 배제	공감, 신뢰성, 환대, 분별력
3. 문화적·제도적 구현 (사회적/제도적 층위)	집단 기억, 제도적 관행, 그리고 공공 리더십 속에 덕을 내재화하는 것.	국가주의, 구조적 불신, 역사적 트라우마, 배타적 이데올로기	책임감, 연대, 윤리적 용기, 포용

ii 앨리스데어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또는 『덕 이후』), 제3판 (노트르담: 노트르담 대학교 출판부, 2007).

iii 낸시 스노우, 『사회적 지능으로서의 덕: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이론』 (뉴욕: 루트리지, 2009).

iv 줄리아 애너스, 『지적 덕성』(또는 『지성적 덕』), 옥스퍼드: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2011.

v 헤더 배탈리, 『덕』 (케임브리지: 폴리티, 2015).

이러한 층위들은 단방향적인 단계가 아니라, 도덕적 형성과 사회적 치유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차원들입니다. 이 모든 차원이 조화를 이루며 실천될 때, 비로소 신뢰와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윤리적 토대가 구축됩니다.

이러한 층위적 틀은 개념적 명확성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러한 층위들이 역사적·현대적 영적-도덕적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 왕은 칼링가 전쟁이 초래한 참혹한 고통을 목격한 후 깊은 도덕적 회심을 겪었습니다. 그의 내면적 각성은 단순한 후회에 머물지 않고, 비폭력(Ahimsa), 자비(Karuṇā), 인내(Kṣānti), 그리고 도덕적 자제(Dama)라는 불교적 덕성에 뿌리를 둔 새로운 통치 윤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 참회를 넘어 국가 경영에 대한 대담한 재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쇼카 왕은 오늘날 우리가 '초기 평화의 도덕적 인프라'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미덕들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는 무력 정복을 포기하고 종교적 관용을 장려했으며, 아시아 전역에 평화 사절을 파견하고 동식물과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윤리적 삶을 독려하기 위해 바위에 칙령을 새겨 공포했습니다. 이 칙령들은 처벌을 위협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내면적 양심과 상호적 책임감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쇼카 왕의 유산은 덕 윤리가 개인의 삶을 넘어 법과 정책, 공공 도덕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비전은 물리적 강압이 아니라 도덕적 권유와 대중의 신뢰를 통해 일구어낸 결실이었습니다.

3. 종교 간 연대를 통한 덕의 제도화

아쇼카 왕의 도덕적 회심과 통치가 덕성 기반 리더십의 역사적 토대라면, 현대의 종교 간 협력은 공동체와 국경을 넘어 덕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다음 사례는 다양한 종교 전통에 뿌리를 둔 자비와 책임, 그리고 연대가 전쟁과 이주라는 비극 이후 어떻게 도덕적 치유를 가능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전쟁의 폭력과 트라우마로 황폐해진 전후 이라크에서, 덕성에 기반한 종교 간 협력의 놀라운 서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라크의 수니파, 시아파,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들과 손을 맞잡고, 전쟁의 가장 연약한 희생자인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협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교리가 아니라 공유된 덕성—즉 자비(Karuṇā), 도덕적 책임, 겸손, 그리고 역사와 신념의 경계를 넘어 행동하는 용기였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일본종교인평화회의(RfP Japan)은 의료 지원단과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조율하며 종교 공동체와 한국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냈고, 이라크 의료진 교육과 아동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영적·도덕적 인프라'였습니다. KCRP와 RfP Japan 같은 기구들은 이미 협력과 대화, 윤리적 응답이라는 습관을 네트워크의 DNA에 깊이 각인해 두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와 수련회, 위기 대응을 통해 함양되어 온 이러한 '제도화된 덕'은 신속하고 겸손하며 일치된 행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덕 윤리가 개인의 수행을 넘어 관계적·제도적·세대적 실천이며, 고통 앞에서 발휘되는 '도덕적 상상력'의 살아 있는 전통임을 증명합니다.^{vi}

vi 스리랑카와 이라크,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전개된 이러한 활동들은 저자가 세계종교인평화회의(Religions for Peace) 국제사무국에서 23년간 재직하며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 세계 90여 개국 산하 종교 간 협의회 업무 총괄 관리해 왔으며, 글로벌 차원의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 그리고 화해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https://rfp.org/about-us/>.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동 저서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하는 윤리』에서 이 핵심을 다음과 같이 통찰력 있게 짚어냈습니다. '덕스럽게 산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vii}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위기에 처했을 때 내놓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이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래의 논리'를 초월한, '신성한 책임'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윤리적 발현입니다. 저는 저서 『행동하는 윤리』에 기고한 장(Chapter)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자각에서 사회적 치유, 그리고 전 지구적 변혁에 이르기까지, 덕은 진정한 리더십과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케 하는 윤리적 근간을 제공합니다.'^{viii} 이것은 단순히 낙관적인 이상 주의가 아닙니다. 분열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현실에 기반한 도덕적 비전입니다

9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가진 '세계종교평화회의'는 종교 간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영적·도덕적 인프라'를 제도화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들은 갈등을 중재하고,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며, 신앙의 경계를 넘어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스리랑카의 소수자 보호, 이라크의 전후 트라우마 치유, 혹은 분열된 사회에서의 대화 주선 등, 이 모든 활동은 실천하는 덕 윤리를 몸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덕'이 공유된 기억과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 제도화될 때, 불신을 신뢰로, 파편화를 연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됨을 증명합니다.

4. 윤리적 리더십 교육: 가쿠린(Gakurin) 모델

도쿄에 위치한 가쿠린 신학교 (<https://gakurin.or.jp>)는 덕성과 영성적 참여를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교육 모델은 지성, 감정, 인성을 통합합니다. 이 삼위일체적 접근은 나만의 해탈이 아닌 만생(萬生)의 안녕을 위해 덕을 닦는 보살의 길을 반영합니다.

가쿠린의 교수법은 지혜의 전통과 실천적 리더십의 통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전 불교 문헌과 현대 윤리 이론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종교 간 대화의 현장을 직접 경험합니다. 커리큘럼에는 평화 구축 및 지속 가능 발전 세미나,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지역 사회 현장 실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슬람, 그리스도교, 유대교, 힌두교 등 타 종교 공동체와의 교류 및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체험적 형성을 통해 학생들은 리더십이 명령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존재, 경청, 그리고 동반의 예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학생들은 계절별 불교 수행, 지역 기반의 사회 참여, 심지어 농업 훈련에 참여하며 겸손함을 체득하고 생명의 상호의존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세계종교평화회의'와 같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종교 간 대화와 풀뿌리 평화 구축 활동에 실질적으로 투신함으로써 배움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가쿠린의 교수법은 지혜의 전통과 실천적 리더십의 통합에 뿌리를 둡니다. 학생들은 고전 불교 경전과 현대 윤리 이론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종교 간 협력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합니다. 커리큘럼에는 평화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미나,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지역 사회 현장 실습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등 다양한 공동체와의 교류 및 청년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천적 역량을 기릅니다.

이러한 경험적 형성을 통해 학생들은 리더십이 군림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존재'와 '경청', 그리고 '동행'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별 불교 수행과 지역 사회 참여, 심지어 농업 실습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생명의 상호 의존성을 깊이 체득합니다. 특히 세계종교인평화회의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풀뿌리 평화 구축의 실무를 익히며 교육의 깊이를 더합니다.

덕이란 본질적으로 가치를 향한 습관적인 지향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자비와 용기, 그리고 분별력

vii 프란치스코 교황, "서문." 제프리 삭스 외 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 윤리』, xi-xiii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출판부, 2022).

viii 스키노 교이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윤리』에서 불교와 공동선.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출판부, 2022, 111-120쪽.

을 갖추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이러한 지향은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육과 의례, 그리고 관계적 참여를 통해 오랜 시간 속에 형성됩니다. 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가쿠린 신학교 교육 비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성과 감성, 인격이 통합된 전인적인 도덕적 형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리더십 기술을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윤리적 리더십을 지탱하는 덕목들, 즉 복잡함 앞에서의 겸손, 이견(異見) 속에서의 인내, 그리고 봉사에서의 정직한 성실성을 함양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도덕적·영적 형성은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겸손과 분별력, 그리고 용기를 습관화함으로써 우리 졸업생들은 우리 시대의 복잡한 도덕적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5. 공유된 도덕적 지평을 향하여

심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분열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도덕적 토양을 일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혁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도덕적·영적 르네상스, 즉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유된 윤리의 실타래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덕 윤리는 경직된 규범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다층적인 실천으로 이해될 때,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한 강력한 해답이 됩니다. 덕 윤리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제도의 윤리적 근간을 굳건히 지탱합니다. 양극화와 도덕적 피로, 신뢰의 붕괴로 점철된 세상에서 '덕의 길'은 회복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연대를 향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야쇼카 왕의 자비로운 통치 철학부터 전쟁과 이주로 상처 입은 지역의 종교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통과 화해의 현장 속에서도 덕이 어떻게 구현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지 목격합니다. 이러한 삶의 궤적들은 자비와 책임, 그리고 도덕적 용기가 결코 고고한 추상적 개념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실천을 통해 체득되고 세대를 넘어 전수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역량입니다.

가쿠린 모델은 이러한 비전을 삶 속에서 구현합니다. 성찰적 학습과 종교 간 대화, 그리고 현장에 뿌리박은 공동체 실천을 통해 영적·도덕적 지도자의 전인적 형성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겸손과 명료함, 그리고 용기를 갖추고 복잡한 윤리적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덕'은 추상적인 이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덕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관계를 통해 확장되며, 우리 공동체와 제도의 도덕적 구조를 새롭게 재편합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 시스템 속에서 덕을 함양하는 것이야말로 윤리적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일구는 근간이 됩니다.

이제 이 신성한 과업에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서로를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다가올 세대의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합시다.

Panel Session 1 | Transformative Leadership for a Just and Peaceful Future

Empathy Required for Innovative Leaders

Dr. Prapaporn Rojsiriruch

Vice President, Srinakharinwirot University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Good afternoon.

Distinguished colleagues, fellow panelists, and of course, ladies and gentlemen.
Apart from being the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s at Srinakharinwirot University, or SWU, my background is also in law.
So sometimes I think that today's topic already fits me well – it is about responsibility and ethics.

I also serve as the advisor of the Young Buddhist Association under Royal Patronage in Thailand.
In recent years, I have continued to serve, but I have actually been a member for around ten to twenty years.
So I have had the chance to meet so many people who have come and gone, and we have shared outcomes and goals we wish to achieve together.

Today, it is my honor to be here at Wonkwang University.
I came here before, in March this year, when we talked more about collaborations.
We also have the MOU signing this evening as well.
It is my honor to be one of the panelists for the ICCGC-CoNGO 2025 Conference.

Right now, we can empower transformative leaders with courage – those who can lead with courage, compassion, and commitment toward peace and sustainability.
As I mentioned, I came from Srinakharinwirot University, and I have learned so much from my students.
So today, I would like to focus a little bit on the youth and the students – the roles they can play to become transformative leaders, not only in the future but also right now.

My students inspire me every day.
They are passionate, creative, and committed to making the world different.
Through my work, and from my background, I have come to believe in a very simple but powerful

formula for leadership – three letters: E, M, and C.

It may sound familiar, but for me it has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E stands for Empathy, which equals Mindfulness (M) plus Compassion (C).

Through this formula, we can help leaders – even young leaders or our own generation – cultivate mindfulness and compassion so that empathy naturally grows.

Empathy is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sustainability.

So, if we ask why this is urgent in our time, the answer is clear.

We are living through very complex challenges – climate change, social unrest, misinformation spreading across the internet, and rapid technological disruptions.

As our previous speakers mention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ansforming how we think and live.

The choices we make today will shape the lives of billions tomorrow.

That is why youth are uniquely positioned to lead.

They bring fresh perspectives, unbound by outdated norms.

They are digitally fluent, able to connect and mobilize across borders instantly.

They possess moral clarity – seeing the values of justice, fairness, and unity – the very elements often missing in many leadership models.

Too often, leadership is taught as strategy, but sometimes we miss the heart within those strategies.

My formula, $E = M + C$, reminds us that effective leadership is not just about skills – it is about how we show up for other people.

To transform potential into power and enable our young generation – and ourselves – to become transformative leaders, I see three pillars for nurturing youth leadership rooted in empathy.

First, Voice.

Of course, we gather here to share our voices.

Our young generation must also have their voice heard and their place at the table.

At my university, the President always provides a space and opportunity for students to share their thoughts and their will.

We are open twenty-four hours to receive student feedback.

Most of our projects are co-designed with students.

They act as excellent project managers for many university initiatives.

This is how they transform themselves – from being students to becoming partners of our university.

Second, Skills.

Leadership for peace and sustainability requires mindfulness – the ability to be present, to truly listen to others, and to make thoughtful decisions for oneself and for others.

Compassion means understanding others' struggles and acting to reduce harm or damage that may

occur to them.

Together, mindfulness and compassion create empathy — the force that bridges differences and fuels constructive action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ird, Support Networks.

Youth also need mentors — just like we do.

We all need good friends who help us make right and just decisions.

We need role models and cross-generational alliances.

When young leaders from Thailand come here, or when leaders from other countries visit us, we learn from one another.

We see ourselves as part of a global movement.

Peace and sustainability grow through empathy.

Peace is not merely the absence of war.

It is the presence of justice, dignity, and mutual respect.

Sustainability is not only about the environment — it is about sustaining trust, fairness, and relationships.

When young leaders embrace the formula $E = M + C$, they begin building bridges and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ties.

They lead with understanding rather than fear, and they create solutions that serve both people and the planet.

Last but not least, empathy is not only a soft skill — it is a transformative skill.

It transforms us from within.

By practicing empathy and compassion toward ourselves and others, we empower both youth and leaders with mindfulness and care.

They will carry empathy into every decision they make.

In doing so, we will shape a future where peace is possible and sustainability is the norm.

So, to the young leaders of today, and to our generation as well, I would like to end by saying:

Be mindful.

Be compassionate.

And let your empathy lead the way.

Thank you very much.

세션 1 |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정의, 생명, 그리고 평화

혁신적인 리더에게 필요한 공감 능력

프라파폰 로이시리후르
스리나카린위룻 대학교 부총장

내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동료 연구자들과 패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인사 숙녀 여러분. 저는 스리나카린위룻 대학교(SWU)의 국제관계 및 홍보 담당 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문적 배경이 법학이다 보니, 책임과 윤리를 다루는 오늘 의 주제가 제게는 매우 친숙하고 뜻깊게 다가옵니다.

또한 저는 태국 왕실 후원 청년불교협회(Young Buddhist Association of Thailand)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사실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회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해 왔습니다.

오늘 이곳 원광대학교에 다시 서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지난 3월 방문 당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데 이어, 오늘 저녁에는 양교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예정되어 있어 더욱 기쁩니다. 이번 ICCGC-CoNGO 2025 컨퍼런스의 패널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학생들은 매일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창의적이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관한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식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E, M, C'라는 세 글자입니다.

익숙한 철자처럼 들리겠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E(공감, Empathy)는 M(마음챙김, Mindfulness)과 C(자비, Compassion)의 합과 같습니다. 이 공식을 통해 우리는 청년 리더들은 물론 우리 세대까지도 마음챙김과 자비의 마음을 함양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럴 때 공감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공감이야말로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 시대에 그토록 시급한 과제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안, 허위 정보의 범람, 그리고 급격한 기술적 단절이라는 매우 복잡한 도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자들이 언급했듯이,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내일 수십억 명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리더십의 전면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여 국경을 초월해 즉각적으로 연결하고 행동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정의와 공정, 화합이라는 가치를 꿰뚫어

보는 '도덕적 명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많은 리더십 모델에서 흔히 결여되었던 핵심 요소들입니다.

흔히 리더십을 하나의 '전략'으로 가르치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전략의 핵심인 '진심(Heart)'을 놓치곤 합니다. 제가 제시한 공식 $E = M + C$ 는 진정한 리더십이 단순히 기술적 역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 앞에 '어떤 존재로서 있는가'에 관한 문제임을 일깨워 줍니다.

청년 세대와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전환하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리더가 되기 위해, 저는 '공감'에 뿌리를 둔 청년 리더십 육성의 세 가지 기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소리'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목소리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저희 대학의 총장님께서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늘 마련해 주십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24시간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학생들과 함께 '공동 설계'하며, 실제로 학생들은 대학의 수많은 사업에서 탁월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수혜자에서, 우리 대학의 진정한 파트너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둘째는 '역량'입니다.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리더십에는 '마음챙김'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며 타인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또한 '자비'는 타인의 고통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하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마음챙김과 자비가 결합될 때 비로소 '공감'이 탄생합니다. 공감은 서로의 다름을 잇는 가교가 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건설적인 실천의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는 '지원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청년들에게도 올바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줄 멘토와 도반(道伴)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롤모델과 세대를 초월한 연대가 절실합니다. 태국의 젊은 리더들이 이곳을 찾고,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이 우리와 교류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 평화 운동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와 지속 가능성은 오직 '공감'을 토양 삼아 자라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정의와 존엄, 그리고 상호 존중이 '살아 숨 쉬는 상태'입니다. 지속 가능성 또한 환경 보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신뢰와 공경함, 그리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청년 리더들이 ' $E = M + C$ ' 공식을 가슴에 새길 때, 공동체 사이에는 소통의 다리가 놓이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세상을 이끌며, 사람과 지구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운 해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감은 단순한 유연함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변혁의 역량'이라는 점입니다. 공감은 우리 내면부터 변화시킵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해 마음챙김과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청년과 지도자들 모두에게 진정한 돌봄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자연스럽게 공감의 향기가 배어날 것입니다.

그 여정 끝에 우리는 평화가 실현되고 지속 가능성이 일상이 되는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리더들과 우리 세대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자비로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이 길을 밝히게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Panel Session 1 | Transformative Leadership for a Just and Peaceful Future

Six Essential Literacies f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r. Namsoon Kang

Professor, Brite Divinity School-Texas Christian University

Nice to meet you.

You have only ten minutes for a compact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I do not know how to handle twenty minutes when I have ten pages of lecture notes.

I hope I can manage.

Whenever I go to an international meeting like this, my voice starts echoing.

Can you hear me?

Yes? Okay, thank you.

Because I can hear my own voice, I really appreciate the interpreters.

Whenever I atte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like this, I always face a huge dilemma of language.

There is a philosopher by the name of Jacques Derrida.

He talks about the “double bind” of translation – in this case, we can say the double bind of interpretation.

One is necessity, and the other is impossibility.

So I would like to thank the interpreters for doing such an impossible but necessary job.

After completing my doctorate, I returned to Korea.

On my desk, I placed two small notes.

One said, “Fighting with a pen,” and the other said, “A small change can make a big difference.”

I hope this kind of conference will be an act of bringing small changes that, in the long run, can lead to a big difference.

I always feel that I receive an education from conferences like this.

I analyze all the concepts used here.

I collect the ideas that truly reflect the ethical values we are trying to disseminate – values such as

liberation, transformation, justice, compassion, and sustainability.

The challenge we must wrestle with is how to mediate these ethical values and the socio-political realities. Because simply talking about wonderful concepts like peace, liberation, justice, or sustainability may sound too idealistic unless we truly wrestle with them — unless we find ways to mediate these ethical values within our concrete socio-political realities.

Otherwise, we cannot bring real change.

Those values would remain in the abstract realm of ideas, disconnected from the complexity of our daily contexts — both macro and micro.

As Jürgen Habermas argues, our approach must be transdisciplinary.

Our own data or field can be the point of entry, but our point of arrival should transcend disciplines.

For example, today we cannot separate religion from other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ics, education, and culture.

We have to train ourselves to see things from a complex, interconnected perspective, which requires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At the same time, we must resist the temptation of romanticization.

The problem with romanticizing ideas is that we stop dealing with the difficult, concrete details.

For example, when Jesus said, “Love your neighbor,” we have to ask — what does love mean in today’s complex world?

What about repeated issues like immigration, gender identity, sexual minorities, refugees, and many others?

Who is included in our circle of “neighbor”?

And when Jesus sai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what does it mean to love yourself?

Hannah Arendt once said, “Those who do not know how to love themselves do not know how to love their neighbor.”

So the big question is how to de-romanticize and face the reality that is so complex.

That is why, whenever I begin my class at the start of a semester, I write a few words on the whiteboard.

The first is: Nothing is self-evident.

One of my nicknames among my students is “Professor Complexify.”

Because I always tell them: “Nothing is self-evident, and everything must be complexified if you are working for change.”

Nothing is simple in this world.

To create a bridge between ethical values and complex socio-political, geographical, cultural, and

religious realities, we must think deeply about the qualities that transformative leadership requires.

I believe there are six areas in which we must enhance our literacy — six forms of literacy necessary for transformative leadership.

Because of time constraints, I will go through them briefly.

Again, enhancing literacy in six areas is essential to becoming a transformative leader.

And I must also say that we cannot separate transformative leadership from transformative followership.

We rarely talk about followership, but today, real change is not made by a single leader.

It requires both transformative leaders and transformative followers.

To achieve this, we must enhance literacy in at least six areas.

First: Justice Literacy.

Recently, I launched a course at my university called “Enhancing Justice Literacy.”

In this course, I ask students to identify different types of justice they know.

Usually, they come up with five or six.

Let me go through this very briefly.

In order to be sensitive to justice, you must first be aware of the forms of injusti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at exist.

Otherwise, you cannot truly talk about justice.

Examples include racism, sexism, classism, ageism, ableism, lookism, nationalism, colonialism, imperialism, linguistic imperialism, xenophobia, anti-Semitism, Islamophobia, caste discrimination, homophobia, transphobia, and colorism.

There are also forms like ethnocentrism, fat-phobia, environmental racism, cultural appropriation, and medical discrimination.

In my class, I show a list of twenty-six form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scope of justice.

It is impossible to talk about “justice” in general — justice is always specific.

So we need to ask ourselves, “How many forms of justice are we aware of?”

There are many: gender justice, racial justice, social justice, economic justice, ecological justice, political justice, climate justice, intergenerational justice, disability justice, cultural justice, linguistic justice, transition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 just to name a few.

The reason I share this long list is that one form of justice alone is not enough.

We must study them deeply.

That is what I mean by justice literacy.

Second: Power Literacy.

Michel Foucault said that power and knowledge are inseparable.

Power is everywhere – not because it dominates everything, but because it comes from everywhere. We must be aware of different types of power – disciplinary power, biopower, and others. Those who produce knowledge are often the ones in power. Religious knowledge, political knowledge, economic knowledge – all are shaped by power structures. That is why we must develop power literacy.

Third: Liberation Literacy.

When we talk about liberation, what do we really mean?

There are many kinds: national liberation, political liberation, social liberation, economic liberation, epistemic liberation, existential liberation, spiritual liberation, inner liberation, and institutional liberation.

To become transformative leaders and followers, we must be specific about what kind of liberation we are pursuing.

Fourth: Sustainability Literacy.

When people hear “sustainability,” they often think only of the environment.

But sustainability also includes economic, social, cultural, institutional, political, and personal dimensions.

Even human sustainability must be considered.

Each of these requires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because there is no single, general sustainability.

Fifth: Leadership Literacy.

In one of my courses called “Cosmophysical Leadership,” we explore fifteen types of leadership theories – from the Great Man theory to trait, behavioral, contingency, and transformational theories.

We also study servant leadership, authentic leadership, adaptive leadership, distributive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critical leadership, global leadership, and cosmopolitan leadership.

Each type offers insights into transformative change.

(At this point, a moderator intervenes.)

“Professor Bang, I’m very sorry to interrupt – we have only ten minutes. Could you wrap up within one or two minutes?”

Yes, of course.

The last panelist always has the burden of time constraints.

I will wrap up quickly.

I also embrace imperfection – so please allow me to conclude.

As closing remarks, let me recall an important idea.

Immanuel Kant once said, “Theory without practice is empty, and practice without theory is blind.”

And Jacques Derrida said, “Religion is the passion for the impossible.”

All the ethical values we discuss in this conference may seem impossible to achieve.

But religion, at its best, is the passion for that impossible ideal.

We all stand in between two worlds — the world of already and the world of not yet.
All the ethical values we pursue are dreams for that world of not yet.
So let us remember — a small change can make a big difference.
And I hope this conference will serve as an attempt to bring that small change for the future to come.

Thank you.

Panel Session 1 | 세션1 |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정의, 생명, 그리고 평화

변혁적 리더십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여섯 가지 리더러시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노트는 10쪽이나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20분뿐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그래도 시간 내에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국제 회의장은 꼭 목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뒤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죠.

제 목소리가 울려서 들리다 보니, 통역사분들의 노고가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런 국제 회의에 올 때마다 항상 언어나 어려운 거대한 장벽에 직면하곤 합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는 번역의 '이중 구속'을 말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통역의 이중 구속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필연성'이고, 다른 하나는 '불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해 주시는 통역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작은 쪽지 두 장을 붙여 두었습니다. 하나는 '펜으로 맞서자'였고, 다른 하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문구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역시, 장기적으로 큰 울림이 될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항상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곳에서 오가는 모든 개념을 분석하고, 우리가 확산시키고자 하는 윤리적 가치들—즉 해방, 변혁, 정의, 자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진정으로 담아낸 아이디어들을 소중히 수집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는 이러한 윤리적 가치와 사회정치적 현실을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평화, 해방, 정의, 지속가능성 같은 훌륭한 개념들도, 우리가 그 가치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구현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그저 이상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 가치들은 거시적·미시적 삶의 복잡한 맥락과 단절된 채, 추상적인 관념의 영역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주장하듯, 우리의 접근 방식은 초학문적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데이터나 전문 분야가 진입점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도착점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종교를 정치, 경제, 교육, 문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초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낭만화(romanticization)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개념을 낭만적으로만 바라보면, 정작 어렵고 까다로운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외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그 '사랑'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이민, 성 정체성, 성소수자, 난민과 같이 반복되는 현안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웃'의 범주에는 과연 누가 포함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나 아렌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토록 복잡한 현실을 낭만화하지 않고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학기 첫 수업 때마다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 문구를 적곤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자명하지 않다"입니다. 제 학생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컴플렉시파이(Complexify) 교수'인 이유도 여기에 있죠. 저는 늘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자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화를 꿈꾼다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요. 이 세상에 단순한 것은 없습니다. 윤리적 가치와 복잡한 사회정치적·지리적·문화적·종교적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요구하는 자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변혁적 리더십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여섯 가지 영역의 리터러시(literacy)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언급하겠지만, 이 여섯 가지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은 변혁적 팔로워십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소 팔로워십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날 진정한 변화는 단 한 명의 리더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변혁적인 리더와 변혁적인 팔로워가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적어도 다음 여섯 가지 영역에서 리터러시를 높여야 합니다.

첫째, '정의 리터러시(Justice Literacy)'입니다.

최근 저는 저희 대학교에서 <정의 리터러시 강화>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각자 알고 있는 정의의 유형을 써보라고 하면, 보통 대여섯 가지 정도를 적어냅니다.

이 부분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에 민감해지려면, 먼저 우리 주변에 실재하는 불의와 차별, 그리고 배제의 양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연령차별, 비장애인 중심주의, 외모 차별, 민족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와 언어 제국주의,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카스트 차별, 성소수자 혐오, 그리고 피부색 차별 등이 있죠. 또한 자민족 중심주의, 비만 혐오, 환경적 인종차별, 문화적 전유, 의료 차별 같은 형태도 존재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총 26가지에 달하는 차별과 배제의 목록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정의'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정의를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젠더 정의, 인종 정의, 사회 정의, 경제 정의, 생태 정의, 정치 정의,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장애 정의, 문화 정의, 언어 정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분배 정의, 회복적 정의, 그리고 절차적 정의까지—이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 긴 목록을 나열하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 형태의 정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정의를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정의 리터러시'의 핵심입니다.

둘째, '권력 리터러시(Power Literacy)'입니다.

미셸 푸코는 권력과 지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부터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규율 권력이나 생권력(biopower) 등 다양한 권력의 층위를 인지해야 합니다.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은 대개 권력을 쥔 자들입니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지식은 모두 권력 구조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권력 리터러시를 길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해방 리터러시(Liberation Literacy)'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논할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방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민족 해방,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해방은 물론이고, 인식론적 해방, 실존적 해방, 영적 해방, 내면적 해방, 그리고 제도적 해방까지 존재합니다. 변혁적인 리더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해방을 추구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가능성 리터러시(Sustainability Literacy)'입니다.

대개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환경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인간적 지속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하죠. 이 모든 차원은 초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일반적인 지속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리더십 리터러시(Leadership Literacy)'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코스모피지컬 리더십>이라는 과목에서는 위인 이론부터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변혁적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15가지 유형의 리더십 이론을 탐구합니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적응형 리더십, 분산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비판적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리더십을 공부하죠. 이 각 유형은 변혁적 변화를 위한 소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회자 개입 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늘 시간 제약이라는 짐을 지기 마련이죠. (웃음)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또한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사람이니, 이쯤에서 결론을 맺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사유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크 데리다는 "종교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열정이다"라고 했죠.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윤리적 가치들이 어찌면 실현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교의 진정한 정수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아직' 오지 않은 세계, 그 두 세계 사이의 경계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윤리적 가치는 바로 그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향한 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다가올 미래를 향한 그 작은 변화의 소중한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2]
Session 2

Panel Session 2 | Healing a Wounded World: Paths to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True Leadership Through Repentance and Purification

Rev. Junsei Terasawa

Monk-Peacemaker and Teacher in Eurasia, Order Nipponzan Myōhōji

It is my tradition to begin with praying, respecting, and blessing everyone and the entire planet.
Thank you for your kind introduction.

I will skip all formalities and greetings because time is short, and our core issue of discussion is very serious and heavy.

The key issue today is divided humanity and a broken planet.

In my opinion, this is a symptom of the end of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modern civilization and the current system of global governance.

Personally, I have been to man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witnessed war and conflict during my fifty-three years of life as a wandering monk.

I have traveled everywhere.

For instance, during the peak of the Cold War, I walked on foot through the communist part of Europe up to Berlin.

That was several years before the Berlin Wall collapsed.

I saw the real life and suffering of the people living under communist regimes in Poland.

I also witness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was one of the greatest historical examples of successful transformation ever to happen in European history.

Until then, political transformations on such a scale had always involved bloodshed and war.

But the end of the Cold War was unprecedented — a transformation achieved through nonviolence and the power of ordinary people.

We should remember what kind of achievement and golden opportunity emerged from that time.

However, right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 witnessed the beginning of the Gulf War in Baghdad.

Above our heads, missiles were flying and striking targets with precision.

It was the “Operation Desert Storm.”

I was there.

I was also in Iraq during the second war.

I even made a special proposal, a letter to Saddam Hussein, suggesting that perhaps Iraq could be saved from the onslaught of the American military.

However, my proposal was never heard.

I was also in Moscow during the August Coup of 1991.

This was the time when ordinary Muscovites stood up nonviolently to resist the coup d'état.

Moscow succeeded in that civil disobedience movement.

The entire city was surrounded by hundreds of tanks.

But ordinary citizens went to the so-called White House – the Parlia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and created barricades.

The soldiers refused to obey the order to shoot civilians.

It was a brilliant example of 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that eventually led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is was another successful transformation –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chieved not by military force but by civil courage and nonviolence.

We should remember this historical achievement.

However, after all these events – post-Soviet, post-communist – the world transformation of the past thirty years has been misled by wrong leadership.

There were no true leaders.

Unfortunately, this is the result we face today.

Just yesterday, Trump and Putin were meeting.

But I doubt what they can truly achieve.

These thirty years of transformation have led us to today's disaster – a divided and failing world.

What is happening now in Ukraine, where I lived for more than three years, is a disastrous war – a Russian invasion.

We must call things by their name.

A is A, and B is B.

We should not hide behind camouflage.

It is war.

It is a war crime, and it continues.

What is happening in Palestine and Israel, what is happening here in the Korean Peninsula, what is happening between Pakistan and India – these are not just political divisions.

They are hot spots for potential nuclear war that could happen at any moment.

This is our reality.

As I said, this is the symptom of a vital disease in modern civilization.

From where can we find a way out?

Where is true leadership?

That is what we are seriously seeking today.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ordinary people is central to creating the future of our world.

We had successful examples –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nonviolent revolution in Moscow.

But those victories of ordinary people were hijacked by the elites of the world – the financial elites, military elites, and political elites.

They stole the fruits of nonviolent victory from the hands of the people.

Today, what is important is to bring back the power of ordinary people.

Every individual is a master capable of creating the future of humanity.

The dignity of individuality is the essence of human civilization.

Modern thought has been centered on individuality – each person as a moral agent.

But now, individuality has been hijacked, manipulated, and misled to a disastrous point.

How many of us truly believe we can avoid a nuclear world war?

Can anyone say how much chance we have left?

So, how can we bring back true leadership?

True leadership begins when each individual realizes that every person is a master of their own destiny – through their own choice.

However, the division of humanity and the destruction of the planet are consequences of our own inner condition.

They are not divine punishment.

They are not natural disasters.

They are the results of our conditioned mind, our collective thoughts, and our distorted values.

The division of humanity,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climate change – all are the outcomes of our inner state.

We must now ask how each one of us can regain true awakening and enlightenment.

Then, through collective awareness, connectivity, solidarity, brotherhood, and sisterhood, we can rebuild the foundation of a healthy human culture.

We are already suffering from vital symptoms of an ending world.

Time is short.

So, how can we begin –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globally – to restore the spiritual health of humanity?

The spiritual foundation of human culture has been lost, fading, and dying.

Everything happening today is our responsibility.

In our Buddhist tradition, there is an important teaching from the great Japanese Buddhist master Nichiren.

It is called *Bishop Unkokuron*.

He spoke of signs that appear before the end of the world – disasters by fire, destruction, and calamities such as earthquakes, pandemics, and epidemics.

These are warnings – signs of greater catastrophe to come, the total war and self-destruction of human society.

Nichiren said that heaven abandons humanity when we lose our moral and spiritual integrity.

Then calamities come as a final warning of coming destruction.

We can see these warnings every day now – climate change, tsunamis, earthquakes.

My hometown in Noto, Japan, was struck by a great earthquake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just two years ago.

The Himalayas – the noble mountains of the world – also shake frequently.

Every year, there are disasters of every kind.

We have also experienced a global pandemic, something humanity has not seen for centuries.

These, Nichiren said, are signs that heaven has abandoned humanity.

So now the question is – how can we regain our true spiritual foundation and culture?

Is it already too late?

True leadership does not come from above.

According to the Lotus Sutra, which I study every day, the Buddha Shakyamuni prophesied that in the final days, the true saviors will come from below.

They will not have fame, power, or recognition.

They will never appear in history books.

But true bodhisattvas will rise from below – suddenly, quietly, from among ordinary people.

This symbolic prophecy – the bodhisattvas from below – represents an eternal connection with the cosmic truth.

That eternal connection has been broken today.

This is the symptom of modern civilization.

We must restore this eternal, cosmic connection of truth.

Then heaven will return to us, and peace and harmony will return to human culture.

Let us hope.

Let us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here – but who dares to say this today?

Bodhisattva Samantabhadra taught us how to become great bodhisattvas to save the world.

For this process, repentance and purification are essential.

All humanity today must go through repentance and purification.

As Saint John said, let us hope that the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will return to the twenty-first century.

Repent.

The kingdom of God — the eternal paradise — is here.

And we, the people of the world, must create it together.

Thank you.

세션 2 | 상처 받은 세상을 위한 치유: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향한 길

참회와 정화를 통한 진정한 리더십

준세이 테라사와
일본산 묘법사 승려

모든 생명과 지구 전체에 존경과 축복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저의 오랜 전통입니다. 따뜻한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핵심 의제가 매우 엄중하고 시급하므로, 모든 형식적인 인사와 격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분열된 인류와 만신창이가 된 지구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 문명의 근간과 현재의 세계 통치 체제가 종말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3년 동안 방랑하는 수행자로 살며 세계 곳곳을 누볐고, 수많은 전쟁과 갈등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일례로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년 전부터 유럽의 공산권 지역을 도보로 횡단했습니다. 저는 폴란드의 공산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실제 삶과 그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유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변혁을 보여준 위대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정도 규모의 정치적 격변은 언제나 유혈 사태와 전쟁을 동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비폭력과 평범한 민중들의 힘으로 일궈낸 변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시 인류에게 어떤 성취와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저는 바그다드에서 걸프전의 서막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며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의 폭풍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이라크 전쟁 때도 저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저는 사담 후세인에게 미군의 파상공세로부터 이라크를 구할 방법을 제안하는 특별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제안은 끝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1991년 8월 쿠데타 당시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당시 평범한 모스크바 시민들은 비폭력으로 쿠데타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모스크바는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수백 대의 탱크로 포위되었음에도 시민들은 소위 '백악관'이라 불리는 러시아 연방 의회 의사당으로 모여 바리케이드를 구축했습니다. 군인들은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소련의 붕괴로 이어진 비폭력 시민 불복종의 찬란한 본보기였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시민의 용기와 비폭력으로 일궈낸 소련의 해체라는 이 역사적 성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와 공산주의 종식 이후 지난 30년간의 세계적 변혁은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 그릇된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늘날 직면한 결과입니다.

바로 어제 트럼프와 푸틴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30년의 변혁은 우리를 분열되고 실패한 세계라는 오늘날의 재앙으로 인도했습니다.

본인이 3년 넘게 살았던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참혹한 전쟁, 즉 러시아의 침략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A는 A이고, B는 B입니다. 어떤 위장 뒤에도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범죄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한반도,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분열이 아닙니다. 이곳들은 언젠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들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현대 문명이 앓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의 징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지하게 구해야 할 답입니다.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 시민 사회와 평범한 사람들의 역할은 핵심적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나 모스크바의 비폭력 혁명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일궈낸 승리는 세계의 엘리트들, 즉 금융, 군사, 정치 엘리트들에게 찬탈당했습니다. 그들은 비폭력 승리의 결실을 사람들의 손에서 가로챘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인류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개별 인격의 존엄성은 인간 문명의 본질입니다. 근대 사상은 각 개인을 도덕적 주체로 보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성은 약용되고, 조작되며,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되어 파국적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어느 정도인지 감히 단언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리더십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리더십은 각 개인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임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인류의 분열과 지구의 파괴는 신의 징벌도, 피할 수 없는 자연 재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상태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의 조건화된 마음, 집단적 사고,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인류의 분열, 환경 파괴, 기후 위기—이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진정한 각성과 깨달음을 회복할 것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나아가 집단적 자각과 연결성, 연대와 인류애를 통해 건강한 인류 문화의 토대를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을 고하는 세계의 치명적인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정신적 건강을 어떻게 회복하기 시작할 것인가? 인류 문화의 정신적 근간은 상실되었고, 퇴색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불교 전통에는 일본의 스승 니치렌(日蓮)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입니다. 그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 즉 화재와 파괴, 지진과 역병 같은 재앙을 설파했습니다. 이것들은 경고입니다. 장차 닥쳐올 더 큰 대재앙, 즉 인류 사회의 전면전과 자멸을 예고하는 전조인 것입니다.

니치렌 성인은 우리가 도덕적·정신적 고결함을 잃을 때 하늘이 인류를 외면한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때 닥쳐오는 재앙들은 곧 들이닥칠 파멸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와 쓰나미, 지진을 통해 매일 그 경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새해 첫날, 제 고향인 일본 노토 반도에도 거대한 지진이 덮쳤습니다. 세계의 영산인 히말라야 역시 자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매년 온갖 종류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전 지구적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니치렌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인류를 버렸다는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정신적 토대와 문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지도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수지독송하는 『법화경』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법의 시대에 진정한 구원자가 '아래(땅)'로부터 솟아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명성도, 권력도, 세상의 인정도 받지 못할 것이며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살들은 평범한 민중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갑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예언, 즉 '지용보살(地湧菩薩, 땅에서 솟아나는 보살)'은 우주적 진리와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그 영원한 연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치명적인 병폐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인 진리의 연결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평화와 조화가 인류 문화에 깃들 것입니다.

희망을 품읍시다. 참회합시다. 부처님의 나라(佛國土)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가 감히 이 사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현보살(Samantabhadra)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보살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회와 정화는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는 참회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레 요한이 말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21세기에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참회하십시오. 하느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낙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의 시민들이 힘을 합쳐 그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anel Session 2 | Healing a Wounded World: Paths to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A Life in Practice: Respecting the Dignity of Humanity and Praying for Them

Dr. Kathy Matsui

Visiting Professor, Seisen University

Introduction

The ICCGC session on “Healing a Wounded World: Paths to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 Addressing systemic injustices, ecological crises, and strategies for fostering resilience and liberation” brings us together to share, listen, feel, and heal the pain the world is experiencing. From there, we aim to achieve the goal and purpose of this meaningful gathering by working in solidarity to take action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and to foster resilience and liberation.

We are here to help promote peace. We have the opportunity to influence lawmakers and decision-makers to shift the world from weapon-based conflicts to constructive negotiations through peaceful means. This theme will focus on social justice, as I firmly believe that social justice is closely linked to environmental justice.

How can we contribute as religious leaders and members of society?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past ICCGC conferences in 2021, 2023, and 2024? What have we not achieved, and what have we accomplished? Each of us is here with hope and expectation.

Healing requires various processes and time. Interdisciplinary research, historical case studies, and practices have confirmed and constructively demonstrated that these processes are essential. The processes are: 1. Reconciliation 2. Partnership 3. Post-conflict healing 3. Preventive measures that include education. These processes help to break the cycle of violence and promote a positive cycle of peace.

Recurring conflict and generational trauma stem from incomplete healing and reconciliation processes. Wherever (whether it be in the home, community, country or the world), whatever (whether it be a quarrel, physical violence, or war), whenever (whether it be of the past, present or future), and whoever (whether it be among children, adults, political leaders) are involved in a conflict, the same processes and procedures are needed.

I believe that peace and reconciliation start with envisioning. The visions for the future include that: physical, psychological, and mental wounds will be healed; people will learn to resolve problems nonviolently through dialogue; regardless of how painful, time-consuming, and difficult it is to suppress feelings of retaliation, or how challenging it is to forgive. People will realize that violence cannot be solved with violence; such actions lead to a vicious cycle of violence and more devastating consequences.

This vision was inspired by my experience as a moderator at the Second and Third Tokyo Peace Roundtable. The roundtable discussions will highlight what ICCGC can aim for to heal a wounded world and to address systemic injustices, ecological crises, and strategies for fostering resilience and liberation. From now on,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participants of the peace roundtable, the true cries, pleas, and hopes of the religious leaders, and conclude with action plans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discussions.

The leaders of the 2024 and 2025 Tokyo Peace Roundtable are UN Representatives, Japanese Political Leaders, Myanmar Religious Leaders and Bishop, Ukrainian Orthodox Patriarchs, Russian Orthodox Patriarchs, Palestinian Imams, Israeli Rabbis, Hindu Leaders, Buddhist Monks, Lay Buddhist Leaders, Christian Pastors, Catholic Priests and Bishops, Shinto Priests, and Religious Leaders of other faith and philosophical traditions.

Let me share with you the actual words, the authentic voices I heard from the religious leaders who gathered at the Tokyo Peace Roundtable this year, from June 30 to July 1, 2025. These are the true cries, pleas, and hopes of the religious leaders from conflict areas around the world.

“Peace is possible. We achieve peace through cooperation and solidarity. Trust is extremely important, more than anything else.”

“We are witnessing silent cries from Myanmar, scorched Africa, Ukraine, and Gaza. The earth is weeping. War destroys not only humans but also trees, the environment, and all living beings. We must seek peace without resorting to force. Let us pray for peace for the wounded children. That’s our heartfelt cry. There are 13,000 nuclear arms worldwide capable of destroying civilization; the earth suffers from global warming—glaciers melt, rivers dry up. We need a voice that touches the heart, a voice of faith for peace. UN structures lack vitality without the influence of religious leaders to save humanity. We must foster traditions of peaceful coexistence and mutual respect.”

“The situation in Ukraine is getting worse. The sound of drones and Russian bombs is a nightmare. During the last month, my family and other Ukrainians have spent many nights in shelters. Every night, we hear 300 drones and hundreds of innocent citizens—mothers and children—are killed in the blink of an eye. Can you imagine your children being killed?

We strive for peace. Peace does not happen on its own; it is we, religious leaders suffering from the terrors of war, who must work for peace.”

“As religious leaders, we are responsible for reaching out to the world and potentially influencing political

decision-makers. No one wants to see this bloodshed continue. Millions of innocent people are fleeing the country, either to escape displacement or to lose their lives. War may end when we persuade people to come to the peace table.”

“Let's leave Tokyo with a clear action plan. We need to develop tangible steps beyond just making resolutions. I attempted to schedule a meeting in Israel, but it never took place because the participants failed to appear. However, I will try again to gather people. I will push for action because resolutions alone are not enough. All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war crimes must be investigated. We must act according to our beliefs.”

“If we can do something, let's start now. We must go beyond paperwork and take more action. We are here because we believe in peace. The success of the UN depends on how policymakers perceive it.”

“Awakening our call for action, peace, justice, and compassion, dialogue is the foundation for peace. It is not only a milestone but also a movement strengthened by faith. With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the future begins with what we choose to be together.”

“One way to fulfill our desire is through prayer. People of faith believe in its power. A specific action is to respect everyone's dignity and pray for them. We need to treat others as human beings, full of dignity. We can reach out to them, pray with them, visit them, and start seeing them as fellow humans. These actions help humanize the enemy. Once you see them as human, you view them differently. They are the ones deserving our compassion and empathy. From there, we can influence political leaders and plant the seed for a desire for peace.”

“Moral leaders must seek peace, speak honestly, and act with compassion. Reconciliation is rooted in our faith. Despite challenges at home, you are here today to come together. Wounds need healing, where dignity has been lost, and women and children are displaced. Spiritual wounds also require healing. We must engage in deep listening through faith. Forgiveness is difficult. Reconciliation takes courage. With a shared strategy and spiritual resilience, we learn from one another and act in a collective manner. The process may take time, but with love for our neighbor, immediate action is encouraged.”

“There is a need for justice. We must respect the dignity of all living beings. How can we change the world by force? It is a foolish act to believe in violent force. Shakyamuni teaches us to let go of hatred... for the sake of humanity's survival. Peace must be kept alive.”

“There are children living in a world of destruction and despair, while others are experiencing peace. The peace roundtable not only focuses on concretely restoring hope but also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reconciliation. The roundtable helps us connect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other goal is to strengthen partnerships. How can we offer hope and dreams to 2 billion children? We must look into their eyes and encourage all children to see the larger human family and the beauty of

life. We must strive to live in a way that fosters a peaceful society. For these 2 billion children, we need to be better role models. We must bridge the gap between ideals and reality and be constructive rather than destructive.”

“Religious leaders should create a sacred space for everyone to grow. Our children listen to us and observe what we do. Resilience research indicates that the trust we establish with children and youth helps them develop resilience.”

“The main question is what each religion can contribute to its own communities. We can promote tolerance, coexistence, solidarity, mutual understanding, peace, and harmony. May peace, mercy, and blessings be upon you.”

“Amid conflicts between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ethnicities, cultures, and religions, and degradation and dehumanization of others, it is difficult to go beyond tribal cultural ties. It is also rare to stand against one's leadership or to show empathy and compassion for the other side. The peace roundtable offers an important process of making an effort to practice this, empowering those with initiatives. Peace is a divine imperative for ourselves and the world.”

“Religious leaders should be prophetic, stay true to the words in the scripture, work to combat all forms of hatred, misuse of religion, and belief for political gain, and lead the world with global ethics. All religions share common values of peace,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for individual dignity. Where is our world headed if religious leaders continue to tolerate aggression and dehumanization? We need to have a vision for peace as our role as religious leaders. For the Third Tokyo Peace Roundtable, we pray to God to guide us in fulfilling our trust and leading us from hatred and dehumanization to humanization and friendship. May this be our guiding light.”

“Since 2008, we, as parliamentarians, have been involved in peace activities in partnership with Religions for Peace.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peacebuilders, we believe that cooperation is essential in diplomatic efforts, both among lawmakers and through political means. We will collaborate with all the religious leaders gathered here.”

“The current situation calls for the role of religious leaders in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processes. Forgiveness provides a foundation where we can build peace and reconciliation. The role of religious leaders emphasizes different roles in the reconciliation process.”

“We can't judge until we understand each other. We are here for those who can't speak for themselves.”

“There is a time to throw away stones and a time to gather them. We must break the chain of hatred and violence. Forgiveness is transformative. Leadership is not about power, but about taking responsibility; it is about the art of knowing when to speak softly and when to speak powerfully.”

“Women of faith support one another to face crises across the country, bringing harmony. Peace is

essential for us; we need to heal ourselves.”

The discussions at the roundtabl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empathizing with the wounded world and exploring ways to heal it, which could lead to paths toward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Additionally, the Tokyo Peace Roundtable addresses systemic injustices and explores strategies for fostering resilience and liberation. Based on what I heard, I conclude that the following actions are necessary.

1. Resolve the present ongoing conflict (that includes a ceasefire)
2. Reconciliation process that respects the dignity of each party.
3. Healing process
4. Preventive measures
 - (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b) Hom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c) Training of peacebuilding skills for parents & members of the family

Based on all that was observed at the roundtable, I would suggest a reconciliation process grounded in Desmond Tutu's theory (as mentioned in my 2023 ICCGC present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Desmond Tutu states that: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involves uncovering the truth, offering sincere apologies, achieving forgiveness, developing empathy, making amends, respecting human rights, working towards an inclusive society (Tutu, 1999), and engaging in numerous dialogues.

We need to reassess how we hold dialogues. Dialogue is essential for solving issues. Respecting the dignity of others is necessary for meaningful conversations. Humanizing others is a crucial first step to initiating dialogue. We must clarify our objectives; the methods are not the final goal; the goal is to achieve our vision of a positive future.

Here are two quotes from Eleanor Roosevelt to end everything that has been said: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believe in the beauty of their dreams.”

“It isn't enough to talk about peace. One must believe in it. And it isn't enough to believe in it. One must work at it.” So be it.

Reference

Tutu, Desmond. (1990)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Random House: New York.

세션 2 | 상처 받은 세상을 위한 치유: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향한 길

실천하는 삶: 인류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츠이 캐시

세이센대학교 교수

서론

ICCGC 세션 "상처 입은 세상의 치유: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향한 길 - 구조적 불의와 생태적 위기 해결, 그리고 회복력과 해방을 위한 전략"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경청하며,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 있는 모임을 통해 실천적 연대를 구축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행동에 나서며, 회복력과 해방을 증진함으로써 이번 대회의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서 입법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세상을 무력 중심의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적 수단을 통한 건설적인 협상의 장으로 전환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저는 사회 정의가 환경 정의와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2021년, 2023년, 2024년에 열린 지난 ICCGC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과제는 무엇이며, 우리가 거둔 성취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희망과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유에는 다양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학제 간 연구와 역사적 사례, 그리고 실천적 경험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수적임을 건설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이란 1. 화해, 2. 파트너십(협력), 3. 갈등 후 치유, 4. 교육을 포함한 예방 조치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동력이 됩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세대 간 트라우마는 대개 불완전한 치유와 미흡한 화해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장소가 어디든(가정, 공동체, 국가 혹은 세계), 갈등의 양상이 무엇이든(사소한 다툼, 물리적 폭력 혹은 전쟁), 시기가 언제든(과거, 현재 혹은 미래),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든(아이들, 성인 혹은 정치 지도자) 치유를 위한 동일한 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평화와 화해가 미래를 그려보는 '비전 정립'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 비전에는 신체적·심리적·정신적 상처의 온전한 치유, 대화를 통한 비폭력적 문제 해결의 학습이 포함됩니다. 비록 보복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고통스럽고 더디며 지난한 일일지라도, 또한 용서가 아무리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폭력은 결코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더 파괴적인 결과와 비극적인 악순환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제가 제2차 및 제3차 '도쿄 평화 원탁회의'의 사회자로 참여하며 얻은 영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원탁회의 논의는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고 구조적 불의와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며, 회복력과 해방을 촉진하기 위해 ICCGC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평화 원탁회의의 참가자들을 소개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진솔한 외침과 간절한 호소, 그리고 희망을 전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과 2025년 도쿄 평화 원탁회의에는 유엔 대표단, 일본 정계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미얀마의 종교 지도자와 주교,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팔레스타인의 이맘과 이스라엘의 랍비, 힌두교 및 불교 지도자(승단 및 재가), 기독교 목사, 가톨릭 사제와 주교, 신도 사제, 그리고 기타 다양한 신앙과 철학 전통의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린 이번 도쿄 평화 원탁회의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전 세계 분쟁 지역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꾸밈없고 본질적인 목소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외침이자 간절한 호소이며, 동시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평화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얀마와 불타는 아프리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들려오는 소리 없는 절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흐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뿐만 아니라 나무와 환경,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결코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을 위해 평화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전 세계에는 인류 문명을 파멸시킬 수 있는 1만 3천 개의 핵무기가 존재하며, 지구는 온난화로 신음하고 빙하는 녹아내리며 강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평화를 향한 신념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영향력이 없다면, 유엔(UN)이라는 기구 또한 그 생명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의 전통을 일구어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드론 소리와 러시아의 폭격 소리는 그야말로 악몽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 가족과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은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매일 밤 수백 대의 드론이 몰려오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이 찰나의 순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목숨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직접 겪고 있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평화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에게서는 세상에 손을 내밀고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비극적인 유혈 사태가 지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전란을 피하거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화의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때, 비로소 전쟁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 도쿄 회의를 마칠 때는 명확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떠납니다. 단순한 결의안 채택을 넘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모임을 추진했으나 참가자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저는 끝까지 행동을 촉구할 것입니다. 모든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서류상의 논의를 넘어 더 많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평화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성공 여부는 정책 결정자들이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과 평화, 정의와 자비를 향한 우리의 소명을 깨우는 '대화'야말로 평화의 토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정표를 넘어 신앙으로 공고해지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국제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미래는 우리가 함께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염원을 실현하는 한 가지 길은 '기도'입니다. 신앙인들은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란 모든 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적'이라 불리는 이들을 인간으로 환원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그들을 인간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자비와 공감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평화를 향한 열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지도자는 평화를 갈구하고, 진실을 말하며, 자비로써 행동해야 합니다. 화해는 우리의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각국의 어려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존엄을 상실한 곳, 여성과 아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상처 또한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등불 삼아 상대의 고통을 '깊이 경청'해야 합니다. 용서는 고통스럽고 화해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동의 전략과 영적 회복력을 바탕으로 서로 배우고 함께 행동합니다. 이 과정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력 삼아 지금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존엄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폭력의 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중요의 마음을 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화는 결코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파괴와 절망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평화를 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평화 원탁회의는 구체적인 희망의 복원뿐만 아니라, '화해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를 연결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20억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이 인류라는 거대한 가족과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일구는 삶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을 창조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회복력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아이들과 쌓은 신뢰야말로 그들의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핵심 질문은 '각 종교가 공동체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관용과 공존, 연대와 상호 이해, 그리고 평화와 화합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자비,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국적과 민족,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하와 비인간화가 만연한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문화적 유대'를 뛰어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국 지도부의 뜻에 반하거나 적대적인 상대에게 공감과 연민을 보이는 일 또한 매우 드뭅니다. 평화 원탁회의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평화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위한 신성한 명령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언자적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경전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모든 형태의 증오와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행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한 보편적 윤리로 세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평화와 자결권,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합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침략과 비인간화를 계속 묵인한다면, 우리 세계는 대체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비전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제3차 도쿄 평화 원탁회의를 통해, 우리가 부여받은 신뢰를 완수하고 증오와 비인간화를 넘어 '인간다움의 회복과 우정'으로 나아가도록 신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2008년부터 '종교평화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평화 활동에 투신해 왔습니다. 평화 구축자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는 입법가들 사이의 공조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단을 동원한 협력이 외교적 노력의 핵심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종교 지도자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현 시국은 용서와 화해의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평화와 화해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지도자들은 화해의 단계마다 각기 다른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 돌을 거두어 모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오와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용서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며, 언제 부드럽게 말하고 언제 단호하게 사효(獅吼)해야 하는지를 아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여성들은 전국적인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화합을 일구어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치유해야 합니다."

이번 원탁회의의 논의는 상처 입은 세계에 공감하고 이를 치유하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이는 사회적·환경적 정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도쿄 평화 원탁회의는 구조적 불의를 바로잡고 회복력과 해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제가 경청한 고귀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 조치를 제안합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해결(휴전 포함)
2. 각 당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화해 프로세스
3. 온전한 치유의 과정
4. 예방적 기틀 마련
 - (a) 범지구적 세계 시민 교육
 - (b) 가정 내 세계 시민 교육의 실천

(c)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평화 구축 역량 강화 훈련

원탁회의의 모든 통찰을 종합하여, 저는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의 이론(2023년 ICCGC 발표 내용)과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화해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투투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화해의 과정이란 진실을 규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용서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공감을 나누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며(Tutu, 1999), 끊임없는 대화에 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우리는 대화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마주하는 것이 대화의 진정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발표를 마치며, 엘레노어 루스벨트의 두 가지 명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래는 자신의 꿈이 가진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문헌

투투, 데스몬드. (1999) 『용서 없이 미래 없다』. 랜덤 하우스: 뉴욕. (국역본: 흥성사 역, 2004)

Panel Session 2 | Healing a Wounded World: Paths to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Practicing Compassionate Leadership

Dr. Christie Yu-Ling Chang

President, Sakyadhita Taiwan

It is an honor.

Let me turn on my PowerPoint.

Is it on?

Okay, great.

It is an honor to join all of you at this important gathering — one that speaks directly to the challenges we face and to the possibilities we can build together.

As a Buddhist, and as someone committed to interfaith engagement, I approach this conversation with humanity, gratitude, and depth.

This session, Healing a Wounded World: Path to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reminds me of a reflection from the 15th 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Indonesia, where the theme was Compassion and Social Justice.

There, as now, I felt that we must be courageous enough to reorder the terms.

It is compassion that must come first.

Without compassion, justice can become brittle; it can become righteous, even vengeful.

But with compassion, justice breathes, listens, and heals.

Recently, I had the opportunity to watch a new documentary, Wisdom of Happiness, featuring His Holiness the Dalai Lama, with Richard Gere as the executive producer.

It deeply affirmed something I have long felt: compassion is not just an emotion — it is wisdom.

It is a conscious choice, a cultivated strength, and a guide for right action.

In the film, His Holiness reminds us that compassion must be practiced, sustained with discipline, and extended across generations.

This year marks His Holiness the Dalai Lama's 90th birthday.

While some have called this the "Year of Compassion," I truly feel that it should be the Century of Compassion.

Healing the world requires long-term commitment – not only to justice, but to the inner transformation that makes justice possible.

If only more of our world’s political and institutional leaders could embrace this union of compassion and wisdom, I believe justice would more naturally arise, flowing not from ideology, but from understanding.

We are living in a time when our planet aches – from climate devastation to forced migration, from rising polarization to quiet despair.

These wounds are not only external.

Many of us carry hidden wounds – hidden injuries of fear, exhaustion, and grief.

In Buddhist practice, we often say that suffering is the beginning of the path.

It is by touching suffering that we begin to transform.

But this transformation cannot happen through judgment or ideology alone.

It requires leadership that begins within, and moves outward through relationship, listening, and courage.

I recall the theme of the Sakyadhita Conference in Bangkok in 2011, where I served as President.

That theme was Leading to Liberation.

It still resonates deeply with me.

True leadership is not about domination, or even direction.

It is about liberation – and liberation begins within each of us.

Everyone is their own master.

Buddhism speaks of the Middle Way – not as a static point of neutrality, but as a dynamic, mindful path of balance.

A compassionate leader does not avoid the heat of injustice, nor drown in the suffering of others.

Instead, they walk with presence, humility, and discernment.

In my interfaith work, I have seen this Middle Way embodied again and again.

At the Vatican, I was invited to speak on building a culture of encounter across religions – thanks to our Monsignor Father from Indonesia for that invitation.

I shared the Buddhist concept of Indra’s Net, which our moderator also mentioned yesterday.

Indra’s Net is a vast cosmic web where each jewel reflects all others.

It is a vision of interbeing – a reminder that healing anywhere heals us all, and harm anywhere harms us all.

Later, I brought this same vision to Europe’s largest Muslim gathering, where I chanted the Green Tara Mantra and introduced Amitabha Buddha to an audience of fifty thousand people.

I also joined a multinational Guangkong folk religious pilgrimage.

Earlier, I taught together with my husband, Dharma teacher Dr. Chen, in Bhutan – three blessed months in Bhutan.

Each of these encounters reminded me: compassion does not erase difference; it honors it, while seeing

the shared humanity beneath.

A wounded world requires systemic change — yes.

But systems are sustained by people, and people are moved by values, emotions, and spirit.

That is why I am also honored to be part of the Call of the Time Dialogue next month in Bodh Gaya.

In contrast to this large-scale forum, that gathering will be small and contemplative.

Yet both are essential.

Outer action must be replenished by inner clarity.

Justice sustained without compassion dries up, but compassion anchored in wisdom becomes a transformative force.

As we consider how inner clarity supports outer action, I am reminded that these qualities are nurtured not only in solitary reflection, but also through meaningful partnerships.

One recent example that touched me deeply was the invitation from my fellow panelist, Dr. Kathy Matsui, who welcomed my husband, Dr. Chen, and me to participate in the IALRW Conference in Kuching, East Malaysia — right before the 19th Sakyadhita Conference.

That gathering in June showed the power of dialogue and partnership, offering a beautiful model of what compassionate collaboration can look like.

Two conferences, scheduled back to back, were intentionally aligned to create space for deeper connection across traditions and causes.

It reminded me again that small gatherings, when rooted in purpose, can nourish both the spirit and the systems we seek to transform.

We are not simply activists, academics, or faith leaders.

We are human beings seeking wholeness in a fragmented world.

If we wish to build peace, we must begin by healing the fractures within ourselves — between our ideals and our fears, our memories and our aspirations.

In Mahayana Buddhism, we aspire to the Bodhisattva Path — the way of one who seeks enlightenment not only for themselves but for the liberation of all beings.

The Bodhisattva steps into suffering with compassion — not to fix others, but to walk beside them until they remember their own light.

This, to me, is the essence of compassionate leadership.

It is not leadership from above.

It is leadership among and with.

It is leadership that listens, that includes, that liberates.

So, as we gather here at the ICCGC-CoNGO Conference, I invite us all to ask — not only what justice do we seek, but also what compassion will sustain it?

Let our policies be rooted in presence.

Let our plans be softened by love.

Let our justice be kind.

Only then can we move from wounds to wholeness — together.

Thank you for your compassionate listening.

세션 2 | 상처 받은 세상을 위한 치유: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향한 길

자비로운 리더십의 실천

크리스티 창

사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대만지부 대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우리가 함께 일궈낼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이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불교 수행자로서, 그리고 종교 간 화합에 투신해 온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인류애와 감사,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대화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인 '상처 입은 세상의 치유: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향한 길'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5회 사카디타(Sakyadhita) 국제회의의 주제였던 '자비와 사회 정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용어의 순서를 재배치할 만큼 충분히 용감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비가 먼저여야 합니다. 자비가 없는 정의는 메마르기 쉽고, 독선적이거나 심지어 보복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가 갖든 정의는 숨을 쉬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치유를 끌어냅니다.

최근 저는 리처드 기어가 제작하고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출연하신 다큐멘터리 <행복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비는 의식적인 선택이자 훈련된 힘이며, 올바른 실천을 이끄는 지침입니다. 성하께서는 영화를 통해 자비는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엄격한 자기 절제로 유지되고 세대를 넘어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올해는 달라이 라마 성하의 90세 생신이 되는 해입니다. 어떤 이들은 올해를 '자비의 해'라고 부르지만, 저는 지금이 '자비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려면 정의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가능케 하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정치 및 제도적 지도자들이 자비와 지혜의 결합을 받아들인다면, 정의는 이념이 아닌 깊은 이해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부터 강제 이주, 심화되는 양극화와 소리 없는 절망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신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두려움과 고단함, 슬픔이라는 숨겨진 상처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고통이 곧 도(道)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판단이나 이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시작되어 관계와 경청, 그리고 용기를 통해 외부로 확장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재임했던 2011년 방콕 사카디타 대회의 주제가 떠오릅니다. 당시 주제는 '해탈로 이끄는 길'이었는데,

그 울림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나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방'에 관한 것이며, 그 해방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중도'를 말합니다. 이는 정적인 중립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깨어 균형을 잡아가는 역동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자비로운 지도자는 불의의 뜨거운 열기를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고통에 함몰되어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온전한 현존과 겸손, 그리고 명확한 분별력을 갖추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저는 종교 간 화합 활동을 펼치며 이러한 중도가 구현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종교 간 만남의 문화 구축'을 주제로 강연했을 당시-초청해주신 인도네시아 문시놀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어제 사회자께서도 언급하신 '인드라망(Indra's Net)'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보석마다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는 이 거대한 우주적 그물은 우리 모두가 '상호 존재'하는 연기(緣起)적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한 곳의 치유가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한 곳의 상처가 우리 모두의 상처가 된다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이후 저는 유럽 최대 규모의 무슬림 집회에서 5만 명의 청중을 향해 '녹색 타라 만트라'를 염송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국적 광공(廣公) 민속 종교 순례단과 함께했으며, 그에 앞서서는 남편인 법사 첸(Chen) 박사와 함께 부탄에서 세 달간 머물며 가르침을 나누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제게 한 가지 진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자비는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온전히 존중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흐르는 보편적 인간애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세상에는 분명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은 가치와 감정, 그리고 정신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 달 보드카야에서 열리는 '시대의 부름 대화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대규모 포럼과는 달리 소수 정예의 명상적인 모임이 되겠지만, 두 형태 모두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외적인 실천은 내면의 명료함을 통해 끊임없이 수혈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결여된 정의는 결국 메마르지만, 지혜에 뿌리 내린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파동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명료함이 어떻게 외면의 실천을 뒷받침하는지 되새겨보며, 이러한 자질은 홀로 하는 성찰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길러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최근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사례는, 오늘 함께하신 패널 캐시 마쓰이(Kathy Matsui) 박사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제19회 사카디타(Sakyadhita) 대회를 앞두고, 말레이시아 동부 쿠칭에서 열린 IALRW(국제자유종교여성연맹) 컨퍼런스에 저와 제 남편인 첸 박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6월에 열린 그 모임은 대화와 연대가 지닌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으며, '자비로운 협력'이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본보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연달아 개최된 이 두 국제회의는 서로 다른 전통과 대의를 넘어 더 깊은 연결의 장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숭고한 목적에 뿌리를 둔 작은 모임들이,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별 영성과 사회 시스템 모두에 얼마나 풍요로운 자양분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활동가나 학자, 혹은 종교 지도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온전함'을 찾아 구도하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일구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내면의 균열-즉 이상과 두려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열망 사이에 난 그 틈새부터 치유해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우리는 보살도(菩薩道)를 발원합니다. 보살의 길이란 나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자유와 해방

을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입니다. 보살은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이 스스로 내면의 빛을 기억해낼 때까지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기 위해 자비의 마음으로 고통의 한복판에 발을 내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자비로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곁에서 함께하는 리더십입니다. 경청하고, 포용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ICCGC-CoNGO 컨퍼런스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의를 추구하는가에 그치지 말고, 과연 '어떠한 자비가 그 정의를 지속하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ICCGC-CoNGO 컨퍼런스에 모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갈망하는 정의는 무엇이며, 그 정의를 지탱할 자비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정책이 '온전한 머무름'에 뿌리 내리게 합시다.
우리의 계획이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게 합시다.
우리의 정의가 친절하고 자비롭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넘어 온전함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3]
Session 3

Panel Session 3 | The Rol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Global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Proposal for An Initiative to Establish Standards of Sovereignty that Incorporate the Core of Common Spiritual Values Found in the Teachings of the Words Religions

Rev. John Grayzel J.D, Ph.D.

Retired US Foreign Service
Past Holder Baha'i Peace Chair - University of Maryland
Associate Won Dharma Center USA - Claverack NY

THE "PROBLÉMATIQUE":ⁱ

The situation is dire. Humanity today is faced with a host of existentially threatening circumstances. The problem is not a lack of intellectual or scientific or technological capacity but of the lack of will and capacity on the part of national leadership to enact the necessary changes in individual and diverse interest-group practices.

The problem is spiritual. The need is for the peoples of the world to establish a unity of conscience on a shared set of core spiritual values from which can be derived a set of agreed upon standards for national sovereignty which can sagaciously and sustainably govern their communal national lives. However, God this must be done while accommodating to the diversity of circumstances and understandings that are natural to global human existence. I believe to achieve this requires a global initiative to develop and monitor such spiritually based standards of sovereignty and that this gathering could be the time and place of its founding and it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orking in unison, can be the progenitor of its initiation and an instrument for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A Mind Experiment

There are approximately 8 billion people in the world, mostly grouped in 193 United Nations member countries. The United Nations was established as a forum of sovereign nations to come together in discussion and action to bring peace and well-being into the world. Unfortunately, hop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existentially threatening challenges has too often been undermined by perceived independent sovereign national interests as determined by their sovereign rulers. The question is how might this be remediated?

To conceptualize how this might be don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mind experiment. Imagine

ⁱ "Problematique is a (uniquely French term analogously) to the (English term) research problem or question used typically when addressing global systemic problems.... impossible to view as problems that exist in isolation - or as problems capable of being solved in their own terms.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Research_question&oldid=1291683876 The importance for this discussion is the operative premise that humanity's problems, even if they have a strong spiritual component, are complex and cannot be solved simply by making people more spiritual.

you could choose to replace any 12 current world leaders, who seem to lack the complement of necessary will, capacities, skills, understandings and/or values necessary to save our world, with 12 past leaders, who seemingly possessed and applied these qualities. Twelve that come to my mind are Nelson Mandela, Franklin Roosevelt, Sun Yat-Sen, Eamon Magsaysay, Jean Monnet, Mikhail Gorbachev, Julius Nyerere, Jawaharlal Nehru, Lee Kuan Yew, José Mujica, N.F.S. Grundtvig and Karl Renner.ⁱⁱ

None of these individuals were without fault, and not all were deeply religious in a traditional sense. However, I believe that to a larger than normal extent they were able to express and engender for their nations (and as examples for the world) a minimal unity of action and shared values - what I refer to as a "Unity of Conscience" - that, though indispensable for its salvation, seem deficient in the world today .

Moreover, I would propose to you they were all people who believed that harmony was better than discord; wanted to do better by all the people in their nation; recognized there existed a diversity of understandings, interests and desires both within their own nations, as well as surrounding nations and the world itself, that have to be accommodate; believed that peace and prosperity require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long-term institution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on all levels, and could inspire in others a willingness to engage in reasonable service and sacrifice for the greater good.

Most critically, they were all individuals devoted to service for the public good of their nation and the promotion of a harmonious international order. Moreover, they could inspire in others the necessary heart-mind that, if shared among a common group, can be called a unity of conscience.

Unexpectedly, in performing my own mind experiment I concluded that they, were they to return, they could make an appreciable difference but that it was unlikely the 12 mentioned past individuals could, as leaders, actually permanently change the world today. In fact, they have already been here, and while their actions had significant positive consequences, many of their teachings and admonitions, and even the results of their accomplishments, are already fading from our political realities as well as our mental consciousness.

Individual Spirituality is Not Enough

Here is the rub. It is only people who can have a conscience because a conscience depends on an aware and informed heart-mind and only people have a heart- mind. Nation-states, corporations, organizations, institutions, etc. are conceptual and legal construct - sometimes called "imagined communities". Values and beliefs and behaviors attributed to such entities are at best reflections of the values, beliefs and behaviors of its rulers, citizens and members. To have a unity of conscience among a diversity of people within an entity requires that the members of that entity share in their heart -mind a foundation of harmonious and compatible fundamental principles and values.

ii Unfortunately I don't have the space to fully expand on why I chose these 12 individuals but let me note their national identities: Nelson Mandela (South Africa), Franklin Roosevelt, (U.S) Sun Yat-Sen (China) , Eamon Magsaysay (Philippines,) Jean Monnet (France), Mikhail Gorbachev (USSR) Julius Nyerere, (Tanzania) (Jawaharlal Nehru (India), Lee Kuan Yew (Singapore), José Mujica (Uruguay) N.F.S. Grundtvig (Norway), and Karl Renner (Austria).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such entities are in some sense figments of our imagination, they can facilitate and even determine our interaction with each other because we bestow upon them their own specific sets of laws, rules, ideologies, patterns of behavior, histories and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attributes, and understandings and codes of practice which we accept and use to guide our own individual and communal behaviors.

The reason we need such institutions is because people are diverse, mercurial and mortal - and therefore less than consistent, stable and enduring. . Through established rules, practices, rituals, etc., institutions help us create sustainability, consistency and common approaches for managing and regulat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interaction in multiply repetitive situations and over extended periods of time. Yet, given their difference circumstances and changing situation, it is to be expected that these institutions can differ from nation to nation. Failure to accommodate such differences between institutions is one reason global agreements are difficult to reach, let alone impl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collective can be understood as a Yin Yang relationship. Each is dependent on the other as they interrelate in a dynamic interactive interdependence that is always in the process of rebalancing itself. However, originally in the West, but now more globally generalized, there have been two major epistemological phenomenon that have thrown this process out of balance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secular governance.

The Heart-Mind and Human Conscience.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we face, we have to understand the foundational role that the heart-mind plays in the constructing of reality, both for the individual and society. The heart-mind is a concept conceived of as a distinct phenomenon composed of different facets, the interaction between which generates the thoughts and feelings that motivate and propel us.ⁱⁱⁱ

This concept of the distinct phenomenon of the heart-mind, by which people produce both logical thoughts and sensory emotions, was an almost universal concept until the 17th century. It was during that period that thinkers of the European enlightenment, conceptually divided the heart -mind into two separate entities. The result has been the creation of an enduring western supposition that portrays the mind as framing our understanding of the tangible, material world, that is knowable by logic and empirical observation, while the heart is seen as the repository of intangible idiosyncratic feelings and emotions that come from the interior world of each individual's sentiments.

The above dichotomy has led the West to conceiving a divide between science and spirituality. The first is seen as the repository of logical and empirical generalizable truths and the explainer and regulator

ⁱⁱⁱ Modern science is actually expanding the heart-mind to a triad of the heart-mind-gut. The mind with its electrical -chemical connections stores and communicates between different information repositories. The heart not only senses and regulat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tes and changes but through the thymus gland, which sits on top of it, as part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an immune system against foreign elements, creates our sense of who we are. The gut produces the majority of the neurotransmitter's serotonin (which affects many moods, such as appetite and sleepiness) and dopamine (which affects motivation, pleasure and motor movements.)a

of the external material world. It does this through logic, science and technology. The latter is seen as the repository of subjective personal beliefs based on faith and dogma, not fact. Emphasis on the mind alone has given its proponents incredible capacities for affecting material realities but has come with an almost run-away surrender to materialism as life's purpose. Emphasis on the heart has favored giving its proponents a powerful sense of overarching spiritual purpose and meaning to life but less of a capacity for actually transform the realities of earthly material existence,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spiritually informed sustainable solutions.

This professed heart and mind divid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operation of the human conscience in contemporary society. When we have a sense of there being both a greater purpose to our lives and an enduring purpose for life itself , one which is beyond our immediate earthly desires and mortality but can still guide our behavior and our actions, we have what I call "spiritual values." If, building upon such beliefs, we consciously match such values against the material empirical immediate circumstances of our lives -what I call "Life's contingent realities"-and judge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in harmony or conflict with our daily actions - we have a functioning conscience.

The Nation-State, Sovereignty and Spiritual Values

In politics today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closely tied to the prevailing concept of the nation-state system. However, sovereignty as a concept has existed at least from the beginning of historical times and has basically meant "the source of absolute power over a realm." The realms however can differ in nature, as can the exact definition of sovereignty.

In Christianity sovereignty has been seen as God's sovereignty over the divine world, but circumstantially delegated in various ways, such as the divine right of kings and human free will., Islam sees God as the sovereign of the entire universe and Sharia law as its divine expression. Buddhism has stressed the sovereignty of the individual in terms of their own fate but see the overall sovereignty of the Dharma - the true path that rules and determines the ultimate consequences of human actions. The origin of the Chinese concept of "mandate of heaven", whereby sovereignty afforded by God is revoked, is unclear but is held by several traditions, such as Confucianism and Daoism.

In the 17th century, the Peace of Westphalia, a precursor of the Enlightenment, ended decades of disastrous religious wars in Europe. Prior to Westphalia, in the West, two discrete but overlapping sovereign realms were generally recognized - the sovereign realm of "Caesar" - being the realm of earthly power and interests, and the sovereign realm of "Christ" - being the realm of spiritual realities and exigencies . Humans, including sovereigns, were seen as subject to both and constantly in need of reconciling them in their daily lives.

The Treaty of Westphalia established the understanding that nations would be delineated by the territory they controlled and that what went on within those territories, including which religions could be practiced, would be determinable by their nation's sovereign.

Since Westphalia, nation-states have increasingly monopolized the realm of earthly political sovereignty.

However, till recently there was also a mitigating fact against this monopolization in the form of the family and the immediate community. These were the basis of local social and behavioral expectations, and religion and spirituality played a major role in how most people -including sovereigns- understood and conducted their lives. Endemic was the presumption that the people and their family existed not only for the survival of its members but also for the procre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human race.

WHERE WE ARE TODAY

As long as there was the common presumption of the importance of religion in every day and communal life, the centrality of the heart-mind, prevailed and an overlap between the realms of the political and the spiritual seemed natural. However, in the last 65 years new highly complex factors and relationships have emerged that have engendered a disintegration of many of the previous religious structures and practices that promoted the direct interaction - the yin yang -of the religious and nation state relationship.

Especially in the Western world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emphasis on the life of the individual and the supremacy of materialistic needs and ends. In the West there has been a dramatic reduction in regular religious service attendance and the public exhibition of religion and public spiritual reflection. In the East, Islam is expanding in membership but, along with Hinduism and some SE Asian Buddhism, has increasingly been a vehicle for individual political rather than spiritual expression.^{iv}

Particularly in the Western world there is a presumption today that it is the wishes of the individual and the free expression of individual desires, aspirations and preferences that should be the determinants of individual life choices. Moreover, provid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allowing such individual choice has increasingly been seen as a major objective of many nation-state governments. Concomitantly there has also been a metamorphosis of the concept of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decide their own religious beliefs into an increasingly dominating secular doctrine that deep spiritual and religious beliefs should be reserved for the private sphere of individual lives and should not intrude into the secular community. One result is that today many individuals judge religion and spirituality by the material and emotional benefits it can offer them personally - rather than by the existence and dictates of any higher meaning, purpose or truth.

As a result of such changes, nation-state reactions seem to swing between increased partisan control of religion and its marginalization in daily political governance. (Meanwhile, individuals increasingly have multiply citizenships; and multiply passports have become not only common but a sign of status.)

A FIRST STEP: REMEMBERING

One consequence of the repeated waves of materialism that no overwhelm us, is that we literally forget

^{iv} The variety of reinforcing reasons for this phenomenon are too great for me to cover in this paper.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how the ability of women to control giving birth has dramatically reduced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and the socio-biological imposition on people of the role of wives as mothers and men as protectors and providers.

what they are covering. Significantly lost to general public awareness are precise lessons and learnings as to when and where in the past, spirituality and spiritual values have played a positive critical role in the sustainable resolution of pressing existential problems. Such learnings are no just illustrative examples. They are case studies that can not only to give us confidence as to how to act but also provide specific guidance as to what is most likely to work in a world different from today.

Spirituality and the Marshall Plan

The Marshall Plan is one such outstanding case in point. In terms of spirituality and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spiritual values to the new world order that was established after WW II, there is little current appreciation of the role played in the creation of that new world order by the deep and openly projected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beliefs of many of its key generative figures.

In proposing the Marshall Plan, US Secretary of State George Marshall said: "(For) the guarantee for a long, continued peace ... perhaps the most important single factor will be a spiritual regeneration to develop goodwill, faith, and understanding among nations". Paul Hoffman, the Administrator of the Marshall Plan and a Republican former CEO of the Studebaker Car Corporation , wrote a book, "A New World Order", which presented his views on a "free world doctrine" for addressing global religious, political, and social concerns that he felt would lead to "a new socially conscious capitalism"; one reflecting true Christian belief. Gen. Jan Smut, the somewhat paradoxical South African Chair of the UN preamble drafting committee, was known to carry a copy of the New Testament and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in both war and peace. Many key European leaders, such as Paul Henri Spaak, Alcide De Gasperi, Konrad Adenauer, and Robert Shuman, were instrumental not only in the formation of the Marshall Plan but in the later creation of its successor entities, the EEC , EC and EU. Each of These individuals was a religiously educated Catholic influenced by the papal doctrine of *Rerum Novarum* ("revolutionary change"). This doctrine, among other things, called for social justice achieved by sacrificial action of the wealthy based on Catholic framed moral obligations and virtues.

The initial UN leaders were representatives of the allied powers, but spiritual value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thinking and positions taken by many new member leaders from prior colonies. This was certainly true of U Thant , who from 1957 to 1961 was Burma's first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and then, from 1962- to 1971, the UN Secretary-General. He vigorously promoted the core Buddhist principles of non-violence (Ahimsa) and universal compassion (Karuna,) as well as disciplined meditation as an indispensable practice to maintain personal equilibrium in the heart-mind. (So too did his close friend, confidant , and strong UN supporter, U NU,- Burma's first Prime Minister.

General Erosion of the Inclusion of Spiritual Objectives

It is revealing to compare the post World War II period with the more recent challenges to the European Union by Britain's withdrawal (Brexit). In the lead up to the Brexit vote, the debate focused on the relativ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onsequences and value of the European Union particularly in terms of benefits to the individual states and citizens. There was little, if any, awareness expressed as to how the EU is the direct descendent of the Marshall Plan and a striking example of seventy-five years of political

success in avoiding the intra-European wars that had been standard practices for thousands of years. No serious consideration was given as to how the Europe Union was a better guarantor of peace than would be a renewed fragmentation.

Undervaluation of the Role of Faith Based NGOs

A deterioration of understanding also exists as to the centrality (not just the association) of non-nation-state participants and the inclusion of non-material/political concerns to the UN's foundation purposes and functioning.

The United Nations is generally thought of as an organization made-up of 193 sovereign countries. Power is exercised through the voting rights of those member nations, as well as the veto rights of its five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 nations.^v The participation of groups, such as NGOs and other members of civil society, is dependent on the approbation of those nation-state members, and in that sense almost discretionary.

However, the UN Preamble specifically says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to reaffirm faith..... and establish conditions..... to practice tolerance and live together in peace with one another as good neighbors....and to ensure by the acceptance of principles and the institution of methods, that armed force shall not be used, save in the common interest and to employ intern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s, have resolved to combine our efforts to accomplish these aims.... Accordingly, our respective Governments, through representatives assembled... have agreed to the present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do hereby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be known as the United Nations."

This statement of nation-state governments acting according to the originating power of their people was adopted as a conscious alternative to the original proposed opening lines, (similar to the opening of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that vested the authority i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e finally agreed upon phrase had major global consequences by opening the UN to the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policy as well as practice.^{vi}

It in fact, academic studies reveal just how much that empowerment of non-nation state agents had been observed that

"So far as the Great Powers of the day were concerned, the main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was to establish and maintain collective security in the years after the war. The human rights project was

v The UN's organization is based on five key functioning components, namely , the General Assembly, the Security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Secretariat.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accepted and can be given ancillary status by the UN member stat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s' votes.

vi Virginia Gildersleeve's, the Dean of Barnard College and the US Representative, along with Eleanor Roosevelt, is generally credited with achieving this result.

peripheral, launched as a concession to small countries and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numerous religious and humanitarian associations that the Allies live up to their war rhetoric by providing assurances that the community of nations would never again countenance such massive violations of human dignity. Britain, China,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id not expect these assurances to interfere with their national sovereignty." ^{vii}

WHAT IS THE CHALLENGE?

Today the challenge, I suggest, is to rediscover, revitalize and reinforce the spiritual founda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its member nations, in order to create a situation wherein spiritual, as well as material, concerns are given their full value; and, moreover, wherein the people of each nation are able to reflect on, and express out, whether they see their own particular n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UN itself, adequately expressing spiritual as well as material and political values in their performance.

How Can and Cannot This Be Done

What will not suffice is simply to repeat the adage that everyone has to follow the golden rule. As wonderful as it is, the golden rule is a generalization and not something one can use to create a discipline focus activity with clear goals. (My grandmother used to say a shirt labelled "one size fits all", Is a shirt that fits no one.)

So too, as useful and important as occasional and periodic associations and collaborations may be, they cannot replace the power and reverberation of statement that could emerge from an ongoing sustainable global unified action On issues like sustainability on the part of all religions.

What is needed is a unity of conscience and the sharing of one heart-mind expressed through a harmonious variety of coordinated expressions of one common activity.

I suggest that the way to do this is for a group be create out of this gathering Sucha bold but doable initiativ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initiative would be to create a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unity of conscience by promoting the general global practice of including spiritual principles as an integral part of the sovereign governance of nations.

Can We Really Generate Specific Shared Spiritual Values Among Faiths?

The task to generating a distillation of the fundamental spiritual values shared by different faiths is most

vii Mary Ann Glendon, *A World Made New: Eleanor Roosevelt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Random House. New York. (2001) p xv-xvi

appropriate for this group because such values are the bedrock of the spiritual religious traditions of humanity.

It cannot be denied that many "faith based" people, and almost all religions, struggl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own theological beliefs and those of other faiths. But theological differences are not the same as common shared spiritual values, which have repeatedly been recognized by various enlightened religious thinkers.

What is known as perennial philosophy has been an ongoing process since the Renaissance. Its driving belief has been that the world's diverse religious traditions share an underlying metaphysical truth, and that the pursuit of a unified spiritual understanding is the actual purpose of human existence.

Perennial philosophy began with thinker such as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and Agostino Steuco, passing through Gottfried Wilhelm Leibniz and continuing into today's world through proponents such as Aldous Huxley, Frithjof Schuon and Martin Lings.

Outside the perennial philosophy movement, there have existed, and exist today, outstanding thinkers who, though anchored to the theologies of one or another of the great religious traditions, are still strong exponents of recognizing common ground for dialogue, association, study and cooperation between religious tradition.

Some Examples:

- One of the most influential Islamic thinkers in history, Ibn Arabi (1165 -1240), recognized the underlying unity of religions (*wahdat al-adyan*) at their spiritual cores based on his doctrine of *wahdat al-wujud* (unity of being) . Ibn Arabi actually offers some of the most extensive and profound thoughts on this subject ever written.
- The Second Vatican Council's *Nostra Aetate* (1965) created a turning point in the Catholic religion's official recognition of the need for dialogue to find commonalities among different faith. More recently, Pope Francis reinforced the need to promote "the love of God expressed through mutual love, listening, trust, hospitality and getting to know one another, all the while fully respecting each other's identities". (*Dilexit Nos*" 2024)
- The Jewish faith recognizes the Seven Noahide Laws as providing moral injunctions that bind all human beings. René Cassin, who won the 1968 Noble Peace Prize for co-author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rew on his belief in human rights being an integral part of Judaism, as well as the ideas of Albert Schweitzer, Father George Pire and Martin Luther King, to created the expanded UDHR foundational principle that "human rights are universal and apply to all human beings without any discrimination whatever; and all territories, whatever their economic or political regime. "
- Protestantism has had a myriad of ecumenical efforts by different protestant denominations, starting as early as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Contemporary protestant thinkers such as Paul Tillich

("Christianity and the Encounter of the World Religions"), John Hick, (*God and the Universe of Faiths*) and 'Human Responses to the Transcendent), recognize different religions as presenting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same divine reality. Quakers and Unitarian Universalists both recognize and promote the commonality of spiritual values, such as the dignity of all people, stewardship of the earth and welcoming community and inclusiveness.

- The Dalai Lama is the living exemplar of ecumenicalism, as well as religious flexibility and humility. Won Buddhism scriptures recognize the fundamental oneness of religions and specifically call for its members to enrich their developed Won Buddhist understandings by studying the teachings of other religions. Vietnamese Zen Master Thich Nhat Hanh is a major advocate for interfaith understanding and the recognition of shared values (*Living Buddha, Living Christ*),
- Hinduism has the expressed doctrine of *Ekam Sat Vipra Bahudha Vadanti* from the Rig Veda: meaning "Truth is one, the wise call it by many names". Swami Vivekananda drew from the Vedas to emphasize the universality of spiritual truths and the importance of tolerance and respect for all paths. Mahatma Gandhidid did likewise with the *Bhagwa Gita*.
- The Mormon faith has collaborated with other faith groups in development assistance around the world and demonstrated Its belief in the value of interfaith work during the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in Salt Lake City in 2015.
- The Baha'i Faith has presented, in "The Promise of World Peace", a letter to the world with a specific blueprint for the creation of a new world order that unites all religions and creates a new spiritual civilization. Prof. Suheil Bushrui, a Palestinian Baha'i , was the founder of the Baha'i Peace Chai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nd his book *The Spiritual Heritage of the Human Race* may be the most objective, unbiased, and direct presentation of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teachings of the world's religions ever written.

Operational Structure

As to its implementation, the structure would be one by which this initiative helps inspire and motivate groups within every nation to go through an annual reflection on their nation's performance commitment to the spiritual values that they themselves have chosen to emphasize.

The initiative would have to have an overarching steering committee that would go through an initial process of highlighting - but not determining - spiritual factors that it feels are most immediately germane for national group consideration. Then, on an annual basis national committees would gather the results of their particular reflections. The initiative committee would then do a comparative analysis summarizing the overall results, And conduct a general member consultation as to the outcomes presented and disseminate the findings in a simple effective way.^{viii}

^{viii} The doomsday clock was created to convey the urgency of the danger posed by nuclear weapons to humanity. Midnight represents a hypothetical global catastrophe, or "doomsday," while the hands moving closer or further away symbolize the perceived level of threat. Every year it is analyzed and adjusted by a committee of the Society of atomic Physicist. A positive visual for monitoring spiritual values in governance might be a rainbow ; where each color represents a specific spiritual value, and the intensity of the color represents the perceived degree of meaningful application. These are really not symbols but visual metaphors that project dynamic comparisons between goals and circumstances.

Standards of Sovereignty

Because the objective of the exercise is to create a more balanced connectivity between socio-political and spiritual issues and the generating of sustainable recommendable responses For sustainable governance, the question arises as to what would be the shared conceptual and operation cornerstone that would hold the different activities together. To answer this, we have to solve the critical question as to how we can hold entities, such as nation-states. responsible for moral and spiritual behavior: when, as ideological constructs not living beings, they have no conscience.

My answer is We can do this by employing the concept of "standards of sovereignty". (In some ways, perhaps, a modern version of a mandate of heaven).

Today, the United Nations recognizes the sovereignty of its members based upon classic political power criteria. Perhaps there is no better past example of the inadequacy of such a criterion than the seating of the Khmer Rouge as Cambodia's sovereign government. The UN recognized and seated the Khmer Rouge as the sovereign government of Cambodia from 1975 to 1993. From 1975 to 1979. while the purported sovereign power, the Khmer Rouge conducted a massive genocide of their own people, murdering an estimated 2 million of there own citizens. (about 25% of their population). In 1979 the Vietnamese invaded and took control as the actual central governing power of Cambodia. However, the Khmer Rouge continued to exercise military control over significant parts of the country. UN recognition of the Khmer Rouge as the official country government continued till 1993.

Can we really look at ourselves in any type of "moral mirror" and says that someone can simultaneously be both a peoples' sovereign and their exterminator? Have we no standards?

The Power of Standards

Standards are here meant to be understood as defined expected behaviors and practices within a given context. If properly articulated, sentiments can be qualitative benchmarks for evaluating context specific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ing feeling and emotions of both those who perform them and those who experience them. (heart-mind).

Empirical standards are based on measurable data and objective criteria. Global empirical standards already exist for material processes and products, such as ISO 13485 for medical device safety, ISO 45001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d even ISO 9001 for quality management.

Behavioral quality standards which focus on interpersonal interactions, attitudes, and conduct, often rooted in ethical and moral values, are less global but also exist. Examples are customer service policies to treats people with respect, characterized by courtesy, attentiveness, and a willingness to resolve concerns and workplace behavioral guidelines like fulfilling commitments.

In operation, empirical standards built on performance criteria can be more easily evaluated through objective outcomes and measurable indicators than behavioral standards which reflect subjective values,

like respect and empathy. For spiritual standards, which are matters of the heart-mind, such subjectivity is unavoidable and requires qualitative assessment based on peoples' inner feeling. This can be challenging but at the same time can be powerful because values truly felt are what motivate and propel people to move beyond aspirations to action.

While such standards may be characterized by some people as the same as a "right", or an "entitlement". In fact, standards are different in that they specifically link rights with responsibilities and entitlements with obligations." A person is not required to exercise their right of free speech or right to vote. However, if you want to be certified by ISO standards you have to have actual processes and products in place which meet standards.^{ix} The same should be true for spiritual standards

Necessary Elements for the Design of an Effective Activity

The initiative as proposed,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should build on clear lessons from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Below are six "lessons learned" that I have extracted from my own 40+ years of work in, and stud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The lessons are drawn from 75 yea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beginning with the Marshall Plan and the United Nations.

1. Adults learn by doing. Lecturing, admonishing, advertising and debating is how most adults learn. Most adults learn by actually doing. Suggestions without action are of feeble value.
2. Because actual action is indispensable, would-be participants should be given a concrete understanding of what, and how, things could actually be implemented. This does not require a rigid blueprint but rather flexible real-world options.
3. Most adults are most influenced by people with whom they identified or are associated with in some positive way. The global response to the HIV aids epidemic changed only as people knew a specific person who Contracted the disease. Though diversity is critical, behavioral change activities in particular should build on mobilizing groups whose members have some sense of common identity.^x
4. People predominantly measure success and failure according to what they specifically experience in relation to something they value. Statistics and artificially created indicators have little meaning to them. Progress needs to be measured by what are called "smart indicators", meaning criteria that are actually relevant to, and used in, the carrying out of the activity itself.
5. The purpose of the initiative should not be judgmental but assisting. It should strive to engender, and recognize, good faith reflection on the presence of spiritual accomplishments by the concerned parties

ix A classic philosophical articulation of a spiritual standard for sovereignty is found in Immanuel Kant's essay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wherein Kant proposed a three-day Cosmopolitan Right of Hospitality in any nation be granted to all people when visiting foreign lands, -provided they present no ill intent

x The example of the 200 Marshall Plan support committees that were critical to gaining U.S. congressional support for the Marshall Plan ,and the history of the adaptation of oral rehydration therapy in international health efforts, are certain models. An example of the importance of non-governmental participation and spirituality is the little remembered fact that American support for the Marshall Plan and eventually the United Nations faced significant opposition from a strong isolationist viewpoint in America. This was overcome by the creation of hundreds of local Marshall Plan committees composed of local business,

in their own contexts. The intent is to encourage internal self reflection, not external condemnation.

6. For this group, a most important need is to "be the change you want to see". It must reflect the unity of conscience that is an objective of the initiative. This means conducting the initiative as a single joint venture to which the entire group is committed. The initiative cannot be a potpourri of assorted activities that match different organizational conveniences and bias.

This last condi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precisely because we would be trying to establish is a unity - which might also be called a solidarity - of each group and of the overall effort. Unity among stakeholders is what is critical in terms of mutually reinforcing action. This is more than cooperation, which is a limited sub-set of unity that stresses mutuality of benefits and effort, but does not necessarily sustain unified effort and common understanding and agreement on particulars.

IT CAN BE DONE

As horrible as the case of the Khmer Rouge being accorded UN sovereign recognition may be, it is also proof that alternative possibilities exist.

In 1993, the UN established the UNTAC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That initiative, agreed upon by the involved parties, vested the UN with temporary administrative sovereignty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leading to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Sovereignty can be both a means and an end to more and better sustainable governance - but it needs to have and respect minimal reasonable standards - both political and spiritual.

FINAL THOUGHTS

This proposal is a work in progress and is certainly neither complete nor without problems.

Some people may reject it, others may be able to propose how to improve it, and some may be able to propose something else as an alternative. All Responses are welcome, especially if they Provide realistic alternatives or improvements.

What I would stress is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and we have to do it together with a spirit of unity in diversity which directly engages others in creating and implementing the final product.

One thing I think we cannot do is delay creating such an effort to achieve a unity of conscience for the better inclusion of spiritual values in the sustainable governance of the world and its myriads of governing entities. Time is running out.

In the words of the Talmud

if not this. what? If not now when? If not us who?

세계 종교의 가르침에 담긴 공통 영적 가치를 통합한 새로운 '주권 기준' 수립 제안

존 아론 그레이젤 (법학박사 · 철학박사)
전(前) 미국 국무부 선임 외교관
전(前) 메릴랜드 대학교 바하이 세계평화 석좌교수
원불교 미국총부

당면 과제:ⁱ

상황이 위중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실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지적·과학적·기술적 역량의 결핍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개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행을 변화시킬 국가 지도부의 의지와 역량 부족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 시민들이 핵심적인 영적 가치를 토대로 '양심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주권에 대한 합의된 표준을 도출하고, 공동체의 삶을 지혜롭고 지속 가능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인류 사회의 자연스러운 다양성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충분히 포용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성에 기반한 주권 표준'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번 모임이 그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참여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이 원대한 시작의 주창자이자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고 실험

현재 전 세계 약 80억 명의 인구는 193개 유엔 회원국에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유엔은 주권 국가들이 모여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은, 통치자들이 규정한 '국가 이익'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너무나 자주 좌초되곤 합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 방안을 구상해 보기 위해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현재 세계 지도자 중 자질이 부족해 보이는 12명을, 필요한 의지와 역량, 가치를 갖추고 이를 증명했던 과거의 인물 12명으로 교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떠올린 12명은 넬슨 만델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쉰원, 라몬 막사이사이, 장 모네, 미하일 고르바초프, 줄리어스 니에레레, 자와 할랄 네루, 리관유, 호세 무히카, N.F.S. 그룬트비, 그리고 카를 레너입니다.ⁱⁱ

i 프로블레마티크(Problematique)는 프랑스어 특유의 용어로, 영어의 '연구 문제'와 유사하지만 주로 전 지구적 시스템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고립된 개별 문제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 논의에서 핵심적인 전제는 인류의 문제가 강한 영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의 영성을 고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ii 버나드 칼리지의 학장이자 미국 대표였던 버지니아 길더슬리브는 엘리너 루스벨트와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공로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결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모두가 전통적 의미의 독실한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이 자국(그리고 세계의 귀감으로서)을 위해 최소한의 실천적 연대와 가치 공유, 즉 제가 '양심의 일치'라고 부르는 것을 이끌어내는 데 탁월했다고 믿습니다. 이는 인류 구원에 필수적이지만 오늘날 가장 결핍된 요소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화보다는 조화를 추구했고, 자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한 자국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욕구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모든 층위에서 지속 가능한 장기적 제도(정치·경제·사회적)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믿었으며, 타인들이 공익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에 동참하도록 고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과 조화로운 국제 질서에 헌신한 이들이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공유될 때 '양심의 일치'를 이루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실험을 수행하며 저는 뜻밖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12명의 지도자가 오늘날의 세상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머물며 큰 성취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가르침과 권고, 심지어 그 성과물들조차 우리의 정치적 현실과 의식 속에서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영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심은 깨어 있는 '통합적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 기업, 조직, 기관 등은 개념적·법적 구성물이며, 때로 '상상된 공동체'라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주체들에 부여된 가치나 신념은 기껏해야 그 통치자나 구성원들의 가치를 투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개인들이 집단 내에서 '양심의 일치'를 이루려면, 구성원들이 조화롭고 공존 가능한 근본 원칙과 가치의 토대를 마음속에 공유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상상의 산물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법과 규칙, 이데올로기, 역사적 속성, 그리고 실천 규범을 부여하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결정짓는 실체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계들을 받아들여 개인과 공동체의 행동 지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가 매우 다양하고 변덕스러우며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도는 확립된 규칙과 의례를 통해 반복되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며 일관된 접근 방식을 만들어내도록 돕습니다. 다만 각국의 환경이 다르기에 이러한 제도들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적 합의와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음양'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역동적인 상호의존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재조정하며 서로에게 기여합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두 가지 주요 인식론적 현상이, 영성과 세속적 통치 사이의 이러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음과 인간의 양심.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이해하려면, 개인과 사회의 현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마음(Heart-Mind)'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음은 여러 측면이 상호작용하며 우리를 움직이는 생각과 감정을 생성해내는 독특한

현상입니다.ⁱⁱⁱ

논리적 사고와 감각적 감정을 동시에 산출하는 이 통합적인 '마음'의 개념은 17세기까지 거의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를 두 개의 별개 개체로 분리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Mind)'은 논리와 경험적 관찰이 가능한 유형의 물질 세계를 파악하는 틀로, '가슴(Heart)'은 개인의 내밀한 감정과 주관적 정서가 머무는 무형의 저장고로 간주하는 서구식 가설이 고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과학과 영성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과학은 외부 물질 세계를 규제하는 객관적 진리의 보고가 되었고, 영성은 사실이 아닌 교리에 기반한 주관적 신념의 영역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정신'만을 강조한 이들은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얻었으나 삶의 목적을 물질주의에 송두리째 내어주었습니다. 반면 '가슴'을 강조한 이들은 삶의 숭고한 의미와 영적 목적 의식은 얻었으나, 지상의 물질적 현실을 변혁하거나 영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슴과 정신'의 분리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 양심의 작동 방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삶에 세속적 욕망과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원대한 목적이 있다고 믿을 때, 저는 이를 '영적 가치'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처한 물질적·경험적 상황인 '삶의 가변적 현실'과 우리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대조하며 일상의 행위와 이와 조화를 이루는지 혹은 충돌하는지 판단할 때, 비로소 양심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국가와 주권, 그리고 영적 가치

오늘날 정치학에서 '주권'은 국민국가 체제라는 지배적 개념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은 인류사의 시작부터 존재해 온 개념으로, 본래 "특정 영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의 원천"을 의미했습니다. 다만 그 '영역'의 성격에 따라 주권의 구체적인 정의는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기독교에서 주권은 신성한 세계에 대한 신의 통치권을 의미하며, 이는 왕권신수설이나 인간의 자유의지 등을 통해 가변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우주 전체의 유일한 주권자로 보며, 샤리아(Sharia) 법을 그 신성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불교는 개인의 운명에 대한 자기 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 행위의 궁극적 과보를 결정하는 우주적 질서인 '다르마(Dharma, 법)'의 주권을 중시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이 철회될 수 있다는 중국의 '천명' 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교와 도교 등 여러 전통에서 핵심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7세기, 계몽주의의 서막을 알린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을 초토화했던 수십 년간의 참혹한 종교 전쟁을 종식했습니다. 이 조약 이전의 서구 사회는 두 개의 구별되면서도 중첩된 주권 영역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다스리는 '카이사르의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 실체와 요구를 관장하는 '그리스도의 영역'이었습니다. 군주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이 두 영역에 동시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일상에서 이 둘을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영토에 의해 국가의 경계를 획정하고, 해당 영토 내에서 허용되는 종교를 포함한 모든 내부 사안은 국가 주권자(군주)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그 이후 국민국가는 지상의 정치적 주권을 점차 독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독점적 권력을 견제하고 완화하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라는 토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과 행동 양식의 근간이었으며, 종교와 영성은 위정자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이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과 가족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번식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제가 보편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iii 현대 과학은 심장과 정신(Mind)의 관계를 확장하여 '심장-정신-장(Heart-Mind-Gut)'이라는 삼자 결합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전기·화학적 연결을 통해 서로 다른 정보 저장소 사이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신체적·심리적 상태와 변화를 감지하고 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위치한 흉선을 통해 외부 물질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장은 세로토닌(식욕, 수면 등 기분에 영향)과 도파민(동기 부여, 쾌락, 운동 능력에 영향)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대부분 생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일상과 공동체 삶 속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에는 '마음(심신)의 중심성'이 우세했으며, 정치적 영역과 영적 영역이 중첩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5년 동안 매우 복잡하고 새로운 요인들이 등장하면서, 종교와 국가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즉 '음양'의 관계—을 촉진해 온 기존의 종교적 구조와 관행들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과 물질적 욕구 및 목적의 지고성이 점점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인 예배 참석과 공개적인 종교 활동, 공동체적 영적 성찰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동양의 경우 이슬람교의 교세는 확장되고 있으나, 힌두교나 일부 동남아시아 불교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영적 표현보다는 점차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출의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iv}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 즉 주관적인 욕구와 열망, 선호의 자유로운 표현이 삶의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지배적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주요 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결정할 권리라는 개념은 "심오한 영적·종교적 신념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세속 공동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세속주의 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이들은 종교와 영성을 초월적인 의미나 진리의 요구가 아닌, 자신에게 제공되는 물질적·정서적 실익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가의 대응 또한 종교에 대한 당파적 통제 강화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의 종교 배제(소외)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들은 복수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가 흔해졌으며,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첫걸음: 기억하기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물질주의의 물결 속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 결과는, 우리가 그 물결 아래 가려진 본질을 말 그대로 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영성과 영적 가치가 시급한 실존적 문제들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과 배움은 이제 대중의 인식 속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순히 참고할 만한 과거의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는 다른 미래의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실효성 있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실증적 사례 연구입니다.

영성과 마셜 플랜

마셜 플랜은 이러한 맥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신세계 질서에서 영적 가치가 지닌 근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질서를 설계한 핵심 인물들이 가졌던 종교적·철학적·도덕적 신념이 그 형성에 기여한 역할은 오늘날 거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 마셜 미국 국무장관은 마셜 플랜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는 국가 간의 선의와 신뢰,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영적 재생일 것입니다." 마셜 플랜의 관리자였던 폴 호프만은 저서 『신세계 질서』에서 종교·정치·사회적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자유 세계 교리'를 제시하며,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유엔 헌장 전문 기초 위원회의 의장이자 다소 역설적

iv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여 이 논문에서 전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여성이 출산 조절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아내 역할을, 남성에게는 보호자이자 부양자 역할을 요구하던 사회생물학적 규범이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인 인물이었던 남아공의 얀 스무트 장군은 전장과 평화 시기를 막론하고 늘 신약성서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품고 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폴 앙리 스파크, 알치데 데 가스페리, 콘라트 아데나워, 로베르 슈만 같은 유럽의 지도자들은 마셜 플랜뿐 아니라 이후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기구들의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톨릭의 사회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새로운 사태)』의 영향을 받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교리는 부유층이 도덕적 의무에 기초한 희생적 실천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기 유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지였던 신생 독립국 지도자들에게도 영적 가치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미얀마의 우 탄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불교의 핵심 원칙인 비폭력(아힘사)과 자비(카루나)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행법으로서 명상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의 절친한 벗이자 미얀마 초대 총리인 우 누 역시 이러한 신념을 공유한 강력한 유엔 지지자였습니다.

영적 가치와 목적의 점진적 퇴색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기와 최근 영국의 탈퇴(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EU)이 직면한 도전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앞둔 논의는 주로 개별 국가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실익과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마셜 플랜의 직접적인 후예이자, 수천 년간 반복되어 온 유럽 내부의 전쟁을 75년 동안이나 성공적으로 억제해 온 경이로운 정치적 결실이라는 점은 거의 인식되지 않았습다. 또한, 다시 분열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 유럽연합 체제가 평화의 더 강력한 보증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 기반 NGO(종교 NGO) 역할의 과소평가

비국가 행위자들의 중심적 역할(단순한 조력자가 아닌)과, 유엔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있어 비물질적·영적 관심사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점차 퇴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흔히 193개 주권 국가들로부터 구성된 기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이들 회원국의 투표권과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통해 행사됩니다.^v 따라서 NGO나 기타 시민사회 단체들의 참여는 전적으로 회원국들의 승인에 달려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활동은 사실상 국가의 재량적 허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엔 현장 전문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신념을 재확인하고... 관용을 실천하며 선린으로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조건을 확립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원칙의 수용과 방법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보장하며, 모든 인류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 기구를 활용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결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소집된 대표들을 통하여... 본 국제연합 현장에 합의하고, 이로써 '국제연합'이라 불리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vi}

국민으로부터 유래한 권한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는 이 정부들의 선언은, 당초 제안되었던 "고등 체약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문구(국제연맹 규약과 유사) 대신 의식적으로 채택된 대안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이 구절은 **유엔의 정책 수립과 실무 과정에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vi}

실제로 여러 학술 연구는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v 유엔 기구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이라는 5개의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NGO)는 유엔 회원국 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협력 자격을 얻거나 보조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의 주된 관심사는 전후 집단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권 프로젝트는 부차적인 사안에 불과했으며, 이는 소국들에 대한 일종의 양보이자 수많은 종교 및 인도주의 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즉, 연합국이 전쟁 당시 내세웠던 명분에 걸맞게, 국제 사회가 다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대규모 유린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영국, 중국, 프랑스, 미국, 소련은 이러한 약속들이 자국의 주권을 간섭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vi}

오늘날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가 제안하는 오늘날의 과제는, 유엔과 그 회원국들의 영적 토대를 재발견하고 활성화하며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질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가치에도 온전한 무게를 두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국의 국민들이 자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와 유엔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물질적·정치적 가치와 더불어 영적 가치를 적절히 구현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며, 무엇이 한계인가

단순히 모든 이가 '황금률'을 따라야 한다는 격언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황금률은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하나의 일반론일 뿐, 명확한 목표를 가진 체계적인 중심 활동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모두에게 맞는 사이즈(One size fits all)라고 적힌 셔츠는 사실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옷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간헐적인 연대와 협력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으나,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통합된 행동을 취함으로써 발휘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과 파급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심의 일치'와 '일심(一心)'의 공유이며, 이는 조화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실천으로 발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모임을 통해 이토록 대담하지만 실현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갈 실행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 원칙을 국가 통치의 필수적 요소로 편입시키는 관행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양심의 연대'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 간에 공유되는 구체적인 영적 가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다양한 신앙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영적 가치를 정립하는 작업은 인류 종교 전통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기에, 이 그룹(연구팀)에 가장 적합한 과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과 거의 모든 종교가 자신들의 신학적 신념과 타 종교의 신념 사이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적 차이는 공통의 영적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깨어 있는 여러 종교 사상가에 의해 거듭 확인되어 왔습니다. 르네상스 이래 지속되어 온 '영원철학'은 세계의 다양한 종교 전통이 저마다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진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통일된 영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와 아고스티노 스테우코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를 거쳐, 오늘날 올더스 헉슬리, 프리트요프 슈온, 마틴 링스 같은 주창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철학 운동 밖에서도, 특정 종교 전통의 신학에 뿌리를 두면서도 종교 간 대화와 연대, 연구 및 협력을 위한 공통의 토대를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옹호하는 뛰어난 사상가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

vi 버나드 칼리지의 학장이자 미국 대표단 일원이었던 버지니아 길더슬리브는 엘리너 루스벨트와 함께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주역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vii 메리 앤 글렌던, 『새롭게 태어난 세상: 엘리너 루스벨트와 세계인권선언』, 랜덤하우스(뉴욕), 2001, xv-xvi쪽

-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슬람 사상가 중 한 명인 이븐 아라비(1165~1240)는 자신의 '존재의 단일성(Wahdat al-wujud)' 교리를 바탕으로, 모든 종교가 그 영적 본질에 있어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종교의 단일성(Wahdat al-adyan)'을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이븐 아라비는 이 주제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심오한 통찰을 남긴 인물 중 하나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언문 '노스트라 아에타테(우리 시대에, 1965)'는 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공통 분모를 찾고자 하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태도 변화에 있어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네 번째 회칙 『딜렉시트 노(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2024)』를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온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사랑과 경청, 신뢰와 환대, 그리고 서로를 알아감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유대교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도덕적 규범으로서 '노아의 7계명'을 인정합니다. 196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세계인권선언의 공동 기초자인 르네 카생(René Cassin)은 인권이 유대교의 본질적 가치라는 신념과 더불어 알베르트 슈바이처, 도미니크 조르주 피르 신부, 마틴 루터 킹의 사상을 결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인권은 보편적이며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적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영토에 적용된다'는 확장된 세계인권선언의 근본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 개신교는 19세기 초부터 다양한 교파를 중심으로 수많은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폴 탈리히(『기독교와 세계 종교의 조우』)와 존 힉(『신과 신앙의 우주』, 『종교 해석: 초월자에 대한 인간의 반응』) 같은 현대 사상가들은 서로 다른 종교들이 동일한 신성한 실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고 인식합니다. 퀘이커와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또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 그리고 포용적인 공동체 형성과 같은 영적 가치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를 장려합니다
- 달라이 라마는 종교 간 화합뿐만 아니라 종교적 유연성과 겸손의 살아있는 귀감입니다. 원불교 경전은 종교의 근본적인 일체성을 인정하며, 특히 교도들이 타 종교의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원불교적 이해를 더욱 심화하고 풍성하게 가꾸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베트남의 선승 틱낫한 스님 또한 『살아있는 부처, 살아있는 그리스도』라는 저서를 통해 종교 간의 이해와 공유 가치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온 인물입니다.
- 힌두교에는 리그베다에 명시된 '진리는 하나이나, 현자는 그것을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는 뜻의 '에캄 사트 비프라 바후다 바단티'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베다에서 영감을 받아 영적 진리의 보편성과 모든 구도의 길에 대한 관용 및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또한 바가바드 기타를 통해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보여주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몰몬교)는 전 세계 인도주의 개발 원조 사업에서 타 종교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2015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세계 종교 의회를 통해 종교 간 연대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 바하이 신앙은 세계인에게 보내는 서한인 『세계 평화의 약속』을 통해, 모든 종교를 아우르고 새로운 영적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세계 질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바하이 학자인 수헤일 부슈루이 교수는 메릴랜드 대학교에 '바하이 평화 석좌'를 창설했으며, 그의 저서 『인류의 영적 유산』은 세계 종교 교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장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게 서술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운영 구조

본 계획의 실행 구조는, 각국 내 참여 그룹들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선택한 영적 가치에 대해 자국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헌신하고 성과를 냈는지 매년 성찰하도록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초기 단계에서 각국 위원회가 검토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영적 요소들을 제시하되, 이를 강제하거나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각국 위원회는 매년 자체적인 성찰 결과를 취합합니다. 본 계획의 운영위원회는 이 결과들을 요약·비교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해 일반 회원들과의 협의 거친 뒤, 그 분석 내용을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유합니다.^{viii}

주권의 기준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사회·정치적 현안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형 잡힌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나로 묶어줄 개념적·운영적 초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양심이 없는 '이념적 구성물'에 불과한 국가라는 실체에 어떻게 도덕적·영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의 대답은 '주권의 기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현대판 '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엔은 고전적인 정치 권력의 잣대로 회원국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는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정권일 것입니다. 유엔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크메르 루주를 캄보디아의 정식 주권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소위 '주권자'라는 크메르 루주는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자국민 약 200만 명(인구의 25%)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79년 베트남의 침공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을 상실하고 영토 일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었음에도, 유엔은 1993년까지 그들을 공식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도덕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누군가가 한 국민의 주권자인 동시에 그들을 말살하는 학살자일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는 것입니까?

기준의 힘

여기서 '기준'이란 특정 맥락 안에서 정의된 기대 행동과 관행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적절히 명문화된다면,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이와 경험하는 이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질적 벤치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적 기준은 측정 가능한 데이터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합니다. 의료기기 안전(ISO 13485), 산업 보건 안전(ISO 45001), 품질 경영(ISO 9001)과 같이 물질적 공정 및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글로벌 표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viii} 지구 종말 시계는 핵무기가 인류에게 가하는 위협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정은 가상의 지구적 대재앙, 즉 '종말'을 의미하며, 시계바늘이 자정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은 인류가 체감하는 위협의 수위를 상징합니다. 이 시계는 매년 원자과학자회 위원회에 의해 분석되고 조정됩니다.

거버넌스 내의 영적 가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각적 도구로 '무지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지개의 각 색상은 특정 영적 가치를 나타내며, 색의 선명도는 그 가치가 현실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목표와 현실 상황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투영하는 시각적 은유입니다

인간관계와 태도, 행동에 초점을 맞춘 '행동 품질 기준'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대개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두며, 존중과 예의, 경청, 문제 해결 의지 등을 강조하는 고객 서비스 정책이나 약속 이행과 같은 직장 내 행동 지침이 그 예입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는 경험적 기준은 존중이나 공감 같은 주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행동 기준보다 평가하기 쉽습니다. 마음의 영역인 '영적 기준' 역시 이러한 주관성을 피할 수 없으며, 사람들의 내면적 감각에 기반한 질적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는 도전적인 과제이나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진정으로 체감된 가치야말로 사람들을 단순한 열망을 넘어 실천으로 이끄는 진정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기준을 '권리'나 '특권'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권리를 책임과 연결하고, 특권을 의무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나 투표권은 행사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ISO 인증을 받으려면 기준을 충족하는 실제 공정과 제품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영적 기준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활동 설계를 위한 필수 요소

본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국제 협력 분야의 성공 사례들로부터 얻은 분명한 교훈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40년 넘게 전 세계 국제 개발 현장에서 일하고 연구하며 얻은 여섯 가지 '배운 교훈'입니다. 이는 마셜 플랜과 유엔 창설 이후 75년간의 국제 개발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성인은 실천을 통해 배웁니다. 강의, 훈계, 홍보, 토론 등은 흔히 쓰이는 학습 방식이지만, 대다수 성인은 직접 행동에 옮길 때 비로소 진정으로 배웁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제안은 그 가치가 미미합니다.
2.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잠재적 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직된 청사진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람은 자신과 유대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이즈(HIV/AIDS) 대응은 사람들이 주변의 구체적인 감염자를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변화했습니다.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구성원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집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4. 성패의 척도는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통계나 인위적인 지표는 대중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척 상황은 활동 자체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기준, 이른바 '스마트 지표'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5. 목적은 심판이 아닌 조력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각자의 맥락에서 이론 영적 성취를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외부의 비난이 아닌 내면의 자기 성찰을 독려하는 것이 본래 의도여야 합니다.
6.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 그 자체가 되십시오." 이 집단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인 '양심의 일치'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각 조직의 편이나 편견에 따른 활동들의 나열이 아니라, 전체 그룹이 헌신하는 단일 공동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각 그룹과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결속, 즉 연대이기 때문임

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일치하는 상호 동력을 강화하는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 그 이상입니다. 협력은 이익의 상호성을 강조하는 결속의 하위 개념일 뿐이며, 세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나 공통된 합의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유엔이 크메르 루주에 주권 국가 지위를 부여했던 사례는 매우 참혹한 일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이는 또 다른 대안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993년, 유엔은 유엔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AC)를 설립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추진된 이 이니셔티브는, 민주적인 정부가 선출되기까지의 전환기 동안 유엔에 임시 행정 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주권은 더 나은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향한 수단이자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은 정치적·영적 측면 모두에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표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FINAL THOUGHTS 마치며

이 제안은 현재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결코 완벽하거나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실 수도, 어떤 분들은 개선책을,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의견을 환영하며, 특히 현실적인 대안이나 보완책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며, '다양성 속의 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최종 결과물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 다른 이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와 수많은 통치 주체 안에 영적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양심의 결집'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의 말씀처럼,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Thich Nhat Hanh's Contribution to Shaping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Julius-Kei Kato, PhD

King's College-Western University,
London, Ontario, Canada

Introduction: Thich Nhat Hanh and Me

I've been acquainted with Zen Master Thich Nhat Hanh's (henceforward, TNH) person and teaching for some 30 years now since reading his *Living Buddha, Living Christ*¹ back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in Rome in the mid-90s. From that book, I began to learn a lot about TNH (or "Thay" as his students call him fondly) interpretation of the Buddha and Buddhism that make them relevant for our contemporary world.

It was in the 2010s however when I began to confront Thay's person and teaching with more seriousness, putting more energy and concentration into studying, meditating on, and practicing his seemingly simple yet, at the same time, quite profound iteration of the Dharma for today.

And then came the 2020s. That period started with a "bang" in the form of a terrible worldwide pandemic. We were all "trapped" inside our homes and could not relate in person with one another aside from our fixed "bubbles." One consequence was that we could not assemble in our usual places of worship. That situation naturally favored the development of a more contemplative way of life. I for one eagerly embraced it. That was one good result of the pandemic for me because it connected me more firmly with Thich Nhat Hanh and his way.

By that time, I was already convinced that TNH's person and teaching could not only renew Buddhism for today (He has actually stated this aim in an explicit way when he was alive).² I began to believe deeply that Thay's iteration of the principal teachings of Buddhism could also be a powerful yet gentle invitation to people who have given up on religion or who have not been touched at all by religion (the so-called SBNRs, religious "Nones" or religious "Dones") in this, our secular world, to wade into the rivers of—what I consider—the core of all religious traditions. That heart of all religion is commonly known as SPIRITUALITY.³

1 Thich Nhat Hanh, *Living Buddha, Living Christ* (New York: Riverhead Books, 1995).

2 See Plum Village, "Engaged Buddhism: Applying the Teachings in Our Present Moment | TWOII Podcast | Episode #9," October 15,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Al8cYCFindI>. See timestamps 3:12 and 3:26, in particular.

3 Julius-Kei Kato, *Reading the Bible in a Secular Age: The New Testament as Spiritual Ancestry* (Eugene, OR: Cascade Books, 2023), 3-4

I cannot pinpoint the moment exactly but, at a certain point, I decided to become a “novice” of Thich Nhat Hanh and his Way. “Novice” of course is also Catholic religious jargon. It refers to a person who is learning the spiritual teachings and way of life of a religious order or a spiritual master, in a process called “formation.” And my novitiate continues until now. TNH’s way, commonly known nowadays as “The Plum Village tradition”⁴ has strongly resonated with me and I continue to try to deepen myself in its specific teachings and practices, as well as study it as a scholar-practitioner.

I thought I’d begin with that brief background about my relationship with Thich Nhat Hanh in order to say that, as a serious student of TNH for 20+ years, I’ve thought deeply about this session’s theme while endeavoring to apply it to the Plum Village tradition.

Thich Nhat Hanh’s Contribution toward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In this session, we are interested in **how faith-based (and civic) organizations can contribute to shaping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As stated, I’m applying that question to a tradition and a group that I have some knowledge of -- the Plum Village tradition started by Zen master Thich Nhat Hanh. Of course, you know that TNH has written or recorded—what feels like—a “million works.” It’s hard even to compile a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this Zen master’s vast output. To put more focus on my presentation, here, I’ll be asking: What can Zen master Thich Nhat Hanh and his teaching contribute to shaping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The very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about this theme is TNH’s famous teaching called “the Five Mindfulness Trainings.”⁵ This teaching is a contemporary, engaged-Buddhist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Buddhist teaching called in Sanskrit the pañca-śīla (pan-chuh shi-la), or in English, “the five precepts.” We can see reflected in these trainings TNH’s effort to develop a socially engaged spirituality rooted in the Buddhist tradition but open to all humans of good will, even if they are not explicitly religious or spiritual.

We can claim with fairness that the five mindfulness trainings are TNH’s proposal for “a Global Ethic.” A global ethic contains ethical principles that any human being (in as much as they possess humanity) could in principle affirm, support, and practice.

GLOBAL ETHIC succinct definition (based on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and TNH)

A global ethic refers to a set of shared moral values and principles that transcend religious, cultural, and national boundaries, serving as a common foundation for ethical action in a pluralistic world. As articulated by the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it emphasizes commitments such as nonviolence, justice, truthfulness, and care for the Earth—principles affirmed by the world’s major religious and spiritual traditions. Thich Nhat Hanh similarly

4 Thich Nhat Hanh and Katherine Weare, *Happy Teachers Change the World* (Berkeley, CA: Parallax, 2017), xxx.

5 The main primary sourcebook for this is Thich Nhat Hanh, *For a Future to Be Possible: Commentaries on the Five Mindfulness Trainings*, rev. ed. (Berkeley, CA: Parallax Press, 2007), 3-79.

promotes a global ethic grounded in interbeing and mindfulness, advocating for compassion, non-harming, and deep ecological awareness as universal responsibilities essential for peace and planetary well-being.

The Five Mindfulness Trainings are the finest expression of TNH's socially engaged spirituality and ethical spirit. Note that they emphasize not only individual ethical conduct, but, importantly, they include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our present context, which is a world that is globalized and interdependent.

TNH expressed these teachings as "five mindfulness trainings." Why "trainings"? Because each and every training is a practical/actionable factor rooted in the effort to live in a spirit of mindfulness. And, of course, let us not forget that mindfulness is one of the core teachings of TNH's lifelong interpretation of the Dharma.

In this sense, each training encourages anyone/everyone, to cultivate mindfulness, compassion, and nonviolence in several explicitly identified areas, such as, consumption, communication, love and sexuality, fairness, and economic justice.

Let's go back to our question: Why the shift from the traditional Buddhist term "precepts" to "trainings"? TNH recounts that he realized that these so-called precepts (as traditionally called) are not rigid moral commandments. Instead, they are dynamic; they are a form of training.⁶ For my part, when we mention "training," I'm thinking about the Japanese word *shugyō* (修行), a discipline, a training to enable you to act properly at all times, but especially when acting properly, skillfully, and ethically is most needed.

Here are those so-called five trainings as taught by TNH:

1. One, reverence for life.
2. Two, true happiness, founded on a generous heart and spirit
3. Three, true love, expressed particularly in the area of sexual responsibility.
4. Four, loving speech and deep listening, and
5. Five, nourishment and healing. This fifth training deals with the ethics of consumption.

How do we consume things in such a way that could bring wholeness instead of harm to us?

I'd like to emphasize that, the teaching on these five mindfulness trainings is, for me, TNH's foremost contribution to shaping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What that means in effect is this: It is as if TNH were telling us: If there are five things that we can do (notice that the emphasis is on practice-*shugyō*)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n inclusive and ethical world, these are the most important ones: [1] Have reverence for life; [2] Be generous and that will lead to true happiness; [3] Practice true love, particularly by being sexually responsible; [4] Practice loving speech, and deep listening; and [5] Practice an ethical way of consuming things in a way that nourishes and heals your spirit and body.

6 Cf. Thich Nhat Hanh, *For a Future to Be Possible: Buddhist Ethics for Everyday Life*, 1993 paperback ed. (Berkeley, CA: Parallax Press, 1993), 8-11.

Of course, there are many other things that could be done to build an inclusive and ethical world, but the fact that TNH zeroed in on these five areas should call our attention. It goes without saying, one has to read the full description of each training in order to see the complete nuance TNH had in mind when he expressed these teachings. And I will leave that to your own meditation and reflection.⁷ A fuller description and elaboration of TNH's "five mindfulness trainings" can be found in his teaching called "The Fourteen Mindfulness Trainings of Engaged Buddhism."⁸

Comparison with Other Significant Expressions of a Global Ethic

There are other significant declarations ("manifestos" if you will) that reflect the spirit and intention of TNH in his "the five mindfulness trainings." Foremost among them would be the UNESCO "Manifesto 2000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⁹ Of course, TNH was one of the principal collaborators in the formulation of this manifesto with the explicit intention of building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UNESCO launched this document in Paris, France, on March 4th, 1999.

In this document, there are six personal pledges to transform the culture of war and violence into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These pledges practically reflect the five mindfulness trainings that have already been discussed above. We can consider the UNESCO Manifesto 2000 as an elaboration on the five mindfulness trainings. All those five mindfulness trainings are included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in one way or another in the UNESCO Manifesto.

Another, very significant document or teaching to compare TNH's Five Mindfulness Trainings with is, of course, the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PWR) so-called "five directives."

I'm a big supporter and advocate of the PWR's Five Directives for several reasons. In the course of my theological studies, I was immensely drawn to the Catholic Swiss theologian Hans Küng. He was the principal drafter of the document on a proposed global ethic which the PWR adopted and which resulted in this declaration. There were originally four "commitments" in the original document. Then in 2018, at the PWR in Toronto, a fifth directive focussed more specifically on ecology, was added.¹⁰

Let's mention them here:

1. The first is a commitment to a culture of nonviolence and respect for life.
2. Two, a commitment to a culture of solidarity and a just economic order.
3. Three, a commitment to a culture of tolerance and a life of truthfulness.
4. Four, a commitment to a culture of equal rights and partnership between men and women.

7 Plum Village Community of Engaged Buddhism, "The Five Mindfulness Trainings," Plum Village, accessed July 25, 2025, <https://plumvillage.org/mindfulness-practice/the-5-mindfulness-trainings/>.

8 Thich Nhat Hanh, *Interbeing: The Fourteen Mindfulness Trainings of Engaged Buddhism*, 4th ed. (Berkeley, CA: Parallax Press, 2020).

9 UNESCO, "Manifesto 2000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UNESCO, accessed July 25, 2025, <https://www.unesco.org/en/culture-peace/manifesto2000>.

10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Declaration Toward a Global Ethic* (Chicago: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1993), <https://parliamentofreligions.org/global-ethic/declaration/>.

5. And then the fifth, a commitment to a culture of sustainability and care for the earth.

If we compare these five directives from the PWR with TNH’s five mindfulness trainings, we find significant parallels and similarities. This comparison plays a crucial role for discerning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directives that could contribute to shaping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In our quest for a more inclusive and ethical world, common ethical principles on which all humans can agree, independent of whether they are religious or not, or whether they belong to a religious community or not, are—I would say—of highest importance. Why? Because they are founded on the very essence of what it means to be a human being.

To illustrate, here is a chart that gives us an idea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NH’s five trainings and the PWR’s directives for a global ethic.

Ethical Concern	TNH’s Five Mindfulness Trainings	PWR’s Global Ethic Directives	Similarity/Difference
Reverence for life	Central	Central	✓ Similar
Social/economic justice	Central	Central	✓ Similar
Sexual ethics	Present	Present	✓ Similar
Integrity: honesty/truthfulness	Central	Central	✓ Similar
Interreligious Inclusivity	Buddhist (but verifiable by experience) / can be adopted by those with a secular perspective	Multi-faith/secular	✓ Similar
Emphasis: Personal vs Collective	Begins with a deep personal commitment but should not stop there (TNH: external change begins with internal transformation)	Global, systemic	▲ Slightly Different but can be reconciled
Environmental Concern	Implicit	Explicit	▲ Slightly Different but can be reconciled
Mindful Consumption (food, media, substances, etc)	Central	Not explicit	▲ Different- mentioned only in one document

Conclusion:

To conclude, I’d like to emphasize that, ultimately speaking, we should give supreme importance to this: What makes us agree with our fellow human beings, on the basis that it is part of our fundamental humanity. My theological mentor, Hans Küng, the Swiss Catholic theologian mentioned earlier, expresses this in the Latin word *humanum*, which could be described most simply as “what makes us authentically human.”

To elaborate further, the humanum is the essence of every single person. It is humanity engaged in a quest for meaning with an openness to transcendence (to something/some Being that is “bigger” and possibly ultimate).

HUMANUM: A Brief Definition:

In Hans Küng’s theology, humanum denotes the normative ideal of what it means to be fully and authentically human—an existence characterized by ethical integrity, relational openness, and the pursuit of truth,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the context of history and transcendence.

He contrasts humanum with dehumanizing structures and behaviors, asserting that any theology or religion must ultimately serve the humanum—that is, contribute to human flourishing and dignity. For Küng, this concept is pivotal in interreligious dialogue, global ethics, and his Christology, where Jesus is portrayed as the realization of the authentically human.¹¹

The humanum then is our common denominator with everyone. Therefore, in our quest to shape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we have to prioritize the things that make us agree as humans with each other, with regard to global ethical principles. How to go about that? We can find expressions of those “agreements” in different teachings.

In this presentation, I proposed Thich Nhat Hanh’s Five Mindfulness Trainings. I emphasized that the teaching on the five mindfulness trainings is highly significant because whether one is religious/spiritual, or not, one can agree with it. One does not have to be religious in order to practice the trainings. On the other hand, one can still adopt it, even if one is religious or if one belongs to a faith community.

These trainings won’t divide us from our fellow human beings because of their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These trainings touch upon the core of our common humanity – the humanum.

These deeply insightful and most wonderful teachings are already present in various forms among us. Let us savor and cherish them. Most importantly, let us practice them keeping in mind these striking words from author Michael Beckwith:

That which transforms your life is what you practice. And what you practice constitutes your personal laws of life—not what you merely believe in, but what you practice ... Your philosophy may give you a temporary state of euphoria, but if you want to be anchored in reality, it takes practice, practice, practice. We are not here to be euphoric but to get free. Rudimentary spirituality is theory; advanced spirituality is practice.¹²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11 Confer the following works: Hans Küng, *Global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 New World Ethic* (New York: Crossroad, 1991), esp. 33–38, 70–75; Hans Küng and Karl-Josef Kusche, eds., *Yes to a Global Ethic: Voices from Religions and Politics* (New York: Continuum, 1996), 18–23; William Madges, “Theology and the Humanum in Hans Küng,” in *Theology and the Human Experience*, ed. David Tracy (New York: Seabury Press, 1984), 123–142; Michael J. Himes, “Humanum and Christian Hope,” *Theological Studies* 49, no. 1 (1988): 3–17.

12 Michael Bernard Beckwith, *Spiritual Liberation: Fulfilling Your Soul’s Potential* (New York: Atria Books / Beyond Words, 2009), 76

세션 3 | 글로벌 거버넌스와 SDG에서의 종교와 영성의 역할

틱낫한 스님이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세계 정책 형성에 기여한 공로

율리우스-케이 카토 박사
캐나다 웨스턴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서론: 틱낫한 스님과 나

저는 약 30년 전, 90년대 중반 로마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하던 시절 『살아있는 부처, 살아있는 그리스도』¹를 읽은 후로 틱낫한(이하 TNH) 선사님의 인품과 가르침을 접해 왔습니다. 그 책을 통해 저는 제자들이 애정을 담아 '타이(Thay, 스승님)'라 부르는 스님께서 부처와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이 스님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단순히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심오한, 현대를 위한 불법(Dharma)을 연구하고 명상하며 실천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는 전 세계적인 끔찍한 팬데믹이라는 '폭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집에 '갇혔고', 정해진 '버블(생활 반경)' 안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직접 대면하며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는 우리가 평소 예배를 드리던 장소에 모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더욱 명상적인 삶의 방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방식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팬데믹이 가져다준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였는데, 덕분에 틱낫한 스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더욱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미 틱낫한 스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불교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실제로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러한 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타이'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방식이, 종교를 포기했거나 종교를 접해본 적 없는 사람들(소위 SBNR, 종교적 '관심이 없거나' 혹은 '관심은 있었지만 제도에 실망하여 스스로 영적인 길을 찾는 사람')에게도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초대장이 될 수 있다고 깊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모든 종교 전통의 핵심이라 생각되는 그 강물 속으로 그들이 기꺼이 발을 담그게 하는 초대장 말입니다. 모든 종교의 그 심장은 흔히 '영성'이라 불리는 것입니다.²

정확히 어느 순간이라고 짚어낼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저는 틱낫한 스님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수련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련자'는 물론 가톨릭의 종교적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양성'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수도회나 영적 스승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의 이 수련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틱낫한, 『살아있는 부처, 살아있는 그리스도』(New York: Riverhead Books, 1995).

2 줄리어스-케이 카토, 『세속 시대의 성경 읽기: 영적 계보로서의 신약성서』(Eugene, OR: Cascade Books, 2023), 3-4쪽

다. 오늘날 흔히 '플럼 빌리지 전통'³으로 알려진 틱낫한 스님의 방식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저는 학자이자 수행자로서 그 구체적인 가르침과 수행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더욱 심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틱낫한 스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 이러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20년 넘게 그분을 진지하게 공부해 온 학생으로서 이번 세션의 주제를 플럼 빌리지 전통에 접목해 보며 깊이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국제 정책을 향한 틱낫한 스님의 기여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종교 기반 기구(및 시민 단체)가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국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한 전통과 집단, 즉 선사 틱낫한 스님이 창시한 '플럼 빌리지 전통'에 이 질문을 적용해 보려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틱낫한 스님은 실로 '수만 권'처럼 느껴질 정도로 방대한 저술과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이 선사의 방대한 업적을 망라하는 서지 목록을 작성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선사 틱낫한과 그의 가르침은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국제 정책을 형성하는 데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⁴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틱낫한 스님의 유명한 가르침인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이 가르침은 산스크리트어로 '판차실라(pañca-sīla)', 즉 영어로 '다섯 가지 계율'이라 불리는 전통 불교 가르침을 현대적이고 참여 불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수행법에는 불교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명시적으로 종교적이거나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선의를 가진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는 '사회 참여적 영성'을 개척하고자 한 스님의 노력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이 틱낫한 스님이 제안하는 '세계 윤리'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윤리란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며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원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윤리 핵심 정의 (세계 종교 의회 및 틱낫한 스님의 관점)

세계 윤리란 종교적, 문화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공유되는 일련의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의미하며, 다원화된 세상에서 윤리적 실천을 위한 공통의 토대가 됩니다. 세계 종교 의회가 천명한 바와 같이, 세계 윤리는 비폭력, 정의, 진실성, 그리고 지구 돌봄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이는 세계 주요 종교 및 영적 전통들이 확증하는 원칙들입니다. 틱낫한 스님 또한 상호 존재와 마음챙김에 기반한 세계 윤리를 주창하며, 인류의 평화와 지구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보편적 책임으로서 자비, 비살생, 그리고 깊은 생태적 인식을 강조합니다.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은 틱낫한 스님의 사회 참여적 영성과 윤리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수행법이 개인의 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세계화되고 상호 의존적인 오늘날의 맥락에서 집단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틱낫한 스님은 이 가르침을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수행' 혹은 '훈련'일까요? 모든 수행 조항 하나하나가 마음챙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에 뿌리를 둔, 실천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챙김이 틱낫한 스님이 평생에 걸쳐 해석해 온 불법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각의 수행은 소비, 소통, 사랑과 성, 공정성, 그리고 경제적 정의와 같이 명확히 규정된 영역에서

3 틱낫한·캐서린 위어, 『행복한 교사가 세상을 바꾼다: 교육자를 위한 마음챙김 가이드』(Berkeley, CA: Parallax Press, 2017), xxx쪽

4 이 주제에 관한 주요 원문 자료: 틱낫한 스님의 저서 『미래가 가능하려면: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에 대한 해설』, 개정판 (Berkeley, CA: Parallax Press, 2007), 3-79쪽.

누구나 마음챙김과 자비, 비폭력을 함양하도록 독려합니다.

이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전통적인 불교 용어인 '계율'에서 '수행'으로 명칭을 바꾼 것일까요? 스님은 전통적으로 불리는 '계율'이 엄격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회상합니다. 계율은 오히려 역동적이며, 일종의 훈련입니다.⁵ 제 생각에 '훈련'이란 일본어 단어 수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특히 올바르게 능숙하며 윤리적인 행동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순간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 수련을 의미합니다.

틱낫한 스님이 가르치는 이른바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생명에 대한 존중
2. 둘째, 진정한 행복: 관대한 마음과 정신에 기반한 행복입니다.
3. 셋째, 진정한 사랑: 특히 성적 책임의 영역에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4. 넷째, 사랑의 말씨와 깊은 경청
5. 다섯째, 자양분 섭취와 치유: 이 다섯 번째 수행은 소비의 윤리를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대신 온전함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에 대한 가르침이야말로,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국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틱낫한 스님이 남긴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틱낫한 스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섯 가지(특히 '실천-수행'에 중점을 둔)가 있다면, 바로 이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2] 관대함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3]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특히 성적인 관계에 있어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니십시오. [4] 사랑 어린 말과 깊은 경청을 실천하십시오. [5]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고 풍요롭게 하는 윤리적인 소비 방식을 실천하십시오.

물론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 외에도 많겠지만, 틱낫한 스님이 이 다섯 가지 영역에 집중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스님이 이 가르침을 표현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온전한 뉘앙스를 이해하려면 각 수행에 대한 전체 설명을 정독해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각자의 명상과 성찰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⁶ 틱낫한 스님의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과 해설은 '참여 불교의 14가지 마음챙김 수행'이라는 가르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⁷

세계 윤리에 관한 다른 주요 선언들과의 비교

틱낫한 스님의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이 지닌 정신과 의도를 반영하는 다른 중요한 선언들(말하자면 '선언문'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네스코(UNESCO)의 '2000년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 2000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⁸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틱낫한 스님은 '평화

5 참조: 틱낫한, 『미래가 가능하려면: 일상의 삶을 위한 불교 윤리』, 1993년 보급판(paperback ed.) (Berkeley, CA: Parallax Press, 1993), 8-11쪽.

6 참여불교 플럼 빌리지 공동체,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 플럼 빌리지 홈페이지, 2025년 7월 25일 접속, <https://plumvillage.org/mindfulness-practice/the-5-mindfulness-trainings/>.

7 틱낫한, 『상호존재: 참여불교의 14가지 마음챙김 수행』, 제4판 (Berkeley, CA: Parallax Press, 2020).

와 비폭력의 문화'를 구축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핵심 협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9년 3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 문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여섯 가지 개인적 서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약들은 앞서 논의한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을 실질적으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매니페스토 2000'은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을 더욱 구체화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수행의 핵심 내용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이 유네스코 선언문에 모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틱낫한 스님의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과 비교해 볼 만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서이자 가르침은 바로 세계 종교 의회(PWR)의 이른바 '다섯 가지 지침'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종교 의회의 이 다섯 가지 지침을 강력히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신학 연구 과정에서 저는 스위스의 가톨릭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종교 의회가 채택하고 이 선언으로 이어진 '세계 윤리 구상' 문서의 핵심 초안자였습니다. 본래 이 문서에는 네 가지 '서약'이 담겨 있었으나, 2018년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종교 의회에서 생태학적 측면에 보다 집중한 다섯 번째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⁹

그 지침들을 이곳에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1. 첫째, 비폭력과 생명 존중의 문화를 향한 확약입니다.
2. 둘째,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의 문화를 향한 확약입니다.
3. 셋째, 관용과 진실한 삶의 문화를 향한 확약입니다.
4. 넷째, 남녀 평등과 동반자 관계(partnership)의 문화를 향한 확약입니다.
5. 다섯째, 지속가능성과 지구 돌봄의 문화를 향한 확약입니다.

세계 종교 의회(PWR)의 이 다섯 가지 지침을 틱낫한 스님의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평행점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국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침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을 추구함에 있어, 종교 유무나 특정 종교 공동체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윤리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틱낫한 스님의 다섯 가지 수행과 세계 종교 의회의 세계 윤리 지침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하겠습니다.

8 유네스코,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매니페스토 2000」, 유네스코 홈페이지, 2025년 7월 25일 접속, <https://www.unesco.org/en/culture-peace/manifesto2000>.

9 세계 종교 의회, 『세계 윤리 선언』(시카고: 세계 종교 의회, 1993), <https://parliamentofreligions.org/global-ethic/declaration/>.

윤리적 현안	틱낫한의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	세계 종교 의회(PWR)의 세계 윤리 지침	유사점 및 차이점
생명 존중 및 사회/경제 정의	매우 핵심적인 수행	매우 핵심적인 수행	✓ 유사함
생명 존중 및 사회/경제 정의	매우 핵심적인 수행	매우 핵심적인 수행	✓ 유사함
성 윤리	명시되어 있음	명시되어 있음	✓ 유사함
성실성 (정직/진실성)	매우 핵심적인 수행	매우 핵심적인 수행	✓ 유사함
종교 간 포용성	불교적이거나 경험적 검증 가능 / 세속적 관점에서도 수용 가능	다종교적 / 세속적 기반	✓ 유사함
강조점: 개인 vs 집단	깊은 개인적 수행에서 시작하되 확장됨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변화를 이룸)	전 지구적, 체계적 차원 강조	▲다소 다르나 상호 보완 가능
환경 문제	암묵적으로 포함됨	명시적으로 강조됨	▲다소 다르나 상호 보완 가능
마음챙김 소비 (음식, 미디어 등)	매우 핵심적인 수행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차이점 (한쪽에만 언급됨)

결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우리를 인간 본연의 모습에 입각하여 동료 인류와 합의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저의 신학적 스승인 스위스 가톨릭 신학자 한스 쿡은 이를 라틴어 '후마눔(humanum)'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가장 단순하게 말해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후마눔은 모든 개별 단독자의 본질입니다. 이는 의미를 탐구하며 초월(우리보다 '더 크고' 아마도 궁극적인 어떤 존재)을 향해 열려 있는 인류애를 의미합니다.

후마눔의 간략한 정의:

한스 쿡의 신학에서 후마눔은 온전하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존재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이상을 뜻합니다. 즉, 역사와 초월의 맥락 속에서 윤리적 성실성, 관계적 개방성, 그리고 진리와 자유 및 책임을 추구하는 삶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스 쿡은 이 후마눔을 인간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구조 및 행위와 대조하며, 모든 신학이나 종교는 궁극적으로 후마눔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과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쿵에게 있어 이 개념은 종교 간 대화와 세계 윤리, 그리고 예수를 '참된 인간의 실현'으로 묘사하는 그의 그리스도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¹⁰

따라서 '후마눔'은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입니다.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국제 정책을 수립하려 할 때, 우리는 세계 윤리 원칙과 관련하여 인류로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그러한 '합의'의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는 탁났한 스님의 '다섯 가지 마음챙김 수행'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종교적·영성적인 사람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 수행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특정 종교를 믿거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이 가르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법들은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때문에 우리를 동료 인류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류애의 핵심, 즉 '후마눔'을 일깨웁니다.

이토록 깊은 통찰을 담은 경이로운 가르침들은 이미 우리 곁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깊이 음미하고 소중히 여깁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 마이클 베크위스(Michael Beckwith)의 이 인상적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직접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당신의 '실천'뿐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실천하느냐가 곧 당신 삶의 법칙이 됩니다. 당신의 철학은 일시적인 고양감을 줄 순 있겠지만, 현실에 단단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오로지 실천, 실천, 그리고 또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일시적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초보적인 영성은 이론에 머물지만, 진보한 영성은 오직 실천으로 증명됩니다.¹¹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 다음 저작들을 참조: 한스 쿵, 『세계적 책임: 새로운 세계 윤리의 모색』(New York: Crossroad, 1991), 특히 33-38, 70-75쪽. 한스 쿵·칼-요제프 쿠셀 편, 『세계 윤리를 향한 예(Yes): 종교와 정치의 목소리』(New York: Continuum, 1996), 18-23쪽. 윌리엄 매지스, 『한스 쿵의 신학과 후마눔(humanum)』, 데이비드 트레이시 편, 『신학과 인간 경험』(New York: Seabury Press, 1984), 123-142쪽. 마이클 J. 하임스, 『후마눔과 그리스도교적 희망』, 『신학 연구(Theological Studies)』 49권 1호(1988): 3-17쪽

11 Michael Bernard Beckwith, *Spiritual Liberation: Fulfilling Your Soul's Potential* (New York: Atria Books / Beyond Words, 2009), 76.

Faith-Based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haping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Rev. Dr. In-gun Kang, S.J.

Director, MAGGA Jesuit Research Center, Cambodia

Introduction

In an age of increasing inequality, ecological degradation, and sociopolitical fragmentation, the need for inclusive and ethically sound global governance is both urgent and complex. While policy-making often emphasizes economic and political strategies, religious and spiritual traditions offer a deeper foundation of moral reasoning and social vision. Faith-based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BOs and CSOs) embody this foundation and have long played critical roles in shaping global and local responses to human suffering, systemic injustice, and existential crises. Their potential contributions to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deserve renewed attention.

1. Faith Traditions as Ethical Foundations for Policy

Across diverse traditions, religions offer coherent systems of ethics and cosmologies that emphasize the inherent dignity of every person, the value of commun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stewardship over creation. These teachings resist reductionist views of the human being as merely a consumer or citizen and instead situate individuals within networks of obligation, care, and transcendence.

For example, Catholic Social Teaching emphasizes the common good, subsidiarity—the principle that decisions should be made at the most local level capable of addressing them, respecting the autonomy of smaller communities—and 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which prioritizes care for the marginalized.

Meanwhile, Buddhism advocates compassion (*karuṇā*), mindfulness, and interdependence (*paṭiccasamuppāda*), recognizing that all beings are interconnected and that ethical living requires awareness of others' suffering.

Won Buddhism offers a spiritually grounded yet socially engaged ethic. Its central symbol, Il-Won-Sang (One Circle Image), represents the unity and equality of all existence, encouraging respect for all life and ecological balance. Sa-Eun (The Fourfold Grace)—of heaven and earth, parents, fellow beings, and

laws—instills an ethic of interdependence and reciprocal responsibility. Furthermore, its emphasis on right mindfulness and discernment in action (Chagöp-Ch’wisa) promotes moral clarity in both personal and public decision-making. These principles invite a holistic and compassionate approach to policy that integrates both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justice.

Islamic jurisprudence articulates the centrality of justice (‘adl)—ensuring fairness and equity in all dealings, solidarity (ta‘āwun)—mutual support and cooperation for the common good, and mercy (rahma)—acting with compassion and kindness in public and private life.

These principles collectively challenge policy-making to serve not only efficiency or stability but also ethical coherence and moral accountability. Drawing from their spiritual traditions, faith-based organizations translate these ethical principles into concrete action—challenging unjust policies, promoting inclusive governance, and calling on leaders to uphold mor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 Inclusion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Marginalized Voices

FBOs and CSOs are uniquely positioned to amplify the voices of those often excluded from global governance structures—especially the poor, refugees, indigenous communities, and religious minorities. Unlike state agencies or multinational institutions, faith-based groups frequently maintain close, long-term relationships with local populations.

In Cambodia, for instance, partnerships between Buddhist monastics and Catholic social workers have supported trauma healing for communities affected by genocide and poverty. These efforts not only provide social services but also inform global stakeholders of ground realities, ensuring that policy responses are not abstract but grounded in lived experience.

A striking example, highlighted at the 8th Buddhist-Christian Colloquium in Phnom Penh (May 2025) by Sr. Denise Coghlan, is the life and work of Mr. Tun Channareth, a landmine survivor and staff member of Jesuit Service Cambodia. After losing both legs to a landmine in a Thai refugee camp, Mr. Channareth transformed his personal suffering into a global advocacy mission. He became a key voice in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 speaking at the United Nations, meeting world leaders and religious figures, and mobilizing support through creative and symbolic acts—such as delivering plastic effigies of world leaders by cyclo to Brussels to demand their support for the treaty.

His activism contributed to the signing of the Ottawa Treaty in 1997, after which he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the same year on behalf of the campaign. More than a symbolic figure, as of 2025, Channareth continues to visit remote provinces, bringing physical and emotional support to fellow survivors, while tirelessly advocating for mine clearance and victim support worldwide. His work represents how faith-based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elevate the voices of the marginalized—not merely as beneficiaries of aid, but as agents of global change.

The practice of participatory research and community engagement by faith-based organizations exemplifies inclusive policy advocacy from below—one that centers lived experience and moral conviction over abstract technocratic solutions.

3. Trust-Building and Social Cohesion

The success of global policy initiatives depends not only on their technical design but also on the trust they inspire in communities. In many post-conflict or fragile societies, religious institutions remain among the most trusted entities. They mediate between communities and governments, facilitate reconciliation, and restore civic life.

Through interfaith collaboration, faith-based organizations can strengthen social cohesion, particularly in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settings. In regions facing religious tensions or identity-based conflicts, interreligious initiatives model dialogue and mutual respect, providing an alternative to polarization and extremism. These processes are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inclusive global policies.

A powerful example of this dynamic was demonstra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hesive Societies (ICCS) 2025, held in Singapore under the theme “Cohesive Societies, Resilient Futures.” Having participated in ICCS since 2022, I witnessed how governments, religious leader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engaged in deep dialogue, site visits, and intersectoral collaboration to build cohesive societies. What emerged was not just a defense of multiculturalism, but a movement toward interculturalism—a deliberate effort to create mutual transformation through shared values and engagement across cultural and religious boundaries.

One particularly inspiring highlight was the testimony from Humanity Matters, a Singapore-based interfaith humanitarian organization. As soon as war broke out in Gaza or natural disasters struck Myanmar, they responded swiftly with humanitarian action rooted in collective compassion. Their work spans more than disaster relief—they actively address social fault lines, combat extremism and exclusion, and foster cross-cultural understanding by uniting faith leaders, youth, and civil society across Asia.

This approach to “compassion in motion” not only uplifts the most vulnerable but also reinforces a shared ethical vision that strengthens social trust and resilience. At ICCS 2025, young delegates impressed many with their sincerity, creativity, and hope-filled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reminding all participants that the future of cohesive societies depends on equipping the next generation with both spiritual resilience and practical tools for peacebuilding.

In this way, faith-based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erve as critical bridges—not just between sectors, but between ethical ideals and lived realities—advancing trust, cohesion, and sustainability in an increasingly fragmented world.

4. Ethical Engagement and Global Partnerships

Faith-based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BOs and CSOs) are increasingly active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arena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P climate summits, and global interfaith consultations. Their presence brings to these spaces a much-needed moral and spiritual dimension, often absent from secular political discourse. By invoking principles such as human dignity,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global solidarity, FBOs challenge technocratic, utilitarian, and nationalistic approaches, inviting instead a more compassionate, relational, and holistic policy imagination.

Documents like the Document on Human Fraternity (co-signed by Pope Francis and the Grand Imam of Al-Azhar) and *Laudato Si'* offer paradigms for peace, development, and ecology grounded in ethical responsibility and spiritual insights. The Document on Human Fraternity calls for recognizing all human beings as brothers and sisters, regardless of religion, ethnicity, or nationality, emphasizing that mutual understanding, solidarity, and cooperation are essential for a peaceful world. It urges both religious and political leaders to transcend divisions and work together for justice and reconciliation. Likewise, *Laudato Si'* frames ecological degradation as a moral crisis that calls for integral ecology—a vision that links care for the environment with care for the poor and vulnerable. These frameworks inspire global governance to prioritize the common good and care for creation, reminding us that true sustainability must rest not only on scientific and economic solutions but on moral foundations rooted in our shared humanity.

Beyond advocacy, many faith-based groups are deeply involved i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rough direct action. From providing healthcare and education to advancing gender equa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se organizations often serve in regions overlooked by state actors. For example, the MAGGA Jesuit Research Center in Cambodia partners with Buddhist educators and international NGOs like ForumZFD-Cambodia to support interfaith youth groups—comprising Catholics, Protestants, Theravāda and Mahāyāna Buddhists, Muslims, Bahá'ís, and Won Buddhists—in promoting peace education and ecological awareness among young people. This collaboration demonstrates how spiritual values can lead to measurable outcomes aligned with the SDGs.

A compelling example of such engagement is the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hip (ICCGC), which has convened annually since 2020 to foster collaboration among faith-based and civic actors on global issues. In 2024, ICCGC partnered with the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to hold a major conference at the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located directly opposite the UN Headquarters, symbolizing the convergence of spiritual voices and global policy-making. The resulting consensus declaration, “A Call to Global Community and Action for a Just, Peaceable,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emphasized five pillars: inclusivity and diversity, global ethics of peace and justice, planetary responsibility, ethical education, and interfaith collaboration.

ICCGC-CoNGO 2024 empowered religious and spiritual leaders with vision and tools to engage in global policymaking, especially ahead of the UN Summit of the Future. Its programming and declarations affirm the vital role of faith-based networks in providing ethical direction and fostering global partnerships.

These developments affirm that FBOs and CSOs are no longer peripheral voices but vital contributors to global governance—able to integrate ethics, spirituality, and social engagement into policy processes for a more humane and sustainable world.

5. Toward Spiritually Grounded Global Governance

Despite their vital contributions, the involvement of religious actors in global governance is not without challenges. Concerns often arise over the politicization of religion, the exclusion of minority voices, or the imposition of particular moral norms. On the other hand, secular institutions may approach religious engagement with skepticism, fearing that it may compromise neutrality, pluralism, or democratic debate.

To navigate these tensions, the concept of “spiritual secularity” offers a constructive path forward—one in which religious and spiritual perspectives are welcomed in public discourse, not to dominate, but to enrich it. This model affirms that ethical contributions from diverse traditions can help shape just and inclusive policies, provided they are presented with humility, dialogue, and mutual respect. In such a framework, no single faith is privileged, yet all are invited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shaping the moral contours of our shared future.

Spiritual traditions bring not only moral values but also long-standing practices of discernment, accountability, and communal wisdom. They help reframe policy discussions by emphasizing the dignity of every person, care for creation, and the long-term common good—elements often missing in market-driven or technocratic approaches. In this sense, spiritually grounded governance does not threaten secular democracy; rather, it strengthens democracy by restoring moral depth, vision, and ethical imagination to the global public sphere.

6. A Call to Spiritual Conversion

If the crises facing our world—ecological, economic, and existential—are fundamentally spiritual, then the response must begin with an inner conversion. As Pope Francis reminds us in *Laudato Si'*, structural reform alone is not enough; what is needed is an “ecological conversion,” a reorientation of heart and mind that restores harmony with creation and solidarity with the vulnerable. Buddhist traditions echo this call through the cultivation of right intention, mindfulness, and compassionate action.

The late Thai monk Bhikkhu Buddhādāsa envisioned such inner liberation as the basis for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practice of *chit-wāng* (void mind), he taught that only by transcending ego and materialism can we build a society of justice, simplicity, and ecological balance. His vision of Dhammic socialism offers a compelling spiritual alternative to systems driven by greed or control.

Sri Lankan Jesuit theologian Aloysius Pieris likewise urged Asian Christians to embrace a “Radical Orthopraxis,” a path of spiritual depth joined with social commitment. In a continent marked by religious richness and widespread poverty, he challenges faith communities to move beyond words and into embodied solidarity with the suffering. At the core of his vision is a call to conversion—a radical transformation to selflessness that he sees as the spiritual essence shared across all authentic religious

traditions: a selfless and compassionate commitment to others.

This vision of lived faith found luminous expression in the life of Maha Ghosananda, often called “the Gandhi of Cambodia” for his tireless commitment to nonviolence and reconciliation. Amidst the ruins of war, he led the Dhammayietra (Peace Walks) movement, transforming torn landscapes into sacred space through silence, chanting, and mindful presence. His prayer still resounds today:

The suffering of Cambodia has been deep.
From this suffering comes great compassion.
Great compassion makes a peaceful heart.
A peaceful heart makes a peaceful person.
A peaceful person makes a peaceful family.
A peaceful family makes a peaceful community.
A peaceful community makes a peaceful nation.
A peaceful nation makes a peaceful world.
May all beings live in happiness and peace.
Amen.

This is the spiritual logic of sustainable global transformation: conversion before construction. Faith-based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ust continue to act, advocate, and accompany—but they must also cultivate.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lies not only in summits and strategies, but in hearts aligned with compassion, justice, and the sacred dignity of all life. Let this be not just a vision, but a shared vow.

Conclusion

Faith-based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ake indispensable contributions to the shaping of inclusive and ethical global policies. Their value lies not only in their advocacy or service provision but also in their ability to reframe global governance as a fundamentally moral endeavor. They challenge policymakers to consider the long-term spiritu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their decisions and to prioritize the dignity of all,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In the face of today’s global uncertainties, collaboration between religious actor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olicymakers is not just beneficial; it is essential. Such cooperation can foster a more compassionate, just, and sustainable global order—one that reflects the wisdom of the world’s spiritual traditions and the aspirations of all humanity.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4 warns, the time for words is over. Only bold and united action can deliver the future we pledged. This call resonates with the mission of faith-based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act not only as ethical witnesses but also as catalysts of transformation, embodying the shared vow to build a world where no one is left behind.

Selected References

Francis, Pope. *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 Encyclical Letter. 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5.

Francis, Pope, and Ahmad Al-Tayyeb, Grand Imam. *Document on Human Fraternity for World Peace and Living Together*. Abu Dhabi, 2019.

Ghosananda, Maha. *Step by Step: Meditations on Wisdom and Compassion*. Berkeley: Parallax Press, 1992.

ICCGC-CoNGO Collaborative Conference. "A Call to Global Community and Action for a Just, Peaceable,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A Consensus Declaration,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New York, 2024.

Kang, In-gun, S.J. *Buddhist-Christian Dialogue and Action in the Theravāda Countries of Moder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adical Orthopraxis of Bhikkhu Buddhādāsa and Aloysius Pieris*. PhD Thesis, Heythrop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2012.

----- . "The Peace Walk (Dhammayietra) in Cambodia: People Met in a 'Spiritual Space'," in *The Wheel & the Cross: An Anthology by Jesuits and Friends on Buddhism and Dialogue*. Phnom Penh: MAGGA Jesuit Research Center, 2022.

Pieris, Aloysius, S.J. *An Asian Theology of Liberation*. New York: Orbis, 1988.

----- . *Fire and Water: Basic Issues in Asian Buddhism and Christianity*. New York: Orbis, 1996.

----- . *Prophetic Humour in Buddhism and Christianity: Doing Inter-Religious Studies in the Reverential Mode*. Colombo: Ecumenical Institute for Study and Dialogue, 2005.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2015. <https://sdgs.un.org>.

United N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4*. New York: United Nations, 2024.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4/>.

세션 3 | 글로벌 거버넌스와 SDG에서의 종교와 영성의 역할

종교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를 통한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글로벌 정책 수립

강인근 요셉 신부 (예수회)
캄보디아 MAGGA 예수회 연구소 소장

서론

불평등의 심화, 생태계 파괴, 그리고 사회·정치적 분열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립은 시급하면서도 복잡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흔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경제적·정치적 전략이 우선시되곤 하지만, 종교적·영적 전통은 도덕적 사유와 사회적 비전에 있어 더욱 근원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종교 기반 기구(FBO)와 시민사회 단체(CSO)는 이러한 영적 토대를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하며, 인류의 고통과 구조적 불의, 그리고 실존적 위기에 맞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대응을 구축하는 데 오랫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국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들이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에 다시금 주목해야 합니다.

1. 정책의 윤리적 기반으로서의 신앙 전통

다양한 전통에 걸쳐 종교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관된 윤리 체계와 우주론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을 단순히 소비자나 시민으로만 보는 환원주의적 시각을 거부하는 대신, 개인을 의무와 돌봄, 그리고 초월적 가치가 얽힌 관계망 속에 위치시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사회 교리는 공동선과 더불어 '보조성의 원칙'-즉 소규모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층(local)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피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한편, 불교는 자비(Karunā), 마음챙김, 그리고 연기(緣起, Paṭiccasamuppāda)를 주창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삶이란 타인의 고통을 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영적 토대 위에 사회 참여적인 윤리를 제시합니다. 핵심 상징인 일원상(一元相)은 만유의 통일성과 평등성을 상징하며,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태적 균형을 독려합니다. 사은(四恩)-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은혜-은 상호의존과 보은(報恩)의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나아가 바른 마음공부와 작업취사(作業取捨,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에 대한 강조는 개인과 공공의 의사결정 모두에서 도덕적 명료성을 증진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영적 안녕과 사회 정의를 통합하는 총체적이고 자비로운 정책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슬람 법학은 모든 관계에서의 공정함과 형평을 보장하는 정의, 공동선을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뜻하는 연대, 그리고 공적·사적 삶 전반에서 자비와 친절을 실천하는 자애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정책 결정이 단순한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넘어, 윤리적 일관성과 도덕적 책임을 지향하도록 촉구합니다. 종교 기반 단체(FBO)들은 이러한 영적 전통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여, 불의한 정책에 도전하고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촉진하며, 지도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덕적 책무를 다하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2. 소외된 목소리의 대변을 통한 포용

종교 기반 기구(FBO)와 시민사회 단체(CSO)는 국제 거버넌스 구조에서 흔히 배제되는 이들, 특히 빈곤층과 난민, 원주민 공동체, 그리고 종교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데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다국적 기구와 달리, 이들 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고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캄보디아에서는 불교 승가와 가톨릭 사회복지사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과거의 대량학살(제노사이드)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지역 사회의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장의 실상을 가감 없이 알림으로써, 국제적 정책 대응이 관념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경험에 뿌리 내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8차 불교-기독교 학술대회(Colloquium)에서 데니스 코글란 수녀가 제시한 인상적인 사례는, 지뢰 생존자이자 예수회 캄보디아 봉사단(JSC)의 일원인 툰 찬나렛 씨의 삶과 업적입니다. 태국 난민촌에서 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찬나렛 씨는 개인적인 고통을 전 세계적인 인권 옹호 활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국제지뢰금지캠페인(ICBL)의 핵심 대변인으로서 유엔에서 연설하고 세계 정상 및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세계 지도자들의 플라스틱 인형을 시클로(cyclo, 삼륜차)에 싣고 브뤼셀까지 운반하여 조약 지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활동은 1997년 오타와 조약(대인지뢰 금지 협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같은 해 그는 캠페인을 대표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찬나렛 씨는 단순히 상징적인 인물에 머물지 않고, 2025년 현재까지도 오지 마을을 직접 방문하며 동료 생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한편, 전 세계적인 지뢰 제거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종교 기반 기구와 시민사회가 소외된 이들을 단순히 원조의 수혜자가 아닌 '글로벌 변화의 주체'로 어떻게 격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종교 단체들이 실천하는 참여형 연구와 지역사회 참여는 추상적인 기술 관료적 해법보다 현장의 삶과 도덕적 신념을 우선시하는 '아래로부터의 포용적 정책 옹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3. 신뢰 구축 및 사회적 결속

글로벌 정책 이니셔티브의 성공 여부는 기술적 설계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공동체 내에서 이끌어내는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분쟁 이후의 사회나 취약 지역에서 종교 기관은 여전히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와 정부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를 촉진하며, 무너진 시민 생활을 복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종교 간 협력을 통해, 종교 기반 기구(FBO)들은 특히 다문화·다종교 환경에서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긴장이나 정체성 갈등을 겪는 지역에서 이러한 종교 간 이니셔티브는 대화와 상호 존중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양극화와 극단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신뢰 구축 과정은 포용적인 글로벌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이행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는 2025년 싱가포르에서 "결속력 있는 사회, 회복력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결속사회컨퍼런스(ICCS)였습니다. 2022년부터 이 회의에 참여해 온 저는 정부 관계자, 종교 지도자,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심도 있는 대화와 현장 방문, 부문 간 협업을 통해 결속력 있는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흐름은 단순한 다문화주의의 옹호를 넘어,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종교적 경계를 허물고 상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적인 노력, 즉 '상호문화주의'로의 진화였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초교파 인도주의 단체인 '휴머니티 매터스(Humanity Matters)'의 사례는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전쟁이나 미얀마의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공동체적 자비에 기반하여 즉각적인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재난 구호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극단주의와 배제에 맞서며, 아시아 전역의 종교 지도자와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하는 자비"는 취약 계층을 보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공동의 윤리적 비전을 공고히 합니다. 특히 ICCS 2025에 참여한 청년 대표단이 보여준 진정성과 창의성, 공동선을 향한 헌신은 결속력 있는 사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게 영적 회복력과 평화 구축을 위한 실무적 도구를 얼마나 잘 전수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기반 기구와 시민사회 단체는 서로 다른 부문을 잇는 것을 넘어, 윤리적 이상과 삶의 현실을 잇는 결정적인 가교로서 분열된 세상 속에 신뢰와 결속,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4. 윤리적 참여와 글로벌 파트너십

종교 기반 기구(FBO)와 시민사회 단체(CSO)는 유엔, COP 기후 정상회의, 그리고 세계 종교 간 협의체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는 세속적인 정치 담론에서 흔히 결여되기 쉬운 도덕적·영적 차원을 국제 사회에 불러넣습니다. 인간 존엄성, 세대 간 정의, 그리고 지구촌 연대와 같은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들 단체는 기술관료적이고 공리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도전하는 동시에, 보다 자비롭고 관계 중심적이며 총체적인 정책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알 아흐하르의 대이맘이 공동 서명한 『인간 형제애에 관한 선언』과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는 윤리적 책임과 영적 통찰에 기반한 평화·발전·생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인간 형제애에 관한 선언』은 종교나 민족,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형제자매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상호 이해와 연대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종교 및 정치 지도자 모두에게 분열을 넘어 정의와 화해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찬미받으소서』는 생태계 파괴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선 도덕적 위기로 규정하고, 환경 보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로 묶는 '통합 생태론'을 주창합니다. 이러한 틀은 국제 거버넌스가 공동선과 피조물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고무하며,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과학적·경제적 해법을 넘어 인류 공통의 도덕적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종교 단체는 단순한 옹호를 넘어 실천적 행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깊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와 교육 제공부터 성평등 증진과 환경 보호에 이르기까지, 이들 기구는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례로 캄보디아의 마가(MAGGA) 예수회 연구센터는 불교 교육자 및 국제 NGO인 포럼ZFD(ForumZFD)와 협력하여 가톨릭, 개신교, 상좌부 및 대승 불교, 이슬람교, 바하이교, 원불교를 아우르는 종교 연합 청소년 그룹을 지원하며 평화 교육과 생태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영적 가치가 어떻게 SDGs와 직결된 측정 가능한 성과로 치환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대의 핵심 사례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된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종교간연합컨퍼런스(ICCGC)'를 들 수 있습니다. 2024년 ICCGC는 유엔협의지위NGO컨퍼런스(CoNGO)와 파트너십을 맺고 뉴욕 유엔 본부 맞은편 유엔교회센터(CCUN)에서 대규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영적 목소리와 국제 정책 결정의 '수렴'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채택된 선언문인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지구촌 공동체의 행동 촉구』는 포용성과 다양성, 평화와 정의의 지구촌 윤리, 행성적 책임, 윤리 교육, 그리고 종교 간 협력이라는 다섯 가지 기둥을 강조했습니다.

ICCGC-CoNGO 2024는 종교 및 영적 지도자들이 '유엔 미래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전과 실무적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활동과 선언은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종교 네트워크가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종교 기반 기구(FBO)와 시민사회 단체(CSO)가 더 이상 주변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윤리와 영성,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정책 과정에 통합하여 더욱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기여자임을 증명합니다.

5. 영성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하여

종교적 행위자들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는 중대한 기여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교의 정치화, 소수 목소리의 배제, 혹은 특정 도덕 규범의 강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세속적 기관들은 종교적 개입이 중립성이나 다원주의, 민주적 토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구심 섞인 시각으로 이를 바라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영적 세속성'이라는 개념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종교적·영적 관점이 공공 담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로 환영받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전통의 윤리적 기여가 겸손과 대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제시될 때, 정의롭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는 특정 신앙이 특권을 누리지 않으며, 모든 신앙이 인류 공동 미래의 도덕적 지평을 넓히는 일에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영적 전통은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분별력과 책임 의식, 그리고 공동체적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피조물에 대한 돌봄, 그리고 장기적인 공동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논의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장 논리나 기술 관료주의적 접근에서 흔히 간과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는 세속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촌 공론장에 도덕적 깊이와 비전, 윤리적 상상력을 회복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6. 영적 회심(回心)을 향한 부름

우리가 직면한 생태적·경제적·실존적 위기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면, 그 해법 또한 내면의 회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강조했듯, 구조적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적 회심', 즉 피조물과의 조화를 회복하고 취약한 이들과 연대하도록 마음과 정신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불교 전통 또한 바른 의도와 마음챙김, 그리고 자비로운 실천을 통해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고(故) 붓다다사 비구는 이러한 내면의 해탈을 사회 변혁의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치트왕(Chit-wāng,

집착 없는 마음' 수행을 통해 자아와 물질주의를 초월할 때 비로소 정의롭고 소박하며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법적 사회주의' 비전은 탐욕과 통제에 길들여진 체제에 대항하는 강력한 영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스리랑카의 예수회 신학자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 역시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심연과 사회적 투신이 결합된 '급진적 정통 실천'의 길을 걸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종교적 풍요와 극심한 빈곤이 공존하는 아시아 대륙에서, 그는 신앙 공동체가 공허한 담론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과 '체현된 연대'를 이룰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의 비전 핵심은 모든 진정한 종교 전통이 공유하는 본질, 즉 타인을 향한 무아적이고 자비로운 헌신으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신앙의 정수는 '캄보디아의 간디'라 불리는 마하 고사난다 스님의 삶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는 '담마이에트라(Dhammayietra, 평화 행진)' 운동을 이끌며 침묵과 염불, 깨어 있는 헌존을 통해 상처 입은 땅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정화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고통은 참으로 깊었습니다.
이 깊은 고통 속에서 커다란 자비심이 피어났습니다.
큰 자비는 평화로운 마음을 낳고,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평화로운 가정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는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고,
평화로운 나라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염원합니다.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세계적 변혁을 이끄는 '영적 논리'입니다. 외적인 건설에 앞서, 우리 내면의 '회심'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종교 기반 기구와 시민사회 단체는 계속해서 행동하고, 옹호하며, 동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함양해야 합니다. 세계 거버넌스의 미래는 단순히 정상회담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정의, 그리고 모든 생명의 거룩한 존엄성에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전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종교 기반 기구(FBO)와 시민사회 단체(CSO)는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국제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기여를 합니다. 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정책 옹호나 서비스 제공을 넘어, 세계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도덕적 과업'으로 재정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적·윤리적 파장을 숙고하고, 모든 이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촉구합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 불확실성 속에서 종교계 인사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책 입안자 간의 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협업은 세계 종교 전통의 지혜와 인류 전체의 열망을 반영하여, 더욱 자비롭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

능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2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보고서』가 경고하는 것처럼, 이제 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직 과감하고 단합된 행동만이 우리가 약속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종교 및 시민사회 단체의 사명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윤리적 증인을 넘어 변화의 촉매제로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몸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참고 문헌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회칙. 바티칸: 바티칸 출판사, 2015.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흐마드 알 타이예브 대이맘.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인간 형제애에 관한 문서. 아부다비, 2019.

마하 고사난다. 「한 걸음 한 걸음: 지혜와 자비에 대한 묵상」. 버클리: 패럴랙스 출판사, 1992.

ICCGC-CoNGO 공동 회의. "정의롭고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세계 공동체와 행동에 대한 호소." 합의 선언문. 유엔교회센터, 뉴욕, 2024.

강인건 예수회 현대 아시아 테라바다 불교 국가의 불교-기독교 대화와 실천: 비구 붓다다사와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의 급진적 정통 실천에 대한 비교 분석. 박사 학위 논문, 헤이롭 칼리지, 런던 대학교, 2012.

-----. "캄보디아의 평화 행진(담마이에트라): '영적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 『수레바퀴와 십자가: 예수회와 친구들이 불교와 대화에 관해 쓴 글 모음집』. 프놈펜: MAGGA 예수회 연구센터, 2022.

피에리스, 알로이시우스, S.J. 『아시아 해방 신학』. 뉴욕: 오르비스, 1988..

-----. 불과 물: 아시아 불교와 기독교의 기본 쟁점』. 뉴욕: 오르비스, 1996.

-----. 『불교와 기독교의 예언적 유머: 경건한 방식으로 종교 간 연구하기』. 콜롬보: 에큐메니컬 연구 및 대화 연구소, 2005.

유엔. 세상을 변화시키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뉴욕: 유엔, 2015. <https://sdgs.un.org>.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2024. 뉴욕: 유엔, 2024.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4/>.

[세션4]
Session 4

A path to practical support for communities and ecosystems by leveraging institutional authority and resources

Ms. Michelle Nikfarjam

Ph.D. Candidate, University of Vermont

Food Systems as Tool for Inner and Outer Transformation

Where do you go when the world seems to be falling apart? I go to the garden. The garden, for me, is a place of refuge in a world now characterized by precarity and instability. The precarity and instability that define our era are not a sudden emergence, nor a short-term disruption that will fade with the waning of a pandemic or the next election cycle. For decades, Indigenous communities, smallholder and peasant farmers, scientists, and activists alike have warned of the interconnected crises of food insecurity, the accelerating collapse of ecosystems, climate change, and global inequity. These are not abstract failures, but the outgrowth of centuries of conquest-driven economies, land dispossession, and the systematic erasure of ecological memory, a legacy in which exploitation of both people and planet has been normalized.

In the 1970s, U.S. Secretary of Agriculture Earl Butz famously told farmers to “get big or get out,” encapsulating a paradigm that continues to dominate agricultural policy and economic thinking today, in the U.S. and globally. That approach—maximizing yields, consolidating land, driving down prices, externalizing ecological costs—has ushered in an era of industrial agriculture defined by chemical dependency, monocultur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corporate control. Despite its promises of feeding the world, this model has consistently failed to deliver on basic human needs while accelerating ecological collapse. Over eight hundred million people remain food insecure, even as industrial farms overproduce commodity crops for export, livestock feed, and biofuels. Meanwhile, fossil fuel-intensive farming practices have become a major contributor to greenhouse gas emissions, biodiversity loss, water pollution, and soil degradation. The food system, in other words, is both a casualty and a cause of the broader crises we face. And the more the system scales up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growth, the more it undermines its own ecological foundations.

Though for many of us life has seemingly returned to normal, collectively, we are still reel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which merely laid bare what has long simmered beneath the surface: the imbalance between our human and environmental systems. As someone who has worked in and studied the food system for nearly a decade, I remember vividly the rhetoric that emerged in those early months of the

pandemic. Among sustainability scientists and practitioners, there was a sense that maybe this would be a wake-up call,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structure of supply chains, to prioritize resilience over efficiency, to recognize the ecological limits within which food production must operate. From a social and policy perspective, at least in the U.S., there were brief, meaningful shifts that reflected this rethinking. Every child, regardless of income, was suddenly able to access free meals from their school. On a community level, we saw mutual aid networks spring up across the U.S., with stories of immense participation: people driving hours to deliver bags of groceries to families, spending their weekends organizing with local shelters and nonprofits, and organizing seed and produce swaps in their neighborhoods. And on an individual level, we saw people take to their gardens, windowsills, and kitchens. There was a surge in interest in growing food, baking bread, and learning how to cook, acts that seemed to ground people in something slower, more immediate, more alive. It was as though the rupture had opened a space, however brief, in which different values might take root.

But what happens when the crises keep coming? The immediacy of the pandemic has faded from headlines and institutional memory but we remain suspended in a moment of compounding uncertainty. We are not emerging from a singular crisis but rather living through what feels like a continuous cascade: the war on Gaza, the famine in Sudan, a huge surge in conflict in Myanmar amidst cyclones and hurricanes, mass displacement, rising authoritarianism,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yet, many of our responses remain fragmented, technocratic, or cosmetic, failing to address the deeper paradigms that brought us here in the first place. In moments like these, it is difficult to envision alternatives. However, just because the task of bringing vision to, as anthropologist Anna Lowenhaupt Tsing (2015) puts it,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is daunting, does not mean we shouldn’t try. The food system is the natural system we interact with most often and intimately; it connects us all, from the smallholder farmer growing cocoa beans in Mexico to the authors of the Farm Bill on Capitol Hill. Food and farming are inherently relational. We grow food in relationship to the Earth, soil, and water, while the act of eating is rooted in our ethic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ves. In the face of such overwhelming complexity, a return to the garden is more than a retreat or refuge. It is a refusal to accept anything less than a just, sustainable future. It is a reminder that systems of nourishment, how we feed and are fed, remain at the heart of nearly all of the systems we seek to transform. To place ourselves back in the garden is to remember our interdependence with the Earth and one another, and to ask what it would mean to truly live as though that interdependence matters.

But how do we get there? I believe it starts with relearning how to belong. Belonging, in its deepest sense, isn’t just about fitting in socially; it’s about feeling emotionally and spiritually at home. When we work to align our inner subjectivities, the vast oceans of identity, experiences, beliefs, values, and emotions, with our outer worlds, including our relationships, social roles, and work, they begin to reinforce each other, challenge each other, and even reshape the complex web that entangles them. As angel Kyodo Williams, writer, activist, and Zen priest, suggests, neither inward-looking liberation nor external social change alone can lead to true transformation. Instead, a third, as-yet-unknown space emerges where both inner and outer work coexist. She writes, “Love and justice are not two. Without inner change, there can be no outer change. Without collective change, no change matters.”

In the spirit of youth leadership, I offer some of my own story- a reflection on what has guided me to dedicate myself to land, justice, healing, the deeper process of learning how to listen, and ultimately, how to belong. When I was a child, I spent countless hours in the kitchen with my grandmother, my Bibi, a Pashtun woman born in Afghanistan, raised in Iran, who had lived through layers of displacement and political conflict. When she arrived in the U.S. to meet me, her first grandchild born outside of Iran, she brought bags of pistachios, dried apricots, and even fresh pomegranates. Though I have many memories with her, one memory will always stand out. On a rainy Sunday, she handed me bundles of cilantro, parsley, and green onions to wash for ghormeh sabzi, a classic stew. As I began rinsing them, she said, morāqeb-e salāmatit sabzi-am bāsh, or, “take care of the well-being of your herbs.” I didn’t understand the depth of what she was saying then, but as I’ve grown older, I’ve come to understand the wisdom in her words. She taught me to approach everything with care and intention, even the smallest tasks, because they matter. She instilled in me a deep respect for food and land, a belief that they hold the key to our well-being, and that we should watch over theirs. This has led me down a life path where I see myself as an agent who can support food systems in a way that honors the land, the people who care for it, and the communities it sustains.

Yet my journey has been anything but linear. It is a path I stumbled through, often blindly, piecing together what it means to belong and to follow a calling. As a young person who consciously chose a career path in farming, I know I am an anomaly- something that has been expressed to me by my family, mentors, and peers alike. I will always remember my parents’ expression as they picked me up from my freshman college dorm, having told them I wanted to change my major from Economics to Plant and Soil Science. My father said: “You are going to study… agriculture? What, and you want to be… a farmer? No, Michelle. I didn’t come to this country for my daughter to become a farmer.” While they finally came around to the idea of their daughter being a farmer, in retrospect, my parents’ line of questioning and concern was telling of the larger disconnection between “fork and field.”

And their concerns were not unfounded. As a college loan-indebted young person who chose to go into farming, even in a resource-rich economy such as the U.S., opportunities to find success in operating my own farm business were scarce without access to significant capital. Not only can ecological farming be capital intensive, but it is also incredibly labor and knowledge intensive. I worked on many organic farms, ranging from 1 acre up to 10, and learned what it took to run a successful farm from the good, the bad, to the ugly. I found so much joy and purpose in growing food. I could tangibly and directly intervene in the sustainability crises I was learning about in my courses. The long hours I spent in the field translated to thousands of pounds of produce that was feeding hundreds of people. In fact, I’d hand people the produce myself, either giving out boxes of produce to customers who bought a weekly farm share, driving to local stores, or staffing the farmers market. My time spent farming ecologically, however, made it clear who could afford the food we grew and who was excluded from those spaces.

I often joke that growing a bunch of potatoes is what awakened me politically, but it is not all that far from the truth. My sophomore year, through an organization called Food For All Amherst, I helped design a crop plan from seed to harvest to support local food banks, prioritizing storage crops like potatoes,

carrots, and squash. These foods are rarely donated because of their long shelf life at grocery stores, but they are essential to addressing food insecurity. We designed healthy cooking workshops for people who went to the shelters, who may not have access to a kitchen or even kitchen equipment. We grew flowers, because even if people were experiencing homelessness, we knew they could still find an empty cup, fill it with water, and find a place for it. In essence, we met people where they were at. This opened my eyes to how food and farming systems are deeply political, shaped by power structures that determine who has access to nutritious food and who is left out.

Working in the food system as an organic farmer was ultimately what inspired me to pursue a PhD and a career in research, motivated to work for change at a systems level. Like many young people stepping into their careers during an era of profound instability, I've stumbled through moments of doubt, burnout, and uncertainty. Along the way, I've discovered many tools and practices that have helped me navigate not only my professional journey, but also my inner landscape- my fears, my values, my longing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One framework that has helped crystallize this for me is the Inner Development Goals (IDGs). The IDGs offer a set of transformative capabilities designed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peaking to the qualities we need to cultivate within ourselves: being, thinking, relating, collaborating, and acting. The IDGs offered language and structure to what I had already been trying to practice: self-awareness, empathy, presence, and courage as someone trying to be of service in a scientific field that often rewards detachment and efficiency over care and connection. What's more, I've come to understand that these inner capacities are not separate from the scientific work I do. In fact, my research is most powerful when grounded in spiritual alignment.

My doctoral work focuses on agroecology, which is the ecological science of agriculture, or in other words, how ecological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agricultural systems to foster both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Agroecology invites us to ask: how do we design food systems that mimic the intelligence and relationality of nature itself? How can we grow food in ways that heal ecosystems rather than degrade them? These are scientific questions, but they are also deeply spiritual ones.

In the Northeast region of the U.S., where I conduct my research, these questions are particularly urgent. The landscape here is predominantly forested, and farmers are increasingly fac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wetter springs, longer summer dry spells, emerging pests and diseases, and unpredictable weather patterns. My research seeks to understand the transition toward more perennial food systems- systems that include fruit and nut trees, berry shrubs, mushrooms, and agroforestry practices that integrate trees into crop and livestock systems- and how farmers access information and resources that support such transitions. These systems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ecological benefits, economic stability, and cultural resilience. But I don't study these systems in isolation. I work in partnership with farmers and land stewards, many of whom are 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 whose knowledge, histories, and innovations are often excluded from dominant research narratives.

One of the most meaningful projects I've had the honor of co-developing is a participatory research

initiative with the Pocasset Pokanoket Tribe in Southern New England. This project explores how agroecological and agroforestry practices can be used to restore traditional foodways, support climate adaptation, and build intergenerational knowledge. And while this work lives within the bounds of a research grant and an academic timeline, it also lives beyond those boundaries, in the relationships we build, the trees we plant, and the stories we share while in the field or forest. Together, we have planted over 100 trees and shrubs: chestnuts, hazelnuts, peaches, raspberries, and species many people haven't heard of but that were important to traditional Native American foodways- juneberry, ramps (wild garlic), pawpaw (like a North American banana), and beach plums.

When we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the Earth, to our community, and ultimately to ourselves- we feel aligned, purposeful in an emotional, spiritual, and intellectual sense, the boundaries between researcher and researched begin to soften. I see earning a PhD as an accomplishment, but the real accomplishment is in using the institutional access and resources that come with that role to support the communities and ecosystems I care about. Cultivating the Inner Development Goals has meant I don't just write grants to publish papers, but to distribute resources. It has meant showing up to plant trees with community members, not just collecting data about them. In this way, my research and career journey has been less about climbing a ladder and more about deepening a commitment. No matter where my path leads, I commit to advancing social equity in agriculture, fostering agroecological balance, meeting the nutritional needs of communities, and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agricultural scientists to ask questions that push boundaries of what is possible.

제도적 권한과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와 생태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길

미셸 니크파르잠
버몬트대학교 박사과정

내적·외적 변혁의 도구로서의 식량 시스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정원으로 향합니다. 저에게 정원은 취약성과 불안정성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이 취약함과 불안정함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도, 팬데믹의 기세가 꺾이거나 다음 선거 주기가 지나면 사라질 단기적인 혼란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원주민 공동체와 소농, 과학자, 그리고 활동가들은 식량 불안정, 가속화되는 생태계 붕괴, 기후 변화, 그리고 전 지구적 불평 등이 서로 얽혀있는 이 위기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정복 지향적 경제, 토지 수탈, 그리고 생태적 기억의 체계적인 말살이 낳은 결과물이며, 사람과 지구 모두에 대한 착취가 정상화되어 버린 유산의 산물입니다.

1970년대 미국 농무부 장관 얼 버츠(Earl Butz)는 농부들에게 "규모를 키우든가, 아니면 떠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농업 정책과 경제적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수확량 극대화, 토지 통합, 가격 하락 유도, 그리고 생태적 비용의 외부화라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화학 물질 의존, 단일 작물 재배, 환경 파괴, 그리고 기업의 통제로 정의되는 '산업형 농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류를 먹여 살리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하는 한편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지속적으로 실패해 왔습니다. 산업형 농장들이 수출용 상품 작물과 가축 사료, 바이오 연료를 과잉 생산하는 동안에도 8억 명이 넘는 인구는 여전히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석 연료 집약적인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 다양성 손실, 수질 오염 및 토양 황폐화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식량 시스템은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의 희생양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효율성과 성장의 이름으로 시스템의 규모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생태적 토대는 더욱 침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겉으로는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이지만, 집단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수면 아래에서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인간 시스템과 환경 시스템 사이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식량 시스템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팬데믹 초기 몇 달간 쏟아졌던 담론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속가능성 과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공급망 구조를 재고하고, 효율성보다 회복탄력성을 우선시하며, 식량 생산이 준수해야 할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는 일종의 '모닝콜'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사회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러한 성찰을 반영하는 짝지 않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는 미국 전역에 상호 부조 네트워크가 급증했으며, 그 참

여 열기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식료품 꾸러미를 배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운전했고, 주말을 반납해 지역 보호소나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동네에서 씨앗과 농산물을 교환하는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과 창가,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식물을 기르고, 빵을 굽고, 요리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급증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사람들을 더 느리고, 더 직접적이며, 더 생동감 있는 무언가에 뿌리 내리게 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그 단절의 틈새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가치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팬데믹의 긴박함은 언론의 헤드라인과 기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첩첩이 쌓이는 불확실성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끊이지 않는 폭포처럼 밀려오는 사태들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전쟁, 수단-에리트레아 국경, 사이클론과 허리케인 속에서 급증하는 미얀마의 분쟁, 대규모 이주, 발호하는 권위주의, 그리고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까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기술관료적이며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애초에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안을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학자 안나 로웬하우프트 칭(Anna Lowenhaupt Tsing, 2015)이 말한 '자본주의의 폐허 속에서 삶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무리 벅차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량 시스템은 우리가 가장 빈번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자연 시스템이며, 멕시코의 카카오 재배 소농부터 미국 의사당의 농업법안 작성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음식과 농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우리는 지구, 토양, 물과의 관계 속에서 작물을 기르며, 먹는 행위는 우리의 윤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복잡성 앞에서 '정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은둔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아닌 그 어떤 타협안도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먹이고, 또 어떻게 먹느냐는 '영양 공급 체계'가 우리가 변혁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다시 정원에 두는 것은 지구 및 타인과의 상호의존성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상호의존성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다시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소속감이란 단순히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영적으로 '집'에 온 것 같은 안락함을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의 내면적 주관성—즉 정체성, 경험, 신념, 가치관, 감정이라는 광대한 바다—을 우리의 관계, 사회적 역할, 직업과 같은 외적 세계와 일치시키려 노력할 때, 이 두 세계는 서로를 강화하고 도전하며, 그들을 엮어매고 있는 복잡한 관계망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작가이자 활동가이며 선종 사제인 엔젤 교도 윌리엄스는 내면을 향한 해방이나 외부의 사회적 변화, 그 어느 쪽도 단독으로는 진정한 변혁을 이룰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대신 내면과 외면의 작업이 공존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3의 공간'이 출현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둘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는 외면의 변화도 있을 수 없으며, 집단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청년 리더십의 정신에 입각하여,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땅과 정의, 치유, 그리고 경청의 깊은 과정과 궁극적인 '소속감'에 제 삶을 바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 '비비(Bibi)'와 함께 부엌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 이란에서 자란 파슈툰족 여성인 할머니는 평생 이주와 정치적 갈등의 파고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입니다. 이란 밖에서 태어난 첫 손주인 저를 만나러 미국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피스타치오와 말린 살구, 그리고 신선한 석류가 든 보따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추억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늘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일요일, 할머니는 전통 스투인 '고르메 사브지'를 만들기 위해 고수와 파슬리, 쪽파 문치를 제게 건네며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제

가 허브를 행구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라케브-에 살라마티트 사브지-암 바쉬(morāqeb-e salāmatit sabzi-am bāsh)." 즉, "허브의 안녕을 잘 보살피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속에 담긴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과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소한 모든 것들이 실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음식과 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셨고, 그것들이 우리 행복의 열쇠인 만큼 우리 또한 그것들을 귀하게 보살피야 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제가 땅과 그 땅을 일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이 지탱하는 공동체를 예우하며 식량 시스템을 지원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여정은 결코 순탄한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헤매며, 소속감을 느끼고 소명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 배워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농업이라는 진로를 선택한 저는 사실 이례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가족과 멘토, 동료들로부터 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으니까요. 대학교 1학년 기숙사로 저를 데리러 오신 부모님께 경제학에서 식물토양학으로 전공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을 때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을 공부하겠다고? 네가... 농부가 되겠다는 거니? 안 된다, 미셀. 내가 이 나라에 이민 온 건 내 딸을 농부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결국 부모님은 농부가 된 딸을 인정해 주셨지만, 돌이켜보면 당시 부모님의 걱정 섞인 질문은 우리 사회의 '식탁과 들판' 사이에 놓인 거대한 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처럼 자원이 풍부한 경제 대국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짊어진 청년이 막대한 자본 없이 스스로 농장 경영에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생태 농업은 자본 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력과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저는 1에이커에서 10에이커에 이르는 다양한 유기농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좋은 면과 나쁜 면, 그리고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현실까지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농작물을 기르는 일에서 커다란 기쁨과 사명을 찾았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웠던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제가 직접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들판에서 흘린 땀방울은 수천 파운드의 농산물이 되어 수백 명의 이웃을 먹여 살렸습니다. 매주 농산물 꾸러미(CSA)를 구독하는 고객들에게 상자를 건네고, 지역 상점으로 트럭을 몰고, 파머스 마켓(직거래 장터) 매대에서 서서 저는 사람들에게 직접 수확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생태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정성껏 기른 이 음식을 과연 누가 살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풍요로운 공간에서 소외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감자 한 더미를 재배했던 경험이 저를 정치적으로 깨어나게 했다고 농담조로 말하곤 하는데, 사실 이건 진실과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모두를 위한 식량 애머스트'라는 단체를 통해 지역 푸드뱅크를 지원하기 위한 작물 재배 계획을 씨앗부터 수확까지 직접 설계했습니다. 특히 감자, 당근, 단호박처럼 저장성이 좋은 '저장 작물'을 우선순위에 두었죠. 이런 작물들은 유통기한이 길어 마트에서 잘 폐기되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기부도 잘 들어오지 않지만, 식량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저희는 쉼터를 찾는 분들을 위해 건강 요리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그분들은 부엌은커녕 기본적인 조리 도구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꽃도 길렀습니다. 비록 노숙 생활을 하더라도, 빈 컵 하나를 구해 물을 채우고 꽃 한 송이 꽂아둘 곳을 찾을 정도의 인간적 품위는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식량과 농업 시스템이 얼마나 깊이 정치적인 영역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누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누리고 누가 소외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거대한 권력 구조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기농 농부로서 식량 시스템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은 제게 박사 학위에 도전하고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차원에서의 변화를 끌어내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불안정

의 시대에 커리어를 시작하는 어느 청년들처럼, 저 역시 회의감과 번아웃, 그리고 불확실성의 순간들을 수없이 헤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전문적인 연구 여정뿐 아니라, 제 안의 두려움과 가치관, 그리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담긴 내면의 풍경을 향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도구와 실천법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명확히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프레임워크가 바로 '내면 개발 목표(IDGs)'입니다. IDGs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변혁적 역량으로, 우리가 내면에 함양해야 할 다섯 가지 자질—존재, 사고, 관계, 협력, 행동—을 제시합니다. IDGs는 제가 이미 수행해 오던 자기 인식, 공감, 현존, 그리고 용기라는 실천들에 체계적인 언어와 구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보살핌과 연결보다는 객관적 거리두기와 효율성을 보상하는 경향이 강한 과학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러한 내면의 역량들이 제가 수행하는 과학적 연구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의 연구는 영적인 정렬(spiritual alignment)에 뿌리를 둘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의 박사 과정 연구는 농업생태학에 초안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생태학이란 농업을 생태학적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문으로, 생태적 원리를 농업 시스템에 적용하여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증진하는 방안을 탐구합니다. 농업생태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 본연의 지능과 상호관계성을 모방하는 식량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하는 방식으로 식량을 재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는 분명 과학적인 질문이지만, 동시에 깊은 영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곳은 주로 울창한 산림 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농부들은 봄철 강수량의 급증, 여름철 가뭄의 장기화, 새로운 병해충의 출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기상 패턴 등 기후 위기의 여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과실수와 견과류 나무, 관목류, 버섯, 그리고 수목과 농축산을 결합한 농림복합경영과 같은 '다년생 식량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농부들이 이러한 변화를 위해 어떤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생태적 이점과 경제적 안정을 넘어 문화적 회복탄력성을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스템을 단순히 객관적인 연구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BIPOC)을 포함한 농민 및 토지 관리자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역사, 그리고 혁신적인 시도들은 그동안 주류 연구 담론에서 너무나 자주 소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동으로 개발해 온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뉴잉글랜드 남부의 포카셋 포카노켓(Pocasset Pokanoket) 부족과 함께한 '참여형 연구(participatory research)'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생태학 및 농림복합경영 실천을 통해 전통적인 식생활 양식을 복원하고, 기후 적응을 지원하며, 세대 간 지식을 구축하는 방안을 탐구합니다. 이 작업은 연구 보조금과 학술적 인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그 경계를 넘어 우리가 숲에서 쌓아가는 관계, 함께 심는 나무, 그리고 나누는 이야기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나무, 개암나무, 복숭아, 라즈베리를 비롯해 주니베리, 램프(야생 마늘), 파파(북미 바나나와 유사한 열매), 비치플럼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 식문화에 소중했던 100그루 이상의 나무와 관목을 함께 심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와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소속감을 느낄 때, 우리는 정서적·영적·지적 정렬(alignment)을 이루며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연구자와 피연구자 사이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사 학위 취득이 하나의 성취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그 역할에 부여된 제도적 권한과 자원을 활용해 제가 아끼는 공동체와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내면 개발 목표(IDGs)를 체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논문 출판을 위해 연구비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공동체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현장에 나타나 직접 나무를 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의 연구와 경력의 여정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이라기보다, 현신을 심화해 나

가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앞으로 저의 길이 어디로 향하든, 저는 농업 분야의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농업생태계의 균형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에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농업 과학자들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엇이 가능한가'를 묻는 탐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데 저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There is no path to peace. Peace is the path

Ms. Aki Ota

Ph.D. Student, University of Tokyo

< Self Reflection >

I was born and raised in Japan with roots in China. For this unique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 I spent my childhood filled with special experiences. I became aware of inter-ethnic conflicts since the early stage of my life. As someone who cherishes the cultural essence of both Japan and China, I have often been disheartened by the ongoing tensions and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Whether through media or personal experience, it has been painful to witness the challenges that prevent these two rich cultures from coming together in peace. These eye-opening experienc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my motivation to learn and grow today.

Last year, I visited Okinawa as a member of a field research team of my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rip was to reflect on the transnational memory in modern and contemporary Okinawan history. During the Battle of Okinawa in 1945, not only Okinawans but also Korean and Taiwanese residents suffered greatly from the intense fighting, and many lives were lost. By following the historical traces in several places in Okinawa, I learned the disastrous facts of the war and the consequences that afflicted residents of Okinawa until now. I saw Okinawan people suffering not only from physical factors but also, which can be said more gravely, emotional distress due to the battle even decades after the war.

The most memorable moment during this trip was the time when I visited the Heiwakinen Memorial Park. I was struck by seeing the Cornerstone of Peace, on which the names of the thousands of lost lives were engraved. The guide shared the stories behind the inscription, and I learned that the names engraved include not only Okinawan people, but also victims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Taiwan, the U.K., and the U.S.A. I felt the Cornerstone of Peace was the symbol of the pain of war shared across races and it seemed as if each name on the stones were voicing each person's aspiration for peace. I walked toward the edge of the park that overlooks the ocean. The very moment when I cast my eyes on the ocean, suddenly a strong sunlight poured in from behind, revealing a breathtaking turquoise view that looked like the cross-section of a gemstone. At that moment, I suddenly realized again how important it is to pursue peace for all humankind.

By the time I visited Okinawa, I was at the pessimistic state and doubting the significance of myself being

part of the field of peace study and although not losing but became unclear about the vision continuing to pursue the dream of becoming a researcher in the field. Engaging with “peace” as a research theme is not an easy task. At times, I have even heard people say, “Not everyone necessarily wishes for peace.” There were moments when I thought, perhaps that’s true. However, through the fieldwork in Okinawa, I came to feel—almost painfully so—the deep and earnest yearning for peace that so many people hold.

Standing on the edge of the cliff, gazing at the deep azure, once likely stained crimson by the precious blood of lost lives, I felt as if the Divine was calling from above giving me the field of peace as my mission to fulfill. Whether they are no longer with us or still living today, I was struck by how many individuals have carried the hope for peace on their shoulders and continued its pursuit. Learning about Okinawa’s postwar history made me realize this with a sense of shock and awe.

I believe that those who think “peace is not essential” likely do not understand the suffering that arises in its absence. To me, peace is like air: essential for human life, yet so natural and invisible that we rarely acknowledge its value in our daily existence. Johan Galtung, often referred to as the father of peace studies, argued that peace is not a tangible object that simply exists. Rather, it is the ongoing process of striving toward peace—of learning to live with conflict and putting that learning into practice. Even if peace does not yield immediate results, I believe we must never give up on the effort to pursue it and continuously take action toward that goal.

<My opinion towards the reality of the world and society>

This year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orld war—a major turning point for humanity. In the society we live in today, the fear of war is gradually fading, and with it, our collective sense of the value of preserving and striving for peace is also beginning to waver. I feel this trend firsthand, as it is reflected in subtle shifts within our immediate surroundings.

From recurring armed conflicts between nations or within states, to outbreaks of violence in various regions, to the inability to accept those who are different, and the fragile psychological state that fluctuates with the unstable global climate—there are countless factors that now seem to steer people away from peace. In the midst of such circumstances, I find myself repeatedly asking: What can I do now, even as I continue my research? And in reflecting on how we can avoid repeating the greatest mistake in human history, I began to consider what each of us, as global citizens, can and should do in practice. The conclusion I reached is surprisingly simple:

We must learn. We must learn from the past, learn from the present, and learn about ourselves. It is often said that history repeats itself—and therein lies the value of learning from it. I believe it is essential that we face historical facts, reflect on past events in light of the present, and engage in comparison and analysis. History confronts us with unchangeable truths. Even if these truths are inconvenient or painful for ourselves, our communities, or our nations, the lessons that can prevent us from repeating past mistakes emerge only when we truly face history. Postwar education in Germany is a

prime example of this. Conversely, if historical facts reveal decisions or actions that are a source of pride for ourselves or our people, there are surely insights and wisdom to be gained from them as well.

Learning from the present means understanding the root causes of the many issues unfolding before our eyes. What matters here is to maintain a sense of inquiry—even toward things that may seem commonplace or self-evident in our daily lives. Asking, “Why is this happening?” is the first step. The process of seeking answers to such question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various phenomena. One thing we must not forget in this process is the source and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we use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order to learn clearly and accurately, it is essential to obtain trustworthy information. Yet the reality is that this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day, society is flooded with misinformation, the spread of opinions rooted in personal bias and misunderstanding, and even th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all amplified by the internet. I strongly feel that each of us must cultivate information literacy in order to navigate such a landscape.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about oneself can be found in a line from the preamble of the UNESCO Constitution. It says,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s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UNESCO Constitution” (1945)).” What this line conveys, I believe, is that the thoughts and minds of a single individual are powerful enough to influence the course of conflict and peace. And the defenses of peace can be constructed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uman beings are inherently imperfect. And so is the world we live in. In such an imperfect world, we tend to focus on the problems and suffering that occur around us, the mistakes and contradictions of others. While it is certainly possible—and meaningful—to try to bring change to others, our surroundings, or the situation itself, realistically speaking, such efforts are often extremely difficult.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one element that is always with us, wherever we go and whatever we do, it is ourselves.

In Japanese, there is a proverb: "Tōdai moto kurashi" (The base of a lighthouse is dark).

It means that the closer something is, the more likely we are to overlook its importance.

This proverb teaches us the importance of looking at our own feet—of turning our gaze inward. If more people can become the kind of person who initiates change within themselves in order to build the “defenses of peace” in their own minds, then—even if it seems like a roundabout path—it may actually be the most certain way to spread a culture of peace throughout the world. For that reason, I believe it is essential to thoroughly learn about our current selves—our nature, our tendencies. This, in essence, is to apply the wisdom of Socrates—"knowing that you know nothing"—to ourselves. Are there seeds of conflict within our own hearts? Are there contradictions between our desire for peace and our actual thoughts, values, or behavior patterns? By asking ourselves such questions and reflecting deeply, we can truly begin the process of learning about ourselves.

<My message>

The world we live in desperately needs the cultivation of “culture” of peace, which is the notion proposed by Johan Galtung and UNESCO.

What is necessary to break humanity's tendency to rely on wars and battles when it comes to face the conflic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thinkers such as Thomas Hobbes and Hans Morgenthau have long upheld a realist perspective, asserting that conflict is rooted in human nature. Indeed, it may be true that such a tendency exists within us. However, at the same time, human beings also share ideals and a spirit that seek for "peace." As human history has progressed, this aspiration has led to the reevaluation of ethical values—such as human rights and equality under the law—not only within individual nations but on a global scale. There are enormous efforts made by many historical figures, organizations and nameless heroes—as an example, I would like to mention that last year, Japan's Hidankyo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as a result of the tireless efforts and sacrifices of those who came before us. Their great spirits of pursuing peace can be seen all over the world. In this regard, while elements of "conflict" and violence as its result are certainly part of human nature, history also clearly demonstrates a simultaneous and opposing yearning for "peace." In my point of view, what we all need now is the know-how to make peace.

Mahatma Gandhi, known as an activist of nonviolent resistance and civil disobedience, left behind these powerful words:

"There is no path to peace. Peace is the path."

Johan Galtung, the subject of my research, was deeply influenced by this statement, and I too strongly resonate with its message.

Peace is not something that appears fully formed at a specific destination. Rather, it is born through our continuous actions and practices aimed at peace itself. In other words, peace emerges not from words alone, but through lived practice.

With this belief, I am committed to continuing my research in pursuit of peace, learning and hopefully share the possible ways and know-how to make peace that we can put into action, aspiring to a world where all global citizens can share in its benefits.

세션 4 | 차세대 역량 강화: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 리더십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이다.

오타 아키

동경대학교 박사과정

<자기 성찰>

저는 중국에 뿌리를 두고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민족적·문화적 배경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경험들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생의 아주 이른 시기부터 민족 간의 갈등을 몸소 의식하며 자라왔습니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적 정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양국 사이에 지속되는 긴장과 상호 이해의 부족을 지켜보는 것은 늘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든, 이토록 풍요로운 두 문화가 평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난관을 목격하는 것은 제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상을 직시하게 한 경험들은 오늘날 제가 학문적으로 정진하고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대학교 현장 연구팀의 일원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오키나와 근현대사 속에 새겨진 '초국가적 기억'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오키나와 전투 당시, 오키나와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출신 거주자들도 치열한 교전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오키나와 곳곳의 역사적 흔적을 따라가며 저는 전쟁의 참혹한 실상과 그것이 오늘날까지 주민들에게 남긴 뼈아픈 결과들을 학습했습니다. 전쟁 후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정서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수만 명의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평화의 초석'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그 비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곳에 새겨진 이름들이 단지 오키나와인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만, 영국, 미국 등 국적을 초월한 희생자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화의 초석'이 인종을 넘어 공유된 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며, 돌에 새겨진 이름 하나하나가 평화를 향한 저마다의 염원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공원 끝자락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보던 찰나, 갑자기 뒤편에서 강렬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보석의 단면처럼 눈부신 터키블루 빛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숭고하고 중요한지 다시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키나와를 방문할 당시 저는 다소 비판적인 상태였으며, 평화학을 공부하는 제 역할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구자의 길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나, 비전은 점차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평화'를 연구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평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냉소적인 말을 듣기도 했고, 저 역시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현장 연구를 통해 저는 수많은 이들이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거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한 평화에 대한 갈망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한때 희생된 소중한 생명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을 깊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마치 하늘이 저를 불러 평화학이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이든, 얼마나 많은 개인이 평화라는 희망을 어깨에 짊어준 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지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키나와의 전후사를 공부하며 얻은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자 경외감(awe)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마도 평화가 부재할 때 발생하는 처참한 고통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소중함을 망각하곤 합니다. 평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란 단순히 존재하는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오히려 평화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즉, 갈등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설령 평화가 즉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향한 여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계와 사회의 현실에 대한 나의 견해>

올해는 인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평화를 수호하고 갈망하던 집단적 의지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에서 반복되는 무력 충돌부터 세계 곳곳에서 분출되는 폭력 사태, '다름'을 포용하지 못하는 배타성,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라 요동치는 취약한 심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연구를 지속하면서도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류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민한 끝에, 저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달한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로부터 배우며,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성찰하며, 냉철한 비교와 분석에 임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우리 자신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에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해줄 교훈은 우리가 역사를 온전히 직면할 때에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전후 교육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역사적 사실이 우리 자신이나 민족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결정과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과 지혜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현재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상에서 평범하거나 자명해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양한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입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학습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정보와 개인적 편견, 오해에 기반한 의견들이 인터넷을 통해 증폭되고 있으며, 심지어 여론 조작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각자가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절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의 중요성은 유네스코 헌장(1945) 전문의 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의 방벽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한다." 이 구절은 한 개인의 사상과 마음가짐이 갈등과 평화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의 방벽은 바로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그러합니다. 이토록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흔히 주변의 문제와 고통, 타인의 실수나 모순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물론 타인이나 환경,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끌어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며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일본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 자신의 발치, 즉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만약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 내면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 자기 변화를 시작한다면, 비록 우회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 세계에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자신의 본성과 성향에 대해 철저히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지혜인 '무지의 자각(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의 씨앗이 있지는 않은지, 평화를 향한 갈망과 우리의 실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행동 양식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스스로 묻고 깊이 성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기 학습'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메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한 갈통과 유네스코(UNESCO)가 제안한 '평화의 문화'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전쟁과 무력에 의존하려는 인류의 오랜 관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나 한스 모르겐타우(Hans Morgenthau) 같은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에 갈등의 뿌리가 있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 내면에 그러한 파괴적 본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는 고결한 이상과 정신 또한 공유해 왔습니다. 인류사가 진보함에 따라 이러한 열망은 개별 국가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인권과 평등 같은 윤리적 가치의 재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인물과 단체, 그리고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이 이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 일본의 '피폭자 단체 협의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평화를 향한 선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결실을 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갈등과 폭력은 인간 본성의 일부일 수 있으나, 역사는 그에 맞서는 '평화에 대한 강력한 갈망' 역시 인류의 본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는 다음과 같은 깊은 울림이 있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이다."

제 연구의 모토인 요한 갈통 역시 이 선언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저 또한 이 메시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평화는 특정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행동과 수행 속에서 끊임없이 태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화는 관념적인 언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실천'을 통해 구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평화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즉각 옮길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과 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하며, 모든 세계 시민이 평화의 결실을 함께 누리는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Essay on Youth Leadership for Peace and Sustainability

Mr. Nagayoshi Iemura

Postgraduate, Keio University

In an increasingly complex world marked by escalating climate crises, rapid technological shifts, and persistent conflicts,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must rise with a clear vision, interdisciplinary knowledge, and a deep sense of compassion. As a young person shaped by values of peace, scientific inquiry, and intercultural exchange, I see youth leadership not merely as a responsibility but as a profound calling, one that demands a seamless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justice, and innovation. The challenges we face today are interconnected. Environmental degradation fuels social inequities, unchecked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deepen divides, and conflicts rooted in misunderstanding threaten global stability. To navigate this landscape, young leaders must be equipped to bridge divides between disciplines, cultures, and ideologies while grounding their actions in empathy and a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These values that I believe are essential for young leaders were deeply shaped by my upbringing at Kosei Gakuen, an institution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Rissho Kosei-kai—a Buddhist organization that emphasizes reverence for life, mutual respect, and global citizenship. From a young age, I was taught that true peace begins with the individual, and that compassion must be translated into action. These principles have continued to guide me as I pursue research, volunteer service, and global collaboration. At the heart of Rissho Kosei-kai's philosophy is the belief in interconnectedness. The suffering of one is the suffering of all. This worldview inspired my commitment to peacebuilding and later led me to become involved in activities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ligious Freedom (IARF), which promotes human dignity, interfaith dialogue, and universal rights. These foundational values became even more significant as I began to explore science and technology not as ends in themselves, but as tools to build a better world.

As a university student specializing in mechanical engineering, I have dedicated my academic and research efforts to robotics—an area of study that I believe has the potential not only to revolutionize industries but to transform the very fabric of human society. My current research focuses on developing a variable reduction-ratio mechanism for bipedal robots, a topic that lies at the intersection of mechanical design, control theory, and human-centered technology. Variable reduction-ratio

mechanism can address a core challenge in legged robotics: the trade-off between speed and torque. Traditional robotic joints with fixed gear ratios often struggle to replicate the dynamic movement patterns of humans, especially in tasks such as walking, running, or jumping. By enabling robots to adjust their reduction-ratio in real-time, my mechanism aims to mimic the adapt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of human motion. This not only ha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bipedal robots but also for reducing the energy consumption of robotic systems—a key concern in sustainability. Efficient locomotion mechanisms can extend battery life, reduce the need for oversized actuators, and make robots more viable in real-world environments where recharging infrastructure may be limited. Moreover, such adaptable mechanisms have the potential to be implemented in wearable exoskeletons or assistive robots, supporting elderly individuals 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intaining independence and mobility. In this sense, robotics becomes a vehicle for advancing social inclusion and human dignity, core values of both peacebuil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replacing human capabilities, robotics should be used to enhance and support them, particularly for those most vulnerable or marginalized. Beyond the technical aspects, I am constantly asking myself: what kind of future are we building with robotics? I envision robotic systems being used in situations where human presence is either unsafe or insufficient, such as in post-disaster environments where search and rescue efforts are too dangerous for human responders. In such cases, bipedal robots equipped with terrain-adaptive locomotion systems could play a vital role in saving lives. Likewise, robots with high mobility and sensory capabilities can assist in environmental monitoring—such as in remote forests, glaciers, or oceans—where human observation is limited or damaging to the ecosystem. In addition, robots can support physical therapy, enhance patient recovery, and supplement the limited workforce in eldercare—particularly in aging societies like Korea and Japan. In all these cases, the critical question is not “Can we build it?” but “Should we, and for whom?” These are questions that must be asked by youth leaders who possess not only technical expertise but also moral and ethical sensitivity.

The bridge between technical knowledge and human-centered application was further solidified through my volunteer experience in Bangladesh, organized by IARF. In one of the most economically challenged regions of the world, I witnessed firsthand how systemic inequality and lack of access to education can hinder development. I spent time at a local orphanage where I engaged with children through activities such as drawing, games, and language play. This experience was deeply eye-opening. At first, I felt overwhelmed by the scale of poverty. But as I spent time with the children, I came to understand that what they

needed was not pity, but sustainable support and a belief in their potential. Then, I participated in cultural exchanges with local youth outside the orphanage. Together, we explored each other’s cultures, religions, and histories, fostering mutual respect and challenging my own preconceived notions. These cultural exchanges not only deepened my understanding of mutual respect but also challenged me to think critically about how technology could amplify voices and opportunities in marginalized communities. I realized that the children at the orphanage and the local youth I met weren’t just in need of resources—they were brimming with potential that could be unlocked with the right tools and support.

This sparked a shift in my perspective: technology isn't just about innovation for its own sake but about creating pathways for empowerment. I began to see my technical skills as a bridge to connect people, cultures, and opportunities, with a focus on listening to communities and co-creating solutions that honor their unique needs and aspirations.

Another defining experience in my journey was participating in IARF-facilitated exchanges with Korean students. Through discussions on peace, religion, and history, I was able to confront and reflect on Japan's past and present responsibilities in East Asia. As a Japanese youth, engaging in honest and at times uncomfortable conversations with Korean peers required humility and courage. But more importantly, it broadened my view of the world. It made me realize that true peace is not achieved through silence or denial, but through open 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 These exchanges also introduced me to new models of leadership—ones that prioritize healing, bridge-building, and the courage to confront historical wounds. The experience strengthened my conviction that peace and sustainability must go hand in hand with intercultural awareness and reconciliation.

My diverse experiences—robotics research, volunteer work in Bangladesh,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Korea—have taught me that real leadership is inherently interdisciplinary. In a world where technology holds the potential to either divide or unite, we need young leaders who are equally at ease in laboratories and community centers, capable of connecting science to ethics, policy to people, and peace to innovation. True leadership demands a commitment to purpose-driven education, where learning moves beyond exam-based systems to foster critical thinking, ethical action, and global engagement, as I witnessed at institutions like Kosei Gakuen. It also requires inclusive innovation, where technologies like AI and robotics, which I've explored in my own work, are developed with empathy and justice to prioritize the needs of the marginalized. Through organizations like IARF, I've seen how global collaboration across borders—whether in the Philippines, Korea, or Bangladesh—plants the seeds of peace through human connection and mutual respect.

Looking fifty years into the future, I envision a world where wars are no longer accepted as tools of policy, where technological advancements empower the most vulnerable rather than entrenching power, where spiritual and ethical education is valued as highly as technical training, and where youth are not merely consulted but are active co-creators in shaping decisions at every level. This vision requires deliberate effort. Ending war, for instance, demands rethinking how we teach history, build economies, and train leaders, while promoting restorative justice, disarmament, and conflict prevention in practice, not just in theory. Robots may one day walk alongside us, but their values will reflect the humanity we instill in them. Peace cannot be engineered through technology alone; it requires a deep commitment to human connection.

In my personal philosophy, I continue to draw strength from Rissho Kosei-kai's call to "change the world by changing the self." The values of compassion, harmony, and nonviolence are not abstract ideals but daily practices. They remind me that leadership begins within. IARF, too, provides a vital model of cooperation across spiritual traditions. It reminds us that diversity is not a threat but a treasure.

Both organizations have taught me that the work of peace is deeply spiritual. It requires a vision not of conquest, but of coexistence. It requires leaders who are not driven by ego or profit, but by a commitment to future generations. The world cannot wait for “someday leaders.” We, the youth of today, must step forward now—with knowledge, compassion, and a clear sense of purpose. Whether through robotics research or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cross-cultural dialogue or volunteer service, we have the power to transform systems and narratives. I do not believe that peace and sustainability are utopian dreams. I believe they are achievable goals—if we are bold enough to lead, wise enough to listen, and humble enough to learn from one another. In the spirit of Rissho Kosei-kai, and with the global vision of IARF, I commit myself to this path—not alone, but with fellow youth leaders around the world. Let us rise, together, to build a future where peace and sustainability are not ideals we chase, but realities we live.

세션 4 | 차세대 역량 강화: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 리더십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 리더십에 관한 에세이

이에무라 나가요시

개이오대학교 석사과정

기후 위기의 고조, 급격한 기술 변천, 그리고 지속되는 분쟁으로 점차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차세대 리더들은 명확한 비전과 학제간 지식, 그리고 깊은 인류애를 갖추고 일어서야 합니다. 평화, 과학적 탐구, 그리고 상호 문화 교류의 가치 속에서 성장한 청년으로서, 저는 청년 리더십을 단순한 책임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정의, 그리고 혁신을 조화롭게 통합해내야 할 숭고한 소명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도전 과제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통제되지 않은 기술 발전은 격차를 심화시키며, 오해에 뿌리를 둔 갈등은 세계의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지형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젊은 리더들은 학문과 문화, 이념의 경계를 허무는 가교가 되어야 하며,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공감과 공동선을 향한 헌신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젊은 리더에게 필수적이라고 믿는 이러한 가치들은, 생명 존중과 상호 존중,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강조하는 불교 단체인 입정교성회의 이념에 따라 설립된 코세이 가쿠엔에서 수학하며 깊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진정한 평화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며, 자비는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제가 연구와 봉사, 그리고 국제 협력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변함없는 지침이 되어주었습니다.

입정교성회 철학의 핵심은 '상호 연결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곧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이러한 세계관은 제가 평화 구축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 간 대화, 보편적 권리를 증진하는 국제종교자유연맹(IARF) 활동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의 가치들은 제가 과학 기술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저는 로봇공학에 학업과 연구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로봇공학은 단순히 산업을 혁신하는 것을 넘어, 인간 사회의 근간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분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연구 주제는 기계 설계, 제어 이론, 그리고 인간 중심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이족 보행 로봇용 가변 감속비 메커니즘' 개발입니다.

가변 감속비 메커니즘은 보행 로봇 공학의 핵심 난제인 속도와 토크 사이의 상충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정 기어를 가진 기존의 로봇 관절은 보행, 주행, 점프와 같은 인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로봇이 실시간으로 감속비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저는 인간 동작의 유연한 적응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모방하고자 합니다. 이는 로봇의 성능 향상을 넘어,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인 에너지 소비 저감에도 기여합니다. 효율적인 이동 메커니즘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액추에이터의 비대화를 방지하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제 현장에서 로봇의 실용성을 극대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적응형 메커니즘은 웨어러블 외골격이나 보조 로봇에 적용되어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을 도

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봇공학은 평화 구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포용과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로봇공학의 본질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그 능력을 보완하고 향상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측면을 넘어, 저는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로봇공학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가?” 저는 재난 현장처럼 인간이 접근하기 위험한 곳에서 로봇이 생명을 구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또한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로봇은 생태계 파괴 없이 오지의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부족한 돌봄 인력을 보완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술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입니다. 이는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적·윤리적 감수성을 갖춘 청년 리더들이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할 질문입니다.

IARF가 주관한 방글라데시 봉사 활동은 기술적 지식과 인간 중심적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인 그곳에서, 저는 구조적 불평등과 교육 기회의 부재가 발전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현지 고아원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 게임, 언어 놀이를 하며 보낸 시간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빈곤의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교감하며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과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지역 청소년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종교, 역사를 탐구하며 상호 존중을 배웠고, 저 자신의 선입견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술이 소외된 공동체의 목소리를 어떻게 증폭시키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적절한 도구와 지지만 있다면 꽃피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은 단순히 혁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기술적 전문성을 사람과 문화, 기회를 잇는 다리로 여기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와 열망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여정에서 또 다른 전환점은 IARF를 통한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였습니다. 평화, 종교, 역사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과거사 및 현재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청년으로서 한국의 또래들과 솔직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는 겸손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경험은 저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침묵이나 부정이 아닌, 열린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상처의 치유와 화합, 그리고 역사적 아픔에 맞서는 용기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지향점을 접했습니다. 이는 평화와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상호 문화적 이해 및 화해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저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습니다.

로봇공학 연구, 방글라데시에서의 봉사, 그리고 한국과의 문화 교류라는 다채로운 경험은 저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본질적으로 ‘융합적’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기술이 인류를 분열시킬 수도, 통합할 수도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연구실과 사회 현장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과학과 윤리, 정책과 사람, 그리고 혁신과 평화를 하나로 잇는 청년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시험 위주의 시스템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실천, 그리고 세계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치 지향적 교육을 요구합니다. 저는 코세이 가쿠엔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연구 중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같은 첨단 기술은 반드시 공감과 정의를 바탕으로 소외된 이들의 필요를 우선하는 ‘포용적 혁

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IARF 활동을 통해 필리핀, 한국, 방글라데시를 잇는 국경 없는 협력이 어떻게 인간적 유대와 상호 존중이라는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지 목격했습니다.

50년 후를 내다보며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전쟁이 더 이상 정책의 수단으로 용인되지 않는 세상, 기술 발전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보다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세상, 영성 및 윤리 교육이 기술 훈련만큼이나 고귀하게 여겨지는 세상, 그리고 청년들이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대상을 넘어 모든 의사 결정 단계의 '공동 창조자'로서 활약하는 세상입니다.

이 비전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 의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가르치고 경제를 일구며 리더를 양성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며, 회복적 정의와 군축, 분쟁 예방을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이 우리 곁을 함께 걷게 되겠지만, 그 로봇이 지닐 가치는 결국 우리가 투명한 인격의 반영일 것입니다. 평화는 기술만으로 설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이의 깊은 유대와 헌신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철학은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꾼다”는 입정교성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끊임없는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비와 조화, 그리고 비폭력이라는 가치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리더십이 결국 나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IARF 또한 서로 다른 영적 전통을 아우르는 협력의 소중한 모델을 제시하며, 다양성이 위협이 아닌 인류의 보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단체는 저에게 평화를 위한 노력이 깊은 영성적 차원의 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화는 정복이 아닌 공존의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사익이나 명예가 아닌, 미래 세대를 향한 헌신으로 움직이는 리더가 절실합니다. 세상은 '언젠가 나타날 리더'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지식과 자비, 그리고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당장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로봇 공학 연구든 인권 교육이든, 혹은 문화 간 대화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든, 우리에게는 기존의 시스템과 내러티브를 변혁할 힘이 있습니다.

저는 평화와 지속가능성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유토피아적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장설 만큼 용기 있고, 귀 기울일 만큼 현명하며, 서로에게 배울 만큼 겸손하다면 이는 반드시 성취 가능한 목표입니다. 저는 입정교성회의 정신과 IARF의 세계적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전 세계 청년 리더들과 연대하여 이 길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화와 지속가능성이 우리가 쫓는 이상이 아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되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Panel Session 4 |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Youth Leadership for Peace and Sustainability

To love God is to love as God loves

Ms. Yejin Hong

Member, Focolare Movement

When reflecting on how youth leadership is formed, I believe it's not so much about inventing an entirely new style, but rather about cultivating one's own unique leadership by emulating the leaders we aspire to be like. Therefore, in this discussion on leadership for peace and sustainability, I would like to introduce a figure who has been most significant to me within both the Focolare Movement and the Catholic Church. I will also examine the past leadership examples that have shaped me through the movement. Furthermore, I would like to share my current and future commitments to sustainability, as well as the vision for the 2027 World Youth Day in Seoul, a major youth-centered event in the Catholic Church. Here is the table of contents for today's presentation.

First, I would like to speak about Pope Francis. As you can see in the photo, Pope Francis chose not to wear the ornate red mozzetta (a short shoulder cape) that his predecessors, such as Pope Benedict or those before him, traditionally wore. He did so because he felt it was far too ostentatious. Furthermore, he chose the papal name "Francis"—a name never before taken by any pope—to honor St. Francis of Assisi, the universal symbol of poverty and humility. This choice clearly reflects his identity as a member of a religious order who has taken the vow of poverty. When I think of Pope Francis, what stands out most to me is how he has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being a true "Apostle of Peace."

In the following photo, you can see that when the war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broke out, Pope Francis frequently made video calls to the pastor and parishioners of the only Catholic parish in the Gaza Strip. He expressed his deep concern for their safety and continuously sent his apostolic blessings. This heart-touching moment is captured in the photo on the left. Furthermore, he personally donated an ambulance to Ukraine, which is currently suffering from the war with Russia. You can see this in the photo on the right. Pope Francis has always reached out to the most vulnerable and marginalized, demonstrating his love not just in words, but through direct, compassionate action.

For his very first pastoral visit after his election, Pope Francis chose to go to Lampedusa, often called the "Island of Refugees." In the photo on the left, you can see him personally meeting with and listening to the stories of the refugees there. The photo on the right captures a moment on his birthday, when he invited

homeless individuals to the Vatican to share a meal with him. Furthermore, he has shown extraordinary compassion by warmly embracing those who often felt marginalized or condemned by the Church—divorced and remarried couples, women who have suffered the pain of abortion, and the LGBTQ+ community. Through these actions, he has redefined the Church as a "field hospital" for all.

Another key aspect I would like to highlight is the journey of "Synodality," or the "path we walk together." In Korean, a Synod is referred to as the "World Synod of Bishops," but the 16th Ordinary General Assembly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any that came before it. While previous Synods typically lasted about a month, this one spanned three years. More importantly, whereas past Synods were exclusive to bishops, this assembly invited women, laypeople, and religious brothers and sisters to participate as voting members.

Etymologically, "Synod" comes from the Greek words *syn* (together) and *hodos* (way), literally meaning "walking together on the same path." However, since past Synods were limited to the hierarchy, they arguably fell short of this true meaning. This time, the process was structured in three stages—diocesan, continental, and universal—to ensure the voices of all the People of God were heard. Most notably, this journey was centered on "Conversation in the Spirit." This process of communal discernment allowed me to truly feel Pope Francis's sincere commitment to a listening Church.

Now, let us turn to the Focolare Movement. The Focolare is a Catholic movement founded by a laywoman, Chiara Lubich. Its charism is rooted in respecting and valuing diversity while spreading a message of unity to the world, striving to realize Jesus' prayer: "That they may all be one" (John 17:21). To achieve this, the movement fosters fraternal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s, peoples, and cultures through dialogue. Consequently, Focolare is not limited to Catholics: it embraces Christians of various denominations,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and even those with no specific religious affiliation. Each person follows their own conscience while sharing the movement's common spirit of unity.

Chiara Lubich proposed "Twelve Points of the Spirituality of Unity," the cornerstone of which is the profound belief that "God is Love." This means being the first to love and constantly moving toward a "Love of Unity." Ultimately, the common thread between Pope Francis and the Focolare Movement is this "Journey of Unity Together." I believe that reaching out to others with unconditional love—free from any pretense or judgment—is the essence of true unity.

There is a quote by an Anglican theologian that I hold dear: "To love God is to love as God loves." I keep these words deeply engraved in my heart.

Now, let me share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the work I am currently doing. When I hear the word "sustainability,"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the strength to persevere without growing weary." I believe that this strength stems from hope. Pope Francis has always emphasized hope, reminding us that only a hope rooted in God can truly move us forward.

For me, this means that a "personal encounter with God" and "discovering God in one another" are essential. To cultivate this personal encounter, I practice the "Examen of Conscience" (also known as the Ignatian Examen), a prayer developed by Saint Ignatius of Loyola. Saint Ignatius, the founder of the Jesuits (Society of Jesus), designed this prayer specifically for those who were too busy to spend long hours in formal prayer. It is a reflective practice done at the end of each day, taking only about 10 to 15 minutes, yet it provides a powerful foundation for spiritual growth.

The Ignatian Examen consists of five steps: Gratitude: First, I recall the moments of grace and gratitude I received from God throughout the day. Petition: Second, I ask the Holy Spirit for the grace to see my day through God's eyes. Review: Third, I review the day, dwelling on each moment—whether positive or negative. Forgiveness: Fourth, I give thanks for the good moments and ask for forgiveness for the difficult or "uncomfortable" ones. Renewal: Finally, I ask for the grace to live tomorrow with a renewed heart and conclude with the Lord's Prayer.

Through this process, I feel a profound personal encounter with God. To discover "God within one another," I also utilize the spiritual tools of the Focolare Movement. These five tools are: Communion of Soul (Soul Sharing), Communion of Experiences, Truth Time, and Personal Interviews. Among these, "Communion of Soul" is the practice of sharing our spiritual riches so they become a common good for all. "Communion of Experiences" involves sharing our lived experiences of putting the Gospel into practice in our daily lives.

Now, I would like to share two stories from the field. The first is the St. Francis Peace Center in Gangjeong Village, Jeju. This center hosts an annual peace camp for young people, and I have had the privilege of participating for the past two years. During the second camp, I noticed a high proportion of non-religious participants.

Initially, I was concerned about whether we could truly connect, as I had spent most of my life within the "fences" of the Catholic community. However, as we discussed the Gangjeong peace movement and the tragic history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I realized that a sincere yearning for peace was something we all shared.

Witnessing how they practiced peace in their own lives provided me with immense comfort and hope. It led me to reflect on the words of the Jesuit theologian Karl Rahner, and I began to see them as "Anonymous Christians"—those who live out the values of the Gospel through their actions, even without a formal religious affiliation.

My second experience was the East Asian Youth Taizé Meeting held in Hong Kong this past May. It was a truly profound experience to see young Christians from different backgrounds gather to pray and share their lives.

A particularly moving moment occurred during the Small Group Sharing. While the Korean-speaking

group was gathering, several Chinese friends who couldn't speak Korean asked to join us simply out of their love for Korea. Despite the language barrier, we connected deeply through our shared faith. I was especially moved by the profound love these Chinese friends held for God, even amidst challenging circumstances. Through them, I witnessed a "living faith" that transcended borders. In those moments, as people of diverse religions, cultures, and nations prayed together for peace, I experienced a powerful sense of unity.

Finally,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2027 World Youth Day (WYD) in Seoul, a monumental event for the Catholic Church. WYD is a global pilgrimage where young peopl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gather to share their faith and hope. The movement began in 1983, when Pope John Paul II invited young people to Rome for a special encounter. More than four times the expected number of youth responded with such overwhelming enthusiasm that it inspired the UN to declare the following year the International Youth Year. Encouraged by this response, the Pope invited the youth back to Rome once more, and an even larger crowd gathered to pray, receive catechesis, and celebrate the Eucharist together in the heart of the Church.

Since then, many have asked: "What is it that has moved the hearts of young people so deeply?"

To this, Pope John Paul II replied: "Young people want to meet, share their experiences, hear the word of faith, look to the future, and renew their commitments." These very words gave birth to World Youth Day (WYD). While it is celebrated annually at the diocesan level, every few years it becomes a massive international pilgrimage—and in 2027, this global encounter is coming to Seoul.

South Korea is a country where Catholicism is not the state religion. In fact, this will be one of the few times WYD is held in a nation where Catholics are a minority. Therefore, I believe this event must become a truly inclusive space—a place where more people can gather to sincerely share their stories and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hope.

Ultimately, I believe all of this is part of our "Synodal Journey Together," and love must be at the very heart of it. This is exactly what my vision for youth leadership is all about: walking together, listening to one another, and loving without boundaries.

Thank you.

세션 4 | 차세대 역량 강화: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 리더십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다

홍예진

포콜라레 청년회원

저는 청년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청년들의 리더십은 전에 없던 새로운 리더십을 창조하는 것보다도 닮고 싶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리더십을 꾸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리더십을 다룰 때, 포콜라레 운동에서 그리고 가톨릭 내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과, 포콜라레 운동을 통해 저에게 영향을 미친 과거의 리더십들을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에 제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톨릭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행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전의 교황인 레오 교황님이 입던 화려한 빨간색 망토 모제타를 입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화려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황명 또한 누구도 택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하셨는데, 이는 가난의 상징이자 겸손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교황님이 성빈 서약을 한 수도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생각하면, 그분께서 '평화의 전도사'로서 살아오신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일한 가톨릭 본당 주임 신부님과 신자들에게 자주 영상통화를 하셨습니다.

그곳의 상황을 염려하시고 늘 축복을 보내셨어요.

그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직접 구급차를 선물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늘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하셨고, 직접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난민의 섬이라 불리는 '람페두사 섬'을 향하셨습니다.

왼쪽 사진은 그곳에서 직접 난민들을 만나셨던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신의 생일에 홈리스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늘 단죄받던 이혼 가정, 임신 중절을 한 여성, 성소수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가는 길', 즉 '시노드(Synod)' 여정입니다.

시노드는 한국어로 '세계주교대의원회의'라고 하는데요, 이번 제16차 정기총회는 이전의 회의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기존 시노드들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지만, 이번 회의는 3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교들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여성과 평신도, 수도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노드'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syn(함께)'과 'hodos(길)'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시노드는 사실상 주교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함께 가는 길'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노드는 교구-대륙-보편교회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진행되었고, 더 많은 하느님의 백성의 목소리가 반영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노드 여정은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는 공동 식별의 체험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포콜라레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은 '끼아라 루빅'이라는 평신도 여성이 창립한 가톨릭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일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요한복음의 말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과 민족, 문화 간의 형제적 관계를 '대화'를 통해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여러 교파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다른 종교인들, 종교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르면서 포콜라레 운동의 목적과 정신을 공유합니다.

창립자 키아라 루빅은 '일치의 영성'을 위해 12가지 요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즉,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일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포콜라레 운동의 핵심은 바로 '함께 일치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허물 없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성공회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와 미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먼저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떠올립니다.

그 힘은 희망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늘 희망을 강조하셨고, 하느님께 근원을 둔 희망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리고 '서로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 저는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가 만든 '양심성찰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회를 창립한 이나시오 성인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 수도자들을 위해 고안한 기도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기도이고, 약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양심성찰의 단계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동안 하느님께 받은 감사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둘째, 하느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 청합니다.

셋째, 하루를 되돌아보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순간을 함께 머뭅니다.

넷째, 좋은 순간은 감사드리고, 불편했던 순간은 용서를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할지 여쭙고,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서로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방법으로는 포콜라레 운동의 영성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서약, 영혼 나누기, 경험담, 진리의 시간, 개인 면담입니다.

이 중 ‘영혼 나누기’는 서로가 가진 영적 재산을 모두의 것으로 나누는 실천이고,

‘경험담’은 복음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 체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두 가지 현장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 강정마을의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평화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두 번 모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캠프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은 참가자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톨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왔기에 대화가 잘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정의 평화운동과 제주 4·3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분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며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예수의 신학자 칼 라너가 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홍콩에서 열린 ‘동아시아 청년 폐제 모임’입니다.

올해 5월, 저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젊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히 성경 나눔 시간에 한국어 사용자들이 모였는데, 한국어를 못 하는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함께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으로 나누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국 친구들은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 국가에 속한 이들이 하나 되어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저는 깊은 일치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가톨릭 교회의 큰 행사인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시작은 1983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젊은이들의 만남을 제안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상보다 네 배가 넘는 청년들이 모였고, 그 열정이 이어져 다음 해 UN은 ‘국제 젊은이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그 후 교황님은 다시 한 번 청년들을 로마로 초대하셨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응답했습니다.

로마의 성당 곳곳에서 기도하고, 교리 교육을 듣고,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청년들을 이렇게 움직였는가?”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며, 믿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그 말로부터 세계청년대회, World Youth Day가 탄생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각 교구에서 열리지만, 2~3년에 한 번은 국제적인 규모로 개최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그 국제적 행사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가톨릭이 국교가 아닌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교가 아닌 국가에서 열리는 첫 번째 세계청년대회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자리,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누는 자리, 희망으로 미래를 꿈꾸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함께 가는 시노드 여정’이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년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연합
세계평화 기원법회
Interfaith Prayer for Peace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법회 | Interfaith Prayer for Peace

Dharma Discourse

Ven. Wangsan Dojong Seong
Head Dharma Master, Won Buddhism

I extend a heartfelt welcome to all of you who have visited the Won Buddhism Central Headquarters today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and General Citizens (ICCGC). I earnestly pray that this gathering serves as a powerful step forward in hastening the realization of peace for all humanity.

Sotaesan, the Founding Master of Won Buddhism, opened the doors of this faith with a visionary motto: "With this Great Opening of matter, let there be a Great Opening of spirit." The fundamental purpose of Won Buddhism is to build a paradise on earth—a world where all living beings coexist in harmony and peace. Today, material civilization has brought us great affluence and convenience. Yet, our spiritual civilization and morality have declined, leading to deepening pain and suffering. Human dignity is being wounded. Social inequality and division continue to spark conflict, struggle, and war. Furthermore, unrestrained human desires have triggered a climate crisis, leaving the future of humanity in a precarious state.

This conference was organized to heal and overcome these very crises—social division, economic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threats. We, the practitioners of Won Buddhism, will unite our hearts and join forces with all of you. Together, let us build a peaceful world, guided by our spirit: "One Mind, Graceful World."

First, let us unite our hearts as one. Our minds are originally one. That original mind is free from disturbance, delusion, and wrongdoing. In that mind, there is no 'you' or 'me,' no division, and no conflict. To unite our hearts means to journey back to this original state. It is to awaken to, cultivate, and employ that mind, which is inherently one.

When each of us restores this mind, we can truly become one. We can gather our fragmented thoughts into a single whole. By break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with this 'One Mind,' we can share and overcome each other's joys and sorrows.

Next, let us fill this world with Grace. When we awaken to the Truth that is originally one, we realize the

world is already brimming with Grace. We are born and live within this Grace, unable to exist without one another. Yet, many live unaware of this simple truth. Filling the world with Grace begins by realizing, being grateful for, and requiting the Grace that is already abundant. It is also achieved through our sacrifices, devotion, and collective cooperation.

Small acts of goodness—love, sharing, empathy, and consideration—can transform the world into a graceful paradise. When my gratitude inspires change in others, it creates a cycle of Grace that overflows into lasting peace. Let us practice the goal of “One Mind, Graceful World” in our daily lives. In every moment, let us awaken to and employ that One Mind. May every action taken with that Mind manifest as Grace in this world.

“Truth is one, and our minds are also one.” All humanity is one family, and all living beings are our fellow kinsmen. Together, with One Mind, let us build a peaceful world where everyone prospers as one. I pray that the Grace of the Dharmakaya Buddha and the Four Graces be with you all. Thank you.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법회 | Interfaith Prayer for Peace

세계평화기원법회 설법

왕산 성도종
원불교 종법사

오늘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의가 우리 인류사회에 평화를 앞당기는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원불교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를 내걸고 원불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원불교의 개교목적은 인류를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낙원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사회의 물질문명은 고도로 발달하여 우리의 생활이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정신문명과 인간의 도덕성은 타락하여 괴로움과 아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상처받고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일으켜 대립과 투쟁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은 마침내 기후위기를 불러오고 인류사회의 미래가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대립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적 위기를 치유하고 극복할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도 여러분들과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할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합시다.

먼저 나의 마음을 하나로 만듭시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입니다. 그 마음은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름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너와 내가 없고 분열과 대립이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인 그 마음을 깨달아서 기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그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진 각각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음으로 개인과 집단의 경계를 허물면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인 나의 마음이 여럿의 마음과 서로 조화롭게 통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세상을 은혜로 가득하게 합시다. 본래 하나인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은 이미 은혜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그 은혜 속에서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은혜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충만한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보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모든 사람의 협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하는 작은 선행들 사랑과 나눔, 공감과 배려는 세상을 은혜로운 낙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감사하는 마음과 보은의 실천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 변화가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낳는 순환이 이어질 때 이 세상은 은혜와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라는 목표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합시다. 매순간 한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의 마음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하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세상에 은혜로 나타나게 합시다.

‘진리는 하나이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입니다.’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이며 모든 생명체는 인류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터전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더불어 잘사는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건설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Spiritual Message

Msgr. Indunil J. Kodithuwakku K

Secretary, Dicastery for Interreligious Dialogue

Dear brothers and sisters,

At the 7th Buddhist-Christian Colloquium in Bangkok (2023), we reflected on Karuna and Agape—compassion and self-giving love—as paths to heal a wounded humanity and a suffering Earth. Its Final Statement affirms: “We believe that prayer and meditation can turn things upside down by purifying our hearts and minds: generating loving-kindness, mercy and forgiveness where there is hatred and vengeance creating a spirit of respect and care for the other and the earth. We need to reawaken the spiritual energy in our respective followers.”¹ In this spirit, our interfaith prayer for peace seeks to reawaken our spiritual energy—so that, together, we may become instruments of reconciliation, hope, and harmony for the world.

As a Christian, I would like to begin with a passage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3, verses 10 to 17. In this text, the disciples ask Jesus why He speaks in parables. Jesus replies that some people see and hear, but do not truly perceive or understand. Then He quotes the prophet Isaiah:

“You will indeed listen but never understand,
and you will indeed look but never perceive.
For this people’s heart has grown dull,
and their ears are hard of hearing,
and they have shut their eyes:
so that they might not look with their eyes,
and listen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Jesus is not just talking about physical blindness or deafness. He is talking about something deeper: the kind of blindness that refuses to see suffering, the kind of deafness that ignores the cry of the poor, of the Earth, and of future generations.

1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en/bollettino/pubblico/2023/11/16/231116c.html>

This is the world we live in today. We see the effects of war, injustice, and climate crisis, but often we look away. We hear stories of pain and displacement, but we tune them out. We stay silent?not because we don't care, but because speaking out might cost us something. And yet, Jesus ends that passage with a word of hope: "Blessed are your eyes because they see, and your ears because they hear."

Even amid negative narratives, ongoing conflicts, and violence, many today do see, do hear, and do act. Across the world, people of all faiths and no faith are rising to build peace, defend human dignity, and care for our common home. We see young people, especially, leading the way?bold, creative, and compassionate. We see considerable number of leaders across every sector working together. In this shared human journey, good and evil walk side by side?but so do courage and hope.

And so we ask God to heal our blindness and deafness, that we may change how we perceive, think, and relate to others and to our planet. We ask for the courage to speak and act for peace, for justice, and for the Earth.

Let us deplore the words and actions that, knowingly or unknowingly, have sown death and destruction, hatred and revenge. Let us first heal our own wounds, and then the wounds of others. Let us commit to dialogue for peace, for peace cannot exist without dialogue. Let us cultivate empathy for the suffering of others and for our wounded environment. Let us cooperate with all, for no one is saved alone; we can only be saved together, for we are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Let us draw upon our religious classics and centuries of wisdom to heal our wounded humanity and to protect our battered Earth. Let us also guide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wisdom and compassion, so that they serve life, foster peace, and promote the liberation of all. Finally, we pray for all who are suffering from ongoing wars as well as from environmental disasters, addictions, modern slavery, poverty, and so many other wounds, that healing, reconciliation, and lasting peace may come to them.

As Christians, we believe that Jesus gives sight to the blind, opens the ears of the deaf, and gives voice to the voiceless. May He help us become instruments of healing and peace in our world today. And in this spirit, I invite you to join me in a prayer for our earth that speaks across religious and cultural boundaries?a prayer composed by late Pope Francis, known for his love of peace and for the Earth, Our Home.

A prayer for our earth

All-powerful God, you are present in the whole universe
and in the smallest of your creatures.

You embrace with your tenderness all that exists.

Pour out upon us the power of your love,
that we may protect life and beauty.

Fill us with peace, that we may live
as brothers and sisters, harming no one.

O God of the poor,
help us to rescue the abandoned and forgotten of this earth,
so precious in your eyes.

Bring healing to our lives,
that we may protect the world and not prey on it,
that we may sow beauty, not pollution and destruction.
Touch the hearts
of those who look only for gain
at the expense of the poor and the earth.
Teach us to discover the worth of each thing,
to be filled with awe and contemplation,
to recognize that we are profoundly united
with every creature
as we journey towards your infinite light.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each day.
Encourage us, we pray, in our struggle
for justice, love and peace.²

May peace be with you all!

² Pope Francis, *Laudato Si*, n.246.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법회 | Interfaith Prayer for Peace

영성메세지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 방콕에서 열린 제7차 불교-그리스도교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인류와 고통받는 지구를 치유하는 길로서 '카루나(자비)'와 '아가페(자기희생적 사랑)'를 되새겼습니다. 당시 최종 선언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명상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증오와 복수가 있는 곳에 자애와 자비, 용서를 싹트게 하며, 타인과 지구를 존중하고 돌보는 정신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종교의 신자들 안에서 영적 에너지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오늘 우리의 종교 간 연합 기도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다시 깨우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위한 화해와 희망, 그리고 조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태오 복음서 13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구절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들어도 진정으로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시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뎠고 귀는 멍멍해졌으며
눈은 감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함이니,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터인데 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앞을 못 보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훨씬 더 깊은 문제를 짚고 계십니다. 바로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눈물,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병들어가는 지구, 나아가 미래 세대의 절규를 못 본 척 무시해버리는 귀머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불의, 기후 위기의 참상을 목격하면서도 종종 고개를 돌려 외면하곤 합니다. 고통과 추방의 이야기들을 듣지만 못 본 척 귀를 닫아버리죠.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데 따를지도 모르는 어떤 대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구절의 끝에 희망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의 눈은 보고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듣고 있으니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끊이지 않는 갈등, 폭력 속에서도 오늘날 많은 이들은 진실을 직시하고, 목소리를 들으며,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인, 그리고 종교가 없는 이들과 평화를 구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

호하며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앞장서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수많은 리더의 모습도 보고 있죠. 인류가 함께 걷는 이 여정에는 선과 악이 나란히 걷고 있지만, 그 곁에는 용기와 희망 또한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께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멀과 귀먹음을 치유해 주시어,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우리 지구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평화를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지구를 위해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음과 파괴, 증오와 복수를 뿌려온 우리의 말과 행동을 깊이 참회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어서 타인의 상처를 돌봅니다. 대화 없이는 평화도 존재할 수 없기에, 평화를 위한 대화에 헌신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상처 입은 환경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모두와 협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 경전과 수 세기에 걸친 지혜를 길어 올려 상처 입은 인류를 치유하고 병든 지구를 보호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생명을 섬기고 평화를 가꾸며 모두의 해방을 돕는 도구가 되도록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환경 재해, 중독, 현대판 노예제, 빈곤 등 수많은 상처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화해, 그리고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고, 귀먹은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 오늘날 이 세상의 치유와 평화를 일구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우리 지구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평화와 우리의 집인 지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은 온 우주와 당신의 피조물 중 가장 작은 존재 안에도 계시나이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애로이 품어주시나이다.

저희에게 당신 사랑의 힘을 부여하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꾸고 지키게 하소서.

저희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어, 저희가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우시어

당신 보시기에 그토록 소중한, 이 땅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을 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오직 이익만을 쫓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만물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와 관조에 가득 차며

무한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깊이 결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저희의 투쟁에 힘을 북돋아 주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션5]
Session 5

The Storied Self: Self-Transformation and World-Transformation The Transformative Power of Narratives in a Multi-Faith World

Rev. Dr. Mark Unno

Professor, University of Oregon

Introduction

What the sky is to birds and water is to fish, language is to human beings. More precisely, it is stories that animate our human lives and with which we make and transform our worlds. Yet, unlike birds and fish who follow the currents of water and air, we human beings often fall into the trap of trying to control the world we live in through forming stories that lead us into cul-de-sacs of our own making. How do we extricate ourselves out of these cul-de-sacs, dead-end stories, these mind-prisons with which we entrap ourselves?

The obvious answer is to create new stories that avoid the problems and pitfalls of our former stories. Some of the ways in which people try to create new stories is to change jobs, leave old relationships to start new ones, move from one city to another, or even try new hobbies. Yet, there are situations for which these types of story changes do not easily work, as when we suffer great loss, separation, or deep disappointments that we call “failures,” as when we face financial disaster, the loss of loved ones, or a relationship on which we had so come to rely emotionally.

On a larger scale, what do we do when the story we tell ourselves about our communities – local, national, and even as a species seem to break down. What happens when we as a species seem unable to extricate ourselves from the story of “climate change” which seems to be turning into a “climate emergency,” or when authoritarian regimes rise up all over the world that seemingly oppress the most vulnerable and helpless among us?

In such a world, we need not only new stories but stories that draw upon reservoirs of strength, wisdom, courage, and compassion that come not just from the usual places that now seem to have run dry but instead arise from a boundless, inexhaustible wellspring without the limitations of this finite world. In such a world, we find the power of unfolding love and compassion from a depth that we had not known was there before, that arises from deep within each of us, that comes to us from the heart of the universe herself. The stories that arise from such inexhaustible depth is transformative – both for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for each person and for all of us as human beings. Each religious path taps into this

power in its own way, but like melodies that complement one another, the story that each path offers can complement and combine with others, to create a richer, more fulfilling harmony as we all come together.

Counterstory

In *Damaged Identities, Narrative Repair*, Hilde Lindemann Nelson presents the idea that, when the larger societal narrative is not working for an individual or a group, the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unterstory that gives voice to and makes possible a more authentic life for the individual or group. She imagines a scenario in which nurses working in a hospital become frustrated that the care they believe patients need and which they can provide is not being recognized or carried out due to the fact that doctors and hospital administrators fail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ir perspectives. In order to gain proper recognition, the nurses begin to share their stories with one another, collaborate, and then form a collective voice that the doctors and administrators can no longer ignore. When the nurses' efforts achieve critical mass – in quantity and intensity – the hospital finally begins to acknowledge the value of their perspectives, for which the compelling force is provided by vivid, transformational storytelling. In this scenario, the stories they tell are not only transformative for themselves and their work, but for the hospital as a whole – patients, doctors, staff, and administrators. This is a story in which counterstory helps the nurses to resist and transform the master narrative which had previously been produced and governed by doctors and administrators. As another instance, this time an actual historical case, Nelson offers the example of Japanese Americans who were illegally imprisoned in internment camps during World War II, and how they had to create their own counterstories to endure, survive, and overcome the circumstances of their internment and, just as significant, build lives for themselves after the war and their release.

In order to create their counterstory the nurses and Japanese Americans had to go through a process of regaining and forming an authentic sense of their own identity. They had to overcome the negative social conditioning of the master narrative imposed upon them, which had 1) infiltrated their consciousness, through imposing a kind of gaslighting that distorts one's own self-perception. The clearing of this infiltrating consciousness requires the dismantling of false consciousness and the oppressive forces that had enforced it. 2) Only then can one gain the necessary agency to create change – both for oneself and for one's own community. Through this process, one's sense of identity shifts not just at an individual level but also at a communal one. 3) Then, one can move from one's found community to a community of choice. That is, one doesn't simply accept the norms and narratives of the community (hospital) that one finds oneself in, but through narrative repair, one helps to co-create with others one's community of choice, the community that one chooses for oneself.

In Nelson's example of the hospital nurses, the nurses first had to overcome their own sense of limited authority and agency which had infiltrated their consciousness, as doctors and administrators had subtly or not-so-subtly told them that their knowledge and status were inferior. Once nurses began to see through the gaslighting of the hospital authorities, they find the motivation to act: They become agents of their own change, banding together with a common cause so that the doctors and administrators can no longer ignore them.

However, there are cases which Nelson's framework of counterstory does not take into account. For example, sometimes we find ourselves alone, or a very small minority, and we are unable to gather the critical mass or momentum needed to effect change solely on the basis of efforts made on the horizontal plane of society and history. In such circumstances, one possibility is to turn inwards, to gain access to a whole other dimension of empowerment, that of the depth dimension, of spiritual or religious depth. One can easily think of the enormous power of self-transform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that has found their impetus in a single individual going deep within to tap their spiritual depth to bring about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 We can see this in such figures as Gandhi, Martin Luther King, Jr, Thich Nhat Hanh, and the founder of Won Buddhism, Sotaesan.

Jadav Payeng: The Forest Man

Human beings are prone to forget that we are an animal species. We often use the word "animal" to describe other species as if it doesn't apply to us. In truth, we are just one species among tens of millions of others. However, we are exceptional in a number of ways. On the positive side, we are almost unique in our ability to wed consciousness to technology and art. No other species has been able to create such remarkable works of art as Mozart symphonies, Korean Buddhist statues, or Picasso paintings. While some animals use tools, nothing compares to the smartphones, airplanes, and architecture that humans have created. On the negative side, however, no single species has brought such destruction to the natural environment we inhabit, the beautiful blue globe we call Earth, our home. Human-caused climate change is now a climate emergency as we have helped to cause weather-related disasters such as drought, wildfires, and typhoons to multiply around the world; island nations such as Kiribati are beginning to disappear due to rising sea levels. As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as shown, we are far past the stage where we can "solve" climate change by mitigating its effects through human restraint and application of appropriate technologies. At best, we can create some combination of mitigation and strategies to cope or adapt to the catastrophic changes we have initiated.

In the face of such enormous challenges, what can we do? In India there is a man named Jadav Payeng who, at the age of sixteen, was horrified to see that hundreds of snakes had died due to excessive heat on the barren river island of Mājuli. That is when he began to plant trees there to repopulate the barren island, vowing to plant one tree every day. He has carried out his promise for over forty years, and today, there are nearly 1,400 acres of newly forested land, where not only snakes can live but also Bengal tigers, Indian rhinoceros, deer, and rabbits. He states, "We are all connected," as human beings and as sentient beings, human and non-human animals, trees and grasses, the sun, the sky, and the moon (Schueman). A member of the indigenous tribe of Assam in northeastern India, he has plumbed the depths of his own spirit to find the power to transform the world around him. He states, "I'll plant till my last breath" (Schueman).

To me, his story is reminiscent of the story of our very own Kehkashan Basu, who we are so fortunate to have here with us at our ICCGC conference. I was deeply moved to hear her speak last year in the Church Center of the United Nations. She described how, as a young girl at age seven, she was horrified to see that a small bird had died with its stomach filled with plastic. Coming from her deeply religious Hindu

background, she was motivated to address the devastating effects of human ecological destruction. Since then, she has gone on to create The Green Hope Foundation, which has helped to provide water, medication, nourishments to numerous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nd the vast ecological networks they inhabit. Through her work, she has created networks of capability, providing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tools to young and old alike, for the present and towards the future.

Both these stories, of Jadav Payeng and Kehkashan Basu, offer modern-day examples of the power of counterstory. Who could have imagined that as lone individuals, as young people, facing the enormous odds of a species wide failure to address climate change, resource depletion, and ecological exploitation could achieve all that they have, for themselves and for the world? Through their stories, they provide illustrations of the tremendous transformative power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They most likely could not have achieved what they have simply through political activism and social collaboration. Instead, they drew upon their spiritual depth by going deep within, finding their connection with a reality that is much larger than any merely human endeavor, connecting with Nature and Her Cosmic Source beyond this world of appearances.

Emily's Story

I would like to share the story of one other young person named Emily, whom I had the good fortune to know. Like the others mentioned here, she was struck at a young age by the social iniquity and ecological destruction that she saw around her, and she determined to pursue her studies and a career that would address these social and environmental ills. As a student at Carleton College in the state of Minnesota in the United States, she lived in their Sustainable Agriculture House. She majored in English and received her certification as a secondary school teacher. She taught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o recent immigrants, many of them refugees, from Somalia and countries from South America. She tutored Spanish-speaking inmates in the town of Faribault. She received a fellowship to work with women and children in Honduras to provide them with education and tool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livelihoods, and after graduation she received a Fulbright Fellowship to return to South America to continue her work. Even though she was only twenty-years old when I had her as a student while teaching at Carleton College, I remember her poise, wisdom, and great compassion that would be rare even for someone much later in life.

We kept in touch after she graduated, and I left for the University of Oregon. I saw her enter a Ph.D. program in Latin American Studies at UC San Diego, get married to a young man named Chris, and have her first child, a boy named Miles. She continued her work on behalf of others, she began to run marathons, and she became a finalist in the very first national poetry contest that she entered.

However, in 2012, I received an urgent message from her partner Chris, that Emily had fallen seriously ill. She had reported sharp pains in her back, and she was eventually diagnosed with metastasized cancer. She held on until the twenty-sixth week of her pregnancy when she gave birth to Eloise prematurely, so that Emily could commence chemotherapy. One of the nurses remarked that very few people could have

endured the cancer so long and given birth under such trying circumstances. Yet, when Emily was finally given her diagnosis after many misdiagnoses, she simply and calmly said, "Thank you. Now I know why I have been in such pain." Emily's mom Lynn said, "Emily was the one who helped to calm me down. She just kept saying, 'Mom, I just feel calm.'"

It was in October 2012 that I heard from Chris saying Emily was very ill. I had meant to write to Emily, but I was having one of the busiest academic terms of my career. Finally, I received a message from Chris saying that Emily might not make it. The family asked if there was anyone else she wanted to see, and she mentioned my name, so Chris wrote to me right away. That was November 19. I immediately began making plans to fly to San Diego, but Chris let me know that early December might be best, when Emily had time to recover from her next round of chemo. But, on November 26, I received another urgent message from Chris that it appeared Emily was nearing the end.

I immediately flew down to San Diego, and I arrived at UCSD Hillcrest medical center at 9:30 a.m. Emily could not move, could not speak, and her eyes were closed, but she was clearly awake, and I knew she could hear me. I leaned over and said, "Emily, it's Mark, and I'm here. Everything is going to be all right." I squeezed the acupuncture points in her ankle, and her eyes opened, and I could feel her looking right into my eyes from deep within even though she could not move her facial muscles to express emotion. I put on my Buddhist priest's robes, and we had a brief service, chanting a Buddhist scripture, the Song of Oneness (Juseige).

It was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I had ever seen. Emily's body had begun to shut down after months of battling cancer, but she was still here, and even though she could not really speak, and could only open her eyes occasionally, and only then halfway, she was here, filled with love and gentle grace. Eloise, the beautiful daughter she had just given birth to a little over a month ago, prematurely, was now just over five pounds. The nurses had brought Eloise into Emily's room at UCSD Medical Center at Hillcrest and placed her next to Emily's face. Her husband Chris and mother Lynn had lovingly placed Emily's hands around tiny Eloise's head and body, and the two of them were a truly amazing sight: one just emerging into life, and the other just getting ready to depart. Yet, their hearts beat as one, completely one as mother and daughter. The nurses were amazed that, as soon as Eloise had been placed next to her mother, her blood oxygen level zoomed up to 100%, and Emily, as soon as she was able to hold her daughter, relaxed, and her heartbeat slowed to the calm rhythm of a mother who knows.

Emily had been moved from ward to ward within UCSD Hillcrest as her medical needs changed, but she did not simply leave one set of nurses for another. Instead, she developed a veritable fan base, as nurses from the previous wards kept coming to visit her at the next station, and next station. The day I arrived to see Emily, four nurses had come in, all completely doting on Emily and speaking effusively about her, even as tears rolled down their cheeks.

In fact, friends and family had been streaming into to see Emily. The hospital was just a few miles from San Diego International Airport, and something most unusual had been happening time and again: When

one visitor was ready to depart and parked Emily's old Honda Civic in the airport parking lot, the next would arrive to pick it up and go to the hospital. It almost seemed like a kind of modern pilgrimage.

Lynn said to me, "From the time Emily was a little girl, she always wanted to do so much. She would even say, 'There's so much to do! I wish sleep were optional!' Now, I know why." Emily's father had died young at the age of thirty-four, and now Emily was about to make the Great Transition at the same age of thirty-four.

I put on my robes one more time, to have one last Buddhist service. We chanted the same scripture, The Song of Oneness. Although I was leading the chanting, the real power of the chanting, the true voice, the voiceless voice of oneness, was not coming from me. It was coming from Emily's great heart, from the very heart of the universe herself. Whenever I chant, I as much wait for the moment to dictate the tempo and inflection as I myself seek to establish them. Even more than usual, I could feel Emily's heart, the hearts of her family and friends, pulling us along, gently urging us on, with the measured rhythms of the heartbeat of the universe, the lilting song of love and of compassion. As we neared the end of the chanting, tears began to roll down our cheeks, tears of deep, deep sadness, yes, but even more profound love and compassion, giving us such a gift, bonding us together as one in the face of tremendous loss and separation.

I leaned over to Emily and said to her, "Emily, you have done so much, you have given so much, you have loved so much - more than many have in sixty, seventy, or even eighty years. I know that there is so much more you want to do, including unfinished business that you wish you could complete. The fact that you feel you have work left to do, that there may be relationships that remain incomplete, just means that you are human. Everyone has unfinished business, and our acknowledgment of this fact is what allows us to connect with others in the boundless circle of compassion.

You have given everything you can, so much.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anything. Your great love, your great heart, has completely entered into Chris, your mom Lynn, Miles, Eloise, everyone, so that your heart will be their heart forever and ever. So, you do not need to worry about Miles and Eloise, as you have given them everything essential, which is your love. And Chris's heart, Lynn's heart, Miles', Eloise's, - everyone's - their hearts are completely one with yours. So, wherever you may go, wherever you are, we are always one in the deep unfolding of great compassion. Whether you see it or not, feel it or not, the great light of this limitless compassion is always there, and will sustain you forever and ever. Thank you, Emily, so much,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everything you are, including the things left undone, the unfinished business, for that is part of what it is to be human, to live within our karmic limitations. Everything, everything is illuminated, embraced, and dissolved into the great ocean of light of boundless compassion. Thank you so much."

Leaving Emily, Chris, and others in that moment was one of the hardest things I have ever done, but I also knew everything would be all right. They are an amazing family. Just a few days after I left, one of Emily's students from South Eugene High School Abby Diskin arrived to be with Emily, but Emily had already made her transition just a few hours prior. Yet, Abby felt Emily's presence in the room and felt

that Emily heard her. After returning to Eugene, I received a message from Abby:

I feel that Emily was definitely aware that I went to San Diego as she recently visited me in my dreams and we had a very clear, vivid conversation. She asked me how her children are, and I assured her they are being cared for and that everything would be okay. Then, I think to console me, she explained to me why she had to die - her suffering was just too great and she was in so much pain. I stood on a tall sandstone cliff and her face was in the sky above the ocean at Torrey Pines State Reserve, her favorite spot to go hiking (I went there during my visit). She told me she "didn't like writing indoors anyways" and that now she could be outside all the time where she felt complete creative freedom. She seemed very peaceful and god-like. The dream was so vivid, I can still picture it and hear our discussion... I feel she has been in my life for a much higher purpose and continues to be a teacher both in life and in death, far beyond the classroom.

Abby described this dream, not knowing that Emily had actually told her family these exact words, that she might not be able to stay in this world because the pain was too great. Even now, and in some ways ever more so, Emily continues to be present in the lives of those who knew her, who loved her, and who she loved.

In Conclusion

I wanted to share this story, and the other stories we have seen, because they show us many things: 1) Each of our lives constitutes a remarkable story, no matter how brief that life, how long, how small, or how grand. 2) Each of us is transformed by connecting with others, through the stories of other peoples' lives, and the lives of other creatures. 3) We should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a single individual, one human being, one creature, whose story can inspire many others. Even when outer circumstances and obstacles seem overwhelming, when we go deep within, into the vertical, spiritual dimension of human existence, we can tap the boundless source of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world. 4) Self-transformation is inseparable from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the creative transformation of my own story is inextricably connected with the transformation of others' stories. 5) Even when we face the tragedy of human limitations, not all is lost. In fact, our very human limitations, or own karmic existence, is what enables us to connect with others in deep compassion. 6) That is because, through our inward journeys, we discover that we are really all one body, one true self: All beings are one with me, and therefore, I am moved to become one with all beings. In this way, the formation of my counterstory becomes the fulcrum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Just as Emily's story continues on through her student Abby Diskin, our stories continue on through those we touch, and the stories of others continue on through our own, as they live in our hearts and minds. In that sense, our journeys continue on forever, and ever, and ever. In Buddhism, we call this the journey of the bodhisattva, who vows to bring healing and liberation to all beings in life after life, in the endless cycle of birth and death.

Bibliography

Gholz, Sophia and Kayla Harren. *The Boy Who Grew a Forest: The True Story of Jadav Payeng*. Ann Arbor, Michigan: Sleeping Bear Press, 2019.

The Green Hope Foundation. <https://www.thegreenhopefoundation.org>. Accessed July 28, 2024.

Nelson, Hilde Lindemann. *Damaged Identities, Narrative Repai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Schuelman, Lindsey Jean. “‘We are all’ connected,’ The Wisdom of Jadav Payeng, India’s Forest Man.” May 30, 2024. <https://www.oneearth.org/reforestation-hero-jadav-payeng/>. Accessed July 28, 2024.

세션 5 | 내러티브의 힘 : 이야기를 바꾸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다

서사적 자아: 자아의 변혁과 세계의 변혁 다종교 세계에서 '이야기'

마크 운노
오레곤대학교 교수

서론

하늘이 새에게, 물이 물고기에게 그러하듯, 언어는 인간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인간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기와 물의 흐름을 따르는 새나 물고기와 달리,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통제하려다 스스로 만든 막다른 길에 갇히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이야기들, 즉 우리 스스로를 가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또는 해방될) 수 있을까요?

가장 분명한 답은 이전 이야기의 문제점과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바꾸고, 오래된 관계를 떠나 새 인연을 맺으며, 도시를 옮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이야기 바꾸기'가 쉽게 통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 부르는 거대한 상실과 이별, 깊은 실망을 겪을 때, 혹은 경제적 파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정서적으로 온전히 의존했던 관계의 종말에 직면했을 때가 그러합니다.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나 국가, 심지어 인류라는 종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서사 자체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류라는 종이 '기후 변화'라는 서사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것이 '기후 비상사태'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할 때, 혹은 우리 중 가장 취약하고 무력한 이들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메말라버린 듯한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이 유한한 세상의 한계를 넘어선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원천에서 솟아나, 우리에게 힘과 지혜, 용기와 연민을 길러줄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연민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힘은 우리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리고 우주 그 자체의 심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궁무진한 깊이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즉 각 사람과 우리 인류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각 종교적 수행의 길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힘에 닿아 있습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선을 들처럼, 각 종교가 전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과 어우러지고 결합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로 모일 때 더욱 풍요롭고 충만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항 서사

힐데 린데만 넬슨은 저서 『손상된 정체성, 서사적 복구』에서 사회의 거대 서사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더 진정성 있는 삶을 가능케 하는 '대항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한 병원의 사례를 가정합니다.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려 하지만, 의사와 행정가들이 간호사들의 관점을 저평가하는 바람에 좌절을 겪습니다. 정당한 인정을 받기 위해 간호사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의사와 관리자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집단적인 목소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양과 질(강도) 면에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병원은 마침내 그들의 관점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동력은 바로 생생하고 변혁적인 스토리텔링에서 나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간호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자신들의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 의사, 행정가 등 병원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는 대항 서사가 어떻게 기득권(의사와 행정가)에 의해 지배되던 주류 서사에 저항하고 이를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넬슨은 또 다른 실제 역사적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에 불법 구금되었던 일본계 미국인들을 듭니다. 그들이 수용소의 가혹한 환경을 견디고 살아남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종전 후 석방되어 새로운 삶을 일구기 위해 어떻게 자신들만의 대항 서사를 구축했어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항 서사를 만들기 위해 간호사들과 일본계 미국인들은 자기 정체성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강요된 주류 서사의 부정적인 사회적 길들이기를 극복해야 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기 인식을 왜곡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의식 속에 침투한 주류 서사를 걷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정화는 거짓된 의식과 이를 강요해 온 억압적인 힘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그럴 때만이 비로소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 실천력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체성은 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이를 통해 사람은 '주어진 공동체'에서 '선택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처한 공동체(병원)의 규범과 서사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적 복구'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공동체를 타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넬슨의 병원 간호사 예시에서, 간호사들은 먼저 의사와 관리자들이 은연중에 주입한 '자신들의 지식과 지위가 열등하다'는 인식, 즉 의식에 침투한 제한된 권위와 주체성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단 병원 당국의 가스라이팅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자 그들은 행동할 동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주체가 되어 공통의 명분으로 단결했고, 의사와 관리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넬슨의 대항 서사 프레임워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홀로 남겨지거나 극소수에 불과하여, 사회와 역사의 수평적 차원에서 기울이는 노력만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임계점이나 추진력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가능성은 내면으로 돌이켜 전혀 다른 차원의 힘, 즉 정신적·종교적 깊이의 차원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내면 깊숙이 들어가 정신적 심연을 걸어 올림으로써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이끌어낸 강력한 자기 변화와 사회 변혁의 사례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간디, 마틴 루터 킹, 틱낫한, 그

리고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와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다브 파엥: 숲의 인간

인간은 자신이 동물의 한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동물'이라는 단어를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는 타자(他者)를 묘사할 때만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역시 수천만 종의 생명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은 여러 면에서 독보적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의식을 기술 및 예술과 결합하는 능력은 인류만이 가진 고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한국의 불상, 피카소의 그림과 같은 경이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종은 인류 외에는 없습니다. 일부 동물이 도구를 쓰기도 하지만, 인간이 창조한 스마트폰이나 비행기, 건축물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류만큼 우리가 터전 삼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라는 보금자리에 막대한 파괴를 가져온 종도 없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산불, 태풍과 같은 기상 재앙이 급증하는 데 인류가 일조했으며, 키리바티 같은 섬나라들은 상승하는 해수면 아래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인간의 절제나 적절한 기술만으로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자초한 이 재앙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한 완화책과 대응 전략을 짜내는 것뿐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자다브 파엥은 열여섯 살 무렵, 황량한 마줄리 섬에서 수백 마리의 뱀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황폐한 섬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약속을 지켜온 결과, 오늘날 약 1,400에이커에 달하는 울창한 숲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뱀뿐만 아니라 벵골 호랑이, 인도 코뿔소, 사슴과 토끼가 어우러져 사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유정물(sentient beings), 동식물, 태양과 하늘, 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도 북동부 아삼 지역의 원주민인 그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파고 들어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길러 올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번 ICCGC 컨퍼런스에 함께해주신 케카산 바수 님의 행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년 유엔 교회 센터에서 강연하던 그녀의 모습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곱 살 어린 나이에 플라스틱을 가득 삼킨 채 죽은 작은 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깊은 신앙적 배경을 가진 그녀는 인류가 저지른 생태적 파괴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린 호프 재단'을 설립하여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이웃과 생태계에 물과 의약품, 식량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녀는 교육과 기반 시설, 도구들을 제공하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역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다브 파엥과 케카산 바수의 사례는 대항 서사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현대적인 증거입니다.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이라는 인류 공동의 실패 앞에서, 개인이자 청년인 이들이 세상을 위해 이토록 위대한 성취를 해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의 서사는 종교와 영성이 지닌 경이로운 변혁의 힘을 입증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활동이나 사회적 협력만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들은 내면 깊숙한 곳으로 침잠하여, 인간의 평범한 노력을 압도하는 거대한 실재, 즉 현상계를 넘어선 자연과 우주의 근원에 접속함으로써 영적인 깊이를 길러 올린 것입니다.

에밀리 이야기

제가 깊이 아끼던 에밀리라는 또 다른 젊은이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들처럼, 에밀리 역시 어린

시절 주변의 사회적 불의와 생태계 파괴를 목격하며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칼턴 대학교 재학 시절, 그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집'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삶을 실천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며 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소말리아와 남미 출신의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파리볼트 지역의 스페인어권 수감자들을 돕는 교육 봉사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후 펠로우십을 얻어 온두라스의 여성과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립을 위한 교육과 도구를 지원했으며, 졸업 후에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남미에서 그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칼턴 대학교에서 그녀를 가르칠 당시 그녀는 고작 스무 살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보여준 그 단단한 기품과 지혜, 그리고 깊은 연민의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고귀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녀가 졸업하고 제가 오리건 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우리는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UC 샌디에이고의 라틴아메리카학 박사 과정에 진학했고, 크리스라는 청년과 결혼해 첫 아들 마일스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처음 출전한 전국 시 공모전에서 최종 결선에 오를 만큼 예술적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2012년, 저는 파트너 크리스로부터 에밀리가 위독하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등에 심한 통증을 느꼈던 그녀는 결국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임신 26주까지 버틴 끝에 딸 엘로이즈를 조산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암을 견디며 아이까지 낳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오진 끝에 마침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밀리는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알겠네요." 에밀리의 어머니 린은 말했습니다. "오히려 에밀리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저 '엄마, 전 마음이 평온해요'라고 계속 말해주었죠."

그해 10월, 에밀리가 몹시 아프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편지를 쓰려 했지만, 당시 저는 교수 경력 중 가장 바쁜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에밀리가 고비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크리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묻자 그녀가 제 이름을 말했고, 크리스가 11월 19일에 바로 연락을 준 것입니다. 저는 즉시 샌디에이고행 계획을 세웠지만, 크리스는 다음 항암 치료 후 기력을 회복할 12월 초가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6일, 에밀리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다급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샌디에이고로 날아가 오전 9시 30분에 UCSD 힐크레스트 의료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눈도 감겨 있었지만, 분명 의식이 있었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굽히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 마크야. 내가 여기 있어. 다 괜찮을 거야." 제가 그녀의 발목 지압점을 누르자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얼굴 근육을 움직여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영혼 깊은 곳에서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복을 갖춰 입고, 불교 경전인 일원상 서원문(또는 성주)을 독경하며 짧은 법회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본 가장 경이로운 광경 중 하나였습니다. 몇 달간의 사투로 에밀리의 신체 기능은 멈춰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비록 말 한마디 하기 어렵고 가끔 겨우 반쯤 눈을 뜨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녀는 사랑과 온화한 기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달여 전 조산으로 태어난 아름다운 딸 엘로이즈는 이제 겨우 2.3kg 남짓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기를 에밀리의 얼굴 곁에 뉘어 주었습니다. 남편 크리스와 어머니 린은 에밀리의 손을 여린 엘로이즈의 머리와 몸 위로 조심스레 감싸 쥐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한 생명

은 이제 막 삶으로 피어나고 있었고, 다른 한 생명은 이제 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녀의 심장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엘로이즈가 엄마 곁에 눕자마자 아기의 혈중 산소 농도가 100%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에밀리 역시 딸을 품에 안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어머니의 평온한 심장 박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는 상태에 따라 병동을 여러 번 옮겨야 했지만, 단순히 담당 간호사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거쳐 간 간호사들이 다음 병동으로, 또 그다음 병동으로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오면서 진정한 의미의 '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도착한 날에도 네 명의 간호사가 찾아와,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에밀리를 향한 지극한 애정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를 면회하려는 친구와 가족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불과 몇 마일 거리였는데, 그곳에선 참으로 보기 드문 광경이 반복되었습니다. 면회를 마친 이가 떠나며 에밀리의 남은 혼다 시빅 승용차를 공항 주차장에 세워두면, 새로 도착한 이가 그 차를 넘겨받아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송고한 현대판 순례처럼 보였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 린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아이였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잠 자는 시간조차 아까워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요." 에밀리의 아버지는 서른네 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에밀리 역시 그와 같은 나이에 생사의 위대한 전환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법회를 위해 다시 한번 가사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경전인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했습니다. 제가 독경을 리드하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힘과 참된 울림, 즉 '하나 됨의 소리 없는 목소리'는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밀리의 위대한 성품으로부터, 그리고 우주 그 자체의 심장으로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경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박자와 어조를 세우려 하기보다, 그 순간의 흐름이 리듬을 결정해주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에밀리의 마음,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주가 내는 고른 심장 박동처럼, 사랑과 연민이 담긴 선율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독경이 끝날 무렵 우리 모두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깊고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숭고한 사랑과 연민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었으며, 거대한 상실과 이별 앞에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몸을 굽히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정말 많은 일을 해냈고, 많은 것을 베풀었으며,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어요. 60년, 70년, 아니 80년을 산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어요. 당신이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 마저 끝내고 싶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걸 잘 알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느끼고 미처 다하지 못한 인연들이 있다고 느끼는 건, 당신이 지극히 인간답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못다 한 일은 남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무한한 연민의 고리(일원상) 안에서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랍니다."

"에밀리, 당신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정말 많은 것어요.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그 고귀한 마음은 이미 크리스와 어머니 린, 마일스와 엘로이즈,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온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 바로 '사랑'을 전부 주었으니까요. 크리스와 린, 마일스와 엘로이즈,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제 당신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머물든, 우리는 이 깊고 광대한 자비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이 보든 못 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이 무한한 자비의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으며 영원토록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에밀리, 당신이 행한 모든 일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깊이 감사합니다. 미처 다하지 못한 일들조차 고맙습니다. 그것 또한 업(業)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다움의 일부니까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한한 자비의 거대한 빛의 바다(대광명) 속으로 환히 비치고, 감싸 안기며, 마침내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온전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경이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며칠 후, 제자 애비 디스킨이 에밀리를 보기 위해 도착했지만, 에밀리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생사의 전환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애비는 병실에서 에밀리의 현존을 느꼈고, 에밀리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진으로 돌아온 제게 애비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은 제가 샌디에이고에 간 걸 분명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최근 제 꿈에 나타나 정말 생생하고 또렷한 대화를 나눴거든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잘 있는지 물으셨고, 저는 아이들이 사랑 속에 잘 보살펴지고 있으니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는 듯,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고통이 너무나 컸다고, 정말 많이 아팠다고요. 꿈속에서 저는 높은 사암 절벽 위에서 있었고, 선생님의 얼굴은 평소 좋아하시던 하이킹 코스인 토리 파인즈 보호구역의 바다 위 하늘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선생님은 '어차피 실내에서 글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했잖니'라고 웃으시며, 이제는 완전한 창조적 자유 속에서 언제나 자연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마치 신성한 존재 같았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그 장면과 목소리가 생생해요. 선생님은 제 삶에 아주 고귀한 목적을 위해 오셨던 것 같아요. 교실을 넘어 삶과 죽음 모두에서 여전히 저의 스승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애비는 이 꿈을 이야기할 때, 에밀리가 실제로 가족들에게 "고통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기 힘들 것 같다"고 유언처럼 남겼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녀를 알고 사랑했던 이들의 삶 속에 눈부신 현존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에밀리의 이야기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1) 우리 각자의 삶은 그 기간이 짧은 길든, 길모습이 작든 웅대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의 경이로운 서사를 이룹니다. 2) 우리는 타인의 삶,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서로 연결됨으로써 변화합니다. 3) 한 개인, 한 인간, 혹은 단 하나의 생명체가 지닌 이야기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상황과 장애물이 압도적일지라도, 우리 존재의 수직적이고 영적인 심연으로 깊이 들어가면, 세상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무한한 원천에 닿을 수 있습니다. 4) 자기 변혁은 세상의 변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은 타인의 서사가 변화하는 과정과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5) 인간적 한계라는 비극에 직면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한한 한계와 업(業)적 존재성이야말로, 깊은 연민 속에서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6) 내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실상 하나의 몸, 하나의 참된 자아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저와 한 몸이며, 그렇기에 저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깊은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만의 대항 서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중심축이 됩니다. 에밀리의 이야기가 그녀의 제자 애비 디스킨을 통해 계속 이어지듯,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 닿는 인연들

을 통해 이어집니다. 또한 타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 숨 쉬며 우리 자신의 서사를 통해 계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여정은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살의 여정'이라 부릅니다. 보살은 나고 죽는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생생세세(生生世世) 모든 존재에게 치유와 해탈을 가져다주겠노라 서원하는 존재입니다.

참고문헌

골츠, 소피아 및 카일라 하렌. 『숲을 만든 소년: 자다브 파엥의 실화』. 미시간주 앤아버: 슬리핑 베어 출판부, 2019.

그린 호프 재단(The Green Hope Foundation). <https://www.thegreenhopefoundation.org>. Accessed July 28, 2024.

넬슨, 힐데 린데만. 『손상된 정체성, 서사적 복구』. 뉴욕주 이타카: 코넬 대학교 출판부, 2001.

슈먼, 린지 진.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인도의 숲지기 자다브 파엥의 지혜.” 2024년 5월 30일. 2024년 7월 28일 접속.

Panel Session 5 | The Power of Narrative: Changing Stories, Shaping a Hopeful Future

Affirming our common humanity defeats destructive narratives

Dr. Carolyn Medine

Professor, University of Georgia

When we fall into a world of story, we gather together.

We suspend disbelief and pay attention.

We engage in deep listening, which composer Pauline Oliveros calls an interreligious practice — to the storyteller and to each other.

For a time, we may enter another rhythm, another sound, and center, and displace our own presuppositions.

My mentor, the late Robert Detweiler, argued that participation in the power of story — from fiction to testimony — can develop in us a condition of acceptance.

This acceptance lets us move through life without demanding that things be the way we want them to be.

As a human being with others, I can suspend the need to make my private meaning the only meaning.

This, Detweiler argued, opens a form of sociability that makes possible an expansive understanding of myself through exposure to the possibility of difference.

When we leave the enchanted story realm, perhaps we go back to our real worlds with what J. R. R. Tolkien called a baptized imagination — one that sees the world differently, that might carry a trace of nirvana or of the kingdom of God.

Such an imagination better equips us to hear and to understand ourselves in relationship to others.

Story provides, in our modern world, a possibility for community and for peacebuilding.

Human beings, I think, are hungry for story.

So I want to think about the place of storytelling in peacebuilding, and how that possibility seems to be in danger.

I fear that the capabilities storytelling builds — like deep listening, the articulation of our values through metaphor, engagement with others and with our own symbolic worlds, the ability to be in the same place with those we think of as enemy, and the capacity for critical questioning of our ideologies — are not well cultivated anymore.

Story is used dangerously in our time, in nationalist narratives, for example, in which religious and national stories become frightening in a world led by strongmen who are encouraged in violence.

Storytelling has been considered extensively as a key element in peacebuilding efforts.

As John Paul Lederach, perhaps the leading voice in narrative and peacemaking, argues, participation in our own and in others' stories helps us to develop a moral imagination.

This involves, and I'm quoting, "the capacity to imagine ourselves in a web of relationships that includes our enemies; the ability to sustain a paradoxical curiosity that embraces complexity without reliance on dualistic polarity; the fundamental belief in and the pursuit of the creative act; and the acceptance of the inherent risk of stepping into the mystery of the unknown that lies beyond the far too familiar frontier landscape of violence."

Story is under stress in modernity, which seems to be governed by what bell hooks recognized as interlocking systems of transnational — as she called it — imperialist, white-supremacist, capitalist patriarchy.

Its legitimating metanarratives distort traditional religious and national narratives for the sake of power.

This allows atrocity perpetrators to use story to form collective identities that dehumanize targeted groups — groups they fear — and it allows them to justify collective self-defense or preemptive attack.

We, as individuals, also seek out our own information and interpret it in ways that reinforce our existing views while ignoring any contradictory evidence.

I mean, if you are on Facebook or any other social network platform,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We use the web, as one scholar put it, as a kind of dopamine that makes us feel good.

In both the local and the global, such cultural and political tribalism around stories has us devouring each other instead of building compassion and community.

It seems that we are creating minds of cruelty that can block out, or even create disdain for, the stories of suffering others.

We are, in America at least, fearful — and therefore potentially cruel.

We live in an atmosphere of ambient fear that captures and reconfigures our everyday consciousness.

We become passive, waiting for the strongman leader to name what we should fear.

We enjoy the bread and the circuses.

In a recent Commonweal article, Father Antonio Spadaro expressed well how our president in America is a kind of poet of the pre-rational, acting on the collective imagination.

Father Spadaro writes, "If Trump's form is poetry, his content is myth."

It is a messianic discourse that operates through the spoken word and ritualized sacredness.

He builds total visions.

Words like always, never, and total disaster are not just descriptive; they are dogmatic — functioning as media-age liturgy.

When fear is mobilized and directed in this way, we become devoid of compassion and concern for

human dignity.

We fail on moral grounds.

We direct our attention at the one we think of as the cause of our condition.

In America right now, there are many such targets, but one, of course, is the immigrant.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we articulate and participate in stories that pit good against evil — stories filled with corrosive elements like resentment, desire for revenge, or hatred — but also love, and the desire to protect our home, our neighbors, our way of life.

All these emotions become focused on those we name as the enemy — for example, the immigrant.

By doing this, we lose the capacity to care for the other.

And even when we feel empathy, as Paul Slovic suggests, particularly when we witness suffering in the media, we are not really moved to put our stories in relationship to other stories.

Indeed, empathy — which can be just an emotion — is not like compassion (*karuṇā*) and love (*caritas*), which rightly lived, move us into active practices through which we direct our emotions toward developing ethical works.

Through such practice, we learn to respond quickly and appropriately to signs of suffering.

We come, in practice, I hope, to be able to tell our own stories and live our own stories in relationship to the stories of others.

We acknowledge that interdependence — that, as Martin Buber argued, presents a direct meeting that is not mediated by systems of ideas or foreknowledge or fantasy.

A meeting in which definitions and systems collapse in presence — which, for him, constitutes all real living.

Story brings us into presence, into a present moment, focusing and binding us.

Karl Alverson suggests that the sticky, durable story — as he calls it — is a force that has kept us alive.

Engaging story together, even watching a movie together, synchronizes our brains, potentially leading us to create new narratives out of our engagement with symbols — narratives that help us imagine viable, sustainable futures.

This is not easy.

We in the modern world negotiate difference all the time.

And we encounter, in the face of the other — and sometimes, I think, in our own faces — both commonality and radical dissymmetry.

Turning toward, rather than away from, the other is difficult.

But taking the risk to engage the other can facilitate a movement toward each other — an opening, a split that Levinas called an overture.

And I love that word.

It's like the beginning of a symphony that might lead us toward a beautiful hospitality.

In this opening, perhaps we can acknowledge as valid and useful the stories of other people.

Recognizing that we are all pilgrims on this earth, we — as we tell our stories to those we meet — could

become at least allies, and maybe even friends.

The acknowledgment of our common humanity, leading us to create counter-poetics or counter-narratives to those of destruction, could bind us together in solidarity – for coalition building, for sustainable living, for all.

In story, perhaps, even when we cannot always agree on all the details, we can come to agree on the significance of what is at stake – right here, right now – and imagine together the work that we must do within this common mortal life.

Thank you.

세션 5 | 내러티브의 힘 : 이야기를 바꾸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다

공통된 인류애를 확인하는 것이 파괴적인 서사를 이긴다

캐롤린 메딘
조지아대학교 교수

우리가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 때, 우리는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는 불신을 거두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합니다.

작곡가 폴린 올리베로스가 '종교 간의 수행'이라 일컬었던 '깊은 경청'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꾼과 서로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평소와 다른 리듬과 소리, 그리고 중심 속으로 들어가 우리만의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스승이셨던 고(故) 로버트 뎃와일러는 소설부터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수용'의 상태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고도 삶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저는 나만의 사적인 의미만이 유일한 의미여야 한다는 욕구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뎃와일러는 이것이 타자와의 다름에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사교성'을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법 같은 이야기의 영역을 떠날 때, 아마도 우리는 J. R. R. 톨킨이 말한 '세례받은 상상력'을 품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며, 열반이나 하느님 나라의 흔적을 간직한 상상력입니다. 그러한 상상력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란 공동체 형성과 평화 구축을 위한 소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야기에 굶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구축에 있어 스토리텔링이 차지하는 자리와, 그 가능성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스토리텔링이 길러주는 역량들이 더 이상 제대로 함양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는 타당해 보입니다. 즉, 깊은 경청, 은유를 통한 가치관의 표현, 타자 및 내면의 상징 세계와의 소통, 적이라 여기는 이들과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역량들 말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는 위험하게 오용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민족주의적 서사 속에서 종교적·국가적 이야기가 폭력을 부추기는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과 결합할 때, 그것은 공포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은 오랫동안 평화 구축 노력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내러티브와 화해 분야의 석학인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이 주장하듯, 자신과 타인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레더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다음과 같은 역량을 의미합니다. "적까지도 포함하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분법적 대립에 의존하지 않고 복잡성을 포용하는 역설적인 호기심을 유지하는 힘, 창조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추구,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

진 폭력의 접경 지대를 넘어 그 너머에 존재하는 미지의 신비 속으로 발을 내딛는 내재적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벨 훅스(bell hooks)가 간파했듯, 서로 얽혀 있는 초국가적 체제—즉 제국주의·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거대 서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종교적·국가적 서사를 왜곡합니다. 이로 인해 잔혹 행위의 가해자들은 이야기를 악용하여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표적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집단적 자기방어나 선제공격을 정당화합니다.

개인들 역시 자신의 기존 견해를 강화하는 정보만을 찾아 해석하고,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곤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 플랫폼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웹은 일종의 기본 좋게 만드는 도파민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이야기를 둘러싼 이러한 문화적·정치적 부족주의는 연민과 공동체를 쌓는 대신 서로를 집어삼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타인의 이야기를 차단하거나,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하는 잔혹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는 듯합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로 인해 잠재적으로 잔인해집니다. 우리는 일상의 의식을 포섭하고 재구성하는 만연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변해, 독재적 지도자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지목해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빵과 서커스'를 즐깁니다.

최근 잡지 커먼웰(Commonweal)의 기사에서 안토니오 스파다로(Antonio Spadaro) 신부는 미국의 대통령이 집단적 상상력에 작용하는, 일종의 '전(前)이성적 시인(poet of the pre-rational)'과 같다고 잘 표현했습니다. 스파다로 신부는 "트럼프의 형식이 시라면, 그 내용은 신화다"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구어와 의례화된 신성함을 통해 작동하는 메시아적 담론입니다. 그는 총체적인 비전을 구축합니다. '항상', '절대', '완전한 재앙'과 같은 단어들은 단순히 묘사적인 것이 아니라 교조적이며, 미디어 시대의 전례로서 기능합니다.

두려움이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고 유도될 때, 우리는 연민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 실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처하게 한 상황의 원인이라고 믿는 특정 대상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현재 미국에는 그러한 표적이 여럿 있지만, 그중 하나는 단연 이민자입니다.

특히 우리가 선과 악을 대립시키는 이야기—원한, 복수심, 증오와 같은 부식성 요소뿐만 아니라, 고향과 이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사랑과 열망이 뒤섞인 이야기—에 참여하고 이를 표출할 때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적으로 규정한 대상, 즉 이민자에게 집중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심리학자 폴 슬로빅(Paul Slovic)이 지적했듯이,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며 공감을 느낄 때조차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의 이야기와 연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실, 단순한 감정에 머물 수 있는 '공감'은 자비(karuṇā, 카루나)나 사랑(caritas, 카리타스)과는 다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비와 사랑은 우리를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끌어, 우리의 감정을 윤리적 과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고 유도될 때, 우리는 연민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 실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처하게 한 상황의 원인이라고 믿는 특정 대상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현재 미국에

는 그러한 표적이 여럿 있지만, 그중 하나는 단연 이민자입니다.

특히 우리가 선과 악을 대립시키는 이야기—원한, 복수심, 증오와 같은 부식성 요소뿐만 아니라, 고향과 이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사랑과 열망이 뒤섞인 이야기—에 참여하고 이를 표출할 때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적으로 규정한 대상, 즉 이민자에게 집중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심리학자 폴 슬로빅(Paul Slovic)이 지적했듯이,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며 공감을 느낄 때조차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의 이야기와 연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실, 단순한 감정에 머물 수 있는 '공감'은 자비(karunā, 카루나)나 사랑(caritas, 카리타스)과는 다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비와 사랑은 우리를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끌어, 우리의 감정을 윤리적 과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와 관계를 맺으며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호의존성을 인정합니다. 이는 마틴 부버(Martin Buber)가 주장했듯, 어떠한 관념 체계나 예단, 혹은 환상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직접적인 만남'을 제시합니다. 정의와 체계가 현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만남, 부버에게 있어 모든 진정한 삶을 구성하는 바로 그 만남 말입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현존으로, 즉 현재의 순간으로 이끌어 우리를 집중시키고 하나로 묶어줍니다. 칼 알버슨(Karl Alverson)은 소위 '끈기 있고 지속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생존하게 한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 심지어 영화를 함께 보는 것조차 우리의 뇌를 동기화하며, 상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서사를 창조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서사는 우리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차이'를 협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얼굴에서도 공통점과 더불어 근본적인 비대칭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관계 맺는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서곡'이라 불렀던 그 '열림'이자 '틈' 말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름다운 환대로 이끌어 줄 교향곡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이 열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이야기가 지닌 타당성과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의 순례자임을 깨닫고 만나는 이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는 적어도 동맹이,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인류애를 확인하는 것은 파괴적인 서사들에 맞서는 '대항 시학(counter-poetics)' 혹은* '대항 서사'를 창조하도록 이끕니다. 이는 연대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강력한 결속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 안에서라면, 비록 모든 세부 사항에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여기' 우리에게 무엇이 그토록 절실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뜻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짧고도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할 일들을 기꺼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anel Session 5 | The Power of Narrative: Changing Stories, Shaping a Hopeful Future

From victims of structural inequality to leaders of peace

Rev. Dr. Grace Song

Professor, 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Thank you.

So, Won Buddhism was born from a vision that dared to challenge entrenched social norms. Its founder, Sot'aesan, named gender equality as a core principle of the new religious order – a striking declaration in early 20th-century Korea. Yet the lived experiences of women in Won Buddhism reveal a more complex reality. Patriarchal customs, cultural legacies, and institutional inertia have often stood in the way of fully realizing Sot'aesan's vision.

This is why women's voices matter – not as side notes in history, but as essential correctives. Their stories reveal the gap between principle and practice, and carry the spiritual insight needed for transformation. In this light, storytelling is more than remembrance. It is an act of reimagining and of making that vision a lived reality. My presentation examines the tension between doctrinal ideal and lived reality, and shows how women's stories bridge the two. These stories preserve the real history of One Buddhist women – their struggles, their strategies, and their resilience.

I remember visiting Korea as a child. My parents would bring my sister and me every summer. And it was there that I would always complain to my dad, saying, “Why aren't you taking us to Disney World?” He would reply, “Nope, we're going to a Won Buddhist training!” At that time, I met many of the kyomonims, especially the women – the ones wearing the clergy habit, the traditional Korean dress with the crisp white top and the long black skirt, their hair neatly pulled back into a low bun. They never seemed to be in the background to me as a young child. They always stood up front, speaking with powerful voices, greeting others, and radiating warmth.

What stayed with me as a young girl was their quiet confidence, their kindness, and the respect they commanded from those around them.

On one trip, we visited Wonkwang University – our seminary in southwest Korea – and the president at that time was Venerable Chō Taun.

She invited our family to lunch, and I still recall the sense of awe I felt.

I wasn't focused on her exact words: I was watching the way she moved, the way she spoke, the effortless authority and presence she carried.

From an early age, I understood something important – that women in Won Buddhism were not to be underestimated.

Years later, I would come to understand why.

Sot'aesan, from the very beginning, had addressed gender inequality head-on.

In 1929, he said, “Who else besides women is without basic rights and freedoms? In this way, women were not able to enact filial piety, no matter how much they respected their parents. They were discriminated against even by the children close to their hearts. Where else could there be such people without rights and freedoms?”

For Sot'aesan, this was not simply a matter of individual injustice – it was a societal wound, an inefficiency that harmed everyone.

He compared it to a stone that could be lifted by ten people being lifted only by five.

He insisted that when half the population is excluded from full participation, the entire community, the entire nation, suffers.

During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n women lived under a deeply entrenched Confucian patriarchal system that severely limited their rights, opportunities, and mobility.

Most were denied formal education, excluded from property ownership and inheritance, and bound to rigid gender roles defined by the “three obediences” – to father before marriage, to husband after marriage, and to sons in widowhood.

Within this context, Sot'aesan's advocacy for equal rights for men and women was radical.

He challenged long-standing customs by insisting that women be granted the same rights, duties, and opportunities as men.

He opened unprecedented paths for women to become spiritual leaders, and this principle became enshrined as one of One Buddhism's Four Essentials – originally, the “Equal Rights for Men and Women.”

Sot'aesan's vision went beyond statements of principle.

He created structural reforms to embody it.

One of the most groundbreaking was the opening of the Kyomu path – the ordination path for spiritual leaders and preachers.

Women received the same training as men.

Unlike in most religious traditions of the time, female clergy in Won Buddhism were not required to marry.

They could lead congregations, manage temples, and represent the order publicly.

As one female kyomu later recalled in an interview:

“I came to this community to learn reading and writing in Korean, and to open my eyes to what was possible for women. When I came to this community, Sot’aesan gave me a Dharma name. I was so happy when I had my own name and identity. At that time, I did not even dare to think about becoming a minister or attaining enlightenment. But as I continued to live in this nurturing community, my dream grew, and I wanted to become a living Buddha.”

You can imagine that in rural southwest Korea, many women — and even men — were illiterate. So when an enlightened teacher told them, “You can attain Buddhahood because you have the same original nature as the Buddha, the same original nature as Sot’aesan,” this was groundbreaking.

Another female disciple said, “Now I realize why Sot’aesan was so dedicated to educating women and enlightening the public on matters of equality. Equality will never become actualized without an enlightenment movement.”

Sot’aesan channeled the strength of the community toward a new way of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While many women spoke glowingly of Sot’aesan’s gender equality movement and praised his unwavering commitment, some also acknowledged the challenges they faced from their male fellow practitioners. Despite their teacher’s progressive stance, many men in the order, still deeply shaped by patriarchal values, were reluctant to accept women as equal partners.

One female devotee recalled, “Many men in the order were upset with the recommendation of gender equality. They contended that women should not have full freedom. If women get freedom,” they said, “they will ignore men and dominate over them.”

The men in the order insisted that women must have limitations in their activities.

Men and women in the order fought day after day in the beginning of our community life.

Through these stories, we glimpse the backstory — the parts we don’t usually hear.

Another female devotee added, “We had to struggle with our male counterparts’ prejudice. They said women were born weak, inferior, and incapable of certain work. They laughed at us and discouraged us when we struggled with hand wagons carrying heavy loads. We even carried an A-frame on our backs, which was a typical men’s tool. It was heavy and difficult, but I was determined to learn everything. Our commitment and determination were essential to our success.”

While the One Buddhist canon promised full equality, the lived reality could be uneven.

Women sometimes held leadership positions in name but lacked real decision-making authority.

This is why it is essential to turn to the stories of women in the community — this is where the real history lives.

And this is where I learned about another side of One Buddhism, especially in its formative years.

For the women who joined Won Buddhism at that time, gender equality was not a gift freely given.

It was a hard-won achievement.

One pivotal yet little-known chapter illustrates this vividly – the 1954 hunger strike known as the “Soil Rain Event.”

This landmark moment in the history of Won Buddhism not only advanced gender equality within the community but also showcased the power of women’s solidarity.

The Soil Rain Event unfolded in April 1954 during an annual conference at the One Buddhist headquarters – the same place many of you visited this morning in Iksan.

As ordained devotees from local temples gathered, the women leaders began conversations about recent incidents of inequality.

They soon called all clergywomen to join a demonstration, and their call was met with unanimous support.

Every ordained woman participated in the hunger strike.

One disciple later recalled, “When I arrived at headquarters for the conference, I listened to the senior women leaders and agreed to join the strike. We did not eat at all for two days. The demonstration continued for five days, from April 27 to May 1, 1954.”

Another participant recounted, “During the hunger strike – which came to be known as the Soil Rain Event – something unusual happened. On the second day of our strike, it began to pour a heavy rain mixed with soil. I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before. The rainwater collected in the large jar in front of the building was thick with soil, and the sky remained dark the entire day. We decided to call our demonstration the Soil Rain Event.”

As a result of the event, many changes took place.

One female devotee recalled, “We experienced profound changes in our perspective. The event heightened our awareness of biases – both our own and those of our male counterparts. At the same time, many male leaders also began to acknowledge and reflect on their own patriarchal biases.”

So, as I reflect on the histories and stories shared today, I return to that early memory of visiting Korea as a child.

Seeing the women kyomunims standing at the front, their voices clear and strong – at the time, I did not know the full history that had shaped them.

I did not know about the debates they had endured, the heavy loads they had carried, both literal and figurative, or the collective action they had taken to defend their rightful place in the community.

What I saw then as confidence was, in fact, the fruit of decades of determination and solidarity.

The women I met were living embodiments of the founder’s vision.

In One Buddhism, storytelling is one of the ways we carry this work forward.

It is how we honor those who cleared the path before us, and how we inspire those who will walk it after us.

So today, another young girl may look upon these women — as I once did — with admiration, curiosity, and the quiet certainty that she too belongs in the front, shaping the future of her community.
Thank you.

세션 5 | 내러티브의 힘 : 이야기를 바꾸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다

구조적 불평등의 피해자에서 평화의 리더로

송상진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감사합니다.

원불교는 기존의 뿌리 깊은 사회적 규범에 과감히 도전하는 비전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는 성평등을 새 교단의 핵심 원칙으로 천명했는데, 이는 20세기 초 한국 사회에서 실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불교 여성들이 몸소 겪어온 삶의 궤적은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적 유산, 그리고 제도적 관성은 소태산의 비전을 온전히 구현하는 데 종종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역사의 부차적인 기록이 아니라, 원불교의 본모습을 찾아가는 필수적인 교정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원칙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동시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영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추억 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비전을 재해석하고, 그 비전을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교리적 이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펴보고, 여성들의 서사가 어떻게 그 간극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는 원불교 여성들의 투쟁과 전략,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담긴 진정한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매년 여름이면 저와 언니를 데리고 한국에 가셨죠.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아빠, 왜 우리는 디즈니월드에도 안 가요?"라며 투덜대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안 돼, 우리는 원불교 훈련(수행)에 갈 거란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교무님, 특히 여성 교무님들을 만났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로 된 정갈한 수도복(한복)을 입고, 머리를 낮게 뒤로 넘겨 단정하게 쪽을 지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 그분들은 결코 보이지 않는 배경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당당히 앞에 서서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환대하며 따뜻한 기운을 뿜어내셨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제 기억에 깊이 남은 것은 그분들의 조용한 자신감과 친절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 남서부에 위치한 우리 교단의 서원관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총장님은 그분은 저희 가족을 점심 식사에 초대해 주셨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경외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린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보다는, 그분의 몸짓과 말투, 그리고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권위와 존재감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원불교의 여성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수년이 흐른 뒤에야, 저는 비로소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교단 창립 초기부터 성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1929년, 그는 이렇게 설법했습니다. “여성들 외에 또 누가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가? 이토록 부당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부모를 아무리 공경해도 효를 온전히 실천할 길이 없다. 심지어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조차 차별을 받는다. 이 세상 어디에 이처럼 권리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또 있겠는가?”

소태산 대종사에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사회적 상처'이자 '비효율'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를 '열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을 다섯 사람이 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사회 참여에서 배제될 때 공동체와 국가 전체가 고통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국 여성들은 권리와 기회,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 살았습니다. 대부분 정규 교육에서 소외되었고, 재산권과 상속권이 없었으며,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사별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의 엄격한 성 역할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소태산 대종사가 주창한 남녀권리동등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뿌리 깊은 관습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여성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길을 열었으며, 이 원칙은 원불교의 핵심 교리인 '사요(四要, Four Essentials)' 중 하나인 '남녀권리동등'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비전은 단순한 원칙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조치 중 하나는 영적 지도자이자 교화자인 '교무'의 길을 여성들에게 전면 개방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 전통과는 대조적으로, 원불교의 여성 교무들에게는 결혼의 의무가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당을 책임지고, 신도들을 이끌며, 대외적으로 교단을 대표하는 당당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 여성 교무님은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 눈을 뜨기 위해 이 공동체에 왔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게 법명을 주셨을 때, 나만의 이름과 정체성을 갖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시에는 감히 교무가 되거나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애로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저의 꿈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살아있는 부처(산부처)'가 되고 싶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남서부의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여성은 물론, 남성들조차 글을 깨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깨달은 스승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부처와 똑같은 본래 성품을 가졌고, 나 소태산과도 똑같은 본성을 지녔기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실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여성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왜 그토록 여성 교육과 평등에 관한 대중의 인식 개선에 헌신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깨어남의 운동 없이는 평등은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남녀 관계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여성이 소태산 대종사의 성평등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분의 변함없는 헌신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일부는 남성 동료 수행자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스승의 진보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관에 깊이 젖어 있던 교단의 많은 남성은 여성을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를 꺼렸습니다.

한 여성 신도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교단의 많은 남성이 성평등 권고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만약 여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 남성들을 무시하고 지배하려 들 것’이라며 말입니다.” 교단 내 남성들은 여성의 활동에 반드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공동체 생활 초기에는 남녀 수행자들 사이에 날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평소 접하기 힘든 '숨겨진 뒷이야기'를 엿보게 됩니다. 또 다른 여성 신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남성 동료들의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본래 약하고 열등하며, 특정한 일들은 해낼 능력이 없다고 치부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실은 손수레를 끌며 고군분투할 때,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사기를 꺾어 놓기도 했죠. 심지어 우리는 전형적인 남성의 도구였던 지게를 등에 지고 날라야 했습니다. 무겁고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배우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헌신과 결단력이야말로 교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원불교의 교전은 완전한 평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삶의 현상은 이처럼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명목상의 지도자 직함을 가졌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역사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원불교의 또 다른 면모, 특히 교단 형성기의 역동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불교에 입문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은 거저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투쟁 끝에 쟁취해 낸 성취였습니다. 원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건이 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1954년, ‘토우(土雨) 사건’이라 불리는 단식 투쟁입니다.

원불교사의 이 획기적인 순간은 교단 내 성평등을 진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 연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토우 사건은 1954년 4월,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연례 회의 중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방문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각 지역 교당의 교무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여성 지도자들은 최근 발생한 불평등 사례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여성 교무에게 집단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고, 이 부름에 모두가 만장일치로 응답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현장의 모든 여성 교무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 제자는 훗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의를 위해 총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선배 여성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단식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틀간 완전히 금식했습니다. 이 시위는 1954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렇게 술회했습니다. “훗날 ‘토우 사건’으로 알려지게 된 이 단식 투쟁 중에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식 둘째 날, 흙 섞인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물 앞 커다란 항아리에 고인 빗물은 흙탕물처럼 걸쭉했고, 하늘은 온종일 어두컴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위를 ‘토우 사건’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단 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 수행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남성 동료들이 지닌 편견에 대해서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남성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의 가부장적 편견을 인정하고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역사와 이야기들을 되짚어보며, 저는 다시 어린 시절 한국을 방문했던 그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교단의 맨 앞줄에 서서 맑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시던 여성 교무님들을 보았을 때, 당시의 저는 그분들을 만든 그 긴 역사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견뎌내야 했던 수많은 논쟁과,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떨치고 일어났던 그 집단적인 행동들에 대해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가 보았던 그 당당한 자신감은 사실 수십 년에 걸친 굳은 결의와 연대가 맺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그 여성 교무님들은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비전을 삶으로 증명해 낸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원불교에서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이 소중한 사업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험난한 길을 닦아주신 선진님들을 기리는 방식이며, 동시에 우리 뒤를 이어 그 길을 걸어갈 후진들에게 영감을 주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다른 어린 소녀가—과거의 제가 그랬던 것처럼—이 여성들을 우러러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존경과 호기심을 가득 담아, 그리고 자신 또한 교단의 맨 앞줄에 서서 공동체의 미래를 일궈나갈 당당한 주역이라는 고요한 확신을 품은 채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Role of Religion in the AI Age

Dr. Jisue Lee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Today's topic is 'Reflecting on Messages of Conflict and Peace through the Collective Memory of Koreans over the Past 100 Years.' I would like to present several defining images of conflict from the past century?images that immediately come to mind for any Korean upon hearing these historical terms: First,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War of Independence; Second, the June 25th Korean War; And third,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Finally, we look to Seoul Plaza, a symbolic site where intense conflicts surfaced during the 2000s.

Today, however, that same plaza has become a space where we collectively remember and witness the profound process of healing those very conflicts. Research on war memory indicates that our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underwent a significant shift during the 1980s and 90s, as diverse records?particularly photographs?became accessible through foreign sources. The approach evolved from merely antagonizing the enemy to humanizing collective trauma by giving voice to individual personal histories.

While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have persisted since liberation and the armistice, we cannot overlook the profound impact that the Saemaul Movement has had on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The 1988 Seoul Olympics fostered a newfound awaren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principles of global citizenship etiquette. Later, amidst the social turmoil of the IMF Financial Crisis, the 'Gold Collecting Campaign' served as a moment to reaffirm our national identity, ultimately fueling the continued 'Miracle on the Han River. Throughout this entire journey, the role of religion has been deeply intertwined.

We can find historical records of active participation by Protestantism, Catholicism, Buddhism, and Cheondogyo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Religious institutions, particularly Protestant and Catholic churches, also played pivotal roles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following decad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became personified by iconic sites such as Myeongdong Cathedral and the temples of the Jogye Order.

Korea has inscribed 20 items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mong these, there are records specifically addressing themes of conflict (4), peace (3), and religion (2). Among these records is the KBS special live broadcast, 'Finding Dispersed Families,' which documented the heart-wrenching reunions of separated kin. This broadcast played a monumental role in healing the deep-seated wounds of those families. Furthermore, we have developed a unique way of remembering past conflicts, particularly the Korean War: the transformation of former 'security tourism' sites into hubs for peace and eco-tourism.

Before the 2000s, collective memory was often a top-down process?produced by some and accepted by others. Today, however, we live in an era where producers and consumers share and co-create memory. In this age of diverse memory-making, how will the role of religion be remembered? As we face the challenges of sustainability and human coexistence, discussing Global Leadership through the lens of religion is profoundly meaningful.

While identity was once formed within one or two rigid groups, we now navigate multi-layered citizenship. In the age of AI, if religion is to advocate for human coexistence, spirituality must be at its core. This is why our spirituality must remain healthy and oriented toward peace.

세션 5 | 내러티브의 힘 : 이야기를 바꾸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다

AI 시대의 종교의 역할

이지수

원광대학교 연구교수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지난 100년 간의 한국인의 집단기억을 통해 갈등과 평화의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이야기를 갈등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인이라면 단어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과 독립전쟁, 6.25 한국전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갈등이 표출되는 서울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광장에서 우리가 그 갈등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다룬 연구물을 살펴보면 1980에서 90년대를 거치며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자료, 특히 사진을 타국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전쟁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쟁의 상대를 적대시화 하던 것에서 집단적 상처를 개인사로 구체화하기도 합니다.

광복과 휴전 이후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새마을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88 올림픽을 통해 국제화라는 인식, 글로벌시민에티켓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IMF라는 단어가 가져온 사회 혼돈 속에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시기에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천도교 등의 활동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기독교, 천주교의 역할이 매우 컸구요. 이후 '민주화운동과 종교'라고 하면 명동성당과 조계종 사찰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제기록유산센터에 한국은 20개 기록물을 등재했습니다. 그중에서 갈등(4)과 평화(3), 종교(2)를 다룬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생중계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생방송은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갈등, 특히 6.25 전쟁을 기억하는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안보관광지가 평화생태관광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집단기억을 생산하는 측과 수용해야 했었다면, 이제는 기억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고, 다시 소비자가 다시 생산자로 전환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집단기억의 형성 방식이 다양해진 시기에 종교의 역할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인류의 공존을 해결해야 하는 이 시기에,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개인의 정체성은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한두 개의 집단 속에서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다층적 시민성이 요구하듯이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그렇기에 집단의 기억, 대중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종교가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한다면 그 핵심에 바로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성이 건강하고 평화 로움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시민 정상회담
Global Citizens Summit

**Global Citizens First:
Leading with Values, Acting for Humanity**

Moderator: Dr. Utak Chung

Senior Advisor,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Good afternoon.

This is a great honor for me.

I have to confess why I am on this stage.

Maybe you have a lot of questions about why Mr. Zhang is standing at the front podium.

It all started with UNESCO.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I joine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fter that, I had the experience of working in UNESCO Paris, and then in Bangkok.

Finally, my last position was as the Director of the UNESCO Office in Seoul.

So, for almost 36 years – a long time – I worked in the UNESCO community.

UNESCO became my own identity.

During that time, in 2012, the UN Secretary-General, Mr. Ban Ki-moon, announced the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which we called GEFI.

There were three components to this initiative.

The first one was empowering our future generation through global citizenship.

After hearing about that, I realized it was quite an important topic.

So, I made up my mind.

I decided that I had to do something to include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in the post-SDG and post-MDG agenda.

At that time, we didn't even know what the new framework would be called.

That's why we referred to it simply as the post-global agenda or post-MDG.

From 2012 to 2015 – for those three years – I did my best to incorporate global citizenship into the new agenda.

Finally, in 2015,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as clearly reflected in SDG Target 4.7.

For me, that experience was truly remarkable.

I never expected such a successful result, but I did my very best within UNESCO.

And finally, in September 2015, at the UN, we adopted the beautiful statement of the SDGs.

One of them – SDG 4.7 – emphasize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is how I became connected with ICCGC, global citizenship movements, and international gatherings like this one.

Since 2020, I have joined every year – all five years.

And this year's theme, Global Citizen Summit, has a truly fantastic title.

Do you know the subtitle?

The subtitle is “Global Citizens First.”

Wow.

Very audacious – just like the slogan of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Make America Great Again.”

That was America First.

But here in Korea, in Iksan, today we declare not America First, not Russia First, not China First, not even Korea First, but Global Citizens First.

It means Earth First.

Mother Earth First.

So, this phrase may contain only one or two words, but it carries a very strong implication.

It is a truly passionate slogan.

I love it – Global Citizens First.

But even though we have this beautiful slogan here, we must think about how we can widely persuade, widely include, and widely introduce it to the world – and how to make one big voice together.

That is my lingering question.

Today, we have very eminent scholars, practitioners, religious leaders, and young leaders here.

So, we have to think together about how to make Global Citizens First a living reality in this world.

That's why I am here.

I would like to talk with you and share my thoughts.

Thank you very much.

세계 시민이 우선이다:
가치를 이끌고 인류를 위해 행동하라

정우탁

GPE 한국대표, 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마 '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 단상 앞에 서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유네스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입사했고, 그 후 파리 본부와 방콕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직함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저는 36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을 유네스코 공동체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네스코는 어느새 저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인 2012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님은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EFI)'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었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갈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상을 접한 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굳혔죠. 앞으로 올 '포스트 MDG'와 '포스트 SDG' 의제 속에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말입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국제적 틀이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포스트 글로벌 아젠다' 혹은 '포스트 MDG'라고만 불렀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저는 새로운 국제 의제 속에 '세계 시민 의식'을 녹여내기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2015년,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염원했던 세계 시민 교육은 SDG의 세부 목표인 4.7번에 아주 명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경험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줄은 미처 몰랐지만, 저는 유네스코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9월,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그 아름다운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죠.

그 수많은 목표 중 하나인 SDG 4.7은 바로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는 ICCGC를 비롯한 여러 세계 시민 운동,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국제적인 모임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함께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주제인 '세계 시민 서밋(Global Citizen Summit)'은 정말이지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대회에의 부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세계 시민이 우선이다(Global Citizens First)'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선언이지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만큼이나 강렬합니다.

당시의 구호는 '미국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이곳 대한민국 익산에서, 우리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심지어 한국도 아닌 '세계 시민이 최우선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 말은 곧 지구가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길러준 어머니 지구가 무엇보다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호는 단어 몇 개로 이루어진 짧은 문구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실로 거대하고 강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슬로건이죠.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세계 시민이 우선이다(Global Citizens First)'라는 이 선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을 설득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커다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매우 저명한 학자분들과 현장 실무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청년 리더들이 모여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시민이 우선이다'라는 이 선언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과 깊이 대화하며 제 소박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lobal Citizens First:
Leading with Values, Acting for Humanity

Rev. Doyeon Park

Co-Chair, Committee of Religious NGOs at the United Nations

Thank you, everyone.

In Korean, the word for family is shiku.

I understand this as someone you are eating together with – we consider those people as family members.

So, since we've been eating together for the last couple of days, I will take this time more like a family, a friendly sharing.

And when it comes to family, we all have this juicy family history, right?

Some family members we like to get together with, but with others, we might have those love-and-hate relationships.

So, probably I'm going to share some of my own personal reflections about ICCGC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Especially this year, we're having this conference in Iksan, where Wonkwang University is located – the place where I also studied years ago.

When I came back for this conference, since many of us have been returning to this event year after year, it really feels like a reunion.

I guess many of you may understand that we attend a lot of conferences like this.

For myself as well, in New York City there are so many interfaith gatherings, some of them annual.

And again, when I go to those annual conferences and see familiar faces, I feel more like coming home – talking to people from all different traditions.

But there are also conferences we go to in random places with random people.

And in those spaces, I sometimes feel like I can't really bring my heart to the place.

This ICCGC conference, however, feels different because we have history together.

We've been sharing together, and I feel like finally we are actually talking about all these things.

That means maybe, in our upcoming gatherings, we'll need to have more serious and perhaps more

difficult conversations.

I think we all understand that we already have somewhat open hearts.

We all say we are here for common values – for peace, dignity, and humanity.

But when we go a little deeper, there may be topics and conversations that are not so comfortable to talk about.

Still, I think we need to bring the courage to enter those uncomfortable spaces.

Personally, I feel confident that we are ready for those kinds of conversations as well.

So I can speak for myself – I am ready for some of those juicy, love-and-hate conversations that may be coming forward.

When I first entered these interfaith and multilateral conversations years ago – when I was younger – I would hear all these discussions about world problems.

People from different traditions were talking about their beliefs and worldviews, and I thought, “This whole world has no hope.”

Especially with social media and technology – they connect us, yes – but sometimes we know too much.

Why do I need to know what my friend’s friend is eating, or what kind of car they’re driving?

All those little things I don’t really need to know.

Seeing all that information sometimes feels like distraction.

There are times I’ve felt overwhelmed by hearing all these global problems.

I don’t have any answers to them, of course.

But the painful moment for me is when I see world leaders – at the UN, for example – and people say, “Oh, the UN sh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Honestly, I don’t know if anyone has the answer.

For all these wars happening right now, I don’t think anyone truly has a clear direction for how we can bring peace into the world.

There was a time I felt almost depressed about it.

Interestingly, because I serve as a religious leader, I often meet college students who ask me, “With all these political situations, how can I practice compassion toward these political leaders who are harming the whole world?”

It’s very hard for me to answer.

So I want to share with all of you – my extended family members – that I went through moments of feeling overwhelmed and helpless.

But over time – maybe it’s part of aging, or maybe it’s a fruit of surrendering practice – I now feel more hopeful.

Not because things are getting better, but because I start to see the people around me.

In the past, I used to think, “What can I contribute to the world?”

It’s a good question, but it’s not only about me.

When I look around, there are so many people – like all of you here – who are doing your part in your own places.

Sometimes I feel helpless, but then I see people like you working hard for peace, and that brings me hope.

Let’s be realistic – yes, there are many people creating problems and doing harmful things.

But there are also so many others working hard to bring peace and justice into the world.

So I ask myself a simple question: Where do I want to be?

And the answer is simple – I choose to stand near all of you who want to bring peace into the world.

It’s a humble thing, but at the same time, I see it as my responsibility and my calling in this life.

So I do what I can, in a practical sense.

As a Won-Buddhist teacher, when I go back to my temple in New York City, I’ll share photos and stories of this conference with my temple members.

It may be a small thing, but it’s one way I can share and spread this message.

And we never know where that message will reach.

I often say this simple thing: what makes us healthy are small meals every day.

Everyday small meals give us steady nutrition, but big meals cause problems.

So sometimes I feel like I’m not doing enough, but I remind myself that doing little things every day makes a difference.

As a Won-Buddhist teacher – and just as a human being – I think we often take small things for granted.

But I want to remind all of us that it is the little things that truly make the difference.

For this conference, I’ve shared many ideas with Leo about how we can extend our family circle to include those who aren’t here with us now.

I want us to actively find topics that may make us uncomfortable, and explore how we can deepen those conversations so that we can create real change.

At the end of the day, I believe that wherever you are and whatever you do, if you do your part and I do mine – those little efforts will add up.

And that, to me, is the hope for global citizenship.

Thank you.

세계 시민이 우선이다: 가치를 이끌고 인류를 위해 행동하라

박도연

유엔 종교NGO위원회 공동의장, 컬럼비아대학교 불교협회 지도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어에는 가족을 뜻하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의미하죠.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해온 만큼, 저는 여러분을 이제 가족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격식 없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보고자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다들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사연 하나쯤은 있죠? 좋아서 보고 싶은 가족도 있지만, 애증이 섞인 관계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난 몇 년간 ICCGC를 겪으며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원광대학교가 있는 이곳 익산에서 컨퍼런스를 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네요. 이번 컨퍼런스에 돌아오니, 매년 참석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가족 재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사에 자주 다니시니 잘 아시겠죠. 저 역시 뉴욕에서 수많은 종교 간 모임에 참여하곤 하는데, 매년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하고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물론 때로는 낯선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 컨퍼런스를 치르기도 하죠. 그런 곳에서는 사실 마음을 온전히 쏟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ICCGC는 다릅니다. 우리에게겐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공유해 왔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만남에서는 조금 더 진지하고, 어쩌면 다루기 힘든 주제들도 꺼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서로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평화와 존엄, 그리고 인류애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선뜻 꺼내기 불편한 주제와 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그런 불편한 영역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그런 종류의 대화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애증이 섞인 솔직하고 뜨거운 대화'들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 제가 더 젊었을 때, 처음으로 이런 종교 간 대화나 다자간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의 온갖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듣게 되었죠.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념과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라고요. 특히 소셜 미디어나 기술은 우리를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만듭니다. 친구의 친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까지 제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소소한 정보들입니다. 그런 정보들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때로 정신이 산만해지곤 하죠. 그리

고 세상의 온갖 거대한 문제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은 UN 같은 곳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을 볼 때입니다. 사람들은 '유엔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구에게라도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전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정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이런 세상 상황 때문에 거의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종교 지도자이다 보니 대학생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들이 저에게 묻더군요. '세상을 망치고 있는 저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나요?'라고요. 그 질문에 답하기란 저에게도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확장된 가족인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세상을 보며 압도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던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동안 해온 '내려놓기 수행'의 결실인지는 모르겠지만—저는 이제 전보다 더 큰 희망을 느낍니다.

세상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희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지만, 세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때론 무력감을 느끼지만, 평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볼 때면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맞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해로운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어디에 있고 싶은가?' 그리고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자 하는 여러분 곁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소박한 일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저는 그것을 제 책임이자 이번 생의 소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 해나갑니다. 원불교 교무로서 뉴욕 교당으로 돌아가면, 그곳 신도들과 이번 컨퍼런스의 사진과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퍼뜨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흘러가 누구에게 닿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저는 종종 이 단순한 이치를 말하곤 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매일 먹는 소박한 식사라고요. 매일의 작은 식사는 우리에게 꾸준한 영양을 주지만, 한꺼번에 몰아 먹는 과식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매일매일 해나가는 작은 일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요.

원불교 교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종종 사소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 작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저는 레오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까지 우리의 '가족'으로 어떻게 포용할지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주제들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그 대화를 깊이 있게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저 또한 제 역할을 다한다면, 그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지구촌 시민 공동체를 위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Global Citizens First:
Leading with Values, Acting for Humanity

Rev. Dr. Leo Lefebure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 Co-Chair, ICCGC-CoNGO

Thank you.

I was asked to first say a little bit reviewing this year and then reflect, from the point of academia, on current efforts at building a global civil society, and then throw out some suggestions for where ICCGC could go in the future.

So it may be slightly different from the way you framed it, Dr. Park, but I'd like to begin by emphasizing how important I think it is that young people are here.

I very much appreciated the panel of young people the other day, and I really want to emphasize how important this is as we go forward.

I've also been very impressed by all the presentations, so I want to thank all the speakers and the organizers.

I was asked to speak from the point of academia about what we do to foster global citizens, so I'll talk about what I know best — Georgetown University.

In 1785, Father John Carroll issued a broadside, a public statement, trying to raise funds to set up a new academy in Georgetown.

He had been raised in British colonial America, which had strong anti-Catholic laws.

He knew religiou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He had to go to Europe to get educated, like other Catholics.

And so he proclaimed — before we even opened our doors — that Georgetown would be open to students of every religious profession.

From the very beginning, we had interreligious openness and understanding as part of our mission.

We continue that today.

A few years ago, our president convened a series of meetings asking, “How do we shift from being an international university to a global one?”

There are multiple levels here.

During World War I, our president looked 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ought: “We have enough schools that teach people how to kill each other. We need a school of diplomacy that will help avoid things like the First World War.”

So we set up the first School of Foreign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Now, there’s a whole series of different units at Georgetown that look at various areas around the world. There is the Center for Muslim-Christian Understanding, the Center for Jewish Civilization, and often regional centers that study different regions.

There is also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nd there are constant comings and goings of international leaders.

A few years ago, I was part of a Jewish-Christian class that went to Poland to study the whole trajectory of Jewish-Christian relationships in Poland – not just Auschwitz.

We went to Auschwitz, but it was not only about World War II.

The former president of Poland was teaching on our faculty, and he convened a meeting with us.

We had lunch, and he shared his experiences, helping students gain a broader sense of the world.

On the side of global citizenship, we have a campus in Doha, Qatar.

That campus is not for American study abroad students; it delivers Georgetown’s School of Foreign Service education to students in that part of the world.

I taught there for one academic year.

We had students from India to Europe, from Latin America, and a few from the United States – but it was not mainly U.S. students.

In my own department, we have a Ph.D. program in Religious Pluralism.

We challenge students to look at both the interdisciplinary field of religious studies and comparative theology, and to think about how we understand religious diversity in our world today.

We have the Berkley Center for Religion, Peace, and World Affairs, which holds constant discussions – and many of these are available free online.

I want to mention, especially for the young women I’ve been talking to, that one of the units there is Women and Peacebuilding, led by Catherine Marshall, one of the major international leaders.

She used to be at the World Bank and now teaches at Georgetown.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orums for exploration, and all of us are in a constant state of learning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what it means to be global citizens.

In terms of the future of ICCGC, as Dr. Park mentioned, I’ve been involved from the beginning.

I was asked to speak in 2020 about “What is the future of religion after COVID?”

That question got my own mind thinking in new ways.

I thought about the experience of Prince Siddhartha being awakened by the four sights – and how that could be comparable to what the world went through during the pandemic – gaining a new sense of

impermanence and interdependence in multiple dimensions.

So I very much appreciate what we've done over these last six years.

Going forward, one of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is: Who will be in future ICCGC meetings?

To date, we've largely been Buddhist and Christian.

It's largely been East Asia, the United States, and some from Europe — and this has been very good.

Last year at the UN Church Center, we had Jewish and Muslim speakers, but overall, it's still been mostly a Buddhist-Christian conversation.

We had a question this time about Muslim participation, and this is one thing I'd like to propose for the organizers to consider.

One of the most important — and sometimes most problematic — relationships in the world is between Muslims and Buddhists.

I was part of a triadic Christian-Buddhist-Muslim dialogue co-anchored by Ryukoku University in Kyoto, the University of Münster in Germany, and Georgetown.

In that dialogue, Buddhists, Muslims, and Christians came together to look at both historical and contemporary relationships.

This would be an important area for ICCGC to consider.

Another topic we discussed was people who do not identify as religious — whether they call themselves “spiritual but not religious,” “nones,” or any other label.

How can we reach out from our religious foundations to those who do not identify as religious?

In terms of themes, one idea I'd like to raise is migration.

As global climate change intensifies, I think the migration issue is going to explode.

Some islands in the Pacific may disappear.

Parts of Bangladesh may go underwater.

As the Sahel Desert moves further south, there will be refugees on a scale we are not prepared for.

The danger is that refugees and migrants can spark a new round of ethno-religious nationalism in many countries — where religious identity mingles toxically with ethnic or racial identity as a reaction.

I think this challenge will stay with us for the foreseeable future.

On the positive side, we heard from Yunsan Troi on the first night, and from the Won Dharma Master this morning, about the idea of One Community.

This is also part of Catholic teaching.

The Declaration on the Relationship of the Church to Non-Christian Religions from the Second Vatican Council begins by affirming: All nations and all peoples form one community.

But what does that mean?

Because it's so clearly contradicted by many of the things going on in the world today.

We need to think about this – both philosophically and theologically – and also in conjunction with the social sciences.

What is a healthy unity?

We have a long history of unhealthy, imposed forms of unity.

How can we shape a healthy community among the world's religions?

Those are a few thoughts.

Thank you.

세계 시민이 우선이다: 가치를 이끌고 인류를 위해 행동하라

레오 르페뷔르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ICCGC-CoNGO 공동의장

감사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학술적 관점에서 지구촌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재의 노력들을 성찰한 뒤, 앞으로 ICCGC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 박사님(Dr. Park)께서 말씀하신 구성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자리에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청년 패널들의 토론을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의 모든 발표 내용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주최 측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 있는지 말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아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785년, 존 캐롤(John Carroll) 신부는 조지타운에 새로운 학교를 세우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자 '브로드사이드(broadside)'라 불리는 공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는 가톨릭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던 영국 식민지 치하의 미국에서 자랐기에, 종교적 편견과 차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다른 가톨릭 신자들처럼, 그 역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가야만 했죠.

그래서 존 캐롤 신부는 학교 문을 열기도 전에, 조지타운 대학교는 그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종교 간의 개방성과 이해'는 우리 학교 미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죠.

몇 년 전,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순히 국제적인 대학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묻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총장님은 국제 상황을 지켜보며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미 충분히 많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

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외교 학교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최초의 외교학부(SFS)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조지타운에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을 연구하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슬람-그리스도교 이해 센터, 유대 문명 센터, 그리고 각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학 센터들이 있죠.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도 있으며, 이곳에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유대교-그리스도교 합동 수업의 일환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폴란드 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관계의 전체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아우슈비츠도 갔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만 국한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전직 대통령께서 저희 교수진으로 계셨는데, 저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셨고, 덕분에 학생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카타르 도하에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미국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곳이 아닙니다.

중동과 그 주변 지역 학생들에게 조지타운 외교학부(SFS)의 전문 교육을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죠. 저도 그곳에서 일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인도에서 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소수의 미국인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지만, 주된 구성원은 미국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종교 다원주의' 박사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종교학의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연구와 비교 신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을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희에겐 종교와 평화, 세계 문제를 연구하는 버클리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끊임없이 토론이 열리며, 그중 많은 자료가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대화를 나누었던 젊은 여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곳의 주요 부서 중 하나가 바로 '여성과 평화 구축'입니다. 세계은행에서 활동하셨던 세계적 리더 캐서린 마샬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죠.

이처럼 조지타운에는 탐구를 위한 다양한 장(forum)이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지구촌 시민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ICCGC의 미래와 관련하여,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모임의 시작부터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이후 종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질문은 저 스스로도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고민하게 만든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싯다르타 왕자가 네 가지 풍경(사문유관)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던 그 경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으며 통과했던 시간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함'과, 우리 모두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의존성'을 여러 차원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지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일궈온 모든 활동과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ICCGC 모임에는 누가 함께하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불교와 그리스도교 신자들 위주였고, 지역적으로도 동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훌륭한 시작이었죠. 작년 유엔 교회 센터(UN Church Center) 모임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연사분들을 모시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불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이슬람교의 참여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 주최 측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갈등이 빈번한 관계 중 하나가 바로 이슬람교와 불교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전에 일본 류코쿠 대학교, 독일 윈스터 대학교,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그리스도교-불교-이슬람교 3자 대화'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 종교의 대표들은 역사적, 현대적 관계를 두루 짚어보았죠. 이러한 주제는 우리 ICCGC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또 다른 주제는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 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종교는 없지만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무종교인(nones)'이라 칭하는 분들 말이죠. 우리가 가진 종교적 토대를 바탕으로,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앞으로 다룰 주제 면에서, 저는 '이주(migration)' 문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주 문제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태평양의 어떤 섬들은 아예 사라질지도 모르고, 방글라데시의 일부 지역은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사헬 사막이 점점 남쪽으로 넓어지면서,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난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점은, 난민과 이주민의 이동이 많은 국가에서 '민족·종교적 민족주의'를 새롭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적 정체성이 인종이나 민족적 정체성과 독성 있게 뒤섞여 배타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저는 이러한 도전 과제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동안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짚어보자면, 첫날 밤 윤산 트로이 님과 오늘 아침 원불교 정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말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현실과 어긋나 보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철학적, 신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관점과 결합하여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건강한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에 강요된 방식의, 건강하지 못한 통합을 겪어온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 세계 종교들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lobal Citizens First:
Leading with Values, Acting for Humanity**

Dr. Roberto Catalano

Former Co-Director, Focolare Movement's Center for Interreligious Dialogue in Rome

Thank you to the colleagues, friends, brothers, and sisters who spoke before me.
I deeply share practically all their visions and also all their feelings.

I would like to give you two main points.

The first point is something I reflected upon before coming to this conference.

This is the third time that I participate in this kind of gathering — after Seoul two years ago, New York City last year, and now this year.

What I noticed, in a very positive way, is that we are progressively creating a strong core group of people who are truly committed to the cause of global citizenship.

If I have learned something from interfaith dialogue over these years — more or less three decades of involvement — it is that in order to create a core group of this kind, we require time.

We cannot hurry.

Of course, we must act, but we also need patience — the patience required to create what Pope Francis calls the culture of dialogue, the culture of inclusion, and the culture of accepting each other.

Now, coming to the title of this year's conference, I was struck, like my first colleague, by these three words: Global Citizens First.

Exactly because this phrase goes against the current trend at the geopolitical level, where the main motives driving political life — or rather anti-political life — today are nationalism and exclusion.

I feel that this is truly a priority.

As a member of a faith-based organization, I am called — and we are all called — to grow as global citizens above all.

We have a greater responsibility to form global citizens in our institutions and environments.

Indeed, all faiths invite us to step outside our own small worlds and to come out of the box.

This move helps us look at the whole world — the entire universe.

Faith never teaches us to be self-referential or exclusivist.

Rather, it opens us to the world – to other cultures, to men and women who are different from us, and even to nature – inviting us to build relationships not only with human beings but with all living beings.

I think each of us could quote passages from the sacred texts of our own faith that invite openness and condemn closure.

In the history of humanity, it was never faith or spirituality that became closed; rather, religions were the ones that closed down.

Religions were born from these spiritual dimensions but were shaped by men and women from specific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ontexts who later rejected openness to others and to creation.

So,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many of us in these days spoke about spirituality rather than religion.

Probably, we should continue to emphasize this distinction more and more in our efforts to create this core group.

Now, I will share three elements regarding our conference and some proposals for the future.

First, as much as it has already been mentioned, I was both impressed and very happy about the presence of youth.

Nevertheless, we have to be careful not to run the risk of confining youth participation to only one panel made by young people.

I would personally like to involve youth in different panels.

Today,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dialogue is not necessarily between religions, or between Christian denominations, or even between believers and non-believers.

It is among generations – within religions and within cultures themselves.

So, I would involve the viewpoint of youth in the same panels along with adults.

This, I believe, would be a great asset for the success of the events we will organize in the future.

Second, I speak here as a representative of a faith-based organization – but all of us, in some way, represent faith-based organizations.

Some of these organizations were founded as waves of spirituality by pioneers of dialogue – prophets of our age.

One Buddhism itself, which is hosting this event, is such a phenomenon.

Rissho Kosei-kai was also present here.

I belong to the Focolare Movement, and in the same way, I deeply appreciate that some of us have come with our students, followers, and younger generations.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to network more and more with these people.

For instance, today, there were also some of the Hizmet followers of Islam, which represents another wave of spirituality within Islam – one that is very active in renewal and dialogue.

I would encourage this networking, because it will broaden our spectrum of dialogue and increase our possibilities for forming global citizens.

Why not start studying the common elements among these faith-based organizations?

This will help us become more aware of our similarities and therefore walk — and work — together for the creation of global citizens.

These are just a few thoughts, shared at random, as we look toward the future.

Thank you.

세계 시민이 우선이다: 가치를 이끌고 인류를 위해 행동하라

로베르토 카탈라노

소피아대학교 교수, 前 로마 포콜라레운동 종교간대화센터 공동 소장

앞서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동료와 친구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제시하신 거의 모든 비전과 그 속에 담긴 감정들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컨퍼런스에 오기 전 제가 깊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2년 전 서울, 지난해 뉴욕, 그리고 올해까지 저는 이런 종류의 모임에 세 번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느낀 점은, 우리가 '지구촌 시민 의식'이라는 대의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강력한 핵심 그룹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런 종류의 핵심 그룹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행동도 해야겠지만, 우리에게서 인내심 또한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화의 문화', '포용의 문화',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문화'를 일구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인내심 말입니다.

이제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앞선 동료분처럼 '세계 시민이 우선이다(Global Citizens First)'라는 세 단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구호가 오늘날 지정학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치, 아니 오히려 '반(反)정치'적인 삶을 움직이는 주된 동력은 민족주의와 배척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세계 시민'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정말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기관과 환경 속에서 세계 시민들을 길러내야 할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신앙은 우리에게 각자의 작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고 권유합니다.

이러한 발걸음은 우리가 세상 전체, 나아가 온 우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를 우리만의 세계에 갇히게 하거나 남을 배척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줍니다. 다른 문화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대자연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죠. 그리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앙 경전 속에서 '열린 마음'을 권장하고 '폐쇄성'을 경계하는 구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결코 신앙이나 영성 그 자체가 폐쇄적으로 변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폐쇄적으로 변한 것은 '종교'들이었죠.

종교는 본래 이러한 영성적 차원에서 태어났지만, 특정한 역사적·지리적 맥락 속에 있던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다듬는 과정에서 타인과 대자연을 향한 열린 마음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며칠 동안 우리 중 많은 분이 '종교'라는 단어보다 '영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시는 것을 보며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핵심 그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영성과 종교의 차이'를 더욱더 강조하며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컨퍼런스와 관련한 세 가지 핵심 요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저 역시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준 것이 무척 인상 깊었고 기쁩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참여를 단순히 '청년들끼리만 모인 세션' 하나에 가두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행사의 다양한 주제별 패널들에 골고루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화에 있어 가장 커다란 도전 과제는 반드시 종교 사이나 그리스도교 종파 간, 혹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세대 간에 있습니다. 같은 종교, 같은 문화권 안에서조차 세대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조직할 행사에서 청년들의 시각을 성인들과 같은 패널에 포함해 함께 논의하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열게 될 행사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서 한 신앙 기반 단체의 대표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이든 각자의 단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체들 중 일부는 우리 시대의 예언자라 할 수 있는 대화의 선구자들이 일으킨 '영성의 파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원불교 자체가 바로 그런 현상이며, 이 자리에 함께한 입정교성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속한 포콜라레 운동도 그러하죠. 저는 우리 중 누군가가 자신의 제자나 추종자들, 그리고 젊은 세대와 손을 잡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해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낍니다.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를 점점 더 넓혀나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는 이슬람 내에서 쇄신과 대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또 하나의 '영성의 파도'를 보여주고 있는 히즈멧(Hizmet) 추종자분들도 와 계시죠. 저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화 범위가 넓어지고, 진정한 세계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기반 단체들 사이에 흐르는 공통된 요소들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세계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진정으로 함께 걷고, 함께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며 떠오른 몇 가지 생각들을 두서없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lobal Citizens First:
Leading with Values, Acting for Humanity**

[Youth] Ms. Natalie Sum Yue Chung

Ph.D Candidate, Princeton University

Thank you so much.

Hi, everyone. I'm Natalie Chong, and I am currently pursuing my Ph.D. in Climate Change Policy at Princeton University.

Today, it is my greatest honor to speak at the ICCGC-CoNGO conference.

This is actually my first time hearing about this event, and I am truly grateful to the organizers for inviting me.

It really opened the door for me to this interfaith and multilateral platform – a strong coalition that connects humanity and nature, and helps us rediscover the potential of humanity as one community.

As one of the professors said earlier, we must come together to solve many of the emerging global challenges.

Before I begin my presentation, I'd like to share a few initial anecdotes about interfaith dialogue, community, and the role of faith in my own life.

I am from Hong Kong, and I completed my undergraduate studies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At my university, we had a very special compulsory subject for all first- and second-year undergraduate students called In Dialogue with Nature and In Dialogue with Humanity.

For the course In Dialogue with Humanity, every student was required to study core texts from major faiths and philosophies – including the Heart Sutra of Buddhism, the Bible of Christianity, and the Qur'an of Islam.

Through studying these texts, we learned to perceive both faith and the power of humanity.

We also explored the question of “finding ourselves” and understanding our place in society.

We read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Plato's Symposium, and Confucius' Analects, as well as The Wealth of Nations by Adam Smith.

It was a truly comprehensive curriculum that shaped my early understanding of different faiths.

More recently, at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held in Dubai,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a very special “Faith Pavilion.”

Before that, although I had already been working on climate issues for more than ten years, I never realized how deeply faith-based organizations were engaged in the global climate movement.

I was genuinely touched by how the Faith Pavilion brought together people from different religions, showing their collective power to address the world’s crises.

Over the past few days at this conference, I have been reminded of several key insights shared by various speakers – including the idea of “one community.”

This reminded me of Peter Singer’s moral framework of “One World,” which redefines the moral boundaries of global citizenship beyond nations and geopolitics.

Another idea that resonated with me was Thich Nhat Hanh’s teaching on mindfulness and ethical consumption, which connects deeply with how individual actions can ripple out to create social change.

Personally, before starting my Ph.D. journey, I worked as a climate movement organizer and advocate in Asia – mainly based in Hong Kong and parts of mainland China.

Last year, I began my research at Princeton, focusing on climate adaptation, especially the challenges faced by Pacific Island nations that are severely affected by extreme weather events.

I also founded my own environmental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brings together people from different communities to help address the climate crisis.

One of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s of my life was traveling to Antarctica on a climate expedition.

There, I had the chance to learn about the ecology of the southernmost region of the world – the South Pole.

This journey deeply connected me with my sense of spirituality as I observed how life persists in a place where no humans inhabit.

For example, this penguin you see here is called the Chinstrap Penguin – it has a distinct black strap under its chin.

I also saw Gentoo Penguins, which are known for their long tails and their ability to move swiftly underwater.

In addition, I encountered Weddell seals resting on the ice sheets – a truly mesmerizing sight.

However, what struck me most was not these adorable animals, but a very tiny species that looks like shrimp.

These creatures are called Antarctic krill.

They are small, transparent, pinkish marine organisms that grow only about two to six centimeters long.

Krill are crucial to the Antarctic ecosystem – they feed on phytoplankton produced through photosynthesis, and in turn, they are the primary food source for whales, seals, and penguins.

Unfortunately, krill populations are now facing serious threats.

They are highly sensitive to rising ocean temperatures, and under climate change, their numbers have already declined by 20-30%.

Another major issue is illegal commercial fishing in Antarctic waters – driven by the global demand for krill oil, which is believed to have health benefits.

However, there is an alternative: algae oil.

In fact, the nutrients in krill oil originally come from the algae they consume – not from the krill themselves.

This shows how ethical consumption is directly linked to ecosystem balance and sustainability.

We also conducted microplastic research during our expedition.

We collected ten surface water samples from the Southern Ocean – the waters surrounding Antarctica – and found microplastic traces in all of them.

This discovery was shocking.

Even in regions with no human habitation, the impacts of human activity are visible.

Microplastics have entered fish, seafood, and even the blood of newborn babies.

This demonstrates that our planet truly functions as one interconnected system.

The oceans in Korea, for example, are linked to the Southern Ocean – circulating plastic waste around the globe.

These findings reminded me how small and seemingly insignificant humans are – yet how profoundly powerful our actions can be.

Our behavior reaches even the most remote corners of the Earth.

There is a diagram I often find inspiring, created by a scientis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t shows overlapping “waves” of global crises – the first being COVID-19, followed by economic recession, then climate change, and behind it, biodiversity collapse.

Recently, an additional wave has been added: war.

Conflicts between nations are worsening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causing famine, agricultural losses, and destruction of infrastructure.

These overlapping crises show that while we tend to focus on immediate issues like pandemics, much larger and longer-lasting waves of impact are already unfolding.

A brief personal story: when I was eleven years old, I was inspired by Dr. Rebecca Lee, the first woman in the world to visit the North Pole, South Pole, and Mount Everest.

She gave a school talk and used a powerful metaphor – she said, “The Earth is trapped in a microwave, with rising temperatures.”

That vivid image stayed with me ever since.

I drew it in my school project, and it eventually became one of the seeds of my lifelong commitment to climate advocacy.

Living in Hong Kong – an “urban jungle” much like Seoul – I later realized how disconnected we are

from nature.

There are many hidden pockets of biodiversity within cities, yet people rarely notice them.

I learned that to inspire environmental action, we must first rebuild the human-nature connection.

We cannot protect what we do not love.

This belief led to the founding of my organization, which has organized more than 300 eco-tours and environmental workshops, reaching over 80,000 people.

Recently, we collaborated with Hong Kong Disneyland to create an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rough this initiative, children learn about biodiversity and renewable energy – discovering that fun and learning can coexist.

As we approach 2030 – the target year for the SDGs – it’s clear that many goals remain unmet.

So what comes next?

One emerging framework is called Regenerative Development.

While sustainability aims to “do no further harm,” regeneration goes further – it focuses on restoring and enriching ecosystems that have already been damaged.

We must create solutions that are inspired by nature, that heal the Earth rather than merely sustain it.

For example, some solar panel designs are modeled after sunflower seed pods – a concept known as biomimicry – where technology learns from natural forms.

Another useful framework is Doughnut Economics, proposed by Dr. Kate Raworth, my lecturer during my time at Oxford.

It envisions a circular model – the outer ring represents the ecological boundaries of our planet, and the inner ring represents the foundation for human well-being, including food, shelter, and health care.

It’s not just about ecology; it’s about equitable development and human dignity.

Recently, I visited Cheonggyecheon Stream in Seoul, a successful example of nature-based solutions.

Unlike many concrete flood channels in Hong Kong, this restored urban stream integrates both safety and recreation – closing during floods, but reopening as a public space for people to connect with nature.

It’s an inspiring model that is now being studied and referenced by urban planners around the world.

So how do we begin?

For the younger generation, I believe the first step is to find your “why.”

Discover what inspires you – whether it’s peacebuil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or social justice.

Then, seek your own path of impact.

Educate yourself, start small projects, and gradually build initiatives that can expand into movements.

I want to close with this image – Earthrise, taken by Apollo 8 astronauts when they first saw Earth from the Moon.

It reminds us of our shared home and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From space, we see that Earth is not limitless.

It has boundaries, fragile ecosystems, and finite resources.

As one astronaut said, “There are no passengers on spaceship Earth – we are all crew.”

We are all on board together in this mission to protect our planet, to build peace, and to strengthen the bonds within our interfaith global community.

Thank you again for having me at ICCGC.

세계 시민이 우선이다:
가치를 이끌고 인류를 위해 행동하라

나탈리 섬 유에 청

프린스턴대학교 박사과정, 前 COP25 홍콩 대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 청입니다. 저는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후 변화 정책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ICCGC-CoNGO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사실 이번 행사에 대해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저를 초대해주신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종교 간의 화합과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 소중한 장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류와 자연을 연결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진 잠재력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강력한 연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대두되는 수많은 지구촌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종교 간의 대화와 공동체, 그리고 제 삶에서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몇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왔고,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학부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모든 1, 2학년 학부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과목이 있었는데, 바로 '자연과의 대화'와 '인류와의 대화'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인류와의 대화'라는 수업에서, 모든 학생은 불교의 반야심경, 그리스도교의 성경, 이슬람교의 꾸란 등 주요 종교와 철학의 핵심 텍스트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이 텍스트들을 공부하며 우리는 신앙의 깊이와 인류가 가진 힘을 모두 깨달을 수 있었죠.

또한 '나 자신을 찾는 것'과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플라톤의 향연, 공자의 논어,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읽었죠.

서로 다른 신앙과 가치관에 대한 저의 초기 이해를 형성해 준, 정말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했을 때, '종교 파빌리온(Faith Pavilion)'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넘게 기후 문제를 다뤄왔지만, 종교 기반 단체들이 지구촌 기후 운동에 이토록 깊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그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저는 여러 연사가 공유해주신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포함해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들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 세계 시민의 도덕적 범위를 새롭게 정의한 피터 싱어의 '하나의 세계(One World)'라는 도덕적 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또 다른 아이디어는 탁났한 스님의 '마음챙김과 윤리적 소비'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파동처럼 퍼져나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연결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기 전 저는 홍콩과 중국 본토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 운동 조직가이자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작년부터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특히 극심한 기후 이변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기후 적응'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서로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기후 위기 해결을 돕는 환경 비영리 단체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경험 중 하나는 기후 탐사 대원으로 남극을 다녀온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구의 가장 남쪽 끝인 남극 지역의 생태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죠. 인간이 전혀 살지 않는 그곳에서 생명이 어떻게 끈질기게 살아남아 이어져 가는지를 지켜보며, 저는 제 내면의 영성과 아주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이 펭귄은 '턱끈펭귄'입니다. 턱 아래 검은색 끈 모양의 무늬가 아주 뚜렷하죠.

저는 또 '젠투펭귄'도 보았는데, 이들은 꼬리가 길고 물속에서 굉장히 민첩하게 헤엄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빙판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웨델바다표범'과도 마주쳤는데, 정말 낮을 잃고 바라볼 만큼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방금 본 귀여운 동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우처럼 생긴 아주 작은 생물이었죠.

'남극 크릴'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몸길이가 겨우 2~6cm 정도밖에 안 되는 투명하고 분홍빛이 도는 작은 해양 생물입니다.

하지만 크릴은 남극 생태계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며, 거꾸로 고래와 바다표범, 펭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먹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크릴새우 개체군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해수온 상승에 매우 민감한데, 기후 변화로 인해 이미 그 수가 20~30%나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남극 해역에서의 불법 상업적 조업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크릴 오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때문이죠.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조류 오일(algae oil)'입니다. 사실 크릴 오일의 영양분은 크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미세조류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윤리적 소비'가 생태계의 균형 및 지속 가능성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희는 탐사 기간 동안 미세플라스틱 연구도 병행했습니다.

남극 대륙을 둘러싼 남극해의 표층수 시료 10개를 채취했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미세플라스틱은 물고기와 해산물은 물론,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의 혈액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는 우리 지구가 진정으로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바다는 남극해와 연결되어 전 세계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순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저에게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도 보여주었죠.

우리가 하는 사소한 행동조차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딴곳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 과학자가 만든 도표에서 큰 영감을 얻곤 합니다.

그 도표는 중첩된 지구촌 위기의 '파도'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파도인 코로나19를 시작으로 경제 침체, 기후 변화, 그리고 그 뒤로 생물다양성 붕괴가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전쟁'이라는 파도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은 농업 손실과 인프라 파괴, 기근을 일으키며 기후 변화의 폐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죠.

이처럼 중첩된 위기들은 우리가 팬데믹 같은 당장의 현안에만 몰두하는 사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하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진 파도들이 이미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의 짧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1살 때, 세계 최초로 남극과 북극, 그리고 에베레스트산을 모두 정복한 여성 탐험가 리베카 리 박사님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학교 강연에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지구는 지금 전자레인지 속에 갇혀 있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요.

그 생생한 이미지는 그 후로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 과제물에 그 그림을 그렸고, 그것은 결국 제가 평생 기후 옹호 활동에 헌신하게 만든 소중한 씨앗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매우 흡사한 '빌딩 숲'인 홍콩에 살면서, 저는 나중에야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시 안에도 생물다양성이 숨어 있는 작은 공간들이 참 많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저는 환경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결코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저의 단체 설립으로 이어졌고, 저희는 지금까지 300회 이상의 생태 투어와 환경 워크숍을 조직해 8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홍콩 디즈니랜드와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생물다양성과 재생 에너지에 대해 배웁니다.

즐거움과 배움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발견해 나가면서 말이죠.

SDGs의 목표 연도인 2030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많은 목표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최근 떠오르는 개념 중 하나는 '재생적 개발(Regenerative Development)'입니다.

기존의 지속 가능성이 '더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집중했다면, 재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손상된 생태계를 복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지구를 치유하는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바라기 씨앗의 배열을 본떠 만든 태양광 패널처럼, 기술이 자연의 형태에서 배우는 '생체 모방(biomimicry)'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 다른 유용한 분석 틀로 '도넛 경제학'이 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케이트 레이 워스(Kate Raworth) 박사님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 모델은 원형 구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도넛의 바깥쪽 고리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의미하고, 안쪽 고리는 음식, 주거, 의료 서비스와 같은 인간 복지의 토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태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공평한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최근 저는 서울의 청계천을 방문했습니다. '자연 기반 해법'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죠.

홍콩의 수많은 콘크리트 홍수 수로들과는 달리, 이 복원된 도심 하천은 안전과 휴식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홍수가 나면 출입을 통제해 안전을 도모하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다시 열리죠.

이는 현재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이 연구하고 참고하는 아주 영감을 주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젊은 세대에게 있어 그 첫걸음은 바로 자신만의 '이유(Why)'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구축이든, 환경 보호든, 사회 정의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길을 찾아보십시오.

스스로 배우고,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을 쌓아가다 보면, 그것들은 점차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운동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아폴로 8호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처음 지구를 보았을 때 찍은 '지구돋이(Earthrise)'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의 집'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고, 연약한 생태계와 유한한 자원을 지닌 곳이죠. 한 우주비행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선 지구호에 승객은 없다. 우리 모두가 승무원이다'라고요.

지구를 지키고 평화를 일구며, 우리 종교 간 지구촌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해 나가는 이 소중한 사명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ICCGC 측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최 :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대학사업단
WONKWANG UNIVERSITY